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백서

The Report on World Heritage Inscription Process of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백서

The Report on World Heritage Inscription Process of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DÜNYA İRS KOMİTƏSİNİN  
43-CÜ SESSİYASI  
BAKİ, AZƏRBAYCAN

30 iyun - 10 iyul, 2019

43<sup>RD</sup> S  
WORLD H  
BAKİ

30 JU



2019년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 소수서원 · 남계서원 · 옥산서원 · 도산서원 · 팔  
문화재청 · 대구광역시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





SESSION OF THE  
HERITAGE COMMITTEE  
U, AZERBAIJAN

JUNE - 10 JULY, 2019

43<sup>E</sup> SESSION DU COMITÉ  
DU PATRIMOINE MONDIAL  
BAKOU, AZERBAÏDJAN

30 JUIN - 10 JUILLET, 2019



Ministry of Cultur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 케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정

암서원 · 도동서원 · 병산서원 · 무성서원 · 돈암서원 -

장남도 · 논산시 · 정읍시 · 경주시 · 안동시 · 영주시 · 달성군 · 장성군 · 함양군



## 유네스코 로고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로고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 inscribed on the World  
• Heritage List in 2019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유네스코’ 로고와 의미

서양 문명의 발원지인 고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떠 만들.  
과학, 학문 그리고 문화를 대표하는 신전의 형상에 유네스코의 조직명을 여섯 개의  
기둥으로 세워짐.



### ‘세계유산’ 로고와 의미

세계유산 로고는 세계유산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유산이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및 세계유산협약이 지향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



- 가운데 사각형 :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상징
- 바깥 원 : 자연을 상징
- 전 체 :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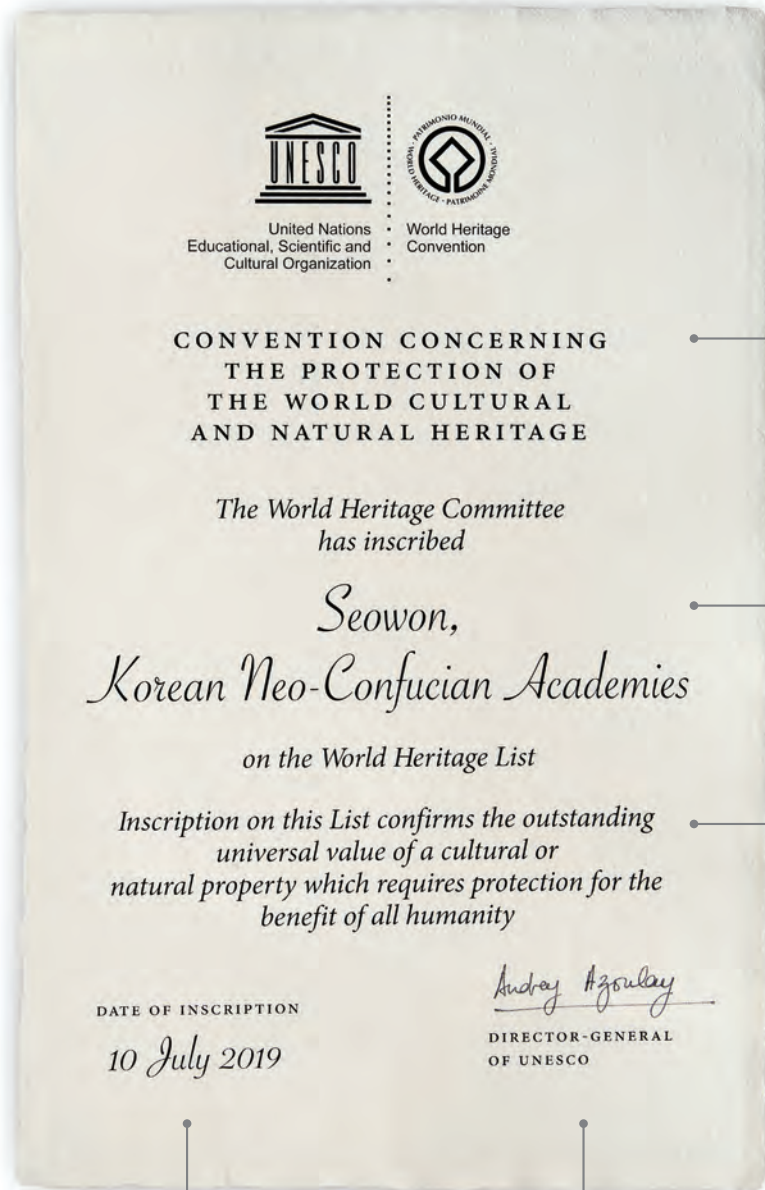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로고의 둥근 형태는 세계를 나타내며, 온 인류가 함께하는 세계유산 보호 의지를 담고 있음.

세계유산목록 「한국의 서원」 로고는 하단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영문명과 등재  
연도가 함께 명시.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인증서(2019. 7. 10)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세계유산위원회는  
서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다.

이 목록의 등재는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문화 또는  
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한다.

등재일자  
2019년 7월 10일

오드레 아줄레 (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서명



# 한국의 서원

## 세계유산목록 등재 백서

2019년 7월 6일 토요일 오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시대 교육 기관인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한국에서 14번째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이 전 세계인의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서원」은 총 9곳으로, 소수서원(경북 영주), 남계서원(경남 함양),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필암서원(전남 장성), 도동서원(대구 달성), 병산서원(경북 안동), 무성서원(전북 정읍), 돈암서원(충남 논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입니다.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된 것은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인성의 중시, 선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수려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 상호간의 소통을 기초로 한 전통 성리학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010년 9월 제가 국가브랜드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구상하여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많은 분들의 지지와 함께 2011년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2019년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되기까지 9년 동안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2016년 한차례 철회를 하기도 하였으나 우리의 집념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오늘날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귀한 결실이 있기까지 함께해 주신 경북·경남·충남·전북·전남 도지사님, 대구광역시장님, 그리고 영주·안동·논산·정읍·경주시, 달성·장성·함양군의 단체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이배용



립니다. 또한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과정에 지극한 정성을 다해주신 문화재청과 9개 서원 협의회 여러분, 아울러 전문위원, 집필진 선생님들, 그리고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9개 서원에 대한 통합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9개 서원 관계자 및 전문가 분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 백서 발간은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하는 과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 백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이어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서원」을 향한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늘 감사드리며, 백서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6.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이배용



# 한국의 서원

## 세계유산목록 등재 백서

### 목차

#### 1장.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0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	16
02. 잠정목록 대상 서원 점검과 가치 도출 .....	18
03.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과 등록 .....	21

#### 2장.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발족과 활동

0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발족과 MOU 체결 .....	32
02.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운영과 활동 .....	36
1) 국내·국제 학술회의 .....	36
2) 기초학술연구 진행 .....	48
3) 행정위원회·전문위원회·9개서원운영위원회의 활동 .....	59
4) 기타 기초 조사연구 사업 .....	63
03.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 .....	67
1) 유네스코 세계유산 2015년 등재 신청 후보 선정 .....	67
2)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대상 선정 사유 .....	68
04.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족 .....	70
1) 통합관리 조직의 필요성 .....	70
2) 통합관리단의 설립 과정 .....	71
3) 추진단과 통합관리단의 공통점과 차이점 .....	75

### 3장.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제출과 철회

01.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	78
1) 등재신청서(보존관리계획서 포함) .....	78
2) 부속자료(도면 및 사진집, 도록 3종, 서원총서, 홍보영상) .....	82
02. 등재신청서 제출을 위한 최종 검토 과정 .....	87
1) 국외전문가 초청 검토 .....	87
2) 등재신청서 초고 세계유산센터 제출 .....	91
3) 등재신청서 논의 회의 .....	95
03.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	97
1)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	97
2) 현지실사 대비 예비실사 .....	98
3) 이코모스 현지실사 .....	119
04.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철회 .....	133
1) 추가 보완자료 요청과 작성 .....	133
2) 보완자료 제출과 등재신청서 철회 결정 .....	143

### 4장.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과 이코모스 자문실사

01.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 결정 .....	148
1) 등재신청서 철회 이후 논의 과정 .....	148
2) 등재 재추진 의결 .....	150
3)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주요 활동 .....	151
02. 이코모스 자문실사 시행과 이행 .....	164
1) 자문실사를 위한 실무협의 .....	164
2) 자문실사 시행 .....	165
3) 자문실사 권고사항과 이행 .....	178



**5장.**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재작성과 제출

01. 등재신청서 재작성 .....	188
1) OUV 및 비교분석 작업 .....	188
2) 보존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 .....	191
3) 비교분석을 위한 해외 유사유산 답사 .....	193
4) 등재신청서 정리 작업 .....	199
02.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 .....	202
1) 등재신청 후보 선정 .....	202
2) 등재신청 대상 선정 .....	203
03. 등재신청서 최종 검토 과정 .....	204
1) 문화재위원 등재신청서 검토회의 .....	204
2) 등재신청서 초고 제출과 회신 .....	205
3) 등재신청서 최종 교정 작업 .....	206
04. 등재신청서 제출 .....	207
1)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제출 .....	207

**6장.**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심사

**목차**

01. 국내·외 전문가 예비실사 .....	210
1) 워크숍 및 현장점검 .....	210
2) 국외 전문가 예비실사 .....	213
3) 현지실사 준비 .....	223
4) 국내 전문가 예비실사 .....	224
02. 이코모스 현지실사 .....	228
1) 개요 .....	229
2) 신청유산 개요 브리핑 .....	229
3) 서원별 현지실사 .....	233
4) 현지실사 총평 .....	253
5) 현지실사 이후 요청자료 .....	255
03. 이코모스 추가 요청자료 .....	255
1) 이코모스 1차 보완자료 작성 .....	255
2) 당사국 면담 .....	259
3) 이코모스 2차 보완자료 작성 .....	260

## 목차

### 7장.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01. 등재 권고 .....	266
02. 등재 결정 .....	270
1)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	270
2) 세계유산목록 등재 결정 .....	272
03. 등재 언론 보도 .....	285
04. 등재 기념식 .....	287
1) 등재 인증서 전달식 .....	287
2) 등재 기념행사 .....	289
3) 각 서원별 등재기념식과 표지석 제막식 .....	293
4) 등재 기념 고유문 .....	293

### 8장.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가치

01. 개요 .....	310
1) 일반 정보 .....	310
2) 개별 서원 설명 .....	313
3) 비교분석 .....	331
02. 탁월한 보편적 가치 .....	332
1) 등재 기준 .....	332
2) 완전성 및 진정성 .....	334
3) 관리와 보호요건 .....	335



9장.  
「한국의 서원」  
현재와 미래

01. 등재 결정문 .....	338
02.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	344
1) 법률에 의한 보존관리 현황 .....	344
2) 문화재 종합정비 계획 수립 .....	345
3) 문화재 보존관리 계획 수립 .....	346
4) 관리 주체와 역할 .....	347
03.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기능과 역할 .....	349
1) 연속유산 보존관리의 기본 방향 .....	349
2)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조직 구성 .....	350
3)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역할 .....	353

부록

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추진 주요 내용 .....	358
2.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 이배용 이사장 .....	360
3.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의 문화유산 가치 / 이상해 교수 .....	381
4. 「한국의 서원」,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 / 이해준 교수 .....	402





凡我夜寐咸懷南塘  
雖端而齋處漸地無竹  
其間猶以整之或省舊貌  
或始新得次第條理瞭然  
默識本既立矣味莫乃與  
盤柳水冠端坐啟形提燈  
此心熾如出日展前壁齊  
虛明靜一乃啓方冊對越  
聖蹟夫子在坐顧曾復先  
聖師所言親切敬聽弟子  
同辨及復來訂書至期應  
則驗于高明會錄終當日  
在之書應就已我則如故  
方寸湛然神思虎動如靜  
備懷惟心是歸靜存動第  
勿武勿參讀書之餘同以  
游深覺舒精神休養情性  
日暮人倦感氣易乘焉滋  
禁得振振精明夜久斯寂  
齋子欲是不作思惟心神  
攝宿養以在氣貫則復元  
會誌在茲日夕乾乾  
嘉靖四十六年六月  
李汝澤謹書

紹修書院

文  
享祀執事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祝  
贊者  
揚者  
贊引  
司尊  
奉香  
奉爐  
奉爵  
奠爵  
學生  
祭物有司  
司牲  
梁威  
都陳設  
陳設

# 1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0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02. 잠정목록 대상 서원 점검과 가치 도출
03.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과 등록



# 1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 0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세계유산 등재추진 검토 자문회의

2009. 09. 16.  
세계유산 등재추진  
검토 자문회의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등재추진에 대한 검토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서원 활용 및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논의함과 동시에 문화재청에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서원」은 건축, 공간적 가치 뿐만 아니라 의례·교육·학술·학파 등 인문적 가치도 우수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최근 세계유산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사전 준비과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

2010. 10. 04. ~ 2011. 03. 28.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발전에 비해 저평가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9년 1월 22일에 출범한 대통령직속 기관이었다(2013년 3월 23일 폐지).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2010년 10월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 내부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총 6 회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의에서는 등재 추진절차 및 추진주체 구성, 잠정목록 등록 사업 추진, 등재 작업 관련 주요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추진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위원 명단

번호	성명	소속 (2010. 10. 현재)	비고
1	이배용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2	이상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위원
3	이혜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본부집행위원, 동국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	위원
4	정만조	(前)한국서원학회 회장,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위원
5	이해준	(現)한국서원학회 회장,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위원
6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장	위원
7	이왕기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위원
8	김덕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위원
9	박성진	(사)한국서원연합회 상임이사	위원
10	남희숙	국가브랜드위원회 학예연구관	간사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회의 경과

구분	참석자	논의사항
1차 회의 2010.10.04.	위원장: 이배용 위원: 정만조, 이상해, 이해준, 정순우, 박성진	- 추진준비위원회 조직 - 워크숍/학술세미나 개최 등
2차 회의 2010.11.08.	위원장: 이배용 위원: 정만조, 이해은, 이해준, 정순우, 박성진	- 세계유산목록 등재 로드맵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관련 논의
3차 회의 2011.01.28.	위원장: 이배용 위원: 정만조, 이상해, 이해준, 정순우, 박성진 관계기관: 이견무 문화재청장,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간사: 남희숙	- 추진준비 과정 설명 - 문화재청장,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등재관련 조언 및 지원 - 추진체 결성, 지자체 연계, 로드맵과 추진 계획 확정 필요 - 동아시아 유사 유산과의 비교연구, 세계유산적 가치 검토
4차 회의 2011.02.22.	위원장: 이배용 위원: 정만조, 이상해, 김덕현, 이해은, 이해준, 정순우, 이왕기, 김덕현, 박성진, 여문필 관계기관: 9개 서원 원장, 문화재청 담당과장 및 사무관 간사: 남희숙	- 잠정목록 등록을 위한 서원 및 지자체의 협조 방안 논의 - 추진 로드맵과 주요사업 계획 발표(이상해 교수)
5차 회의 2011.03.18.	위원장: 이배용 위원: 이상해, 정만조, 이해은, 이해준, 정순우, 이왕기, 여문필 간사: 남희숙	-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협의 -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식 개최 - 서원현장 방문 계획 협의
6차 회의 2011.03.28.	위원장: 이배용 위원: 이상해, 정만조, 김덕현, 이해은, 이해준, 이왕기, 박성진 간사: 남희숙	- 분과위원회 사업계획 검토 - 준비위원회 발족식 행사 검토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 계획 대통령 보고

2011. 04. 08.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 계획 대통령 보고

등재 추진을 공식화하기에 앞서, 2011년 4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 계획을 제시하며, 정부가 주도하여 서원과 그 전통문화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 브랜드로 집중 육성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원과 같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일이 한국의 이미지를 신장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해 달라”며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을 지시하며,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사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02. 잠정목록 대상 서원 점검과 가치 도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선행 조건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이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 예비목록이다. 각 나라가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될 만한 가치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유산에 대해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네스코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잠정목록으로 등록된다. 잠정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목록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이 최소 신청서 제출 1년 전에 잠정목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대상 서원을 선정하고, 잠정목록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2011. 04. ~ 06.  
등재타당성 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등을 위한  
서원 현지조사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잠정목록 등재 대상 서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4월과 6월 총 2차례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답사 결과 전국의 서원 중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를 만족하는 유·무형적 가치를 겸비한 서원 9곳이 후보로 선정되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답사에서 서원 보존 현황과 원형 훼손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타당성과 등재 추진 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을 위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1차 현지조사

2011. 04. 16. ~ 17.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을 위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1차 현지조사

일 시 : 2011년 4월 16일(토) ~ 17일(일)  
장 소 : 돈암서원(충남 논산), 무성서원(전북 정읍), 필암서원(전남 장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참 석 자 : 이배용 위원장, 한국의서원세계유산목록등재추진준비위원(11명),  
한국가구박물관장, 국가브랜드콘텐츠기자단 등 21명  
점검내용 : 서원 현황 및 원형 훼손 여부 조사, 등재 추진 시 필요사항 및  
보완사항 점검 등

##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을 위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2차 현지조사

2011. 06. 11. ~ 12.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을 위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2차 현지조사

일 시 : 2011년 6월 11일(토) ~ 12일(일)  
장 소 : 소수서원(경북 영주), 병산서원(경북 안동), 도산서원(경북 안동),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동서원(대구 달성)  
참 석 자 : 이배용 위원장, 한국의서원세계유산목록등재추진준비위원(11명),  
국가브랜드위원회(5명), 문화재청(1명), 한국가구박물관(5명) 등 23명  
점검내용 : 서원 현황 및 원형 훼손 여부 조사, 등재 추진 시 필요사항 및  
보완사항 점검 등



국가브랜드위원 서원답사 (도동서원)



국가브랜드위원 서원답사 (옥산서원)



국가브랜드위원 서원답사 (병산서원)



국가브랜드위원 서원답사 (소수서원)

## 아리랑 TV 「한국 정신문화의 요람, 서원」 제작 및 방영

2011. 03. ~ 07.  
아리랑 TV 「한국의 서원」 방영

홍보도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다.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2011년 3월부터 아리랑 TV와 함께 『한국 정신문화의 요람, 서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다큐멘터리는 서원의 의미·배향인물의 사상·교육·건축·제향 의례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되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킬 수 있었으며, 이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도 서원을 홍보하는 중요한 영상 매체로 활용되었다. 아리랑 TV의 국내외 채널을 통해 방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큐멘터리 한국의 서원 DVD

### 〈Arirang Korea - 국내〉

본방송(2회) : 7월 10일(일) 21:00, 7월 17일(일) 21:00

재방송(4회) : 7월 11일(월) 02:00, 7월 13일(수) 14:00

7월 18일(월) 06:00, 7월 20일(수) 14:00

### 〈Arirang World - 국외〉

본방송(2회) : 7월 10일(일) 21:00, 7월 17일(일) 21:00

재방송(2회) : 7월 11일(월) 05:30, 11:00



「한국 정신문화의 요람, 서원」 동영상 화면



### 03.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과 등록

#### ‘한국 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

2011. 04. 14.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

세계유산 잠정목록대상으로 서원 9곳이 선정되자, 향후 등재절차를 위한 실무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였다.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조직을 통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4월 14일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준비위원회는 추진준비위원회,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서원 관계자들로 구성되었다. 사무국은 국가브랜드위원회 내에 두었다.

준비위원회 발족식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추진준비위원회>

번호	성명	소속 및 직위(2011.04. 기준)	비고
1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2	이상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위원
3	이혜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본부집행위원, 동국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	위원
4	정만조	(前)한국서원학회 회장,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위원
5	이해준	(現)한국서원학회 회장,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위원
6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위원
7	이왕기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위원
8	김덕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위원
9	박성진	한국서원연합회 상임이사	위원
10	남희숙	국가브랜드위원회 학예연구관	간사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번호	기관명	참석자	직위
11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활용국장
1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택수	사무총장
13	서원연합회	최근덕	서원연합회이사장 겸 성균관장

<광역 지방자치단체>

번호	기 관 명	참 석 자	직 위
14	대구광역시	최삼룡	문화체육관광국장
15	충청남도	김종화	문화예술과장
16	경상북도	김용만	문화재과장
17	경상남도	최호준	문화예술과장
18	전라북도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19	전라남도	양복완 김희태	관광문화국장 문화재전문위원

<기초 지방자치단체>

번호	기 관 명	참 석 자	직 위
20	영주시	김창곤	부시장
21	함양군	허종구	부군수
22	경주시	김진희	문화재정책담당
23	안동시	권영세	시 장
24	장성군	박기열	부군수
25	달성군	조병로	문화체육과장
26	논산시	황명선	시 장
27	정읍시	김영길	부시장

<서원>

번호	기 관 명	참 석 자	직 위
28	소수서원(영주)	황준식	원 장
29	남계서원(함양)	정천상	원 장
30	옥산서원(경주)	이종식	도유사
31	도산서원(안동)	이유권	유 사
32	필암서원(장성)	김인수	유 사
33	도동서원(달성)	김태완	유 사
34	병산서원(안동)	류한욱	유 사
35	무성서원(정읍)	이치백	원 장
36	돈암서원(논산)	김용승	원 장

발족식은 이배용 등재추진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향후계획 및 운영방안 논의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추진위원회와 해당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서원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등재 대상은 문화재청에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한 9개 서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의 발족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잠정목록 신청서, 국제학술대회, 워크숍 등 관련 사업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주비위원회 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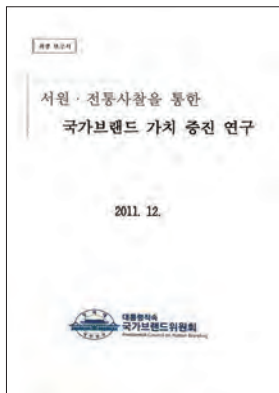
주비위원회 사진(2)



주비위원회 사진(3)

### 서원·전통 사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증진 연구용역 수행

2011. 09. ~ 12.  
서원·전통 사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증진  
연구용역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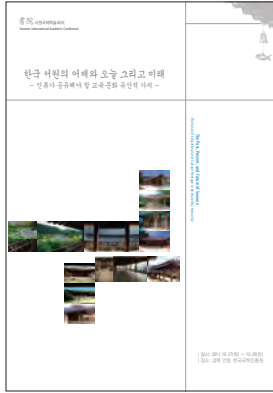


국가브랜드 가치증진  
연구용역 결과물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 대통령 보고 이후 서원의 국가브랜드 가치에 대한 검토를 지속해왔다. 2011년 9월에는 서원과 전통사찰의 정신적·문화유산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함으로써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자 이코모스 한국위원회(ICOMOS-KOREA)에 관련 용역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는 첫째로 한국 서원의 국가브랜드화 방안 및 현대적 활용 방안, 둘째로 다른 나라와의 차별성 부각을 통한 전통사찰의 국가브랜드화 방안 및 현대적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 제1차 국제학술회의 개최

2011. 10. 27. ~ 29.  
제1차 국제학술회의 개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0월 28일(금) 경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한국 서원의 특징, 한국 서원의 가치에 대한 발표 뿐 아니라, 교육 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 한국의 전통 교육시설과 관련한 국내외 학자들의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한국 서원의 미래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어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한국 서원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술회의의 앞뒤 양일에는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등 등재 신청대상 서원의 답사가 있었다. 학술회의는 학계, 지방자치단체, 서원관계자, 언론인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서원의 가치를 발굴함과 동시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인 등재기준 및 절차, 유산보존과 활용방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학계와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학술회의 종합토론



국제학술회의 주요 참석자 기념촬영



국제학술회의 발표 장면



소수서원 답사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프로그램

일 시		발 표 및 내 용
1일차 10. 27. (목)	09:30~12:00	서울 출발, 안동 도착
	12:00~13:00	오찬
	13:00~18:00	도산서원, 병산서원 탐방
	18:00~21:00	기념 만찬 (국가브랜드위원회장 주최)
2일차 10. 28. (금)	09:00~09:20	· 개회사: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 환영사: 김 찬 (문화재청장) · 축 사: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09:20~12:30	〈 제1세션 〉 발표1: Bénédicte Selfslagh (ICOMOS 사무총장) 교육기관들의 세계유산적 가치 토 론: Kirsti Kovanen (ICOMOS 핀란드위원장) 발표2: 西垣 安比古 (일본 교토대 교수) 勝地에 있어서의 群居肄業 토 론: 박종배 (동국대 교수) 발표3: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의 전통시대 교육공간의 구성원리 토 론: 김덕현 (경상대 교수)
	12:30~13:30	오찬
	13:30~16:00	〈 제2세션 〉 발표1: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 한국서원과 주변경관 토 론: 이왕기 (목원대 교수) 발표2: Milan Hejzmanek (서울대 교수) 지성사의 흐름과 한국의 서원 토 론: 김종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 발표3: 이해준 (공주대 교수) 한국서원 유·무형문화유산의 특징 토 론: 이수환 (영남대 교수)
	16:00~18:00	〈 제3세션 〉 · 사 회: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 주 제: 한국의 서원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 패 널: 김병일(한국국학진흥원장), 정만조(국민대 교수, 前서원학회회장) 김인걸(서울대학교박물관장), 이혜은(동국대 교수), 김봉건(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김종규(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18:00~20:00	기념 만찬 (한국국학진흥원장 주최)
3일차 10. 29. (토)	10:00~12:00	소수서원 탐방
	12:00~13:00	오찬
	13:00~16:00	영주 출발, 서울 도착

## 「한국의 서원」 잠정목록 신청서 제출

2011. 09. 11.  
「한국의 서원」 잠정목록  
신청서 제출

2011년 8월부터 등재추진위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서원」 잠정목록 신청서 초안 작성 작업에 착수하였다. 등재추진위원회에서는 원고를 작성하고 3차례의 신청서 작성 회의를 거쳐 완성된 보고서와 14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 2011년 9월 11일 문화재청에 잠정목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신청유산의 개요, 등재신청의 정당성을 포함한 신청유산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포함하였으며, 이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 서원 보존관리 워크숍 개최

2011. 12. 12.  
서원 보존관리  
워크숍 개최

10월에 개최한 국제학술회의가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2011년 12월 12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한국 서원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워크숍은 서원의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워크숍에서는 학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보존관리 현황을 밀도있게 짚어볼 수 있었다.

### ‘한국 서원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과 미래’ 워크숍 프로그램

시 간	일 정
09: 30~10: 00	접수 및 등록
10: 00~10: 20	개 회 식 : 이배용(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오전 발표 사회: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0: 20~11: 20	· 발 표 1 : 김영모(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서원 주변경관의 훼손과 보존관리 문제점” - 지정토론1 : 정경성(전라남도 학예연구사) - 지정토론2 : 홍승재(원광대학교 교수)
11: 20~12: 20	· 발 표 2 : 이왕기(목원대학교), “서원 건축물 복원과 보존관리 문제” - 지정토론1 : 박성진(한국서원연합회 상임이사) - 지정토론2 : 강대익(장성군 문화재계장)
12: 20~13: 30	오 찬
오후 발표 사회: 박경립(강원대학교)	
18: 00~19: 30	만 찬



시 간	일 정
13: 30~14: 30	· 발 표 3: 김철주(문화재청 전문위원), “서원 보존관리에 따른 행정적 검토” - 지정토론1: 정순우(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지정토론2: 송준태(영주시 학예연구사)
14: 30~15: 30	· 발 표 4: 이상해(성균관대학교 교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서원 보존관리의 올바른 방향” - 지정토론1: 이해준(공주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2: 허권(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15: 30~15: 50	휴 식
15: 50~18: 00	종합토론/ 사회: 이해은(동국대학교 교수)
18: 00~19: 30	만찬



지정토론(박성진 한국서원연합회 상임이사)



종합토론(사회: 이해은 교수)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2011. 12. 09.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신청

2012. 01. 10.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확정

등재추진위원회가 잠정목록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문화재청 내부의 검토를 거쳐 12월 9일에 문화재청에서 외교부를 통해 세계유산센터에 「한국의 서원」에 대한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확정하고 다음해인 2012년 1월 10일 「한국의 서원」을 최종적인 잠정 목록으로 확정하였다.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운영된 교육기관으로 제향-강학-교류와 유식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정형화했고,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제향의례를 중심으로 서원의 무형적 가치를 현재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는 절차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현황(14건, 2012. 1월 기준)

- 문화유산 : 강진 도요지, 염전, 대곡천 암각화군, 남한산성, 중부내륙산성군,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익산역사유적지구, 외암마을, 낙안읍성, 한국의 서원
- 자연유산 :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서남해안 갯벌, 우포늪

## 잠정목록 신청서에 서술된 「한국의 서원」 주요 내용

### - 신청유산의 개요

신청유산인 조선시대의 서원은 명현(名賢)을 제사하고, 인재를 교육하기 위해 전국에 세운 사설(私設) 기관이었다. 조선시대 사림(士林)의 활동기반이며 근거지였던 서원은 국가 경영과 사회 운영을 논하는 경륜을 펼친 곳이며, 조선 시대의 지배 계층인 유가(儒家)의 사림 문화가 자리한 곳이다. 서원에는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핵심이 되는 양반사회와 그 정신문화가 담겨 있다.

조선시대 서원의 효시는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이 순흥에 세운 백운동서원이다. 백운동서원은 1550년(명종 5) 왕으로부터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아 조선시대 사액서원의 시초가 되었다. 현재 남한에는 637개 서원이 남아 있으며, 그 중에서 신청 대상 유산은 지금도 잘 보존 관리되며 문화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9개의 서원이다.

포함된 9개의 서원은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이다.

### 각 서원의 특징

**소수서원** : 조선 시대 최초의 서원(1543년 건립)이다. 중국으로부터 고려말에 성리학을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한 안향을 제향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주변경관은 서원이 들어설 입지조건의 전형을 보여준다. 서원에서의 제향에 관한 의식(儀式)과 의례 규정(儀禮規定)을 대표한다.

**남계서원** : 1552년 경상도 함양에 건립되었다. 강당영역이 앞에 있고, 사당영역이 뒤에 있는 조선시대 서원 배치의 전형을 처음으로 제시한 서원이다. 소재지 일대의 향촌민에 대한 교화적 기능을 대표한다.

**옥산서원** : 1572년 건립되었다. 유교 예법에 엄격한 기하학적인 배치를 하였으나, 주변경관과 조화하기 위해 남향이 아닌 서향으로 중심 건물들이 배치되었다. 교육과 더불어 제향자 후손의 문중활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도산서원** : 1574년 건립된 한국을 대표하는 유학자인 이황을 모신 서원이다. 이황이 학문을 하며 제자들을 가르친 도산서당을 모체로 해서, 도산서당 뒤편 언덕에 건립된 서원이다. 성리학을 강학하는 교육적 기능이 특징이다.



**필암서원** : 1590년 건립되었다. 평지에 세워진 서원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도학자(道學者)를 제향하면서 중앙과 연결된 정치 활동의 거점이었다.

**도동서원** : 1605년 건립되었다. 문루, 강당, 사당을 잇는 중심축에 중요 건물들을 배치했는데, 전체적인 건축구성과 배치형식이 서원 건축으로서 가장 규모적이고 전형적이다. 서원의 위치와 관련된 경관 조성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다.

**병산서원** : 1613년 세워졌다. 서원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 물과 강 건너 병풍처럼 펼쳐진 병산과 조화하며 극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서원이다. 서원은 천인합일을 추구하는 한국의 서원 건축 공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무성서원** : 1615년 지방관의 향촌민에 대한 흥학(興學) 목적으로 마을 가운데 세워진 서원이다. 유학자들이 잠시도 몸에서 떼어서는 안 되는 예(禮)와 악(樂)으로 백성을 교화한 대표적인 서원이다.

**돈암서원** : 1634년 건립되었다. 서원 사당에 모신 김장생은 조선시대 예학(禮學)을 대성한 유학자다. 서원은 조선시대 예학 논의의 산실(産室)이 되었다.

### - 신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1. 한국의 서원은 한국사회에 유교 도통(道統)의 계보를 정착시켰다.
2. 한국의 서원은 주희의 예학(禮學)을 한국사회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형시켜 고유의 예론을 확립 발전시켰다.
3. 한국의 서원은 인격의 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도학적 학문 전통을 내재화하였다. 지식을 권력이나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삼지 않고, 인(仁)의 실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는 전통을 확립하였다.
4. 한국의 서원은 조선 사회의 사람 집단이라는 지식 공동체를 성립, 발전시켰다. 서원은 안으로는 덕성의 실현, 밖으로는 국가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공간이었다.
5.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이 추구하는 극기복례(克己復禮)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체득하기에 적합한 터를 선택하고, 주변경관과 조화하는 독특한 외부·내부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6. 한국의 서원은 서원 관련 동아시아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완비된 형태로 재현되는 제향 의식(儀式)을 현재도 행하고 있다.
7. 한국의 서원은 지역 내 인적(人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문화 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하였다.
8. 한국의 서원은 서적과 판본의 유통과 확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각 서원에는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 제작한 목판과 서적이 잘 보관되어 있다.
9.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과 도덕적 실천성, 그리고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다양한 무형 문화유산(역사, 교육, 제향의례, 기록문화 등)을 갖추고 있다.







## 2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발족과 활동

0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발족과 MOU 체결
02.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운영과 활동
03.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
04.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족

# 2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발족과 활동



### 0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발족과 MOU 체결

#### 추진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2012. 02. 13.  
추진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이후 세계유산목록 등재와 관련된 다음 단계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2월 13일 잠정목록 등록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잠정목록 신청서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검토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청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재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 체결 및 추진단 발족. 둘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OUV) 도출을 위한 기초조사. 셋째, 등재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회의 이후 등재신청서 작성, 예산 수급을 포함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들이 마련되었으며, 추진위원회를 넘어서 추진단이라는 실질적인 기구가 출범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당시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만조 국민대학교 교수,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덕현 경상대학교 교수, 이왕기 목원대학교 교수, 박성진 서원연합회 상임이사, 여문필 서원연합회 사무처장, 이병국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시민국장, 이경훈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 조동주 문화재청 사무관, 전기선 문화재청 사무관, 남희숙 국가브랜드위원회 연구관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을 위한 MOU 체결과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발족

2012. 04. 18.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을 위한 MOU 체결과 「한국  
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발족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브랜드위원회와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9개 서원이 속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MOU를 체결하였다. MOU는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 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적인 협업체계가 갖추어졌다.

MOU 협약서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였으며, 협약서 초안을 바탕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하였다.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이배용 위원장과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시민국이 직접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협약서 체결을 완료하였다.

MOU 체결과 함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실무적인 기구로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발족되었다. 추진단은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행정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이원 체계로 운영되었으며 전자는 해당 유산의 행정적·실무적 관리를 후자는 등재신청서를 비롯한 학술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여 상호간의 협업을 통해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추진단 발족식은 2012년 4월 18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이배용 추진위원장, 김찬 문화재청장, 6개 광역단체장, 8개 기초단체장이 등재를 위한 협약을 하였다. 주요 식순으로는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 경과보고,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과 문화재청장의 인사말, 그리고 16개 기관장과 (사)한국서원연합회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 행사는 관련 기관 사이의 업무교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도모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MOU 체결 당일에는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워크숍도 함께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에는 학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서원 운영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신청유산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유산의 현황과 정리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입증하는 기록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발족식 장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발족식 단체사진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협약서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재청」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논산시」 「정읍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달성군」 「장성군」 「함양군」 (이하 '16개 기관'이라 한다)은 「소수서원」 「남계서원」 「육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이하 '9개 서원'이라 한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선정하고, 이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 및 보존관리 등 제반사항의 추진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협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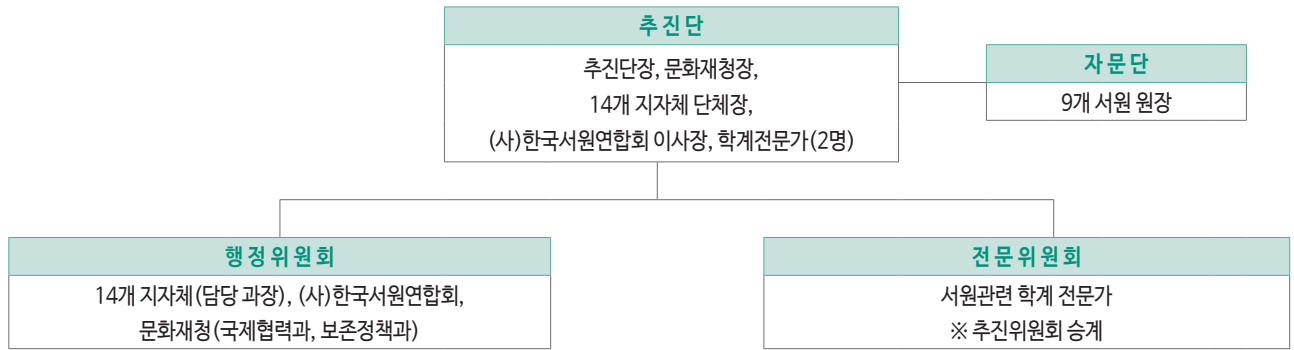
1. 16개 기관은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16개 기관은 9개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구성하고, 동 추진단에서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3. 16개 기관은 9개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도 문화재보호법 등 관리규범에 기초하여 통합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본 협약서는 16개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위 협약사항을 확인하는 뜻으로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3월 15일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이백용	문화재청장 김 찬	대구광역시장 김 범 일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전라북도지사 김 완 주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경상남도지사 김 두 관
논 산 시 장 황 명 선	정 읍 시 장 김 생 기	경 주 시 장 최 양 식	안 동 시 장 권 영 세
영 주 시 장 김 주 영	달 성 군 수 김 문 오	장 성 군 수 김 양 수	함 양 군 수 최 완 식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협약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조직도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사무국 운영개시

2012. 05. 0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사무국 운영개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은 국가브랜드위원회 내의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무국은 추진단의 발족 이후 5월부터 국가브랜드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운영되었다. 예산의 수급이나 지출 관련 사항은 (사)한국서원연합회에서 담당하였다.

2012. 05. 31. 행정위원회 개최  
사무국이 설치됨에 따라 추진단은 2012년 5월 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요예산과 분담금 교부 일정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한 안내, 등재신청서 작성 및 서원총서 간행과 관련된 용역발주, 워크숍 계획 등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을 승인, 확정하였다. 이후 추진단은 예산 및 행정에 대한 결정 사항이 발생 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2012. 06. 15. 전문위원회 개최  
2012년 6월에는 행정위원회와 함께 OUV 도출, 신청서 작성, 워크숍, 학술대회 등을 비롯한 학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전문위원회에서는 등재신청서 작성 계획을 포함한 등재추진 사업 전반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등재신청서 작성을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 의뢰하는 사항과 서원총서 발간, 서원관련 기록물 정리 작업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행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후에 추진되는 전반적인 사항들도 이 두 위원회의 승인과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 구조를 취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단을 운영하게 되었다.

## 02.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운영과 활동

### 1) 국내·국제 학술회의

추진단은 발족 직후,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기반 사업들을 기획하고 착수하였다. 세계유산목록 등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서원」에 대한 학술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세계유산 가치를 도출하는 한편, 그 가치를 국내·외에 홍보하여 일반인과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널리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2011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 이전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이는 한국의 서원에 대한 홍보와 대내·외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목적이 중심이었다. 반면 추진단 발족 이후의 학술대회는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서 작성과 연관된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국내·국제 학술회의를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발표 주제를 보면, 국내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의 서원과 서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으며, 국제 학술회의는 서원의 비교연구 대상인 국외 교육유산과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세계유산 관련기관, 유림, 전문가, 세계유산 및 서원 관련 학과 학생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국내의 인식기반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서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아시아의 유학 교육유산과 연속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그들로부터 「한국의 서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받았다. 국내·국제 학술대회는 대외적인 홍보효과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등재신청서 상의 비교분석이나 보존관리 사항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13. 05. 23. ~ 24.  
제2차 국제학술대회



제2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 제2차 국제학술대회

일 시 : 2013. 5. 23(목) ~ 24(금)

장 소 : 동양대학교 본관 세미나실

주 최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참석인원 : 추진단, 9개 서원, 문화재청, 9개 서원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지자체 관련 공무원, 서원 및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 학생 및 일반인 등

## 제2차 국제학술대회 세부일정

일 시		세부 일정
1일차 05. 23. (목)	08:00~10:30	서울 출발, 영주 도착
	10:30~12:00	소수서원 탐방
	12:00~13:00	중식
	13:00~18:30	도산서원, 병산서원,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탐방
	18:30~19:30	석식
2일차 05. 24. (금)	09:00~09:30	참가자 등록
	09:30~10:00	개회사 및 환영사 - 개회사 : 이배용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장) - 환영사 : 김주영 (영주시장) - 축 사 :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10:00~10:40	기조강연 : 유교와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교육 - Thomas H.C. Lee (대만 국립청화대학교 석좌교수,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명예교수)
	10:40~11:00	휴식
	11:00~11:40	발표 1 : 근세 이전 가톨릭 성당의 교육 - 오윤교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신부)
	11:40~12:20	발표 2 : 이슬람 메데레사의 교육과 유산적 가치 - Ilknur Kolay (터키 이스탄불 기술대 교수)
	12:20~13:30	오찬
	13:30~14:10	발표 3 : 중국 전통사회의 교육 시설과 유산적 가치 - 鄧洪波 (중국 호남대 교수)
	14:10~14:50	발표 4 : 에도시대 일본의 교육 시설과 시즈타니학교의 유산적 가치 - 徳光泰弘 (일본 시즈타니학교 차장)
	14:50~15:30	발표 5 :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
	15:30~15:50	휴식
	15:50~17:30	〈종합토론〉 · 좌 장 : 이해준 (공주대 교수) · 토론자 : 김덕현 (경상대 교수), 이왕기 (목원대교수) Pham Thi Vinh (베트남 국립 HanNom연구원),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강구윤 (동양대 교수)
	17:30~18:00	폐회
	18:00~20:00	만찬





기념사진



기조강연(Thomas H. C. Lee 교수)



발표(오윤교 신부)



종합토론



안동 도산서원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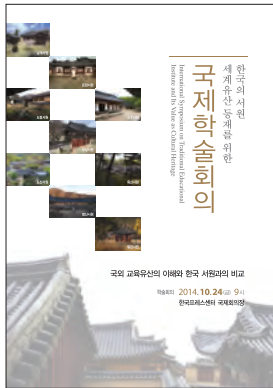
경주 답사(옥산서원, 독락당 등)



## - 제3차 국제학술대회

2014. 10. 24. ~ 25.  
제3차 국제학술대회

일 시 : 2014. 10. 24.(금) ~ 25.(토)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주 제 : 국외 교육유산의 이해와 한국 서원과의 비교  
주 최 : 문화재청  
주 관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서원학회  
후 원 :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참석인원 : 추진단, 9개 서원, 문화재청, 9개 서원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지자체  
관련 공무원, 서원 및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 학생 및 일반인 등 300여명



제3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제3차 국제학술대회 세부일정

일 시		세부 일정
1일차 10. 24. (금)	09:00~09:30	참가자 등록
	09:30~10:00	개회사 및 환영사 개회사 : 이배용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장)
	10:00~10:30	기조강연 : 전통 교육기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 콜레기움과 서원을 중심으로 - 김광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0:30~10:40	휴식
	10:40~11:10	발표 1 : 중세 유럽 교육유산 - 수도원 학교에서 대학까지 - Thomas Coomans (벨기에 루벤대학교 교수)
	11:10~11:40	발표 2 : 이슬람 전통 교육기관 마드라사(Madrasah)의 탄생과 역할 - 이희수 (한양대학교 교수)
	11:40~12:40	오찬
	12:40~13:10	발표 3 : 일본의 근세 교육과 문화유산 - 츠지모토 (국립 대만대학교 교수)
	13:10~13:40	발표 4 : 베트남 유교의 보전 및 진흥 - Pham Khanh Ngan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부국장)
	13:40~14:10	발표 5 :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문화권의 교육유산 - K. T. S Sarao (인도 델리대학교 교수)
	14:10~14:40	발표 6 :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 이상해 (성균관 대학교 명예교수)
	14:40~15:00	휴식
	15:00~17:30	〈종합토론〉 ·좌 장 :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덕현 (경상대학교 교수),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수환 (영남대학교 교수), Pankaj Mohan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왕기 (목원대학교 교수)
	17:30~18:00	폐회

일 시		세부 일정
2일차 10. 25. (토)	08:00~10:00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탐방
	10:00~12:00	도산서원 탐방
	12:00~13:00	중식
	13:00~15:00	병산서원 탐방
	15:00~17:00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탐방
	17:00~18:00	석식
	18:00~20:00	영주 → 서울



기념사진(발표 및 토론자)



기념사진(단체 사진)



기조강연(김광역 교수)



발표(조지모토)



종합토론

## - 제1차 국내학술대회

2013. 04. 18. ~ 19.  
제1차 국내학술대회

일 시 : 2013. 4. 18.(목) ~ 19.(금)

장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문화예술회관

주 제 : 한국 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주 최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주 관 : 한국서원학회,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참석인원 : 추진단,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회원, 한국서원학회 회원, 서원 및 유네스코 관련 학계, 지자체 문화재 담당공무원, 서원운영자 등 150여명

### 제1차 국내학술대회 세부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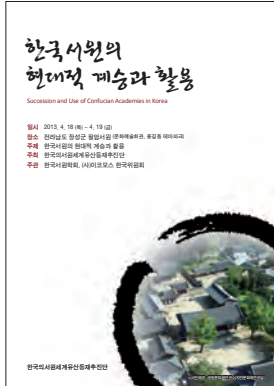
	일시	진행 내용	비 고
1일차 04. 18. (목)	10:30~12:00	필암서원 답사	
	12:00~13:00	중 식	
	13:00~13:30	등 록	
	13:30~14:00	·개회사 : 이배용(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장) ·환영사 : 김양수(전라남도 장성군수)	
	14:00~14:30	기조발제 : 세계유산과 교육문화유산	이혜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14:30~15:00	사례발표 : 안동 도산서원의 계승과 활용	손상락 (안동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15:00~17:40	분과회의	-1분과 : 연구(교육) -2분과 : 제향 -3분과 : 운영관리 -4분과 : 활용
	17:40~18:00	휴 식	
	18:00~19:30	만찬	
	19:30~21:00	자유모임(전문위원, 서원운영자, 지자체)	
2일차 04. 19. (금)	09:00~10:30	분과회의 결과보고	
	10:30~12:00	종합토론 (좌장 :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교수)	
	12:00~14:00	중식	
	14:00~16:00	서원답사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	



## 발표내용

### (1) 기조발제 및 사례발표

#### - 기조발제 : 세계유산과 교육문화유산



제1차 국내학술대회 자료집

발 표 자	주 제
이혜은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동국대학교 교수 추진단 전문위원	<p>매년 4월 18일은 이코모스가 정한 '국제기념물유적의 날(the International Day for Monuments and Sites)'이다. 이코모스가 정한 2013년도의 국제기념물유적의 날을 기념하는 주제는 '교육유산(Heritage of Education)'이다. 교육이란 한 집단의 사람들이 지식, 기술, 관습 등을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교수, 훈련, 연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은 믿음과 가치를 전승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미래를 기획하는 하나의 주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한다.</p> <p>우리나라는 19세기 말부터 현대적 교육제도의 도입으로 현재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전에는 국가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비롯하여 서원, 서당 등 지역 또는 개인별 학습기관이 존재하였었다. 특히 조선시대를 통해 형성된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현재에도 존재하며 비록 조선시대 당사와 같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아직도 우리의 정신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p>

#### - 사례발표 : 안동 도산서원의 계승과 활용

발 표 자	주 제
손상락 안동시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p>도산서원은 우리나라 성리학의 최고 학자인 퇴계 이황선생이 공부하고 후학을 가르치던 곳으로 인근에 있는 종택과 태실(노송정), 묘소는 한국정신문화의 산실이자 성지로 추앙 받고 있는 곳이다. 도산서원은 우리나라 최고 서원으로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배치, 존현양사(尊賢養士)로 대별되는 서원의 기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도산서원의 자료를 분석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생활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서원문화를 정립해나가고 있다.</p> <p>우리나라의 서원문화는 지성적 가치관과 지도층이 이끌어 온 고급문화이다. 이러한 고급문화에 적합한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고급화 전략은 어쩌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서원의 현대적 계승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도산서원은 선비문화수련원을 통해 연령별, 직업별, 성별, 가족별 등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생명과 평화,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의 정신과 선비들의 교육적 이상을 실천하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서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서원은 세계에 자랑할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또 인본주의적 정신과 존현양사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진정성은 전 인류가 보존하고 지켜내야 할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p>

## (2) 분과회의(장성문화예술회관 내)

발 표 자	주 제	논 의 내 용
강기욱 광주 월봉서원	1분과(연구/교육) : 서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 교육 활용을 위하여 전문교육자 양성이 필요함</li> <li>- 숙박 등이 아닌 2-3시간 옛 공간을 선택하고 향기를 느끼는 조용한 서원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li> <li>- 서원 체험 프로그램은 농촌체험, 현장체험 등의 프로그램과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계획해야 한다.</li> <li>- 서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교의 기본 정신과 내용의 교육, 선현의 가르침 교육, 국가 지자체의 체계적 지원, 비영리 교육 지원 등의 관점에서 서원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li> </ul>
이동구 안동 도산서원	2분과(제향) : 서원제향의 현대적 계승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대로 구현할 수 없는 전통을 현대의 것으로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통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과거의 것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전통을 오래도록 이어가는 힘이 될 것이다.</li> <li>- 서원스테이, 서원 관련 인물 역사관 등 지역의 관광유적과 함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 서원의 자생적 예산확보가 필요하다.</li> <li>- 서원 제례의식 전승을 위하여 어렵고 불합리한 절의를 개선하고 축문이나 출기를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li> <li>- 지나친 편의 위주의 제향은 자칫 본질을 흐릴 염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li> </ul>
박성진 (사)한국서원연합회	3분과(운영관리) : 서원 관리 운영의 현황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재추진 대상 서원만 한정하지 말고 전국의 서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li> <li>- '세계문화유산 등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 목적은 등재된 유산이 잘 관리되어 후대에도 탁월한 가치로 지속 전승되는 것이며, '활용'만이 세계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생생하게 미래로 이어질 수 있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li> <li>- 서원의 운영주체, 자산,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li> </ul>
최영갑 유교문화연구소	4분과(활용) : 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활용은 예산과 조직정비를 갖추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 문제이며, 이것은 서원들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li> <li>- 서원의 보수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사소한 보수까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보수 지연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li> <li>- 서원활용에 있어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한편,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개선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li> <li>- 현대적인 시설이 없는 서원들은 서원 자체 건물만 가지고서는 활용방안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관리인원, 주변 환경문제, 진정성 문제의 해결을 보아야 한다.</li> </ul>



기념사진(전문가)



기념사진(서원 관계자)



개회사(이배용 추진단장)



환영사(김양수 장성군수)



분과회의



종합토론



## - 제2차 국내학술대회

2014. 04. 18.  
제2차 국내학술대회

일 시 : 2014. 4. 18.(금)

장 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주 제 : 서원문화의 계승 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

주 최 :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문화재청

후 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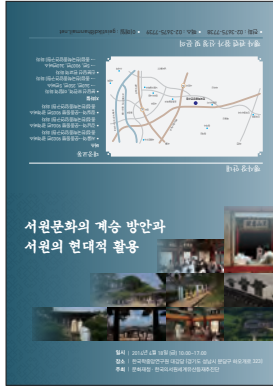
참석인원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회원,  
한국서원학회 회원, 서원 및 유네스코 관련 학계, 지자체 문화재  
담당공무원, 서원운영자 등 150여명

### 제2차 국내학술대회 세부일정

진행 시간	진행 내용	비 고
10:00- 10:30	개회식 국민의례, 애도묵념(세월호 희생자) 개회사 인사말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나선화 (문화재청장)
10:30- 10:50	기념촬영(break time)	
10:50- 11:30	기조강연 1 :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서원의 현재와 미래	강연 :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1:30- 12:30	제1주제 : 서원 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발표 : 김덕현 (경상대학교 교수) 토론 :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2:30- 13:30	오찬(*한국학중앙연구원장 주최)	
13:30- 14:10	제2주제 : 서원의 활용사례와 보존관리 현황 (등재서원을 중심으로)	발표 : 박소현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 박성진 ((사)한국서원연합회 상임이사)
14:10- 14:50	제3주제 : 문화관광 정책차원에서 바라본 서원의 활성화 방안	발표 : 강진갑 (경기대학교 교수) 토론 :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 연구위원)
14:50- 15:00	중간 휴식	
15:00- 15:40	제4주제 : 서원 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표 : 박경환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 토론 : 이혜준 (공주대학교 교수)
15:40- 16:20	제5주제 :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서원과 사찰의 대화	발표 : 전병길 (동국대학교 교수) 토론 : 이왕기 (목원대학교 교수)
16:20- 17:20	종합토론 : 서원 교육의 활성화, 실현 가능한가?	좌장 : 정만조 (국민대학교 교수)

## (1) 기조발제 및 주제발표

### - 기조발제 : 세계유산과 교육문화유산



제2차 국내학술대회 초청장

발 표 자	주 제
이상해 (사)이코모스 한국위원 회 전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추진단 전문위원	①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존·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활용임을 강조 ② 한국의 서원에 적용될 운영지침의 등재기준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한 소개 ③ 한국서원문화의 계승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의 바탕이 되는 대전제(지속가능한 활용원칙 반영, OUV 유지) 제시

### - 주제발표

발 표 자	주 제	논 의 내 용
김덕현 경성대학교 교수 추진단 전문위원	서원 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① 유학의 가르침, 곧 유교의 현대적 활성화, 특히 서원에서의 교육 전통에 대한 의견과 제안 ② 평생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서원 제시 ③ 평생학습을 위한 이념적 혹은 철학적 주제를 전통 유학의 가치 속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
박소현 서울대학교 교수	서원의 활용사례와 보존 관리 현황	① 어떤 원칙하에 서원이 진정성을 유지하며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국제원칙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활용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설명 ② 서원 활용에 보존이 경제 논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함을 강조
박경환 한국국학진흥원 실장	서원 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① 선비문화수련원의 운영 현황 사례와 성과, 방향 및 운영 특징에 대한 설명 ② 한국 서원교육의 현재적 계승의 문제점 사례 발표
강진갑 경기대학교 교수	문화관광 정책차원에 서 바라본 서원의 활성화 방안	① 서원의 역사와 현재모습에 대한 설명 ② 유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강조 ③ 서원 활성화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전병길 동국대학교 교수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서원과 사찰의 대화	①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템플스테이 강조 ② 템플스테이 사업현황 및 순기능에 대한 설명 ③ 템플스테이 활성화 동력에 관한 설명



개회사(이배용 추진단장)



기념사(나선희 문화재청장)



발표(박경환 연구원)



종합토론(좌장 : 정만조 교수)



기념사진(발표 및 토론자)



기념사진(서원 운영자)



## 2) 기초학술연구 진행

### ① 워크숍

추진단에서는 서원 및 세계유산 관련 현장 실무자와 함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목록 등재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관련 학술 및 보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등재신청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었다. 워크숍에서는 서원의 역사·건축을 비롯한 학술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보존관리·활용·문화재구역 등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의 워크숍은 이코모스 현지실사 이전까지 총 9회 개최되었다.

추진단에서 개최한 워크숍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워크숍 개최 내역

개최 일자	주 제	장 소	운영 주체
2011.12.12.	한국 서원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과 미래	국립고궁박물관	주비위원회
2012.04.18.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국립고궁박물관	추진단
2012.06.15.	서원의 교육(강학)과 제향의례	국립고궁박물관	추진단
2012.11.09.	서원 현판자료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추진단
2013.03.15.	세계유산 등재 대상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국립고궁박물관	추진단
2015.04.17.	세계유산 등재 대상 9개 서원의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국립고궁박물관	추진단
2015.05.27.	실사 대비 등재 대상 9개 서원의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추진단
2015.07.17.	실사 대비 등재 대상 9개 서원의 보존관리 현황 점검	문화재청	추진단
2015.08.21.	실사 대비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 최종 점검	한국의 집	관리단

※ 2012년 4월부터는 주비위원회에서 추진단으로, 2015년 8월부터는 추진단에서 관리단으로 추진 주체가 변경되어 명칭을 달리하였음



제3차 전문가 워크숍



제4차 전문가 워크숍



제5차 전문가 워크숍



제7차 전문가 워크숍



워크숍 자료집

## ② 해외 유사유산 답사

추진단 발족 이후 개최한 행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는 국내 유산뿐 아니라 국외의 세계유산에 대한 비교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는 해외 유사유산 답사지 후보를 검토하였고, 행정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외 유사유산 답사를 확정하였다. 추진단과 지자체, 그리고 등재 대상 서원의 운영자들이 참석한 해외 유사유산 답사는 등재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비교분석 대상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신청서 작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등재 추진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소통을 통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추진단이 기획한 국외 유사유산 답사는 총 3차례 진행되었다. 답사 일정 중에는 매번 해당 유산의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해당 유산에 대한 개관, 등재 과정, 보존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된 교육유산의 경우 담당자들로부터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또한 현장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병행하여 해당 유산의 보존관리를 비롯한 실무적인 운영 사항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제1차 유사유산 답사는 2013년 2월 15일(금)부터 19일(화)까지 일본의 도쿄, 오사카 지역을 답사하였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서원」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주요 전통 교육유산을 묶어 연속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답사팀에서는 연속유산 후보에 포함된 시즈타니 학교를 비롯한 유학 교육유산들을 답사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답사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전영웅 문화시민국장을 필두로 추진단, 지자체, 서원 유림, 등재신청서 작성팀을 포함한 총 17명이 참여하였다.

제2차 유사유산 답사는 2013년 2월 20일(수)부터 24일(일)까지 중국의 호남성·강서성·복건성에 소재한 서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은 서원의 기원이 되는 지역으로 비교분석에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상이었다. 특히 ‘백록동서원’은 주희에 의해 재건된 중국 4대서원의 하나로서, 1999년에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여산 국립공원(Lushan National Park)’에 포함되어 있었다. 답사에는 추진단 전문위원 이왕기 교수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재대상 서원 유림, 등재신청서 작성팀을 포함한 총 14명이 참여하였다.

제3차 유사유산 답사는 2013년 6월 24일(월)부터 7월 1일(월)까지 이슬람 문명권인 모로코와 터키의 전통 교육유산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참여인원은 등재신청서 책임자인 이상해 교수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재대상 서원 유림, 등재신청서 작성팀을 포함한 21명이었다. 답사지에 포함된 지역에는 세계유산이 많이 분포되



어 있었다. 터키의 경우 ‘이스탄불 역사지구(Historic Areas of Istanbul)’는 1985년, ‘셀리미예 모스크와 사회복합시설(Selimiye Mosque and its Social Complex)’은 2011년에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모로코 또한 ‘페즈의 메디나(Medina of Fez)’는 1981년, ‘메크네스 역사도시(Historic City of Meknes)’는 1996년에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단일 교육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는 경우는 없었지만, 구역 내에 이슬람 교육시설이 존재하여 비교분석 대상으로 탁월한 유산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세 차례의 유사유산 답사로 등재신청서 3장에 해당하는 비교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서원」이 한국의 문화 유산을 넘어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가자들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공무원, 유림, 전문가가 하나가 되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 - 2013년 제1차 「한국의 서원」 유사유산 답사 (일본)

2013. 02. 15. ~ 19.  
2013년 제1차 「한국의 서원」  
유사유산 답사 (일본)

일 정 : 2013. 02. 15.(금) ~ 19.(화) (4박 5일)

주 최 : 국가브랜드위원회·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후 원 : 국가브랜드위원회,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논산시, 정읍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달성군, 장성군, 함양군

### 일본 유사유산 답사 참여자 명단

구분	이름	소속
추진단 전문위원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국가브랜드위원회	전영웅	문화시민국장
	박효영	문화시민국 사무관
문화재청	김상영	보존정책과 주무관
	최재혁	국제교류과 사무관
안동시	심중보	문화예술과장
장성군	임도현	문화관광과 주무관
	강대익	문화관광과 문화재 팀장
함양군	배성호	문화관광과 문화재 팀장
도산서원	이동구	별유사
병산서원	류한욱	유사

구분	이름	소속
돈암서원	김선의	장의
무성서원	이치백	원장
신청서 집필팀	조인철	원광사이버대학교 교수
	박진재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 일본 유사유산 답사 세부일정

일자	도시	세부 일정
2월 15일	인 천 나 리 타 동 경 미 토	- 인천국제공항출국 - 나리타국제공항 도착 - 유시마성당/쇼헤이자가 가쿠몬쇼 답사 - 미토 이동 - 간담회 : 스즈키 에이치(鈴木暎一) 교수, 일본의 전통교육에 대해 특강
2월 16일	미 토  토 치 기  오 야 마 오카야마	- 카이라쿠엔(偕樂園) 답사 - 코도칸(弘道館) 답사 - 토치기현 이동 - 아시카가학교(史跡足利學校) 답사 - 오야마 이동 - 오카야마 도착
2월 17일	오카야마 오 사 카	- 시즈타니학교(特別史跡 閑谷學校) 답사 - 오사카 이동 - 간담회
2월 18일	오 사 카 시 가 교 토  오 사 카	- 시가현 이동 - 토주서원(藤樹書院) 답사 - 교토 이동 - 세계유산 금각사, 청수사 탐방 - 오사카 이동
2월 19일	오 사 카  간 사 이 김 포	- 하쿠엔서원 답사 /아즈마 주지(吾妻重二) 교수, 동행으로 일정 진행 - 카이도쿠토 답사 - 간사이국제공항 출발 - 김포국제공항 도착



간담회 - 미토



아시카가 학교 (足利學校)



코도칸 (弘道館)



시즈타니 학교 (閑谷學校)



토주서원 (藤樹書院)



## - 2013년 제2차 「한국의 서원」 유사유산 답사 (중국)

2013. 02. 20. ~ 24.  
2013년 제2차 「한국의 서원」  
유사유산 답사 (중국)

일 정 : 2013. 02. 20.(수) ~ 24.(일) (4박 5일)

주 최 : 국가브랜드위원회·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후 원 : 국가브랜드위원회,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논산시, 정읍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달성군, 장성군, 함양군

### 중국 유사유산 답사 참여자 명단

구분	이름	소속
추진단 전문위원	이왕기	목원대학교 교수
	박성진	(사)한국서원연합회 상임이사
신청서 집필팀	조인철	원광사이버대학교 교수
	박진재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문화재청	고경남	보존정책과 주무관
	이선혁	국제교류과 주무관
경상북도	박지웅	문화재과 주무관
영주시	문창주	문화예술과장
논산시	한성환	문화관광과 계장
함양군	이태식	문화관광과장
소수서원	안병식	도감
병산서원	류시주	별유사
도동서원	김수영	유사
추진단 사무국	이경동	간사



악록서원

# 중국 유사유산 답사 세부일정

일자	도시	세부 일정
2월 20일	인 천 장 사	- 인천국제공항 출발 - 장사국제공항도착
2월 21일	장 사 남 창	- 악록서원 답사 실무진 간담회 - 남창 이동
2월 22일	남 창 여 산	- 여산 이동 - 백록동서원 답사 실무진 간담회 - 여산 답사
	남 창	- 남창 이동
2월 23일	남 창 연 산	- 연산 이동 - 아호서원 답사 실무진 간담회 - 무이산시 이동(약2시간 소요)
	무 이 산	- 무이정사 답사 - 무이산 공항 출발
	상 해	- 상해 홍교 공항 도착
2월 24일	상 해 무 석 상 해 김 포	- 무석 이동 - 동림서원 답사 - 상해국제공항출발 - 김포국제공항도착



백록동서원



아호서원



무이정사



동림서원

## - 2013년 제3차 「한국의 서원」 유사유산 답사 (모로코, 터키)

2013. 06. 24. ~ 07. 01.  
2013년 제3차 「한국의 서원」  
유사유산 답사 (모로코, 터키)

일 정 : 2013. 06. 24.(월) ~ 07. 01.(월) (5박 8일)

주 최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후 원 :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논산시,  
정읍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달성군, 장성군, 함양군

### 모로코, 터키 유사유산 답사 참여자 명단

구분	이름	소속
문화재청	최재혁	국제협력과 사무관
	강재훈	보존정책과 주무관
전라남도	김충경	문화예술과장
안동시	송용규	문화예술과 주무관
경주시	김재익	문화재과 주무관
	이경원	문화재과 주무관
논산시	고유진	문화관광과 주무관
영주시	박석홍	소수박물관장
추진단 전문위원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김덕현	경상대학교 교수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왕기	목원대학교 교수
	박성진	(사)한국서원연합회 상임이사
신청서 집필팀	최종희	배재대학교 교수
	조인철	원광사이버대학교 교수
도산서원	이동구	별유사
소수서원	서정박	도감
소수서원	이교수	도감
추진단 사무국	이경동	간사
	박진재	간사



모로코, 터키 유사유산 답사 세부일정

일 자	도 시	세부 일정
6월 24일	인 천	- 인천국제공항 출발
6월 25일	이스탄불 카사블랑카 페즈	- 이스탄불국제공항 도착 - 이스탄불국제공항 출발 - 카사블랑카국제공항 도착 - 페즈 이동 - 페즈 답사 · Al-Attarine Madrasa · Bu-Inaniyya Madrasa · Qarawiyyin (Karaouine) Mosque · Great Mosque of Qayrawanc · Jama el Andalous (the Mosque of the Andalusians) · El Karaouiyyne Mosque · Madrasa attached to Quarawiyyin University
6월 26일	페즈 메크네스 카사블랑카	- 페즈 답사 · Qued Chorfa to Moulay Idris 주거지역 · Banks of the Andalous and those of the Kajrouanais - 메크네스 이동 - 메크네스 답사 · hammams, graneries, estiges of fondouks (inns for merchants) · Grand Palace (Dar al-Kabira) of Maulay Ismail · Dar al-Madrasa · Qasr al-Muhannasha · Gate of Mansour el-Ali - 카사블랑카 이동
6월 27일	카사블랑카 이스탄불	- 카사블랑카 답사 · 하산 2세 사원 답사 · 모하메드 5세 광장 답사 - 카사블랑카국제공항 출발 - 이스탄불국제공항 도착
6월 28일	이스탄불	- 이스탄불 답사 · Koprulu Medrese · Corlulu Ali Pasha Medrese & Mosque · Bayezid Complex · Kuyucu Murad Pasha Medrese · Süleymaniye Complex · Sehzade Complex · Ankaravi Medrese · Amcazade Huseyin Pasta Medrese · Gazanfer Agha Medrese
6월 29일	이스탄불	- 이스탄불 답사 · Feyzullah Efendi Medrese · Fatih Complex · Sokollu Mehmed Pasha Mosque · Atik Valide Medrese · Atik Valide Tekke (convent) · Mihrimah Medrese · Semsi Pasha Mosque with the medrese

일 자	도 시	세 부 일 정
6월 30일	이스탄불	- 이스탄불 답사 · 톱카프 궁전, 성소피아 성당, 블루모스크 답사 · 히포드럼 등 보스포러스 해협 답사 · 돌마바흐체 궁전, 궁궐 유적지, 고고학 박물관 답사
7월 1일	이스탄불 인 천	- 이스탄불국제공항 출발 - 인천국제공항 도착



모로코, 페즈



터키, 이스탄불



모로코, 메크네스



터키,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 3) 행정위원회·전문위원회·9개서원운영위원회 등의 활동

추진단 조직은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위원회와 학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의 이원 구조로 운영되었다. 각 위원회는 정기·비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신청대상인 9개 서원의 유림들도 자체적으로 2013년 4월 18일 전라남도 장성군 필암서원에서 모임을 갖고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협의회’(이하 서원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서원협의회는 자체 워크숍을 포함한 인문학강좌 등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해 분야별로 활동하였으며, 사무국은 각 위원회 혹은 협의회 운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위원회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행정위원회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행정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 일자	논의 내용	장 소	비 고
2012.05.31.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용역발주 사항(등재신청서, 서원총서) 전문가워크숍 개최 관련	국가브랜드위원회 대회의실	
2012.09.05.	추진단 사무국 운영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서원총서 제작 관련 전문가 워크숍 개최 관련	국가브랜드위원회 대회의실	
2013.01.30.	분담금 확보에 따른 예산 조정 전문위원회 검토사항 의결 기타협의사항 : 종합정비계획 등	국가브랜드위원회 대회의실	
2013.03.15.	추진단장 선임 추진단 운영 행정위원회 간사장 선임 예산조정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2013.06.11.	추진단 운영규정 개정 등재추진을 위한 항목별 사업 승인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협의회 발족에 따른 행정처리	문화재청 대회의실	
2014.01.23.	등재신청서 및 보존관리계획서 계약 변경 국내학술대회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 서원총서 간행 예산 수립 등	문화재청 대회의실	

개최 일자	논의 내용	장 소	비 고
2014.03.19.	등재대상 서원 완충구역 설정 예산안 조정 및 분담금액 확정 기타 협조사항	문화재청 소회의실	
2014.12.09.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안) 확정 등재신청서 및 부속자료 제작 관련 기타사항	문화재청 대회의실	
2015.03.30.	예비실사 계획(안) 확정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정관 결정 예비실사 및 실사 대비 예산(안) 승인 실사 대비 연구용역 승인 9개 서원 정비 현황 및 향후 계획	문화재청 소회의실	
2015.11.08.	재단 운영 관련 서원별 유산구역 재설정 관련 향후 추진사업 논의	문화재청 소회의실	

## - 전문위원회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전문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 일자	안 건	장 소	비 고
2012.06.15.	등재신청서 작성에 대한 건 서원총서 작성에 관한 건 기록물 정리작업	국립고궁박물관	
2013.01.10.	2013년 추진단 일정 수립 해외 유사유산 답사 워크숍, 학술대회 개최 서원총서 영문판 제작	국가브랜드위원회 대회의실	
2013.03.15.	향후 등재신청 계획 일정 검토 행정위원회 의결사항 안내 국내/국제학술대회 개최 서원총서 발간 관련	광화문 에코밥상	
2013.05.09.	국제학술대회 개최 해외 유사유산 답사 서원총서 진행사항 도록 발간 진행사항	용산구 비채나	
2013.07.22.	서원총서 진행 및 협의사항 도록 제작 진행사항 등재신청서 관련 논의사항	대학로 토즈	



개최 일자	안 건	장 소	비 고
2013.09.10.	등재추진 관련(문화재위원회) 사항 학술대회/워크숍 개최 서원총서 관련 사항	한국프레스센터	
2013.12.24.	신청유산 명칭 검토 추진단 발간물 관련 사항 검토 학술대회 개최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01.08.	학술대회 개최 및 프로그램 검토	경희궁의 아침	
2014.02.26.	추진계획안 재편성 학술대회 개최 등재신청서 감수 및 현지실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06.12.	유산 영문 명칭 학술대회 개최 보존관리 가이드 방안 향후 항목별 추진 사항 논의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06.12.	유산 영문 명칭 논의 국제학술대회 개최 논의 보존관리 가이드 마련 논의 향후 추진 사항 논의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09.16.	유산 영문 명칭 논의 국제학술대회 개최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및 통합관리위원회 마련 등재 신청 대비 홍보 및 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01.22.	등재신청서 작성 관련 경과 통합관리단 설립 관련 검토 실사 대비 관련 현안 검토 홈페이지 제작	정동 달개비	
2015.06.21.	통합관리단 설립 관련 검토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08.07.	이코모스 실사자 확정 및 대비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9개 서원 현장 점검 통합관리단 설립 관련 검토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08.14.	통합관리단 구성과 역할/기능 관련 검토 사무국 편성 방안 검토	한국학중앙연구원	

### - 9개 서원 운영위원회(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협의회)

9개 서원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협의회를 발족한 이후 매년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상호간의 소통과 이해를 강화시켜 왔다. 협의회는 9개 서원 운영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 감사 등을 선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협의회는 운영은 서원 운영의 주체들이 직접 세계유산목록 등재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원협의회(2014년)



서원협의회(2017년)

## 4) 기타 기초 조사연구 사업

### - 서원총서 집필 및 발행

2012. ~ 2014.  
서원총서 집필 및 발행

서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기 위한 대중서의 간행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역사, 건축, 지리, 문화, 활용 등 관련 연구자들을 확보하여 2권의 서원총서를 기획하였다. 1권은 분야별로 서원에 대한 특성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2권은 신청유산 9개 서원의 특성을 다양한 시각으로 구성하였다. 서원총서 원고 작성 작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인쇄 및 디자인은 도서출판 문사철에서 수행하였다.

서원총서의 목차 및 필자는 아래와 같다.



서원총서 1

#### 서원총서 1 :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 서원의 발자취 | 정만조  
한국 서원과 천인합일 경관 | 김덕현  
한국의 서원 건축 | 이상해  
한국 서원과 교육활동 | 정순우  
한국 성리학과 서원 | 지두환  
한국 서원의 제향 의례 | 정승모·이해준·최순권  
한국 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 이수환  
한국 서원의 지성사적 전통과 지역네트워크 | 이해준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 옥영정  
한국 현대 서원과 서원 현황 | 박성진·최영갑  
부록 : 한국의 서원 자료 | 박진재·정현정



서원총서 2

#### 서원총서 2 : 한국의 서원유산 1

한국의 서원 | 이배용·정만조·이상해  
소수서원 | 정만조·김의환·지두환  
남계서원 | 정순우·이상해·정우락  
옥산서원 | 이수환·이상해·옥영정  
도산서원 | 정만조·정순우·이상해·이수환·옥영정  
필암서원 | 김희태·고영진·변주승·오경택

도동서원 | 김덕현

병산서원 | 이수환·옥영정·이상해

무성서원 | 이해준·이왕기·전경목·박종배

돈암서원 | 이해준·이왕기·홍제연·옥영정

### - 도산서원 모형 제작 및 기증

2014. 07. 10. ~ 10. 30.  
도산서원 모형 제작 및 기증

2013년 2월 유사유산 비교 분석을 위해 중국의 서원을 방문하였을 때, 악록서원 내에 있는 중국서원박물관에 전시된 도산서원 모형이 잘못 제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인지한 안동시와 도산서원에서는 도산서원 모형을 제작하여 악록서원에 기증함으로써, 도산서원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안동시의 의뢰로 도산서원 모형제작에 착수하였다.

추진단은 문화재 모형 제작 경험이 풍부한 (주)강남디자인모형에 의뢰하여 2014년 9월 모형제작을 완료하였다. 10월 14일에는 악록서원 중국서원박물관에서 기증식을 개최하였다. 기증식에는 안동시에서는 김재교 문화관광과장과 손재완 학예연구사, 도산서원에서는 이동구 유사, 추진단 박성진 행정위원회 간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기증식은 모형 제막식과 함께 주한민 악록서원 원장의 감사패 전달, 각 기관의 기념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기증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향후에도 서원·유학의 가치를 바르게 알리고 도산서원과 악록서원 간의 교류협력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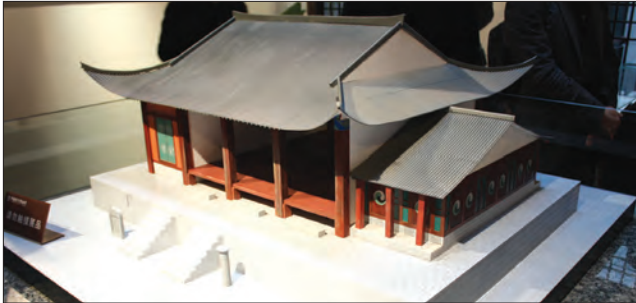




악록서원 내 도산서원모형 제막식(전)



악록서원 내 도산서원모형 제막식(후)



악록서원 중국서원박물관 도산서원모형 교체(전)



악록서원 중국서원박물관 도산서원모형 교체(후)

### - 「한국의 서원」 활용 책자 발간

2015. 03. ~ 10.  
「한국의 서원」 활용 책자 발간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 사업은 오랜기간 준비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활용 방안은 구체적으로 모색되지 못하였다. 서원과 관련한 각종 실태조사보고에서 정리한 서원의 구체적인 교육 체험 프로그램현황을 점검해 보면, 대체로 ① 제향, 각종의례, 문중행사 등으로 활용 층의 제한 ② 예절, 한문, 인성교육,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단일 운영 ③ 정적인 분위기의 수직적 교육 ④ 고건축 중심의 서원문화 이해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는 서원이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활용 프로그램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성을 느꼈다. 추진단은 전문위원들과 함께 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원의 연혁, 연속유산으로의 공통 프로그램, 각 서원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총괄 이해준 교수를 중심으로 9개 서원 공통 내용 1권, 서원별 특화된 사항을 담은 9권 등 총 10권의 활용 책자를 발간하였다. 「한국의 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각 서원의 활용 프로그램을 ‘세계유산’과 ‘연속유산’이라는 틀에서 고민하고 활용하는 시작점이 되었다. 참여연구진은 다음과 같다.

### 총괄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 집필

조대호 (컬쳐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김희태 (전라남도 전문위원)

김자운 (공주대학교 강사)

강경윤 (공주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이병훈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박사과정)

채광수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박사과정)

홍계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자문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덕현 (경상대학교 교수)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수환 (영남대학교 교수)



「한국의 서원」 활용책자

### 03.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

#### 1) 유네스코 세계유산 2015년 등재 신청 후보 선정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 우선 등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어서 2015년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화재청은 2013년 11월 26일(화)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4차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후보 선정을 첫 번째 사안으로 다루었다.

앞서 2013년 8월 27일(화) 제2차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서원」을 비롯한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추진 중에 있는 유산들에 대해 각 추진단에서 진행사항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제2차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가 현황에 대한 보고 형태를 취했다면, 제4차 회의는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대상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한층 더 중요한 자리였다.

문화재청 예규 제148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우선등재목록 중 2개의 유산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 말까지 세계유산 등재 신청후보로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유산분야 우선등재목록인 「한국의 서원」을 2015년도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하는 여부가 심의되었다. 「한국의 서원」은 「한양도성」과 함께 신청대상으로 심의되었다.

신청 절차 및 방식은 추진단이 제출한 자료 및 프레젠테이션의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프레젠테이션은 유산개요, 추진경과, 향후계획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가치, 보존관리 현황, 추진실적 및 계획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최종 등재대상을 결정하였다. 추진단에서 제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2)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대상 선정 사유

### - 유산개요

유 산 명 : 한국의 서원

대 상 :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서원

\* 현재 남한에 있는 서원 637개중 사적으로 지정된 9개소

등재기준 : (ii), (iii), (iv), (vi)

### - 등재기준

(ii) 일정한 시기 또는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보여주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립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시설로서, 중세 동아시아의 중요한 사상 중의 하나인 성리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 사회에 정착·형성한 산실이었음. 중국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이 서원에서 중국, 일본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됨.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자연관과 한국의 문화적 전통이 반영된 교육 유산의 특출한 전형임. 특히 서원의 건축 공간은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 자연관이 반영된 물리적 표상임.



(iv)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서원의 공간은 유식, 강학, 제향으로 구성되는 독특한 구조임. 또한 이 공간의 입지는 건축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택해져 자연경관과 서원의 건축이 하나를 이룸.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 예술, 그리고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위원회는 이 기준은 다른기준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사상과 활동의 보고로서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존속된 곳임. 또한 지역사회의 지성사적·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는 현장임.

## - 향후계획

제3차 국제학술대회 개최

서원총서 영문판 제작 및 관련 자료(고전적·제향·현판 등) 제작 : 연중

영문 등재신청서 및 부속자료 초안 작성, 보완 : 계속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의결 결과 「한국의 서원」이 2015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추진단은 2013년 후반기부터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작성을 중심으로 한 등재 추진 작업에 매진하게 된다.

## 04.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족

### 1) 통합관리 조직의 필요성

「한국의 서원」은 전국에 분포한 9개의 서원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이다. 따라서 단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분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했다. 이러한 점은 유네스코에서 간행한 『세계유산 협약을 위한 이행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다. 연속유산일 경우 통합관리를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다. 이행지침에서 명시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114. 연속유산의 경우 개별 구성요소들의 통합 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나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청서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137-139항 참조).	114. In the case of serial properties, a management system or mechanisms for ensuring the co-ordinated management of the separate components are essential and should be documented in the nomination (see paragraphs 137 -139).

「한국의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추진단에서는 해외 및 국내의 통합관리 사례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합관리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 2) 통합관리단의 설립 과정

### -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체제 제안 연구용역

2014. 08. 01. ~ 2015. 03. 10.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체제  
제안 연구용역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까지 국내에서 연속유산의 통합관리가 구체화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연속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는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이 있었으나, 통합관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서원」과 비슷한 시기에 통합관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참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연구진을 구성하여 국내와 해외에 걸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해당 연구용역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8개월여간 진행되었으며, 참여연구진은 다음과 같다.

연구책임자 :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

박소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조유진 (전)문화재청 세계유산 담당)

연구진들이 통합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통합관리안은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위원회 및 통합보존관리사무국 설치·운영 방안으로써,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추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판단되었다. 국내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조직 구성을 통해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 - 행정위원회 개최

2014. 12. 09.  
행정위원회 개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단에서는 2014년 12월 9일 문화재청 회의실에서 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통합관리 방안을 확정짓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원에 대한 보호·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유산목록 등재 이후 통합관리 조직을 운영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와 통합관리 단체와의 협업은 필수적인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회의 결과 별도의 재단법인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정관 검토를 포함한 실무적인 사안들을 조율하며 재단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 - 통합관리를 위한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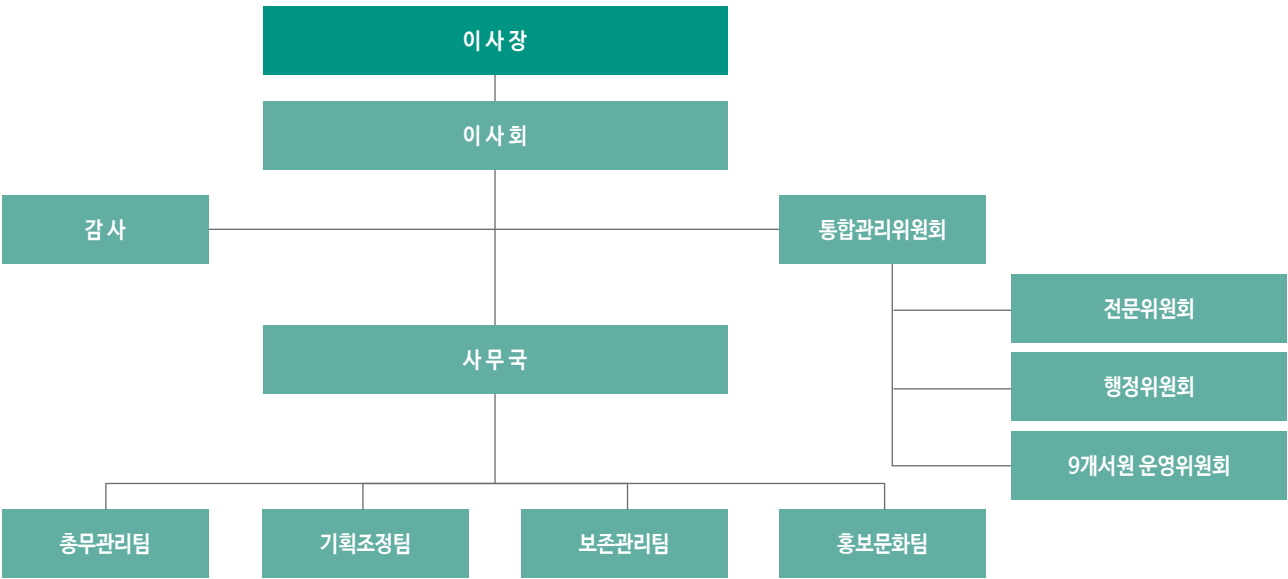
추진단에서는 2014년 12월 통합관리에 대한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무급 협약을 진행하였다. 2012년 4월에 추진했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협약’이 세계유산목록 등재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실무급 협약은 세계유산목록 등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협조와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무급 협약과 함께 재단 이사회 구성도 윤곽을 잡아나가기 시작하였다.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원칙을 정하였다. 우선, 이사장으로는 현재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이배용 추진단장을 선임하였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재담당 국장,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하였다. 9개 서원 운영자 4명을, 전문가는 5명을 이사로 선정하고 감사 1인을 두어 회계 및 관리운영상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행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이원화된 구조에서 이사회와 통합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 행정위원회, 9개 서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조직 구조를 변경하였다. 이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원의 운영자들을 서원 통합 관리의 주체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서원 유림을 모두 통합한 통합관리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사무국 또한 기존의 간사 2인 체제로 운영되던 것을 벗어나 행정, 기획, 보존/관리, 홍보/활용으로 세분화하면서 본격적인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이후 통합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분과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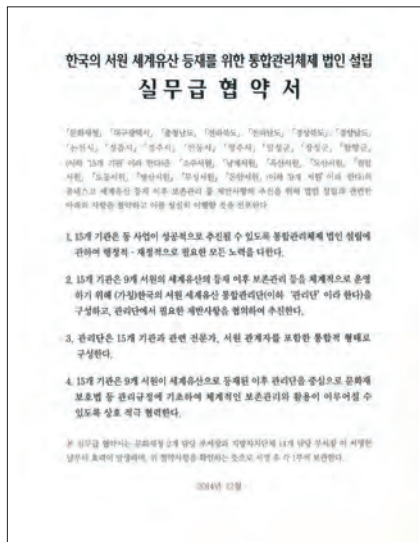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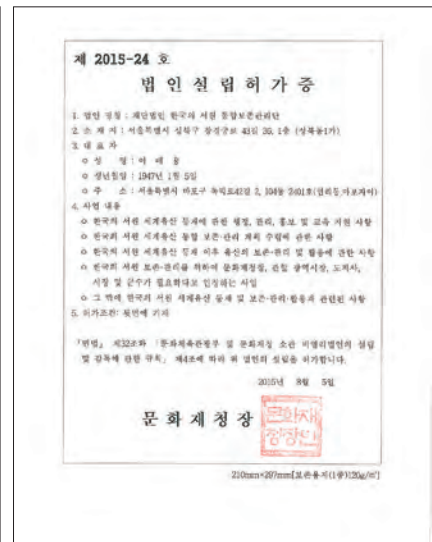
##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법인 설립 허가

2015. 08. 05.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법인 설립 허가

통합관리를 위한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약을 체결한 이후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정관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재단 설립 신청을 하였고, 마침내 2015년 8월 5일 법인설립이 확정되면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법인 설립 실무급 협약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법인설립 허가증

### 3) 추진단과 통합관리단의 공통점과 차이점

업무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추진단과 통합관리단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추진단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만을 목표로 했다면, 통합관리단은 세계유산목록 등재 뿐만 아니라 이후의 통합 보존관리, 홍보 및 활용, 교육 등의 총체적인 운영을 목표로 한다.

둘째, 추진단이 임시조직에 가까웠다면, 통합관리단은 독립된 법인으로 이사회와 통합관리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와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셋째, 추진단이 행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라는 이원화된 조직으로 운영되었다면, 통합관리단은 행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이외에 9개 서원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세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당해 유산에 소속된 대부분의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협업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통합관리단의 설립을 통해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의 큰 윤곽이 정해지게 되었으며 통합관리단을 중심으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추진과 등재 이후 후속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 3

##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제출과 철회

01.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02. 등재신청서 제출을 위한 최종 검토 과정
03.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04.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철회

# 3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제출과 철회



## 01.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 1) 등재신청서(보존관리계획서 포함)

「한국의 서원」은 2011년부터 등재 추진에 참여한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등재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OUV 도출, 비교연구, 보존관리계획 등의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동시에 등재 대상 9개 서원의 도면 및 사진 등의 기초자료들도 함께 확보해왔다. 이와 더불어 2012년부터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및 완전성 등에 대한 점을 중점에 둔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서원」은 2013년 11월 26일에 있었던 2013년도 제4차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후보로 최종 선정되었다. 「한국의 서원」이 2012년 1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린 뒤, 2012년 4월에 발족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은 세계유산목록 등재 목표를 향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2015년 8월부터는 추진단이 아닌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으로 승격되면서 한층 더 질적으로 높은 등재추진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16년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해서는 2015년 2월까지 해당 국가에서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해야 했다. 추진단은 유네스코에 최종적으로 제출할 서류를 등재신청서 외에, 부록으로 보존관리계획서와 도면집, 도록, 영문 안내책자 그리고 동영상으로 구성된 디지털 자료로 계획하였고, 자료제작을 위한 사업들을 차례대로 추진하였다.

### -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진행

2012. 08. ~ 2014. 05.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진행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등재신청서와 부록1에 해당하는 보존관리계획서의 작성은 2012년 8월 30일부터 2014년 5월 15일까지 약 21개월간 ‘(사)이코모스한국위원회’가 수행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정립하고, 진정성 및 완전성, 보존관리체계를 포함한 국·영문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신청 대상은 이미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속해있는 9개 서원으로 하였으며, 신청서의 내용은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발행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등재신청서 1장에는 신청유산에 대한 개요, 2장에는 신청 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고 등재기준 (i)~(vi)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등재기준 3장에는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해야 하며, 진정성과 완전성을 서술해야 한다. 또한 등재신청서의 4~6장에는 보존관리에 대한 내용을 유산의 성격에 맞게 상세히 서술해야 하며, 보존관리계획을 포함한 등재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부록으로 첨부할 수도 있다.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수록된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목차

1. 유산의 명시(Identification of the Property)
2. 유산의 설명(Description)
3. 등재 근거(Justification for Inscription)
4. 보존상태와 유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State of Conservation and Factors affecting the Property)
5. 보호와 관리(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perty)
6. 모니터링(Monitoring)
7. 기록문서(Documentation)
8. 담당기관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of responsible Authorities)
9. 당사국 대표의 서명(Signature on behalf of the State Party)

등재신청서 연구용역은 국문 등재신청서 초고를 2013년까지 완성한 다음, 2014년 영문 초벌 번역을 완성하여 9월경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 초안(draft nomination)을 제출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15년 1월 말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최종 송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세부적인 추진 단계는 총 5단계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전체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등재신청서 작성 사업의 내용과 목표를 숙지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2단계에서는 국문 등재신청서 초고를 작성하였다. 신청서 작성은 OUV 도출, 비교연구, 보존관리, 부록의 보존관리계획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3단계에서는 등재신청서 초고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신청서 초안을 2014년 9월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센터로 송부하였다. 4단계에서는 연구진과 전문위원들이 국문 및 영문 등재신청서 및 부록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해외 등재신청서 관련 전문가를 국내로 초빙하여 영문 등재신청서를 감수받았다. 마지막인 5단계(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에서는 영문 등재신청서의 작성을 최종 마무리 하여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하였다. 등재신청서의 연구와 작성을 수행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 등재신청서 작성 영역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교수)

연구원 :

정만조 (국민대학교 교수)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김덕현 (경상대학교 교수)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박소현 (서울대학교 교수)

이왕기 (목원대학교 교수)

최종희 (배재대학교 교수)

조인철 (원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병주 (한샘디자인연구소 연구원)

### - 등재신청서 영문 번역

등재신청서 작성 3단계부터 진행된 등재신청서와 부록1 보존관리계획서의 영문 번역은 여러 해에 걸쳐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의 등재신청서 번역 사업에 참여해 온 이경희 등이 담당하였다. 번역은 「한국의 서원」의 역사와 의미, 가치에 대해 세계유산목록 등재 심사위원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등재신청서를 정확하고 효과적인 영문으로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3년부터 착수한 등재신청서 번역은 연구용역 마감 이후에도 계속 수정되었다.

## 2) 부속자료(도면 및 사진집, 도록 3종, 서원총서, 홍보영상)

### - 사진 촬영

2013. 04. ~ 10.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사진 촬영

추진단에서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을 위해 2012년부터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신청유산 관련 사진들을 확보하였다. 그런데 해당 사진들은 전문정보다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촬영되거나, 일부는 해상도가 낮아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사진은 신청서뿐만 아니라 홍보자료 등에도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사진작가를 선정, 촬영을 의뢰하였다.

사진작가의 선정은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포함한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총 6인의 후보를 추천 받아 최종적으로 오종은 작가를 선정하였다.

오종은 사진작가는 기 등재된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사진 촬영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 사진 촬영에 전문성을 갖춘 작가였다.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오종은 작가는 직접 서원 운영자들과 소통하며 총 9개 서원의 4계절을 모두 담아내기 위해 악천후를 가리지 않고 촬영에 임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진집에 필요한 「한국의 서원」 사진을 확보하였고, 이후 부록 사진집 및 다양한 자료에 활용하였다.

## - 도면 작성

2013. 04. ~ 08.  
도면 작성

추진단에서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을 위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정밀실측 도면을 확보하였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열람한 결과 작성 시점이나 작성 주체가 달라 통일된 도면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신청서 연구진과 협의하여 통일된 도면을 제작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고, 도면에 대한 재정리 작업에 착수하였다.

등재신청서에 수록할 도면 작성 연구 용역 사업은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수행되었다. 과업 범위는 등재 대상인 9개 서원의 주요 건축물의 평면도, 정면도, 입면도 등을 통일된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도면이 누락된 것은 실측을 통해 작성하였다. 해당 도면은 등재신청서 뿐만 아니라 부록 및 서원 홍보자료 등에 활용되었다.

해당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다.

연구책임자 :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교수)

연 구 원 : 최남섭, 조수현, 강한솔

## - 도면 및 사진집 제작

2013. 11. ~ 2014. 12.  
도면 및 사진집 제작

등재신청서 부록 자료로 도면 및 사진집 제작이 진행되었다. 등재신청서 부록 2 도면 및 사진집 제작 용역 사업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도디자인에서 수행하였다. 도면 및 사진집은 앞에서 진행한 등재 대상 9개 서원의 사진과 도면 외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제공한 유산별 구역 항공사진 등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이미 제작된 사진과 도면을 바탕으로 도면 및 사진집에 수록할 도면들이 등재신청서 작성 작업을 총괄하는 이상해 교수를 중심으로 선별되었다. 도면 및 사진집은 국문과 영문을 합하여 제작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서원 도면 및 사진집』은 2014년 12월에 발간되어, 등재신청서의 부속자료 뿐 아니라 서원에 대한 홍보 및 활용 사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 - 「한국의 서원」 도록 3종 발행

2013. 08. ~ 2014. 12.  
「한국의 서원」 도록 3종 발행

사진과 도면이 서원의 유형적 가치를 나타낸 것이라면, 고문서·현판·제향 등도 서원의 다양한 세계유산 가치를 가진다.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 대상에 속한 9개 서원은 이러한 유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추진단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등재신청서 부록 자료에 추가한다면 한층 높은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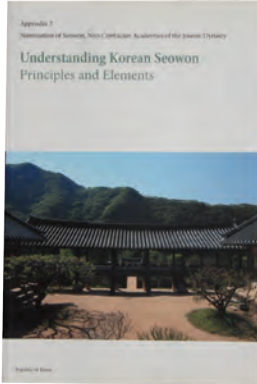
이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등재신청서 부록 3 자료로 도록 3종 작업이 진행되었다. 도록 작업은 총괄을 맡은 이해준 교수를 중심으로, 현판은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 고문서는 이수환 영남대 교수, 목판은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제향은 최순권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가 각각 맡았다. 도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진 촬영이 필요한 경우 이해준 교수가 서원 촬영을 담당했던 오종은 작가와 직접 서원을 방문하여 촬영하기도 하였다.

사진과 원고 초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등재신청서 부록 3 도록 3종 제작 용역 사업을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그래픽네트가 수행하였다. 도록 3종에 수록할 원고와 사진을 이해준 교수가 중심이 되어 선별하였다. 도록 3종은 도면 및 사진 집과 마찬가지로 국문과 영문을 합하여 제작되었다. 도록 3종은 2013년 11월에 발간이 완료되었으며, 등재신청서의 부속자료 뿐 아니라 서원에 대한 홍보 및 활용 사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 -『서원총서』 영문본 간행

2013. 07 ~ 2014. 12.  
『서원총서』 영문본 간행



서원 총서 『한국의 서원』 영문 책자

추진단에서는 2012년부터 교양서인 서원총서 제작을 진행해왔다. 국내에 서원 전공자 대부분을 망라한 서원총서는 「한국의 서원」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자이다. 그러나 서원총서는 한국어로만 제작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추진단에서는 이를 축약, 영어로 번역하여 외국인도 「한국의 서원」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영문번역 작업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였으며 지엘통번역센터(센터장: 진우기)에서 진행하였다. 지엘통번역센터는 이전에도 사찰 등 한국의 문화재 관련 번역을 진행한 경력이 있는 업체로 해당 번역 사업을 무리없이 진행하였다. 번역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상해 교수의 교정 작업을 통해 영문 원고의 완성도를 높였다.

영문번역과 함께 출판 작업도 병행되었다. 출판은 기존에 서원총서를 제작했던 도서출판 문사철에 의뢰하였다. 도서출판 문사철에서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원총서 영문판 제작에 협조해 주었으며, 이는 등재신청서의 부록 4로 첨부될 수 있었다.



『한국의 서원』 도록 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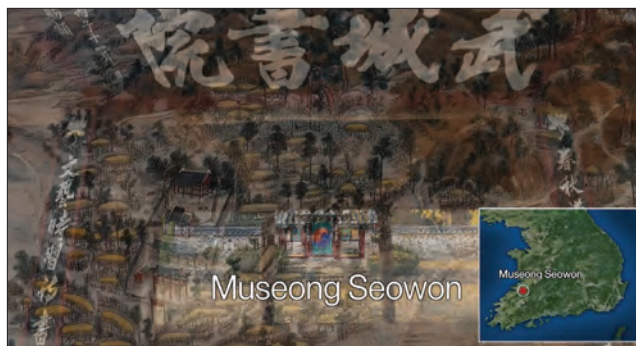


『한국의 서원』 도면 및 사진집

## - 홍보영상 제작

2013. 07. ~ 10.  
홍보영상 제작 사업

등재신청서의 첨부 5 자료 「한국의 서원」 홍보영상 제작은 2013년 7월부터 아리랑 TV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이 홍보영상은 아리랑 TV에 방영하는 50분짜리 영상과 등재신청서 부록으로 활용될 10분짜리 영상으로 이원화하여 제작하였다. 이 홍보영상은 단순한 홍보용이 아니라 등재신청서 부록으로 활용될 영상이기 때문에 등재신청서의 핵심 내용을 담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제작되었다. 9개 서원의 고유한 특성과 함께 서원의 OUV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등재신청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또한 「한국의 서원」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국외의 유사유산들과 비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서 홍보영상 제작은 등재신청서 작성 연구진과 제작진이 긴밀하게 업무를 협조하여 홍보영상 제작을 진행하였다. 아리랑 TV에서는 2012년에도 이미 국가브랜드 위원회와 서원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제작 이관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2015년 1월 최종 완성본이 등재신청서와 함께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서원의 등재추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되었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용 홍보영상 화면

## 02. 등재신청서 제출을 위한 최종 검토 과정

### 1) 국외전문가 초청 검토

#### - 국외전문가 초청 검토

2014. 04. 03. ~ 11.  
국외전문가 초청 검토

추진단과 신청서 작성팀은 2013년 11월 문화재위원회의 우선 등재 추진대상 결정 이후 등재신청서와 부록 1 (보존관리계획서) 작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2014년 초반 등재신청서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신청서 작성팀은 이미 등재신청서를 검토한 경력이 있는 국외전문가에게 세계유산 관점에서 등재신청서를 검토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외전문가 등재신청서 검토는 이미 신청서 용역 사항에 포함된 사업이었다.

추진단에서 초청한 국외전문가는 크리스티나 카메론(Christina Cameron)으로 결정되었다. 그녀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세계유산에 대한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공식 일정은 신청유산에 대한 현장 답사와 등재신청서 검토를 병행하였다.

## 국외전문가 이력



**성명 :** 크리스티나 카메론(Christina Cameron)

**국적 :** 캐나다(Canada)

**전공 :** 건축유산학

### 학력 :

캐나다 토론토 대학 학사

캐나다 브라운 대학 석사

캐나다 라발 대학 건축사학 박사

### 경력 사항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2007)

이외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 경력 다수

2014년 4월 3일(목) 한국에 도착한 카메론은 4월 4일(금)부터 4월 7일(월)까지의 4일간 등재 대상 9개 서원의 답사를 진행하였다. 답사에는 등재신청서 검토자인 카메론,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등재신청서 작성팀, 추진단 사무국 인원이 참석하였다. 답사는 4월 4일에 논산 돈암서원과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암서원, 4월 5일에 함양 남계서원, 달성 도동서원, 경주 옥산서원, 4월 6일에 안동 병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영주 소수서원을 답사하고 4월 7일에 서울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현장 답사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서원 유림들이 참석하여 카메론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었으며,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해 해외에서 방문해준 데에 대한 환대를 잊지 않았다.

4월 8일부터 4월 10일에는 현장 답사 이후 등재신청서 초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는 카메론과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의 성영희 주무관, 등재신청서 작성팀, 추진단 사무국 인원이 참석하였다. 3일간의 검토 자문 회의에서는 신청유산의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등재기준, 비교분석, 보존관리, 모니터링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등재신청서의 보완할 점과 과제를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확인하였다.

9일간 진행된 해외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팀은 등재신청서 수정에 매진하게 되었다.





국외 전문가 현장 답사(돈암서원)



국외 전문가 현장 답사(필암서원)



국외 전문가 등재신청서 검토(경희궁의 아침)



국외 전문가 등재신청서 검토(경희궁의 아침)

등재신청서 초청 검토 일정

일 자	시 간	주요 일정	장 소
04. 03.(목)	11:15	입국	공항
1일차 04. 04. (금)	08:00~	집결	서울
	08:15~11:00	이동(서울-돈암서원)	
	11:00~12:00	탐방	돈암서원
	12:00~13:00	이동(돈암-무성서원)	
	13:00~14:00	중식	
	14:00~15:00	탐방	무성서원
	15:00~16:30	이동(무성-필암서원)	
	16:30~17:30	탐방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17:30~18:30	석식	
	18:30~19:00	숙소	
	19:00~	토론 및 휴식	
2일차 04. 05. (토)	07:30~08:30	조식	
	08:30~10:30	이동(장성-남계서원)	
	10:30~11:30	탐방	남계서원
	11:30~13:30	이동(남계-도동서원)	
	13:30~14:30	중식	
	14:30~15:30	탐방	다람재, 도동서원
	15:30~17:30	이동(도동-옥산서원)	
	17:30~18:30	탐방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18:30~19:30	석식	
	19:30~21:30	이동(옥산-대구시)	
	21:30~22:00	숙소	
	22:30~	토론 및 휴식	호텔
3일차 04. 06. (일)	07:30~08:30	조식	호텔
	08:30~10:30	이동(대구-도산서원)	한국국학진흥원
	10:30~11:30	탐방	도산서원, 유물전시관
	11:30~13:30	이동(도산-병산서원)	
	13:30~14:30	중식	
	14:30~15:30	탐방	병산서원
	15:30~17:00	이동(병산-소수서원)	
	17:00~18:00	탐방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18:00~19:00	석식	
	19:00~19:30	숙소	선비촌
	19:30~	토론 및 휴식	
4일차 04. 07. (월)	07:30~08:30	조식	
	08:30~12:00	이동(영주-서울)	
	12:00~13:00	중식	
	13:00~	휴식	
04. 08.(화)~10.(목)		등재신청서 검토	경복궁 경희궁의아침 (오피스텔)
04. 11.(금) 14:10		출국	공항

## 2) 등재신청서 초고 세계유산센터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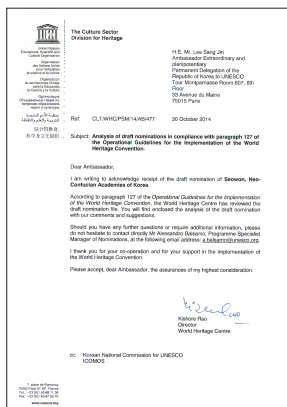
2014. 09.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초고  
세계유산센터 제출

추진단은 2013년도 11월에 개최된 제4차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회의에서 「한국의 서원」이 2015년도 세계유산목록 최종등재 대상에 조건부로 선정됨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기 위한 등재신청서 초고 작성에 매진하였다. 세계유산목록 등재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의하면,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제출을 희망하는 당사국에서는 제출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초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추진단과 등재신청서 작성팀은 국외전문가 검토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영문본 초안을 9월 23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추진단에서 제출한 등재신청서 영문본 초안을 검토하여 9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다.

### - 검토의견서 접수

2014년 9월에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등재신청서 초고에 대한 세계유산센터의 검토의견서가 문화재청에 접수되었다. 9월 26일에 문화재청에서는 검토의견서를 추진단에 통보해왔다. 세계유산센터의 신청서 초고에 대한 검토의견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 검토의견서

## 2016년 위원회 - 신청서 초안 완전성 점검

당사국	대한민국			수령일	26/09/2014
유산명	서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				
Id N°	----	잠정목록 등록	09/12/2011	제안된 기준	(ii) (iii) (iv) (vi)

운영 지침 129~139항 및 부록 5(2011년 7월 개정)에 근거한 신청서 체크리스트  
참고 : 아래에 언급된 의견이 없는 섹션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

## 중요 알림

2015년 2월 1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신청서는 그 전 금요일 오후 5시(GMT)까지, 즉 2015년 1월 30일까지 접수되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파리 시간 오후 6시까지 인쇄물의 요청부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만이, 만약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2016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해 자문기구에 전달됩니다.

## 개요

의견 : 경계 및 완충구역(있는 경우)을 보여주는 신청유산의 A4  
(또는 “letter”) 사이즈 지도

섹션 1에 이를 포함하는 것과 더불어, 제안된 유산의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가 개요에 포함되어야 한다.

##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서술 초안

- 완전성 서술

제공된 서술은 이 섹션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완전성 서술은 이러한 조건들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운영지침 섹션 2.D의 완전성 조건을 유산이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운영지침은 유산의 다음 범위를 평가할 필요성을 규정한다.

- 유산이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 유산은 그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의 완전한 제시를 보장하기에 적절한 크기이다.
- 유산은 개발 및/또는 방치의 부작용을 겪는다(88항).



## 1. 유산의 식별

### 1.d 가장 근접한 지리 좌표

의견 : 제안된 연속유산의 식별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아래 만들어진 것과 같은 표를 사용하여 항목을 적절히 채워야 한다.

ID 번호	구성요소의 명칭	중심점 좌표	해당 유산의 신청요소 지역 (ha)	완충구역 (ha)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총합 →				

### 1.e 등재를 위해 제안된 영역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가능한 경우) 계획

의견 : 이 섹션은 파일 내의 제목, 규모 및 위치(쪽 수, 부록번호 등)와 함께 신청서 파일에 포함된 지도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본문 14~21페이지 내용에 포함된 지도와 위성사진의 크기가 충분치 않다. 이 지도와 위성사진 모두 신청서 파일의 부록으로서 훨씬 더 큰 규모(및 크기)로 제공되어야 한다. 지도와 위성사진의 축소판은 개요에 포함되어야 하며(위의 관련 의견 참조), 각 지도와 사진은 A4 또는 A3 크기여야 한다. 지도에는 좌표와 그들의 크기가 실려 있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지도는 “신청유산”과 그 “완충구역”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범례가 있어야 한다. 지도상의 모든 지형명은 영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 1.f 등재를 위해 제안된 유산지역(ha.) 및 제안된 완충구역(ha.)이 있는 경우

의견 : 섹션 1.d에 포함되는 연속 유산표가 이 섹션까지 다를 수 있다.

## 신청서와 함께 제공된 지도들

의견 : 위 식별 섹션 1.e의 의견을 참조하시오.

## 2. 서술

### 2.a 유산의 서술

의견 : 서술은 공식적으로는 완료되었지만 섹션과 하위 섹션의 길이와 개수 때문에 다소 불명확해 보인다. 이 부분을 간소화하면 신청서의 전반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3. 등재의 정당성

#### 3.3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서술

의견 : 제안된 유산의 완전성에 대한 섹션 3.1.c의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하위 섹션 c. 완전성에 대한 서술 (247 쪽)에 제시된 요약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 개요 항목의 관련 의견을 참조.

### 4. 유산 보존 현황

신청서의 완전성에 관한 운영 지침 요건을 준수.

### 5. 보호와 관리

5.e 유산관리계획 또는 문서화된 관리체계 및 제안된 세계유산의 목적 설명 (복사본 부록 첨부 예정)

의견 : 연속유산의 경우, 구성요소 관리계획의 상호보완성을 입증하고 개별 요소의 조정된 관리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 연속 유산의 관리는 9개의 별도 관리계획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이러한 다양한 계획들이 잠재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해 통합적이거나 또는 보완적이며 효과적인 관리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 6. 모니터링

신청서의 완전성에 관한 운영 지침 요건을 준수.

### 7. 문서화

7.b 유산관리 계획 또는 문서화된 관리 시스템과 유산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발췌 복사본

의견 : 완료예정

### 8. 연락처

신청서의 완전성에 관한 운영 지침 요건을 준수.

추가 의견 :

이 신청서 내용에 포함된 섹션과 하위 섹션의 수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기존 신청서 양식의 주 제목을 다른 항목과 구별하는 것이(글자 크기를 키우는 등) 바람직하다. 또한 신청서 내용의 9개 섹션 사이에 빈 페이지를 두는 것을 권한다.

신청서 완료 및 최종작업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기술 분석에서 언급된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오. 2015년 2월 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세계유산센터의 신청서 접수 마감일은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17시(GMT)입니다. 시간 내에 신청서 파일을 완료하여 복사본의 요청 부수가 서명되어 파리로 보내질 수 있도록 준비.

### 3) 등재신청서 논의 회의

추진단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등재신청서 초고에 대한 세계유산센터의 검토의견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회의를 기획·개최하였다. 회의의 목적은 등재신청서 각 요소에 대해 관련 기관 및 세계유산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 과정을 통해 등재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었다.

세계유산센터로부터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이후 등재신청서 집필진과 추진단은 등재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시 회의를 진행하였다. 11월말부터는 등재신청서 제작을 맡은 (주)그래픽코리아에서 체류하며 등재신청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등재신청서 제작에는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에 다년간의 경력을 갖춘 (전) 문화재청 세계유산 담당자 조유진이 참여하여 도움을 주었다. 또한 세계유산 분야 전문가인 동국대학교 이해은 교수와 건국대학교 최재현 교수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등재신청서 상 오류를 수정해나가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최종 등재신청서 작성 기간 동안 개최한 회의는 다음과 같다.

등재신청서 작업 주요 회의 내역

회의 일자	회의 장소	참석자	논의 내용
2014. 11. 25.	그래픽코리아	그래픽코리아: 이홍택 등 추진단: 박진재	등재신청서 작업 안내
2014. 11. 27.	한국국학진흥원	문화재청: 성영희 전문가: 이상해, 송인호 추진단: 박진재	등재신청서 원고 검토
2014. 12. 02.	그래픽코리아	전문가: 이해은, 조유진 그래픽코리아: 이홍택 등 추진단: 박진재	등재신청서 원고 검토
2014. 12. 05.	그래픽코리아	전문가: 이해은 그래픽코리아: 이홍택 추진단: 박진재	등재신청서 원고 검토
2014. 12. 17.	그래픽코리아	전문가: 이상해, 이해은, 박소현 최재현 조유진 추진단: 박진재	등재신청서 원고 자문
2014. 12. 19.	그래픽코리아	그래픽코리아: 이홍택 등 추진단: 박진재	등재신청서 원고 검토
2014. 12. 23	그래픽코리아	전문가: 이상해, 조유진 그래픽코리아: 이홍택 추진단: 박진재	등재신청서 원고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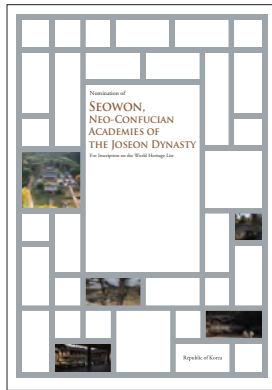
회의 일자	회의 장소	참 석 자	논의 내용
2014. 12. 24.	그래픽코리아	전문가 : 이해은, 조유진 그래픽코리아 : 이홍택 등 추진단 : 박진재	등재신청서 원고 검토
2014. 12. 29.	그래픽코리아	문화재청 : 성영희 전문가 : 이상해, 조유진 그래픽코리아 : 이홍택 등 추진단 : 박진재	등재신청서 원고 검토
2014. 12. 30.	그래픽코리아	전문가 : 이상해, 조유진 그래픽코리아 : 이홍택 추진단 : 박진재	등재신청서 원고 검토
2015. 01. 02.	그래픽코리아	전문가 : 이상해 그래픽코리아 : 이홍택 추진단 : 박진재	등재신청서 원고 검토
2015. 01. 03.	그래픽코리아	전문가 : 이상해, 조유진 그래픽코리아 : 이홍택 추진단 : 박진재	등재신청서 원고 검토
2015. 01. 05.	그래픽코리아	전문가 : 이상해, 박소현, 조유진 그래픽코리아 : 이홍택 추진단 : 박진재	등재신청서 원고 검토
2015. 01. 09.	그래픽코리아	전문가 : 이상해, 조유진 그래픽코리아 : 이홍택 추진단 : 이경동, 박진재	등재신청서 원고 검토
2015. 01. 10.	그래픽코리아	전문가 : 이상해, 조유진 그래픽코리아 : 이홍택 추진단 : 박진재	등재신청서 원고 검토
2015. 01. 11.	그래픽코리아	전문가 : 이상해, 박소현, 조유진 그래픽코리아 : 이홍택 추진단 : 박진재	등재신청서 원고 자문
2015. 01. 13.	그래픽코리아	전문가 : 이해은, 조유진 그래픽코리아 : 이홍택 추진단 : 박진재	등재신청서 원고 자문
2015. 01. 19.	그래픽코리아	전문가 : 이해은 그래픽코리아 : 이홍택 추진단 : 박진재	등재신청서 최종본 검수



### 03.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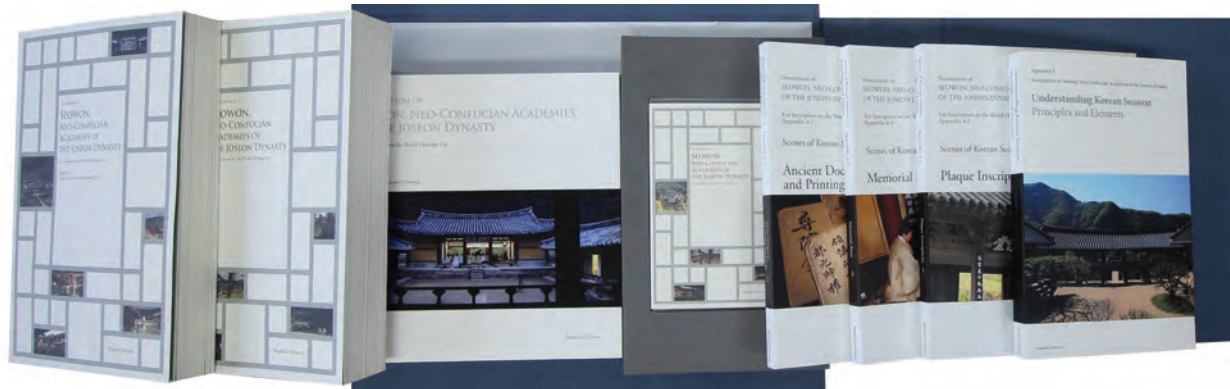
#### 1)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2015. 01. 2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제출



등재신청서 표지

2015년 1월 2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기 위한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최종 영문본이 작성 완료되었고, 이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 등재 신청 국가는 등재신청서를 매년 2월 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해야 함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은 2015년 1월 21일(수)에 외교부 행낭을 통해 등재신청서 최종 영문본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공식 제출하였다. 제출 자료는 등재신청서 본권과 부록1 보존관리계획서, 부록2 도면 및 사진집, 부록 3 도록 3종, 부록 4 한국의 서원 영문 가이드북, 부록 5 홍보영상 등의 다양한 디지털 자료로 구성되었다. 등재신청서 정식 유산명칭은 제출일을 기점으로, 각각 「한국의 서원(Seowon, Neo-confucian Academies of the Joseon Dynasty)」로 변경·확정되었다. 따라서 이후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최종 등재 여부는 2015년 세계유산 자문·심사 기구인 이코모스의 현지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2016년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게 되었다.



등재신청서 발송본(부속자료 포함)

## 2) 현지실사 대비 예비실사

2015년 1월 21일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이후,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이코모스의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과정을 거쳐야했다. 세계유산목록 등재 절차에 따르면, 등재를 결정하기에 앞서 문화유산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에서 실사자의 자격으로 현지에 파견된다. 파견된 이코모스 위원은 신청유산과 관련된 구역설정 및 보존관리 상황 등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실사하여 실사평가 보고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다.

추진단은 「한국의 서원」의 성공적인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목표로 2015년 9월에 있을 이코모스의 현지실사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국내 전문가 현장점검과 국외전문가 초청 예비실사를 각각 진행하였다.

### ① 국내 전문가 현장점검

국내 전문가 현장점검은 현지실사 준비를 위해 각 서원의 보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발표자들의 예행연습과 실사 때의 동선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획되었다. 현장점검은 추진단 전문위원들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각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였으며, 크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이배용 추진단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알려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현장점검시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와 국제협력과 담당자도 배석하여 필요시 문화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 1차 현장점검

2015. 03. 05. ~ 06. 1차 현장점검  
1차 현장점검은 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에 소재한 4개 서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대상 : 돈암서원, 무성서원, 필암서원, 남계서원

일 정	진행 시간	소요(분)	진행 내용	비 고
03. 05. (목)	08:00~10:30	150	서울→논산 이동	버스
	10:30~12:00	90	돈암서원 현장 점검	
	12:00~13:30	90	중식	
	13:30~14:30	60	논산→정읍 이동	버스
	14:30~16:00	90	무성서원 현장 점검	
	16:00~17:30	90	정읍→장성 이동	버스
	17:30~19:00	90	석식	
	19:00~21:00	120	토론	
03. 06. (금)	08:00~09:00	60	조식	
	09:00~10:30	90	필암서원 현장 점검	
	10:30~12:00	90	장성→함양 이동	버스
	12:00~13:00	60	중식	
	13:00~14:30	90	남계서원 현장 점검	
	14:30~17:00	150	함양→서울 이동	버스

## - 2차 현장점검

2015. 03. 12. ~ 13. 2차 현장점검  
2차 현장점검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소재한 5개 서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대상 : 옥산서원, 도동서원,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일 정	진행 시간	소요(분)	진행 내용	비 고
03. 12. (목)	08:00~10:20	140	서울→신경주역 이동	KTX
	10:20~10:50	30	신경주역→옥산서원 이동	버스
	10:50~12:20	90	옥산서원 현장 점검	
	12:20~13:30	70	중식	
	13:30~15:00	90	경주→달성 이동	버스
	15:00~16:30	90	도동서원 현장 점검	
	16:30~17:30	90	달성→대구 이동	버스
	17:30~19:00	90	석식	
	19:00~21:00	120	토론	

일 정	진행 시간	소요(분)	진행 내용	비 고
03. 13. (금)	08:00~09:00	60	조식	
	09:00~10:00	60	대구→영주 이동	버스
	10:00~11:30	90	소수서원 현장 점검	
	11:30~13:00	90	중식	
	13:00~14:00	60	영주→안동	버스
	14:00~15:30	90	도산서원 현장 점검	
	15:30~16:00	30	도산서원→병산서원	버스
	16:00~17:30	90	병산서원 현장점검	
	17:30~19:00	90	안동→서울 이동	버스

두 차례의 현장점검을 통해 실사 동선에 대한 의견들을 논의하였다. 동선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돈암서원 혹은 소수서원에서 출발하여 등재 대상 서원들을 실사하는 것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점이 논의의 주를 이루었다. 논의가 하나로 일관되지 못하게 되자, 최종적으로는 두 차례의 예비실사를 통해 실사 동선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로 합의되었다.



9개 서원 현장점검



## - 행정위원회 개최

2015. 03. 30.  
행정위원회 개최

현장점검을 마치고 예비실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3월 30일(월) 행정위원회가 열렸다. 문화재청에서 있었던 이 회의에는 문화재청(보존정책과, 국제협력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추진단 사무국 인원 총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 \* 사전점검에 따른 각 서원별 보완사항 공유
  - \*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 \* 서원별 단기, 중기, 장기 계획 수립
- 실사대비 진행사항
  - \* 실사시 서원별 특성 설명 방안
  - \* 실사를 대비한 주변정비

이 회의에서는 전문가 현장점검에 따른 보완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 여부를 보존정책과와 협의하였다. 또한 정비사항에 대해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경미한 조치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② 국외전문가 초청 1차 예비실사: 구어짚

2015년 4월 26일(일) ~ 4월 29일(수)까지 국외전문가 초청 예비실사가 진행되었다. 예비실사는 2015년 9월 현지실사를 대비하여, 해외전문가와 통역 등 현지실사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해당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미비점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였다. 예비실사에는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유산들의 현지실사에 실사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구어짚(Guo Zhan, 郭旃) (전) 이코모스 중국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실사자로 참여하였다.

추진단 사무국에서는 예비실사에 대한 일정을 예비실사자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서원 운영자들과 조율하는 한편, 각 서원별 보존관리 현황 발표를 위한 시나리오 및 판넬 제작에 착수하였다. 또한 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 서원별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과 소통하며 예비실사를 준비해 나갔다.

### - 1차 예비실사 대비 보존관리 워크숍 개최

2015. 04. 17.  
1차 예비실사 대비 보존관리  
워크숍 개최

예비실사 일정이 확정된 후 예비실사 준비를 위한 워크숍이 2015년 4월 17일(금)에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렸다. 워크숍에는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서원운영자, 전문가, 추진단 사무국 인원 총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워크숍에는 각 서원별 보존관리 발표를 담당할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발표와 실사 동선안을 논의하였다.

2015. 04. 26. ~ 29.  
1차 예비실사

예비실사는 구어짠 부위원장이 산사 국제학술대회로 인해 국내에 체류하는 관계로 국제학술대회 일정 이후 4일 동안 필암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남계서원, 도동서원, 옥산서원, 병산서원, 도산서원, 소수서원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참석인원은 전문가, 문화재청, 지자체, 서원, 사무국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소수서원의 예비실사를 마치고 나서는 구어짠 부위원장의 예비실사 총평을 통해 현 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었다.

1차 예비실사에서 구어짠 부위원장은 예비실사 과정 중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예비실사를 통해 앞서 추진단 전문위원들에 의해 제시한 사항들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지실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동선과 시나리오, 패넬이 현지실사에 적합한지 또는 개선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1차 예비실사는 동아시아에 있는 세계유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원의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예비실사 초청 국외전문가 이력



**성명 :** 구어썬(Guo Zhan, 郭旃)

**국적 :** 중국 (China)

### 학력 사항 :

중국 북경대학교 학사

중국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 과정

### 경력 사항 :

이코모스 부위원장

이코모스 중국위원회 부위원장

중국 국가문물국 세계유산처장

중국 만리장성 학회 이사

중국 문물학회 세계유산연구회 회장

### 1차 예비실사 세부일정

\* 수행통역 : 조유진

일정	시간	주요 내용	장소
1일차 04. 26. (일)	07:35~08:15	실사자 접촉	서울
	08:15~10:02	이동	서울→광주(KTX)
	10:02~11:00	이동	광주→장성(버스)
	11:00~12:00	유산 개요 설명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12:00~13:00	예비실사 (1일차)	중식
	13:00~14:30		필암서원 실사
	14:30~16:00		장성→정읍(버스)
	16:00~17:30		무성서원 실사
	17:30~18:30		정읍→논산(버스)
	18:30~19:30		석식
	19:30~	휴식	
2일차 04. 27. (월)	08:30~09:00	예비실사 (2일차)	숙소→돈암(버스)
	09:00~10:30		돈암서원 실사
	10:30~12:30		논산→함양(버스)
	12:30~13:30		중식
	13:30~15:00		남계서원 실사
	15:00~17:00		함양→달성(버스)
	17:00~18:30		도동서원 실사
	18:30~19:30		석식
	19:30~	휴식	

일정	시간	주요 내용	장소
3일차 04. 28. (화)	09:00~10:30	예비실사 (3일차)	대구→경주(버스)
	10:30~12:00		옥산서원 실사
	12:00~13:00		중식
	13:00~16:00		경주→안동(버스)
	16:00~17:30		병산서원 실사
	17:30~19:00		석식
	19:00~	휴식	
4일차 04. 29. (수)	09:00~10:00	예비실사 (4일차)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
	10:00~11:30		도산서원 실사
	11:30~12:30		중식
	12:30~14:00		안동→영주(버스)
	14:00~16:00		소수서원 실사
	16:00~17:30	9개 서원 총평	소수박물관
	17:30~19:00	환송만찬	
	19:00~22:00	이동	영주→서울
	22:00~	휴식	
04. 30.(목)	09:20	예비실사자 출국	김포공항

### ① 장성 이동 및 유산 개요 설명

- 일 시 : 2015년 4월 26일(일)
- 장 소 :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 발표자
  - \* 개 요 : 김연수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과장
  - \* O U V :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교수
  - \* 보존관리 : 박소현 서울대학교 교수

### ② 장성 필암서원

- 일 시 : 2015년 4월 26일(일)
- 장 소 : 장성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집성관
- 발표자
  - \* 개 요 : 전라남도 전문위원 김희태
  - \* 보존관리 : 장성군 문화관광과 계장 오순교



### ③ 정읍 무성서원

- 일 시 : 2015년 4월 26일(일)
- 장 소 : 정읍 무성서원
- 발표자
  - \* 개 요 : 태산선비문화사료관 관장 안성렬
  - \* 보존관리 : 정읍시 문화예술과 과장 김형근

### ④ 논산 돈암서원

- 일 시 : 2015년 4월 27일(월)
- 장 소 : 논산 돈암서원
- 발표자
  - \* 개 요 : 이왕기 목원대학교 교수
  - \* 보존관리 : 논산시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 고유진

### ⑤ 함양 남계서원

- 일 시 : 2015년 4월 27일(월)
- 장 소 : 함양 남계서원
- 발표자
  - \* 개 요 : 행정위원회 간사장 박성진
  - \* 보존관리 : 함양군 문화관광과 과장 정대훈

### ⑥ 달성 도동서원

- 일 시 : 2015년 4월 27일(월)
- 장 소 : 달성 도동서원
- 발표자
  - \* 개 요 : 김덕현 경상대학교 교수
  - \* 보존관리 : 달성군 관광과 과장 표준식

### ⑦ 경주 옥산서원

- 일 시 : 2015년 4월 28일(화)
- 장 소 : 경주 옥산서원 및 유물전시관
- 발표자
  - \* 개 요 : 영남대학교 이수환 교수
  - \* 보존관리 : 경주시 문화재과 팀장 김창섭

### ⑧ 안동 병산서원

- 일 시 : 2015년 4월 28일(화)
- 장 소 : 안동 병산서원
- 발표자
  - \* 개 요 : 김덕현 경상대학교 교수
  - \* 보존관리 : 안동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손상락

### ⑨ 안동 도산서원(한국국학진흥원)

- 일 시 : 2015년 4월 29일(수)
- 장 소 : 안동 도산서원 및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
- 발표자
  - \* 개 요 :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 보존관리 : (도산서원) 안동시 문화예술과 과장 김재교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 박순

### ⑩ 영주 소수서원(소수박물관)

- 일 시 : 2015년 4월 29일(수)
- 장 소 : 영주 소수서원 및 소수박물관
- 발표자
  - \* 개 요 : (소수서원) 박성진 행정위원회 간사장,  
(소수박물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팀장 송준태
  - \* 보존관리 : 영주시 문화예술과 과장 장기진

### ⑪ 9개 서원 예비실사 총평

- 일 시 : 2015년 4월 29일(수)
- 장 소 : 소수박물관 내 대강당
- 실사자 총평 주요 내용

구분	내용
OUV 관련	- 개별 유산이 아닌 연속유산으로서의 가치 입증 필요
향후 실사자 예상 질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의 진정성, 완전성, 보존관리 중점</li> <li>-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기준과 규제조건 제시</li> <li>- 관리규정, 보존계획, 수행기관, 인력상황, 인력의 훈련수준, 예산 등 제시</li> <li>- 유산의 지속가능(활용) 여부 제시</li> <li>- 서원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의 협력체계 제시</li> <li>- 예상되는 자연재해 및 예방, 관광객 압력 및 대처방법 제시</li> <li>- 서원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운영방안 제시</li> <li>- 모니터링 시스템 제시</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사자에게 유산 설명 시 과도한 긴장 금물(차분하게 진행 필요)</li> <li>- 보수정비 과정에서 모든 서원이 일원적인 접근은 지양(단청 등)</li> <li>- 전선 지중화 사업 요망</li> </ul>



개요 브리핑



필암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남계서원



도동서원



옥산서원



병산서원



도산서원



소수서원



총평



총평



### ③ 국외전문가 초청 2차 예비실사: 크리스탈 버클리

1차 예비실사가 한국과 인접한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를 초청한 것이라면 2차 예비실사에는 동아시아 지역 밖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예비실사를 진행하자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9월에 진행될 현지실사자의 경우 어떤 지역의 전문가가 현지실사를 수행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예비실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추진단은 2차 예비실사에서 비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지실사에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차 예비실사에는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유산들의 현지실사에 실사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크리스탈 버클리(Kristal Buckley) 이코모스 무형문화유산과 위원이 예비실사자로 참여하였다.

추진단 사무국에서는 2차 예비실사에 대한 일정을 예비실사자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서원 운영자들과 조율하는 한편, 1차 예비실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나리오 수정 및 판넬 제작에 착수하였다.

### - 2차 예비실사 대비 보존관리 워크숍 개최

2015. 05. 27.  
2차 예비실사 대비 보존관리  
워크숍 개최

2차 예비실사 준비를 위한 워크숍이 2015년 5월 27일에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열렸다. 워크숍에는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서원운영자, 전문가, 추진단 사무국 인원 총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워크숍에는 1차 예비실사에서 제기된 보완사항과 2차 예비실사 동선 등을 논의하였다.

## - 2차 예비실사

2015. 06. 07. ~ 13.  
2차 예비실사

2015년 6월 7일(일) ~ 6월 13일(토)까지 2차 예비실사가 진행되었다. 예비실사는 1차 예비실사와 마찬가지로 현지실사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예행연습을 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또한 1차 예비실사에서 미비한 점들을 한층 보강하고, 예비실사의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연장했다. 예비실사는 해외전문가의 입국일을 제외한 5일동안 소수서원을 시작으로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남계서원, 필암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인원은 1차 예비실사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서원, 사무국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2차 예비실사는 1차 예비실사의 경험을 토대로 한층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2차 예비실사를 통해 앞선 1차 예비실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차 예비실사와는 다른 경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이동경로와 시나리오, 패널이 1차 예비실사와 비교하여 어떤 방식이 현지실사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2차례의 해외전문가 초청 예비실사는 9월 현지실사의 대비로서 큰 도움을 주었다.

## 예비실사 초청 국외전문가 이력



**성명 :** 크리스탈 버클리(Kristal Buckley)

**국적 :** 호주(Australia)

### **학력 :**

호주 뉴 잉글랜드대학 고고학 준석사

호주 멜버른 대학 문화유산학 박사

### **경력 사항 :**

세계유산위원회 위원 (2007-2014)

ICOMOS 부위원장 (2005-2014)

## 2차 예비실사 세부일정

\* 수행통역 : 조유진

일정	시간	주요 내용	장 소
6.7.(일)	21:10~	입국	인천공항
1일차 06. 08. (월)	09:00~12:00	이동	서울→영주
	12:00~13:00	중식	
	13:00~13:10	이동	
	13:10~14:00	신청유산 개요 브리핑	영주시청 상황실
	14:00~14:30	이동	영주시청→소수서원
	14:30~16:00	예비실사	소수서원
	16:00~17:30	이동	소수서원→식당
	17:30~18:30	석식	
	18:30~18:50	이동	
	18:50~	휴식	안동
2일차 06. 09. (화)	07:00~08:00	조식	
	08:00~08:50	이동	숙소→도산서원
	08:50~10:20	예비실사	도산서원
	10:20~10:30	이동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10:30~11:10	예비실사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11:10~11:30	이동	선비문화수련원→장판각
	11:30~12:30	예비실사	장판각
	12:30~13:30	이동	장판각→식당
	13:30~14:30	중식	
	14:30~15:00	이동	
	15:00~16:30	예비실사	병산서원
	16:30~19:00	이동	병산서원→경주
	19:00~20:00	석식	
	20:00~20:10	이동	
	20:10~	휴식	현대호텔
3일차 06. 10. (수)	08:00~09:00	조식	현대호텔
	09:00~10:00	이동	숙소→옥산서원
	10:00~11:30	예비실사	옥산서원
	11:30~11:40	이동	옥산서원→식당
	11:40~12:40	중식	
	12:40~14:50	이동	경주→달성
	14:50~16:20	예비실사	도동서원
	16:20~17:40	이동	도동서원→대구
	17:40~18:40	석식	
	18:40~18:50	이동	
	18:50~	휴식	

일 정	시 간	주요 내용	장 소
4일차 06. 11. (목)	08:00~09:00	조식	
	09:00~10:30	이동	숙소→남계서원
	10:30~12:00	예비실사	남계서원
	12:00~12:20	이동	
	12:20~13:20	중식	
	13:20~15:30	이동	함양→강성
	15:30~17:00	예비실사	필암서원
	17:00~18:30	이동	
	18:30~19:30	석식	
	19:30~19:40	이동	
	19:40~	휴식	
5일차 06. 12. (금)	08:00~09:00	조식	
	09:00~10:00	이동	숙소→무성서원
	10:00~11:30	예비실사	무성서원
	11:30~12:40	이동	
	12:40~13:40	중식	
	13:40~14:00	이동	
	14:00~15:30	예비실사	돈암서원
	15:30~16:00	총평 준비시간	돈암서원
	16:00~16:20	이동	돈암서원→논산시청
	16:20~17:20	신청유산 총평	논산시청 상황실
	17:20~17:30	이동	시청→식당
	17:30~18:30	만찬	
	18:30~21:00	이동	
	21:00~21:30	이동	
	21:30~	휴식	
6일차 06. 13. (토)	07:00~08:00	조식	
	12:00	체크아웃	
	12:00~13:00	이동	인천공항
	15:10	출국	



### ① 영주 이동 및 유산 소개 및 인솔 설명

- 일 시 : 2015년 6월 8일(월)
- 장 소 : 영주시청 상황실
- 발표자
  - \* 신청유산의 OUV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상해
  - \* 한국의 문화재(사적) 관리시스템 :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과장 김연수
  - \* 신청유산의 보존관리 : 서울대학교 교수 박소현

### ② 소수서원(소수박물관)

- 일 시 : 2015년 6월 8일(월)
- 장 소 : 소수서원 및 소수박물관
- 발표자
  - \* 소개 및 인솔 : 행정위원회 간사장 박성진
  - \* 보존관리 : 영주시 문화예술과 과장 장기진

### ③ 도산서원(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한국국학진흥원)

- 일 시 : 2015년 6월 9일(화)
- 장 소 : 도산서원,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한국국학진흥원
- 발표자
  - \* 소개 및 인솔 : (도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순우,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원장 김종길,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 박순
  - \* 보존관리 : 안동시 문화예술과 과장 김재교

### ④ 병산서원

- 일 시 : 2015년 6월 9일(화)
- 장 소 : 병산서원
- 발표자
  - \* 소개 및 인솔 : 경상대학교 교수 김덕현
  - \* 보존관리 : 안동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손상락

### ⑤ 옥산서원

- 일 시 : 2015년 6월 10일(수)
- 장 소 : 옥산서원 및 유물전시관
- 발표자
  - \* 소개 및 인솔 : 영남대학교 교수 이수환
  - \* 보존관리 : 경주시 문화재과 팀장 김창섭

### ⑥ 도동서원

- 일 시 : 2015년 6월 10일(수)
- 장 소 : 도동서원
- 발표자
  - \* 소개 및 인솔 : 경상대학교 교수 김덕현
  - \* 보존관리 : 달성군 관광과 과장 표준식

### ⑦ 남계서원

- 일 시 : 2015년 6월 11일(목)
- 장 소 : 남계서원
- 발표자
  - \* 소개 및 인솔 : 행정위원회 간사장 박성진
  - \* 보존관리 : 함양군 문화관광과 과장 정대훈

### ⑧ 필암서원

- 일 시 : 2015년 6월 11일(목)
- 장 소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집성관
- 발표자
  - \* 소개 및 인솔 : 공주대학교 교수 이해준
  - \* 보존관리 : 장성군 문화관광과 팀장 오순교

### ⑨ 무성서원

- 일 시 : 2015년 6월 12일(금)
- 장 소 : 무성서원
- 발표자
  - \* 소개 및 인솔 : 공주대학교 교수 이해준
  - \* 보존관리 : 정읍시 문화예술과 과장 김형근

### ⑩ 돈암서원

- 일 시 : 2015년 6월 12일(금)
- 장 소 : 돈암서원
- 발표자
  - \* 소개 및 인솔: 목원대학교 교수 이왕기
  - \* 보존관리: 논산시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 고유진

### ⑪ 9개 서원 예비실사 총평

- 일 시 : 2015년 6월 12일(금)
- 장 소 : 논산시청 상황실
- 실사자 총평 주요내용

구분	내용
통합관리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속유산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없어도 보류나 반력을 받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통합관리체계의 부재임</li> <li>- 서원 통합관리기구의 확실한 역할 및 의사결정 참여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li> <li>- 의사 결정단계에서 통합관리기구의 개입이 보이지 않음</li> <li>- 추진단과 지자체와의 연계가 모호하며 어떠한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li> </ul>
유산·완충구역 경계선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 및 완충구역의 경계에 대한 완벽한 숙지 및 설명</li> <li>- 서원 특성 상 건축물 뿐 아닌 지형 및 주변경관의 경계선 포함 여부까지 숙지</li> <li>- 지도에서의 현 위치 파악</li> <li>- 완충구역에 강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좋은 사례</li> </ul>

구분	내용
9개 서원별 경계선 파악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서원 : 문제없음</li> <li>- 도산서원 : 유산구역의 설정이 완벽하지 않음, 시사단의 충분한 보호가 필요해 보임</li> <li>- 병산서원 : 문제없음. 단, 역사마을과 경계선이 상이한 이유 충분히 설명할 필요 있음</li> <li>- 옥산서원 : 문제없음</li> <li>- 도동서원 : 다람재에서는 유산·완충구역의 경계가 명확히 보임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못할 시 들리지 않을 것을 권고. 특히 강 건너 완충구역에 대한 설명 불충분.</li> <li>- 남계서원 : 질문의 여지(특히 경관 보존관리)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할애</li> <li>- 필암서원 : 문제없음</li> <li>- 무성서원 : 마을 내의 위치로 인해 완충구역 경계선은 마을을 경계삼아야 함</li> <li>- 돈암서원 : 문제없음</li> </ul>
진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한 이해 : 동일한 위치에 설립된 것은 진정성 회복과 무관함</li> <li>- 예전으로 되돌리는 사업(도산서원, 도동서원)이 진정성 회복으로 볼 수 없음</li> </ul>
보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에 맞는 보존관리의 중요성 이해</li> <li>-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가 기반하는 보존관리 원칙 설립을 권고</li> <li>- 현장에 있는 보존관리 관련 자료에 지향하는 목표점을 포함하길 권고</li> <li>- 단청 : 서원마다 시기, 상태, 색깔, 기속 등이 다름 → 관리가 획일적이지 않아 좋은 사례</li> <li>- 방재시설 : 전반적으로 좋음. 방재시설 차폐상자가 경관을 저해하는 서원 있음</li> <li>- 흰개미 예방 : 실사자가 건축가일 경우 더 깊게 질문할 수 있음</li> <li>- 향후 프로젝트 시 부재교체 및 건축물에 대한 기술력 등을 설명</li> <li>- 소나무의 개별적 관리 및 재선충 예방이 OUV를 위해 중요</li> <li>- 현장관리 인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수 및 전문성의 수준 언급 필요</li> <li>- 민가철거 및 주민 이전 시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 화재 이외의 재난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함(방문객 사고에 대한 위험 등도 고려 필요)</li> <li>- 발 표 : 각 서원 방문시 들었던 개별서원 신청이유, 역사적 특이성, 건축적 특이성 등에 대해서 전체 발표에 정보를 전달 받으면 좋겠음</li> <li>- 방 문 객 : 증가를 예상할 경우 더 상세하고 논리적인 분석 필요</li> <li>-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 9개의 서원이 선정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 필요</li> <li>· 보수/복원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시 참여 기관, 인력의 전문성 등 구체적으로 설명</li> </ul> </li> </ul>





개요 브리핑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남계서원



필암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충평

### 3) 이코모스 현지실사

관리단은 2015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으로 신청한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이코모스 현지실사를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진행하였다. 현지실사의 목적은 유산의 진정성 및 완전성, 보존관리, 방문객 관리, 모니터링 상황 및 계획이라는 신청서 상의 다섯 가지 요소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코모스의 데스크리뷰를 통한 서류 검토 및 평가와 함께, 현지실사는 세계유산센터의 의뢰에 따라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에서 수행한다. 서원의 현지실사는 홍콩대학교 건축학부 린 디스테파노(Lynne DiStefano) 부교수가 담당하였다. 그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의 2009년 현지실사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현지실사는 심사단계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유산의 진정성 및 완전성, 해당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보존관리 현황과 법적 관리체제를 조사내용으로 하였다.

#### 현지실사 평가자 이력



**성명 :** 린 디스테파노(Lynne DiStefano)

**국적 :** 캐나다 (Canada)

**소속 :** 홍콩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건축보존프로그램 담당)

**학 력 :**

미국 러셀 세이지 대학 학사 (1962)

미국 보스턴 대학 석사 (1964)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박사 (1973)

영국 요크대학 보존재료·기술학 박사 후 과정 (1988)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 박물관 경영학 수료 (1995)

#### 경력 사항 :

미국 코넬대학교 박물관 부학예사 (1966~1967)

캐나다 브레시아 대학 부교수 (1968~1996)

캐나다 디스테파노社 보존 고문 (1987~1997)

캐나다 런던박물관 수석 학예사 (1989~1996)

홍콩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2005~현재)

홍콩건축보존회 창립 회장 (2010~현재)

ICOMOS 캐나다 회원 (2010~현재)

#### UNESCO 및 ICOMOS 관련 경력 :

ICOMOS 캐나다 집행위원(1988~1995)

중국 등재신청 「카이핑 누각과 촌락」 ICOMOS 전문가 실사(2006)

중국 등재신청 「푸젠 토루」 ICOMOS 전문가 실사(2007)

한국 등재신청 「하회·양동마을」 ICOMOS 전문가 실사(2009)

필리핀 세계유산 「코디렐라스 계단식 논」 대응 모니터링 ICOMOS 전문가(2011)

라오스 세계유산 「왓푸 사원과 고대 주거지」 대응 모니터링 ICOMOS 전문가(2011)

일본 등재신청 「후지산」 ICOMOS 전문가 실사(2012)

중국 등재신청 「실크로드」 ICOMOS 전문가 실사(2013)

중국 세계유산 「우당산」 대응 모니터링 ICOMOS 전문가 실사(2014)

#### - 현지실사 대비 보존관리 현황 점검회의

2015. 07. 17.  
「한국의 서원」 현지실사 대비  
보존관리 현황 워크숍

현지실사에 앞서 현지실사를 대비하기 위한 보존관리 현황 워크숍이 2015년 7월 17일(금)에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워크숍에는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서원운영자, 사무국 인원을 포함한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은 1차 및 2차 예비실사 관련 보완사항, 각 서원별 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실사에 발표를 진행할 각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발표에 따른 보완점도 동시에 검토되었다.

## - 현지실사 대비 보존관리 현황 최종 워크숍

2015. 08. 21.  
현지실사 대비 보존관리 현황  
최종 워크숍

현지실사가 한달여 남은 시점에 현지실사를 대비하기 위한 최종 워크숍이 2015년 8월 21일(금) 한국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워크숍에는 서원, 문화재청, 지자체, 사무국 인원을 포함한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은 크게 실사 관련 주요 전달사항(일정, 주의사항, 각 발표의 보완사항)과 현지실사에 발표자료 선정된 인원들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마지막 현지실사 발표내용을 점검하였다는 점에서 최종 점검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 - 현지실사 대비 사전점검

2015. 08. 24. ~ 25.  
1차 사전점검 :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한국의 서원」 현지실사의 최종 마무리 차원에서 9개 서원에 대한 최종 현장점검이 진행되었다. 현장점검은 1차로 대구·경북지역의 5개 서원을 진행하고, 2차로 충청·전라·경남지역의 4개 서원을 진행하였다. 이배용 관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중심으로 진행된 현장점검에서는 보존관리 현황을 중심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예비실사 전까지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5. 09. 03. ~ 04.  
2차 사전점검 : 돈암서원, 필암서원,  
무성서원, 남계서원

## - 전문가 현지실사

### 1) 개요

2015. 09. 15. ~ 19.  
「한국의 서원」 현지실사

내 용 : 「한국의 서원」(Seowon, Neo-Confucian Academies of the Joseon Dynasty) 현지실사

일 시 : 2015년 9월 15일(화) ~ 19일(토)

장 소 :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후보 9개 서원(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 현지실사 주요 일정



## 2) 신청유산 개요 브리핑

내 용 : 현지 실사를 위한 사전 개요

일 시 : 2015년 9월 15일(화) 13:00 ~ 14:15

장 소 : 영주시청 상황실

### 참석자

문화재청 : 국제협력과 과장 김연수, 주무관 문경규

광역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현기, 문화유산과 과장 김희일, 김승수 주무관

기초지방자치단체 :

영주시 시장 장옥현, 문화예술과 과장 장기진, 팀장 금창현

달성군 문화재과 계장 조은미

논산시 문화관광과 팀장 윤선미, 학예연구사 고유진

정읍시 문화예술과 과장 송양조, 팀장 서인석

장성군 문화관광과 주무관 손현주

경주시 문화재과 계장 이상원, 주무관 김성수

안동시 문화예술과 김재교 과장, 학예연구사 손상락 손재완

함양군 문화관광과 주무관 김정삼

전문가(전문위원 및 집필진) :

교수 이상해, 박소현, 김덕현, 이해준, 정순우, 이왕기

관리단 : 이사장 이배용, 사무국장 박성진,

사무국 직원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기 타 : 통역 조유진, 사진 오종은



개요 브리핑



개요 브리핑

### 3) 서원별 현지 실사

#### ①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일 시 : 2015년 9월 15일(화) 14:45 ~ 16:15



소수서원



소수서원

## ② 도산서원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한국국학진흥원)

일 시 : 2015년 9월 16일(수) 09:50 ~ 12:20



도산서원



도산서원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한국국학진흥원

## ③ 병산서원

일 시 : 2015년 9월 16일(수) 15:10 ~ 16:40



병산서원



병산서원



#### ④ 옥산서원

일 시 : 2015년 9월 17일(목) 10:00 ~ 11:30



옥산서원



옥산서원

#### ⑤ 도동서원

일 시 : 2015년 9월 17일(목) 14:50 ~ 16:20



도동서원



도동서원

## ⑥ 남계서원

일 시 : 2015년 9월 18일(금) 11:00 ~ 12:30



남계서원



남계서원

## ⑦ 필암서원

일 시 : 2015년 9월 18일(금) 15:50 ~ 17:20



필암서원



필암서원



## ⑧ 무성서원

일 시 : 2015년 9월 19일 09:50 ~ 11:20



무성서원



무성서원

## ⑨ 돈암서원

일 시 : 2015년 9월 19일(토) 15:50 ~ 16:20



돈암서원



돈암서원

#### 4) 현지실사자 총평

일 시 : 2015년 9월 19일(토) 15:20~16:10

장 소 : 돈암서원 응도당

##### - 참석자

문화재청 :

국제협력과 과장 김연수, 사무관 유재걸

보존정책과 사무관 조주성

광역지방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주무관 방일섭

충청남도 주무관 임경호

전라북도 주무관 윤영란

전라남도 전문위원 김희태

경상북도 과장 김희일, 주무관 김승수

경상남도 주무관 황은실

기초지방자치단체 :

영주시 팀장 금창헌

달성군 학예연구사 김제근

정읍시 팀장 서인석

장성군 주무관 손현주

경주시 계장 이상원, 주무관 김성수

안동시 과장 김재교, 학예연구사 손상락, 주무관 손재완

함양군 계장 서점용



서 원 :

소수서원 도감 서승원

남계서원 원장 정천상

옥산서원 운영위원장 이휴

도산서원 별유사 이동구

필암서원 유사 김인수

도동서원 유사 김수영

병산서원 유사 류한욱

무성서원 원장 이치백

돈암서원 장의 김선의

전문가(전문위원 및 집필진) :

교수 이상해, 박소현, 김덕현, 이해준, 이왕기

관리단 :

이사장 이배용, 사무국장 박성진,

사무국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기 타 : 통역 조유진, 사진 오종은



충평



충평 후 기념촬영

## - 총평내용

구분	내 용
연속유산으로서의 지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속 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므로 통합보존관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9개 서원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해설 내용, 안내판, 표지 위치 등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통합해야 한다. 브로슈어도 용어, 레이아웃 등의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9개 서원이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 활용, 홍보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li> </ul>
통합관리단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관리는 더 넓은 범위에서의 모니터링이 실행되어야 한다. 건축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경관관리까지 포함한다. 올 8월에 단청에 대한 수리지침을 완료했던 것처럼 서원 유산의 유무형적인 요소의 보존관리에 대한 수립을 통합보존관리단이 담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원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시할 것이다.</li> <li>- 해설은 활용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성리학적인 가치와 유학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원 자체를 유산으로써 문화적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을 포괄할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통찰력을 줄 수 있게 한다. 일방적인 강습이 아닌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통합보존관리단은 책자 및 해설자료를 구성하고 체계를 잡고 해설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해설자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한다.</li> </ul>
보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보존관리를 위해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전봇대, 소방시설, 차폐함 등 위치 및 색깔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li> </ul>
유산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 해설에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별 서원이 주변 환경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도로도 될 수 있는 한 1차선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또한 될 수 있는 한 유산과 가깝지 않은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서원에 진입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주면 좋다.</li> <li>-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서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여러 학자들, 지역 주민, 지자체의 인터뷰를 통해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만들 수 있다. 유산 그 자체로서가 아닌 유산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 가치가 나온다.</li> </ul>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로 옆에 전시관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서원 자체가 전시관이다. 또한 해당 전시관이 진품이 아닌 복제품을 가져다 놓기 때문에 관광객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같은 재원이 있을 시 전시관에 투자하기 보다는 문화 해설이나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만약 전시관을 짓는다면 단순한 전시보다는 전문가 및 유림의 인터뷰 영상을 트는 것이 관람객들이 이해하기 쉽다. 또한 각 개별서원의 특징만이 아닌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가미하면 좋겠다. 또한 서원 입장 동선을 나타내는 배치도를 세우면 생동감 있고 유식, 강학, 공간의 짜임새를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li> <li>- 소화기의 위치를 건물 정면이 아닌 측면에 둬으로써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산과 안내판의 거리와 방향을 잘 고려해서 배치하길 바란다. 너무 가까우면 유산을 훼손시킬 수 있고 너무 멀면 둘의 관계가 모호해진다.</li> <li>- 마을을 재정비할 때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 그리고 전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과도하게 지출하기 보다는 지붕 색깔을 바꾼다는 등의 간단한 방법을 통해 복구는 작업을 가지길 바란다. 또한 주차장도 유산구역과 좀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마음을 재정비하고 차분해지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li> </ul>

## 5) 현지실사 전문가 요청자료 제출

### - 현지실사 전문가 요청자료 제출

2015. 10. 10.  
현지실사자 요청자료 제출

실사자는 현지실사 및 실사 직후, 현지실사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관리단에 요청하였다. 실사자가 요청한 사항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학맥과 9개 서원의 상호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관리단 사무국은 요청 자료들을 수집 및 정리하여 10월 10일(토) 문화재청에 송부하였다. 요청자료들의 내용과 제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현지실사에 따른 실사자 및 문화재청 요청자료 제출 현황

순번	구분	답변 내용
1	서원 건립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 건립의 목적은 유교 경서(經書)를 통한 교육과 선현(先賢)에 대한 제향에 있었다.</li> <li>· 교육을 위한 강당과 재사, 그리고 제향을 위한 사우가 모두 조성되어야 서원이라고 할 수 있었다.</li> <li>· 조선시대의 서원은 궁극적으로 성리학이 지향하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물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li> </ul>
2	서원 건립의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은 관(官) 주도 건립 서원, 관-민 공동 주도 건립 서원, 민(民) 주도 건립 서원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li> <li>· 이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사액, 즉 공인을 받아 정부의 보호 아래 서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li> </ul>
3	서원 건립의 지형 조건과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서원은 건립되는 지형의 입지조건에 따라 산지형과 임야형으로 크게 구분된다.</li> <li>· 서원은 앞으로 바라보는 경관의 유형에 따라 산경(山景), 강경(江景), 계경(溪景), 야경(野景) 입지로 구분할 수 있다.</li> <li>· 서원 건립의 지형적 입지는 한편으로 제향 인물 혹은 건립자의 자연과 인간간의 관계를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li> </ul>
4	조선시대 성리학의 학맥과 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시대의 서원은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정착하면서 사람세력이 형성한 결과물이다. 조선의 성리학은 16세기를 기점으로 발전하며 학맥을 형성하게 되는데, 한국의 서원도 성리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지으며 성장했다.</li> </ul>
5	조선시대 서원의 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시대의 서원은 16세기 중엽 명종 대를 거쳐 16세기말 선조 대에 이르러 사람이 중앙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서원의 설립 숫자가 점점 많아졌고, 17세기 후반 이후로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서원 건립의 증가에 대한 통제는 18세기 이후 영조때부터 본격화되었다. 1871년에는 47개만 남기고, 나머지 서원과 사우는 모두 철회하였다.</li> <li>· 훼손되지 않은 서원과 사우 중에서 36개소는 남한에, 11개소는 북한에 소재한 것들이다. 신청유산은 남한에 소재한 36개 서원 중에서 유산적 가치가 탁월한 9개의 서원들이다.</li> </ul>
6	조선시대 성리학 학맥도와 신청유산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리학 학맥도에서 신청유산 배향인물 표기</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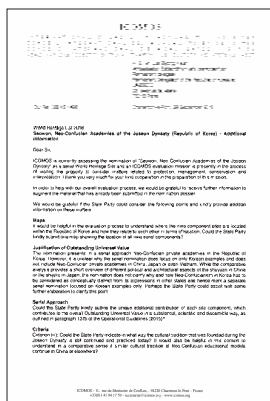
## 04.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철회

### 1) 추가 보완자료 요청과 작성

#### - 이코모스 요청 보완자료 작성

지난 9월의 현지실사 이후, 이코모스는 「한국의 서원」의 유산을 평가하기 위해 유산에 대한 추가정보를 문화재청에 정식 요청하였다. 이코모스는 2015년 9월 28일(월)에 추가정보 요청 서한을 발송하였고,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당일 수신하였다. 서한에 따르면, 요청한 추가정보에 대한 보완자료를 전자문서 및 인쇄본 형태로 작성하여 2015년 11월 2일(월)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해야 했다.

서한에 제시된 항목은 4개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이코모스  
의 추가 정보 요청서한 원본

### 세계유산목록 2016

#### 한국의 서원

안녕하십니까,

ICOMOS는 현재 연속유산으로 등재하는 한국의 서원 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유산의 보호, 보존관리, 해설 등의 실사를 위해 현재 유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사 준비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출된 신청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전달 받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청 드립니다.



## 지도

9개 서원이 대한민국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유산들의 지리적 관계는 어떤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9개서원의 위치가 표시된 한 장의 대한민국 전도를 제출해 주십시오.

## OUV 근거사유

당사국은 연속유산으로 한국의 서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일본, 베트남의 서원과 함께하지 않고 한국의 서원만 연속등재로 신청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국외유산과의 비교’에서 타국 서원과의 정치적, 건축학적 차이점이 기술되어 있지만 어떻게, 왜 한국의 서원이 국외 서원과 뚜렷이 구분되어 한국의 서원만 개별적으로 연속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연속등재

9개서원 개별이 갖는 독보적인 특성을 2015년 세계유산 운영지침 137항 b)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재기준

- (iii) : 조선시대의 문화 전통이 현대까지 어떻게 보존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중국 등 국외 서원, 혹은 국외 전통 유교교육기관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통 문화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주십시오.
- (iv) : 자연경관 속 서원의 특정 위치가 아닌, 해당 지역 교육 및 영적(종교적) 건축물과의 비교하여 어떠한 건축학적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법적보호

신청서 5A장에 명시되어 있듯이 9개 서원은 국보, 사적, 보물,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자료로 지정되는 등 다른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9개서원마다 다른 색깔로 국가 지정 현황과 유산의 평면도를 지도 위에 나타내 주십시오.

## 거주민 수

신청서 2장에는 재사가 서원의 건축 요소의 일부이고 서원 안에 위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4.b.5장에는 9개 중 8개의 서원이 거주인이 없다고 나와 있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원 안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혹시 살고 있다면 왜 그들은 거주인으로 인식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관리

서원의 스승과 제자 등 서원의 주체들이 연속유산으로 등재하는 모든 서원, 혹은 개별 서원, 특히 방문객 관리 전략 등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참여 및 기여도의 정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의 사항에 관해 답변해 주시면 평가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2015년 11월2일 월요일까지 ICOMOS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문화재청과 관리단은 요청된 추가정보에 대한 보완자료 작성을 위해 집필진을 구성하였다. 집필은 등재신청서 연구책임자인 이상해 교수가 총괄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번역은 사무국 홍보관리주임 이승은과 현지실사 통역을 맡았던 조유진이 하였다. 작성된 보완자료의 원고와 번역문은 관리단 사무국과 문화재청, 신청서 집필팀, 관리단 전문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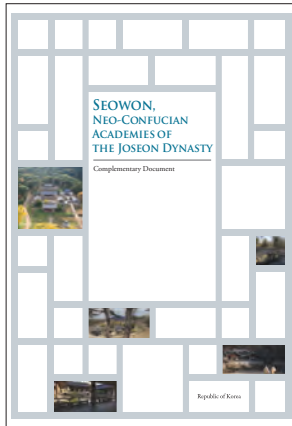
2015. 10. 06.  
보완자료 1차 회의

이코모스 추가정보 요청 서한을 수신한 다음날인 2015년 10월 6일(화)에 보완자료 집필을 위한 1차 회의가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의 주최로 소집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와 전문가, 관리단 사무국 인원을 포함한 인원들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보완자료 작성에 대한 업무 배분이 이루어졌으며, 11월 6일까지 최종 제출을 위한 세부 일정이 확정되었다.

2015. 10. 12.  
보완자료 2차 회의

2차 회의는 2015년 10월 12일(화)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와 전문가, 관리단 사무국 인원을 포함한 인원들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분담한 원고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으로 첫째, 중국 및 일본과의 비교분석을 전략적으로 제시할 방법과 둘째, 서원의 요소들이 OUV에 기여하는 요소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또한 검토된 원고를 바탕으로 영문 번역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향후 일정을 확정지었는데, 10월 24일(토)까지 영문 번역을 완료하고, 10월 26일(월)에 영문 번역을 확정, 10월 30일(금) 유네스코에 발송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2015. 10. 24.  
보완자료 3차 회의



이코모스 1차 보완자료

3차 회의는 2015년 10월 24일(토)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와 전문가, 관리단 사무국 인원을 포함한 인원들이 참석하였다. 3차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마무리된 영문 번역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영문 번역상 의도가 불일치하거나 추가적으로 기입해야 할 사항들을 최종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쇄 및 인쇄본 발송 일정을 확인하여, 계획에 따라 10월 26일(월)까지 번역 수정 후 10월 27일(화)에 교정 및 인쇄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0월 26일(월)에는 최종 영문본 원고에 대한 교정과 교열을 완성하였다. 해당 일정은 2차 회의의 일정 계획과 일치하게 진행되었으며, 10월 30일(금)에 DHL을 통해 세계유산센터에 인쇄본을 발송하였다. 그 결과 제출 마감일인 11월 2일(월)에 맞추어 세계유산센터에 도착할 수 있었다.

### - 이코모스 당사국 회의

2015. 12. 01.  
이코모스 당사국 회의

이코모스에서는 보완자료를 접수한 후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이코모스 위원회의 현지실사와 등재신청서의 탁상 검토 후, 패널 회의를 통해 신청유산들의 잠정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당사국과의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당사국 인터뷰는 세계유산목록 등재 평가의 투명성 제고와 당사국과 자문기구 간 소통 강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과정이었다. 이에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와 관리단 사무국은 등재신청서 집필책임자인 이상해 교수와 세계유산목록 등재에 탁월한 경력을 가지고 있던 조유진 세계유산위원회 활동 자문위원을 이번 인터뷰에 참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코모스 당사국 인터뷰는 2015년 12월 1일(화) 프랑스 파리 이코모스 본부에서 패널회의 위원장이자 ICOMOS 부위원장인 그렐란 루크(Grellan Rourke)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패널 회의 주요 결과에 대해 서원의 전체적인 정보 취합 및 결과 도출을 맡은 브리타 루돌프 이코모스 자문관이 설명하였다. 브리타 루돌프는 「한국의 서원」의 패널 회의의 결과 반려(Deferral)로 평가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반려 결정에 대한 다음과 같이 3가지 사유를 설명하였다.

### ① 연속유산을 이루는 유산 구성의 논리, 국외유산과의 비교 연구

- 신청유산이 선정된 개연성과 논리적 근거 부족
- 국외유산과의 비교연구에서 한국 서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과 탁월함은 설명되지 않았음
- 서원이 유학에 바탕을 두고 지금도 계승되는 유산인데 역사적 배경을 조선시대로 국한 지은 것에 대한 의문

### ② 유산 경계 설정

- 서원 주변의 자연경관은 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주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서 유산 구역 안에 포함되어야 함
- 이에 당사국이 각 서원별로 유산 구역 내에 포함되어야 할 개별적인 지형지물과 주변 구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런 요소들을 유산 구역 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함
- 동 사항에 대한 것은 유산의 전반적인 경계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현지실사가 필수적임

### ③ 서원에 대한 현장에서의 해설, 홍보

- 실사 결과 서원 현장에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나 해설 부족
- 서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유림, 유학자들과 서원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의 마을 주민들에 대한 설명과 해설 등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패널회의 위원장인 그렐란 루크는 패널회의의 결과는 반려했지만 이코모스에서 반려했던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로 ① 유산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충분히 등재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보완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실사가 필요한 경우 ② 유산의 가치가 표명되지 않아 등재불가에 더 가깝지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 위한 경우로 나뉘는데 서원의 경우 전자임을 설명하며, 서원의 유산적 가치는 공감하나, 보완을 통해 다시 세계유산에 신청한다면 등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국 인터뷰에 참석한 이상해 교수와 조유진 자문위원은 9개 서원의 선정 사유와 국외 유산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으며, 유산 경계 설정의 경우에도 중간보고서에 대한 답변 제출 마감 시기인 2016년 2월 28일(일)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문화재청과 관리단은 패널 회의 결과에 대한 대응을 당사국 인터뷰 직후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 - 1차 전문가 대책회의

2015. 12. 11.  
1차 전문가 대책회의

이코모스 당사국 회의의 내용을 접수한 후 문화재청과 관리단은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문화재청, 관리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에서 당사국 면담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첫째, 보완자료 작성 둘째, 보완자료 제출 이전 자문실사(Advisory Mission)을 통한 평가 기준 상향 조정으로 방향이 설정되었다.

###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변경을 위한 행정위원회 개최

2015. 12. 14.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변경을 위한 행정위원회 개최

당사국 회의에서 현안으로 다루어진 OUV에 부합한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변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12월 14일(월) 문화재청에서 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신청유산에 속한 9개 서원은 모두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변경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변경이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따라서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와 보존정책과의 주도로 개최된 행정위원회에서는 당사국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공유하는 한편 사적 지정구역을 포함한 유산구역의 설정을 변경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논의된 안들은 이후 실제 문화재 전문위원 등을 통한 현장 실사와 함께 사적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른 제반 조치들은 보존정책과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실현하기로 결정하였다.

## - 2차 전문가 대책회의

2015. 12. 16.  
2차 전문가 대책회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변경과 함께 당사국 회의에서 논의된 연속유산 구성논리와 해외 유사유산과의 차별성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재청과 관리단, 그리고 등재신청서 작성팀에서는 현 단계에서 보완하는 방향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철학, 문학, 사학, 종교학 등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현재 서원 등재신청서의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자료 작성을 의뢰하고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비교분석에 대한 방향에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제안되었고, 이에 따라 보완자료 작성에 착수하게 되었다.

## - 3차 전문가 대책회의

2015. 12. 27.  
3차 전문가 대책회의

별도의 필진구성과 더불어 관리단에서는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당사국 면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관리단 전문위원은 등재신청서 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집필을 통해 등재 신청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점검한 후 논의의 폭을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변경을 위한 9개 서원 현장 검토

2016. 01. 04. ~ 06.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변경을 위한  
9개 서원 현장 검토

12월 14일(월) 행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사적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의 문화재 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통해 구역 변경을 검토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관리단에서는 전문위원인 이상해, 김덕현 교수가, 문화재청에서는 보존정책과, 고도보존육성과, 문화재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해당 요일별 현장 점검 지역과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 9개 서원 문화재보호구역 변경을 위한 현장점검 일정

일 자	점검 대상	참 석 자
1일자 2016.01.04. (월)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검토위원 : 이상해 문화재위원장, 김덕현 교수, 김철주 전문위원 문화재청 : 보존정책과 박지영 관 리 단 : 이경동
2일자 2016.01.05. (화)	옥산서원	검토위원 : 이상해 문화재위원장, 김덕현 교수, 김철주 전문위원 문화재청 : 보존정책과 박지영 관 리 단 : 이경동
	도동서원, 남계서원	검토위원 : 이상해 문화재위원장, 김덕현 교수, 김철주 전문위원 문화재청 : 보존정책과 정춘호 관 리 단 : 이경동
	필암서원	검토위원 : 이상해 문화재위원장, 김덕현 교수, 김철주 전문위원 문화재청 : 보존정책과 심유신 관 리 단 : 이경동
3일자 2016.01.06. (수)	무성서원, 돈암서원	검토위원 : 이상해 문화재위원장, 김덕현 교수, 김철주 전문위원 문화재청 : 보존정책과 심유신, 세계유산팀 김지홍, 임경희 관 리 단 : 이경동

3일간의 일정을 통해 이상해 문화재위원장을 비롯한 참여 전문가들은 9개 서원의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완료하였고,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 문화재청 세계유산팀과 관리단 업무 협의

2016. 01. 14.  
문화재청 세계유산팀과  
관리단 업무 협의

보완자료를 위한 필진구성,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조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마친 후 관리단은 문화재청 세계유산팀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6년부터 문화재청에서는 세계유산팀이라는 별도의 세계유산 담당 부서를 조직하고 세계 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관리단은 신설된 세계유산팀을 방문, 현재까지 관리단에서 당사국 면담 이후 추진했던 사항들을 알리고, 향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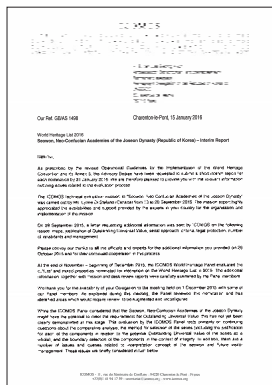
이러한 조치를 마치고 문화재청과 관리단은 중간보고서 수신을 기다리게 되었다.

## - 이코모스 중간보고서 수신

2016. 01. 15.  
이코모스 중간보고서 수신

이코모스 패널은 당사국과의 미팅 후 심사위원들 간의 토의를 거쳐 「한국의 서원」 신청서에 대한 잠정결론을 도출하고, 2016년 1월 15일(금)에 「한국의 서원」에 대한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를 문화재청으로 보내왔다. 1월 18일(월)에 문화재청은 접수한 중간보고서를 추진단에 메일로 발송하였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이코모스에서는, 당사국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를 반려(Deferral)로 평가하였다. 다만, 이코모스에서는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문 실사(Advisory Mission)을 포함한 신청서의 재구성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중간보고서의 원문과 번역문은 아래와 같다.



이코모스 중간보고서  
(Interim Report)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개정안과 부속자료 6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문기구는 개별신청서에 관한 간략한 중간보고를 2016년 1월31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 다. 따라서 평가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 9월13일부터 9월20일까지 린 디스테파노 교수(캐나다)가 한국의 서원의 현지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린 실사자는 한국의 서원 실사의 준비와 이행을 위한 한국 전문가들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코모스는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서신을 2015년 9월28일에 송부했습니다. 주요 사항은 지도, OUV 근거, 연속유산, 등재기준, 법적 보호, 거주민 수, 보존관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귀국의 관료와 전문가 등 모든 분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 보완자료를 2015년 10월 29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2015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된 이코모스 세계유산 패널회의에서 2016년 세계유산등재를 신청한 문화유산 및 복합유산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패널에서 위원들은 당사국이 제출한 보완자료, 실사 보고서, 그리고 신청서 보고서를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작년 12월1일 귀국의 대표단이 패널 위원들과 직접 회의를 할 수 있게 프랑스로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패널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코모스 패널은 한국의 서원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보충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코모스 패널은 한국의 서원이 OUV 충족을 위한 잠재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현 시점에서 이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코모스 패널에서 평가한 바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비교유산 연구, 연속유산의 선정 방법(개별 유산 각각이 갖는 OUV 및 전체 유산의 가치에 개별유산이 기여하는 근거), 그리고 완전성 측면에서의 경계 설정에 관하여 계속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산의 해설과 향후 관광객 관리에 대한 적지 않은 문제 제기 및 질문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서원은 9개의 성리학 사립교육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건립되었으며 일부 서원은 자연재해 및 전쟁의 영향으로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재건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서원이 재건된 해는 1880년입니다. 당사국이 보완 자료에 명시한 연속유산의 선정 기준을 두고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유산을 선별하였는지는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외 유산과의 비교연구를 제시할 때 한국 서원의 기능과 특정 유형이 국내 혹은 국외의 성리학 교육기관과 비교하여 어떻게 세계적으로 탁월하고 독보적인지 충분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서원만이 갖는 독보성과 특이성을 뒷받침할 만한 강한 논리를 수립하거나 신청서의 중요성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신청서를 재구성할 때 개별 유산의 특이성과 차별성이 전체 유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연속유산을 등재할 경우 개별유산이 전체유산으로써의 OUV에 기여하는 내용을 심도 있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운영지침 137항 참조)

한국의 서원은 건축물을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유식, 강학, 제향의 세 공간을 구분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목적을 지닌다고 신청서에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경관이 주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과는 달리 9개 서원 중 1곳만이 자연경관을 유산구역으로 설정해 놓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머지 8개 서원 역시 자연을 감상하고 경외하는 등 주변 경관이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오히려 유산구역 밖에 설정되었고 때론 완충구역 밖에 위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서원 OUV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들이 충분한 법적 보호 및 보존관리 하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연경관을 제외함으로써 9개 서원 중 8개 서원이 완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나아가서는 전체유산에 기여하는 완전성도 불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등재기준에 관하여 한국의 서원이 등재기준 (ii)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등재기준 (iii), (iv), (vi)이 선정된 9개 서원이 세계적으로 탁월성과 독보성이 있는지, 현 시점에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등재기준 (iii)의 경우 지속적인 문화 전통이 유지되어 오는지 더 많은 집중도와 정보가 필요하며, 등재기준 (vi)의 경우 관련 사항들이 탁월한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형과 건축물 관련해서 등재기준 (iv)에 명시된 자연과의 조화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 지물이 유산구역 내에 설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의 사항에는 관광객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서원의 입지, 사용, 기능의 고유성을 위해 재조정 되어야 할 서원도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방문객이 서원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수 백 년 동안 전통적 가르침을 이어오고 성리학적 사상과 제향을 중심으로 문화 전통이 형성된 공간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설 프로그램은 서원과 성리학 문화의 현재 관리인, 유림, 이들의 문화 전통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여러 기관이 얹혀있고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긴 반면 운영지침 상 규정되어 있는 허용 시간은 짧습니다. 따라서 현 과정이 끝나면 차기 등재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코모스는 당사국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차기 등재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신청서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적합한 조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이번 중간보고서에 대한 결정에 따라 곧 다가올 차기 등재 과정에서 필요한 적합한 조치를 당사국이 이코모스와 긴밀하게 대화하여 자문 미션의 가능성을 포함한 신청서의 재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5년 12월 회의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운영지침에서 규정된 일정으로는 본 평가과정에서 자문 미션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사국이 신청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2016년)에서 도출될 결정에 따라 추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널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지금까지 한국의 서원 신청서를 위해 노력한 많은 전문가 및 문화재청과 지자체에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회의와 본 중간보고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코모스는 당사국과 함께 지적된 사항을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화의 증진을 위해 당사국이 추후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코모스 평가반에 연락하여 회의일정을 조정하시길 요청 드립니다.

세계유산협약과 평가 과정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코모스 평가반

## 2) 보완자료 제출과 등재신청서 철회 결정

중간보고서를 접수한 후 문화재청과 관리단에서는 보완자료 작성에 매진하게 되었다. 당사국 회의에서 구두로만 언급된 사항들이 실제 문서를 통해 당사국에 전달되었고, 한층 구체적인 사안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향후 보완자료 작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 - 4차 전문가 대책회의

2016. 01. 20.  
4차 전문가 대책회의

중간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현 단계에서 신청서의 보완사항이 제시된 만큼 보완자료 작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관리단에서는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수정방향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였다. 주된 논의 방향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해외유산 비교분석, 9개 서원의 선정 사유,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조정, 유산의 활용

과 관리라는 총 5개의 항목으로 범주화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전문위원의 조언을 바탕으로 보완자료 작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 - 9개 서원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2016. 01. 21.  
9개 서원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1월 초 현장 점검을 통해 진행된 9개 서원의 문화재 구역에 대한 조정 작업은 2016년 1월 13일(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제1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해당 논의에서는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한 보호구역 조정을 목적으로 재설정된 사적 지정 구역의 제출된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에 원안을 가결하고, 지정 예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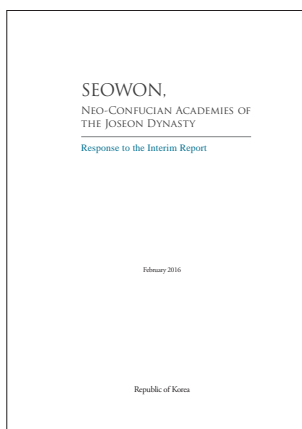
### - 2차 보완자료 작성

2016. 02. 13.  
2차 보완자료 완성

4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보완자료 작성방향의 기본 틀이 잡혀진 후 문화재청과 관리단에서는 보완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에서는 남상범 팀장을 중심으로 김지홍 사무관과 임경희 학예연구사가 보완자료에 매진하였으며, 관리단에서는 이배용 이사장, 이상해 교수, 박성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번역은 조유진, 박정은, 이승은이 담당하였다. 대략적인 원고가 정해진 후에는 합숙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가졌다. 그 결과 2월 13일(토) 보완자료가 최종 완성되었다.

### - 2차 보완자료 제출

2016. 02. 15.  
2차 보완자료 제출



이코모스 2차 보완자료

보완자료의 작성 이후, 2월 15일(월) 문화재청에서는 보완자료를 직접 파리 이코모스 사무국에 전달하였다. 단순히 우편으로 보완자료를 제공하기 보다는 직접 면담을 통해 수정사항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당사국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에서 나온 조치였다. 당시 이코모스 사무국에는 이상해 교수를 비롯하여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사무관 김지홍, 유네스코 보고관 조유진이 참석하였다. 김지홍 사무관은 지난 12월 당사국 면담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한 보완자료를 작성하였음을 밝혔으며, 자문 실사(Advisory Mission)를 상반기 중에 파견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이코모스 평가단 과장 그웨넬 부르텅(Gwenaëlle Bourdin) 등 이코모스 관계자들은 보완자료는 향후 개최될 2차 패널 회의에서 정식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자문 실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상반기에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당사국에서 자진 철회를 한다면 자문 실사의 가능성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에 「한국의 서원」과 관련한 향방은 2차 패널회의 이후에 결정내려야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 - 9개 서원 사적 보호구역 확대 승인

2016. 03. 09.  
9개 서원 사적  
보호구역 확대 승인

이코모스 면담과 별개로 2016년 1월초 현장 점검을 통해 확대가 검토된 등재 대상 9개 서원의 사적 보호구역 심의가 3월 9일(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사적분과위원들은 현재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안을 가결하였다. 사적 보호 구역의 변화는 기존에 인위적으로 편제되었던 사적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반영한 사적 보호 구역의 변화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문화재 보호 방식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기도 했다.

### -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철회

2016. 04. 11.  
세계유산목록 등재 철회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패넌회의에서도 「한국의 서원」에 대한 평가 입장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교부, 문화재청, 관리단에서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등재추진의 유지와 철회의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유지의 관점에서는 이코모스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진행된 것은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2016년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보류(Referral) 혹은 등재(Inscription)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철회의 관점에서는 이코모스 중간보고서에서도 이코모스 측의 협조 의지를 보인 만큼 자문 실사(Advisory Mission)이후 완성도 높은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코모스에서 「한국의 서원」이 가진 세계유산으로의 잠재력을 인정받은 만큼 조속한 보완작업을 통해 세계유산목록 등재가 재추진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검토를 통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는 등재신청서 철회로 가닥을 잡고, 철회 직후 자문 실사를 신청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등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은 보완자료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과 사적 보호구역의 확대로까지 이끈 결과이기도 했다.

2016년 4월 11일(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을 철회하였다. 이후에도 관리단에서는 전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서원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재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재신청 과정을 밟아 나갔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에 가장 큰 시련이었다.





도산서원



# 4

##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과 이코모스 자문실사

01.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 결정
02. 이코모스 자문실사 시행과 이행

# 4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과 이코모스 자문실사



## 01.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 결정

### 1) 등재신청서 철회 이후 논의 과정

#### -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철회 알림

2016. 04. 20.  
세계유산목록 등재  
철회 알림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에서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철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철회의 사실과 함께 향후 재신청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 - 등재신청 재추진 관련 실무회의 개최

2016. 05. 12.  
등재신청 재추진 관련  
실무회의 개최

관리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문화재청의 주관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9개 서원 관계자가 참석한 등재신청 재추진에 관련한 실무회의가 문화재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해당 회의에서는 등재 추진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 회의에서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은 등재신청서 철회가 유산의 가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등재신청서 작성의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코모스에서 제안하는 자문실사를 통해 보완을 한다면 등재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은 등재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며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재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 등재신청 재추진 관련 실무회의

시 간	소요(분)	순 서	진 행
14:00~14:05	5	개회 / 회의 취지 설명 세계유산팀장 인사	세계유산팀 서원통합보존관리단
14:05~14:30	25	회의 안건 1 - 등재 재추진에 따른 계획	
14:30~15:30	60	회의 안건 2 - 등재 재추진 일정 - 등재 재추진에 수반되는 예산 - 기타 논의사항	
15:30~16:50	80	각 기관별 건의사항 및 자유발언	
16:50~17:00	10	공지사항 / 폐회	

#### -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16. 07. 06.  
등재 재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재를 재추진하기에 앞서 관리단에서는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9개 서원 실무자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재추진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그동안의 등재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향후 등재신청을 재추진할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유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등재 재추진을 위한 워크숍

진행 시간	소요(분)	순 서	진 행 / 발 표
12:30~13:00	30	등록	
13:00~13:10	10	인사말씀	이배용 (관리단 이사장)
13:10~13:40	30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13:40~14:20	40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내용과 보완점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
14:20~14:50	30	한국의 서원 향후 등재 추진 계획	박성진 (관리단 사무국장)
14:50~15:00	10	휴 식	
15:00~16:00	60	자유 토론	이배용 (관리단 이사장)
16:00~16:10	10	폐회	



## 2) 등재 재추진 의결

### - 등재 재추진을 위한 관리단 이사회 의결

2016. 08. 16.  
등재 재추진 의결

2016년 8월 16일(화) 한국의 집 취선관에서 2016년도 관리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2015년 재단이 설립되고 난 후 첫 이사회였다. 가장 중요한 안건은 등재 재추진에 대한 의결이었다. 관리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서원,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은 곧 관련 기관의 승인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사회 첫 번째 안건이었던 재추진은 모든 성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이사회를 통해 승인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 의결은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재추진이 공식화되는 자리였다. 이사회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서원 운영자, 전문가 등이 한 뜻이 되어 결정한 재추진은 철회라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희망하는 모든 이들의 열망을 꺾을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등재 재추진을 위한 제1회 재단 이사회 장면



등재 재추진을 위한 재단 이사회 참석자 단체 사진

### 3)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주요 활동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이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을 진행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설립 이후부터 꾸준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관리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과 함께 관리단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이사회

관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은 매년 개최하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되었다. 해마다 개최되는 이사회에는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승인, 연도별 재정 및 감사보고, 예산 심의 등을 병행한다. 현재까지 개최된 이사회와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사회 개최 내역

구분	개최 일시	의결 사항	개최 장소
제1차	2016.08.16.(화) 14: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등재 재추진에 관한 건</li> <li>- 2015년도 예결산에 관한 건</li> <li>- 2016·2017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li> <li>-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li> <li>- 기타 재단 운영 관한 사항</li> </ul>	한국의 집 (취선관)
제2차	2017.08.24.(목) 11: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도 결산</li> <li>- 2017년도 예산 및 2018년 예산안</li> <li>-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 이사진 구성</li> <li>- 기타 재단 운영 및 등재추진에 관한 사항</li> </ul>	한국의 집 (취선관)
제3차	2018.12.12.(수) 11: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예·결산 의결</li> <li>- 2019년 예산안 의결</li> </ul>	한국의 집 (취선관)
제4차	2019.05.30.(목) 11: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보존관리 체계 수립 이행 방안</li> <li>- 2019년 추가예산편성안</li> <li>- 2020년 주요사업 예산편성안</li> <li>- 이사장 및 이사 선임</li> <li>- 기타 재단 운영 관한 사항</li> </ul>	한국의 집 (취선관)

구분	개최 일시	의결 사항	개최 장소
제5차	2019.12.19.(목) 11: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재단 결산에 관한 건 승인</li> <li>- 2020년도 재단 예산변경(안)에 관한 건</li> <li>-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기구에 관한 건</li> <li>- 재단 명칭 변경에 관한 건</li> <li>- 재단 목적 변경에 관한 건</li> <li>- 재단 정관 개정에 관한 건</li> <li>- 이사 선임의 건</li> <li>- 재단 관련 규정 제정에 관한 건</li> </ul>	한국의 집 (취선관)

## - MOU 체결

관리단은 「한국의 서원」을 중심으로 국민 소통과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해왔다. 관리단은 향후에도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보존 관리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6. 02. 17.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6년 2월 17일(수)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 위원회와 ‘지역주민 간 교류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서원문화 보존에 대한 이해확산을 통해 국민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간 문화교류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협약에 따라, 영남권과 호남권의 서원 간의 문화교류를 추진하게 되며 양 지역 청소년들이 양대 서원이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등에 교차 참여함으로써 양 지역의 문화체험은 물론 과거의 유산을 인식하고 문화계승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였다. 이외에 양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를 통해 국민대통합에 대한 홍보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가 추진되는 9개 서원에 대한 교차 홍보도 진행되었다.

MOU 당시 주요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 관리단

관리단 이사장 이배용  
소수서원 도감 안병식  
도산서원 별유사 이동구  
필암서원 유사 김인수  
돈암서원 장의 김선의  
공주대 교수 이해준  
경상대 명예교수 김덕현

##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광옥  
단장 박경귀  
국민소통분과 국장 정기준  
지역소통부 부장 조정연  
국민소통분과 위원장 임향순  
통합가치분과 위원장 김현장  
갈등예방조정분과 위원장 이광자  
국민소통분과 위원 임정희

## ② 국립전주박물관과 업무협약 체결

2019. 06. 11.  
국립전주박물관과  
업무협약 체결

2019년 6월 11일(수)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국립전주박물관과 선비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공동연구를 비롯해 전시와 연구를 위한 자료 대여, 학술 관련 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2020년 6월 23일(화)부터 8월 30일(일)까지 「서원書院, 우리 곁에 오다」라는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와 MOU 체결



국립전주박물관과 MOU 체결

## - 보존관리 사업

관리단에서 추진했던 보존관리 사업은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9개 서원의 통합 모니터링(현지점검) 시행, 9개 서원 건축도면 작성 용역, 유산구역 설정(경계석 제작) 등이 있다.

### ① 통합모니터링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관리단에서는 서원의 보존상태 검토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인 모니터링(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지표개발

- 일반지표 : 서원(고직사) 관리인과 문화재안전경비원에 의해 매일(1일) 관리
- 핵심지표 : 서원(유림), 관리사무소, 관리단에 의해 분기별(3개월) 관리
- 특수지표 :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 반기별(6개월) 관리



연도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연도	기간	참석자(점검자)	비고
2016	05.24.~05.27.	- 사무국 : 박진재	모니터링(현지점검)
	06.28.~07.01.		
	07.26.~07.30.		
	08.29.~09.03.		
	10.03.~10.08.		
	10.31.~11.05.		
2017	01.16.~01.19.	- 전문가 : 조상순, 박정은 - 사무국 : 박진재, 김상규, 이승은	모니터링(현지점검) 및 답사
	03.31.~04.01.	- 사무국 : 박진재	모니터링(현지점검) 및 보존관리 신청서 내용 보완
	(1차) 09.06.~09.09.	- 사무국 : 박진재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1차(돈암, 무성, 필암, 남계) →2차(도동, 옥산, 병산, 도산, 소수)	모니터링(현지점검) 및 경계구역 설정
	(2차) 09.12.~09.15.		
	12.05.~12.08.	- 전문가 : 한필원 -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 사무국 : 박진재, 김상규	모니터링(현지점검) 및 유산 경계구역 검토
2020	01.13.~01.17.	- 사무국 : 박진재, 박새은	모니터링(현지점검)

연도	기간	참석자(점검자)	비고
2018	02.05.~02.09.	- 사무국 : 박진재	모니터링(현지점검)
	04.02.~04.06.	- 전문가,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 사무국 : 박진재	현지실사 대비 현지점검
	07.07.~07.10.	- 전문가 : 한필원 - 사무국 : 박진재, 채우리	경계구역 확인 및 시나리오 검토
	(1차) 08.01.~08.02.	- 사무국 : 박진재 - 문화재청 : 황권순, 박영록 장소(무성, 필암, 도동, 옥산, 병산, 도산, 소수)	본실사 대비 현지점검
	(2차) 08.06.	- 전문가 : 이상해, 이해준, 조재모 - 문화재청 : 황권순, 박영록 - 사무국 : 이배용, 박성진, 이경동 →장소(남계, 둔암)	
	11.05.~11.09.	- 사무국 : 박진재	모니터링(현지점검)
2019	03.04.~03.08.		
	07.03.~07.07.	- 사무국 : 이동선	
	08.05.~08.09.	- 전문가 : 변태경, 최호진 - 사무국 : 박진재, 이동선, 박선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모니터링(현지점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020	01.13.~01.17.	- 사무국 : 박진재, 박새은	모니터링(현지점검)

## ② 9개 서원 건축도면 수정 작성 용역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작업에 필요한 9개 서원의 도면작업 수정 시행

- 용역명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에 포함될 도면 수정 및 보완
- 수행기관 : 건축사 사무소 도시건축집단
- 기간 : 2016. 09. ~ 2016. 12
- 과업범위 :
  - 9개 서원 경계 및 완충 구역이 포함된 지도 및 도면
  - 9개 서원 유산구역 내 포함된 건축물 및 시설물 관련 도면



4면에 각각 부착될 표지판

## ③ 유산구역 설정(경계말뚝) 제작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에 따른 유산의 경계구역(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표시를 위한 표식(사인) 제작

- 목적 : 이코모스(ICOMOS) 실사 대비 9개 서원 유산 경계구역 표식 제작



소수서원 유산경계 말뚝 설치



## - 홍보사업

### ① KBS1-TV ‘서원, 500년 전 인문학을 탐하다!’ 방영

2017. 01. 29.  
KBS1-TV ‘서원, 500년 전  
인문학을 탐하다!’ 방영

2017년 문화재보호재단에서 제작한 “서원, 500년 전 인문학을 탐하다”가 설날 특집 다큐멘터리로 KBS1-TV에서 방영되었다. 관리단은 다큐멘터리 기획을 위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서원에서 촬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이배용 이사장과 전문위원인 김덕현 교수와 정순우 교수는 직접 인터뷰에 참여하여 다큐멘터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서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다.



KBS1-TV 다큐멘터리 영상 캡처

### ② 세계유산위원회 참관

2014. ~ 2019.  
세계유산위원회 참관

관리단에서는 세계유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의 서원」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세계유산위원회에 참관하였다. 참석자 명단과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2014년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도하, UAE)

- 기 간 : 2014. 06. 15. ~ 25.
- 참석자 : 박진재, 진우기(통역)
- 활 동 : 세계유산위원회 참관 및 한국의 서원 홍보

#### ㉡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본, 독일)

- 기 간 : 2015. 06. 27. ~ 07. 08.
- 참석자 : 이상해 교수(신청서 집필), 박진재, 이승은
- 활 동 : 세계유산위원회 참관 및 한국의 서원 홍보

㉔ 2016년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이스탄불, 터키)

- 기 간 : 2016. 07. 10. ~ 17.
- 참석자 : 박성진 전문위원, 이경동, 이승은
- 활 동 : 세계유산위원회 참관 및 이코모스 자문실사 협의

㉕ 2017년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크라코프, 폴란드)

- 기 간 : 2017. 07. 02. ~ 11.
- 참석자 : 조재모 교수(신청서 집필)
- 활 동 : 세계유산위원회 참관 및 한국의 서원 홍보

㉖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마나마, 바레인)

- 기 간 : 2018. 06. 24. ~ 07. 04.
- 참석자 : 조재모 교수(신청서 집필), 박진재, 이승은, 채우리
- 활 동 : 의제분석 지원 및 한국의 서원 홍보

※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2019년도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제외함.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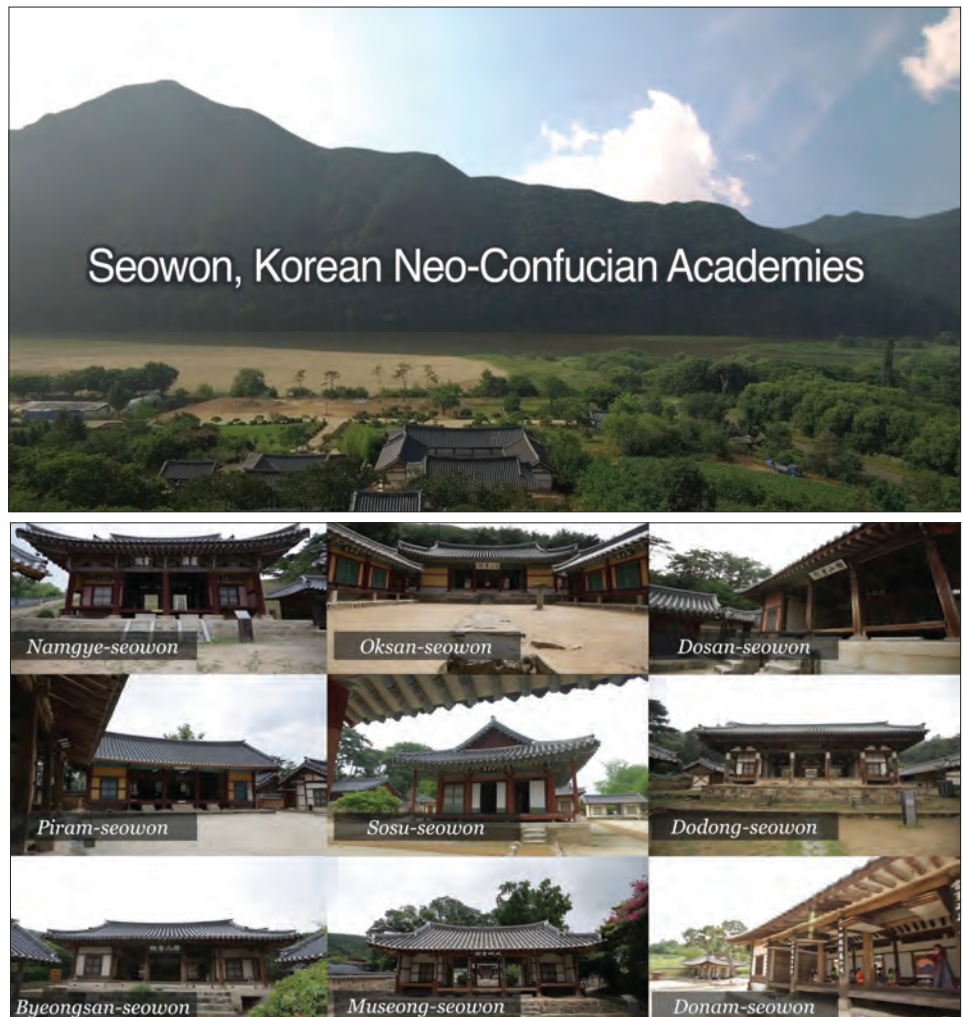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 ③ 동영상 제작

「한국의 서원」 홍보를 위해 영상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관리단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 봄(대표 박상우)과 계약을 체결,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동영상 제작에 착수하였다. 미디어 봄은 2월부터 5월까지의 관리단 사무국과 시나리오 검토를 마치고, 6월과 7월에 걸쳐 서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촬영에 임하였다.

미디어 봄은 촬영 이후 12월까지 관리단 사무국과 정기적으로 동영상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적으로는 2018년 1월에 동영상을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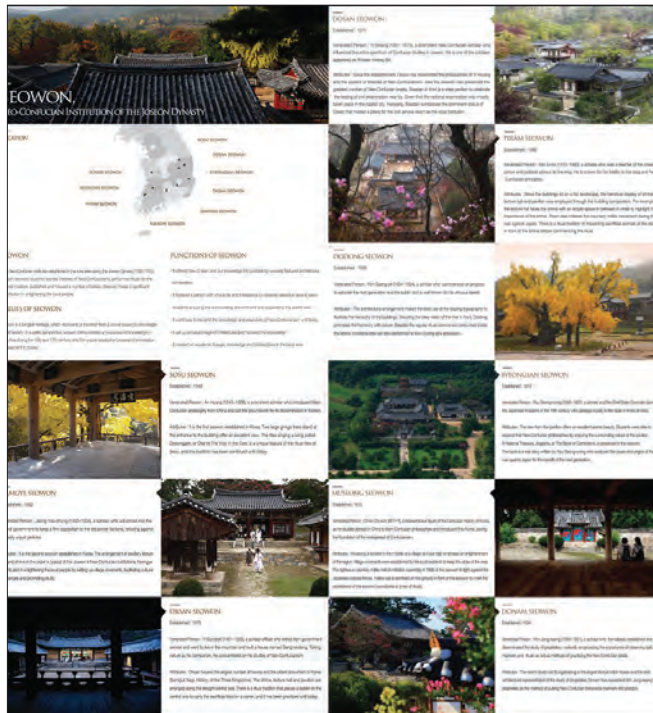


「한국의 서원」 홍보 동영상 화면



#### ④ 브로슈어 제작

「한국의 서원」은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연속유산으로 각 서원을 방문하면 9개 서원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2015년 이코모스 현지실사와 중간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관리단은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브로슈어를 주기적으로 제작하였다. 해당 브로슈어는 각 서원에 비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보조자료로 활용되는 등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을 알리는 가장 기초적인 홍보자료로 기능하였다.



통합 브로슈어 1



통합 브로슈어 2, 3



##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관리단에서는 2015년도에 「한국의 서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http://www.seowonheritage.org). 홈페이지는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을 구축하여 내외국인이 모두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등재신청서상 기재된 서원에 대한 일반정보를 포함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워크숍, 국제학술대회, 홍보 영상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서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7년도에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한층 더 「한국의 서원」과 관련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 서원 방문을 희망하는 관광객의 경우 홈페이지 상에 신청하여 관광해설사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홈페이지 캡처 화면

###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협의회’ 활동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협의회’는 관리단과 함께 세계유산목록 등재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추진단 때와 마찬가지로 서원 협의회는 매년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호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관리단 또한 협의회 소속 서원 운영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서원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서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리단과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협의회’와의 간담회(2019년)



관리단과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협의회’와의 간담회(2019년)

## 02. 이코모스 자문실사 시행과 이행

### 1) 자문실사를 위한 실무협의

2016. 07. 14.  
이코모스 자문실사를 위한  
실무 협의

등재신청서 철회 당시 이코모스에서 자문실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고, 우리 측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신청서 재작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작용하였다. 문화재청과 관리단은 우선 자문실사를 위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이코모스 사무국에 발송한 다음 이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문화재청과 관리단은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한 이코모스 사무국과 실무협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 일 시 : 2016. 7. 14. (목) 8:30 ~ 10:00

- 장 소 : Istanbul Congress Center 이코모스 전용 회의실

- 참석자 :

· ICOMOS : Gwaenelle Bourdin ICOMOS 국장, Kristal Buckley 이코모스 부위원장

· 대한민국 :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김지홍 사무관, 임경희 학예연구사  
관리단 박성진 사무국장, 직원 이경동, 이승은

실무회의에서 이코모스는 사전에 관리단에서 보낸 계약서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사항을 논의하고, 일정을 조율하였다. 이코모스는 관리단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함과 동시에 자문실사 어드바이저로 크리스탈 버클리(Kristal Buckley) 이코모스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현지 자문실사자로 세계유산 및 동아시아 전통 교육기관 관련 전문가 2인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문실사 전후로 스카이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청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당사국에서 보완한 내용을 정리하여 이코모스 사무국에 보내면, 이를 바탕으로 자문실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문실사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 2016. 7월 말 : 연속유산 관련 표 및 자문실사 수행자 확정, 회의 녹음파일, 합의한 계약서 최종본, 질문 목록 전달
- 2016. 9월 중 : 실무자료 제출, 자문실사 규약사항 수령, 스카이프 회의를 통해 실무자료 및 규약사항에 관한 논의
- 2016. 10월 : 중간보고서 수령
- 2016. 11월 : 자문실사(이후 추가 스카이프 회의 소집 가능성 있음)
- 2017. 2월 : 최종보고서 수령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문화재청 세계유산팀과 관리단은 일정에 맞추어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체적인 등재신청서 재작성을 위한 자문실사 준비에 착수하였다.

## 2) 자문실사 시행

이코모스와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문화재청과 추진단은 이코모스 자문실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이코모스 자문실사를 전후로 5차례의 전문가 회의, 3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특히 현지 자문실사 일정에 포함된 워크숍에는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각 서원의 운영자, 전문가가 참석하여 현재 단계에서 보완할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 - 자문실사 1차 실무자료 제출

2016. 09. 28.  
자문실사 1차 실무자료 제출

자문실사에 앞서 문화재청과 관리단은 자문실사를 위한 실무자료를 작성하였다. 작업은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기존 등재신청서를 작성했던 이상해 교수를 중심으로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지자체 실무자와 서원 관계자에게 모두 회람하였다. 관련자의 의견을 수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번역에 착수하였다. 9월 28일 실무자료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문화재청으로 송부하였고, 문화재청에서는 자체 검수를 거쳐 이코모스에 송부하였다.



### - 자문실사 1차 전문가 회의

2016. 10. 14.  
자문실사 1차 전문가 회의

자문실사의 실무자료를 발송하고 관리단에서는 자문실사에 참여할 전문가를 섭외하여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하였다. 2016년 10월 16일(화) 서비스드오피스 9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1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이상해 교수, 이해준 교수, 이수환 교수, 한필원 교수, 유동환 교수, 조재모 교수, 국립문화재연구소 강현 연구관, 조상순 연구관, 관리단 박성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이코모스에 제출했던 자문실사 실무자료와 함께 향후 등재신청의 준비사항, 세계유산 운영지침, 연속유산 등재 관련 검토 사항 등을 논의하였고, 향후 진행될 이코모스 스카이프 회의를 안내하였다.

### - 이코모스 스카이프 1차 회의

2016. 10. 18.  
이코모스 스카이프 1차 회의

이코모스와의 스카이프 1차 회의는 10월 18일(화) 문화재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스카이프 1차 회의에서는 자문실사에 대한 일정과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상호간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참석자와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 시 : 2016.10.18. (화) 18:00~20:00

- 장 소 : 대전 정부청사 문화재청 소회의실

- 참석자 :

· ICOMOS : ICOMOS 사무국 평가담당 과장 Gwaenelle Bourdin,  
어드바이저 Kristal Buckley

· 대한민국 :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사무관 김지홍, 학예연구사 임경희,  
관리단 사무국장 박성진, 직원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 - 주요 논의사항 :

- 현지 자문실사에 대한 일정 검토
- 현지 자문실사시 중점 논의 사항 확정
  1. OUV 근거 사유
  2. 개별유산 선정 근거
  3. 개별유산이 전체 OUV에 기여하는 점
  4. 비교연구
- 수정된 유산 및 완충구역

현지 자문실사의 전체적인 방향은 이미 이스탄불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진행되었다. 스카이프 1차 회의에서는 자문실사에 대한 일정과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상호간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현지 자문실사 일정을 11월 8일(화)에서 16일(수)까지 확정하고, 수정된 등재기준 (ii), (iii), (iv)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다.

### - 자문실사 2차 전문가 회의

2016. 10. 30.  
자문실사 2차 전문가 회의

이코모스 스카이프 회의를 마치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한 2차 전문가 회의를 10월 30일(일) 관리단 사무국에서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이상해 교수, 이해준 교수, 한필원 교수, 조재모 교수, 박성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스카이프 회의 내용을 기초로 등재신청서의 개요 및 전략, 수정에 대한 제안 사항, 작성 업무 분담 및 집필 원칙, 이코모스 자문실사(11월 8일 ~ 16일) 등을 논의하였다.

### - 이코모스 중간보고서 수령

2016. 11. 04.  
이코모스 중간보고서 수령

11월 4일(금) 관리단은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으로부터 이코모스에서 발송한 중간보고서(Preliminary Advisory Report)를 수령하였다. 중간보고서에는 1. OUV 근거 사유, 2. 세계유산목록을 위한 문화유산 등재조건의 적용, 3. 비교연구, 4. 개별유산의 선정, 5. 기타사항(유산명칭, 구역설정, 유산해설 등)으로 구분하여 향후 보완할 사항들이 제시되었으며, 보다 진전된 논의는 향후 진행될 현지 자문실사에서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 - 이코모스 자문실사

2016. 11. 08. ~ 16.  
이코모스 자문실사

2016년 11월 8일(화) ~ 16일(수)까지 이코모스 자문실사가 시행되었다. 자문실사는 2015년 4월 등재신청서 철회 이후 보완된 자료를 기초로, 해외전문가의 현장 실사와 전문가 및 현장실무자 간의 논의를 진행하여 완성도 높은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자문실사에는 세계유산과 등재신청서에 대한 경력이 있는 리차드 맥케이 교수와 동아시아 전통 교육유산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리화동 교수가 자문실사자로 참여하였다. 자문실사는 해외전문가의 입국일을 제외한 4일 동안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도동서원, 남계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순으로 진행하고(옥산서원, 필암서원은 보수정비관계로 방문하지 않음), 이들은 전문가 워크숍, 마지막 하루는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자문실사의 참석인원은 전문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서원, 관리단으로 구성되었다.

## 자문실사 국외전문가 이력



**성명:** 리차드 맥케이(Richard Mackay)

**국적:** 호주

**경력:**

라 트로브 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호주 세계유산자문위원회 前 위원장(2011-2014)

**학력:**

시드니 대학교 학사

**주요 경력:**

문화자원 관리에 30년 이상 경력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이코모스 문화유산 자문가 역임

호주 이코모스 유산 보존 실무그룹(ICOMOS Burra Charter Working Party) 위원

호주 및 동남아시아의 500점 이상의 유산에 대한 고고학적 관리 및 프로젝트에 참여

유적지 관리·전략·보존정책에 관한 프로젝트 수행

고고학 사업에 공공 참여 증진



**성명:** 리화동(Li Hwadong)

**국적:** 중국

**경력:**

중국 베이징 공업대학 건축도시계획대학원 부교수

**학력:**

중국 칭화대학 건축학 학사(1996)

한국울산대학교 건축대학원 건축학 석사(1998)

중국 칭화대학 대학원 역사건축보호연구학 박사(2006)

**주요 연구업적:**

『고려시대 목재 건축과 「영조법식」 비교』

『삼국(한·중·일) 목탑』

『한국 고대 건축 문화』



# 자문실사 주요일정

일 자	주요 일정	참 석 자
11. 08. (화)	입국(인천공항)	문화재청 김지홍 사무관 관리단 이승은
1일차 11. 09. (수)	워크숍: 현황 및 일정안내	전문가 이상해 교수, 이해준 교수, 한필원 교수 문화재청 김지홍 사무관, 안동시 손상락 학예연구사 관리단 이배용 이사장, 박성진 사무국장, 직원 김상규,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소수서원 답사	경상북도 김부흥 과장, 양효정 학예연구사 영주시 금창현 팀장, 류지현 학예연구사 안동시 손상락 학예연구사 소수서원 서승원 도감, 안병식 도감 등 관리단 박성진 사무국장, 직원 김상규,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2일차 11. 10. (목)	도산서원 답사	전문가 이수환 교수 안동시 권운대 주무관, 손상락 학예연구사, 권순덕 학예연구사 도산서원 이동구 별유사, 이태원 별유사 등 관리단 박성진 사무국장, 직원 김상규,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병산서원 답사	전문가 이수환 교수, 조재모 교수 안동시 권운대 주무관, 손상락 학예연구사, 권순덕 학예연구사 하회마을보존회 류한철, 신해경, 강석영 병산서원 류한욱 유사, 류대근 유사, 류정하 유사 등 관리단 박성진 사무국장, 직원 김상규,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3일차 11. 11. (금)	도동서원 답사	전문가 이수환 교수, 조재모 교수 대구광역시 방일섭 주무관 달성군 김제근 학예연구사 도동서원 김수영 유사 등 관리단 박성진 사무국장, 직원 김상규,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남계서원 답사	전문가 이수환 교수, 조재모 교수 경상남도 조종호 과장, 이민우 주무관 남계서원 이창구 원장, 김순화 유사, 박해령 유사 등 관리단 박성진 사무국장, 직원 김상규,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일 자	주요 일정	참 석 자
4일차 11. 12. (토)	무성서원 답사	전문가 이해준 교수, 한필원 교수 문화재청 김지홍 사무관 전라북도 임재옥 과장, 윤영란 주무관 정읍시 서인석 계장, 조해선 주무관 무성서원 이치백 원장 등 관리단 박성진 사무국장, 직원 김상규,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돈암서원 답사	전문가 이해준 교수, 한필원 교수 충청남도 이창규 과장, 김재상 주무관 논산시 김대연 과장, 표수희 학예연구사 돈암서원 김선의 장의 등 관리단 박성진 사무국장, 직원 김상규,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5일차 11. 13. (일)	전문가 워크숍 I (OUV)	전문가 이상해 교수, 이해준 교수, 한필원 교수, 이수환 교수, 조재모 교수, 조상순 연구관 문화재청 김지홍 사무관, 임경희 학예연구사, 조유진 자문위원 관리단 박성진 사무국장, 직원 김상규,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6일차 11. 14. (월)	전문가 워크숍 II (OUV, 등재기준)	전문가 이상해 교수, 이해준 교수, 한필원 교수, 유동환 교수, 이수환 교수, 조재모 교수 문화재청 김지홍 사무관, 임경희 학예연구사, 조유진 자문위원
	전문가 워크숍 III (비교연구)	충청남도 김재상 주무관 안동시 손상락 학예연구사 영주시 금창현 팀장 달성군 김제근 학예연구사
	전문가 워크숍 IV (유산구역, 완충구역)	도산서원 이동구 유사 병산서원 류한욱 유사 관리단 박성진 사무국장, 직원 김상규,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7일차 11. 15. (화)	전체 워크숍: 종합 정리	전문가 이상해 교수, 이해준 교수, 한필원 교수, 이수환 교수 충청남도 김재상 주무관 전라북도 임재옥 과장, 윤영란 주무관 영주시 금창현 팀장 달성군 김제근 학예연구사 도동서원 김수영 유사 돈암서원 김선의 장의 관리단 이배용 이사장, 박성진 사무국장, 직원 김상규,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11. 16. (수)	출국(인천공항)	문화재청 김지홍 사무관 관리단 이승은



개요 워크숍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도동서원



남계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전문가 워크숍



전체 워크숍

현장 답사를 마치고 진행한 전문가 워크숍과 전체 워크숍에서는 현재 단계에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등재기준

- ① 등재기준 (ii), (vi)를 제외하고 (iii), (iv)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② 등재기준 (iii)의 경우 추후 보강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③ 매트릭스 표 작성을 통한 등재기준과 OUV 연계 제시

### · 완전성 및 진정성

- ① 고증자료 및 고고학적 연구가 더 필요함
- ② 주변의 성리학적 경관이 서원의 중요한 가치로 이해되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③ 서원 주변의 활용시설이 서원보다 더 크고 높음
- ④ 완전성이 부족한 서원과 진정성이 부족한 서원에 대한 속성 도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 개별유산 선정

- ① 세계유산 운영지침 137항의 강화에 따라 모든 개별서원이 등재기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함
- ② 대표성을 도출 : 왜 전 세계의 유학 교육 기관 중 한국의 서원만이 등재되어야 하며, 국내 600여개의 서원 중 왜 9개 서원인가를 증명해야 함
- ③ 매트릭스 표 작성을 통한 개별서원 선정의 타당성 명시화
- ④ 매트릭스 표 작성 시 설명적 서술이 아닌 분석적 서술로 항목화 시켜야 함
- ⑤ 완전성 및 진정성이 부족한 개별유산일 경우, 유산의 속성에 대한 세부 연구가 더욱 필요

### · 비교유산

- ① 중국 서원과 비교했을 때 세 가지 차이점이 있음 : 서원의 성장 배경, 성리학적 이념이 건물 유형에 드러난 점, 서원에 제향된 성리학자들의 정치·사회·역사적 역할
- ② 건축적 측면에서 중국 서원과 비교했을 때, 서원 경내에서 밖을 향했을 때 개방적이고, 위계로만 공간을 구분하여 결국은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며, 유식공간이 더 강조되었음. 또한 제향, 강학, 유식으로 명확한 공간의 구성이 큰 차별성을 가짐
- ③ 고증 자료 및 고고학적 연구가 더 요구됨
- ④ 600여개의 국내 서원 중 9개를 선정한 근거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함
- ⑤ 비교유산의 대상을 선정할 때 세계교육기관을 포함해서 비교유산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설정 및 보호관리

- ① 통일되고 일관된 경계 설정의 원칙이 필요
- ② 지형도와 현상변경허용기준의 통합된 지도 필요
- ③ 제향인물 묘소를 완충구역 내에 포함하도록 함
- ④ 지번에 기반한 경계 설정보다는 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근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⑤ 주차장 등 연계시설까지 유산구역에 포함해야 하는지 재고
- ⑥ 서원과 인접한 민가, 공업단지의 경우 법적 보호를 통해 제한하거나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
- ⑦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내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 자문실사 3차 전문가 회의

2016. 11. 20.  
자문실사 3차 전문가 회의

이코모스 현지 자문실사를 마치고 3차 전문가회의를 11월 20일(일) 관리단 사무국에서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이상해 교수, 이해준 교수, 한필원 교수, 이수환 교수, 유동환 교수 조재모 교수, 박성진 사무국장, 조유진 위원과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관리단 사무국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자문실사자가 제안한 등재기준 매트릭스 설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등재기준과 9개 서원을 바탕으로 한 속성 도출을 논의하였다. 매트릭스 기법을 사용하여 신청유산의 속성과 등재기준을 도출하는 작업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방식이었다. 이에 전문가 회의에서는 매트릭스에 대한 대략적인 가안을 잡고 10일 후에 관련 사항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 - 자문실사 4차 전문가 회의

2016. 12. 01.  
자문실사 4차 전문가 회의

3차 전문가 회의 이후 각자 분담에 따른 매트릭스 설정을 마치고 12월 1일(목) 4차 전문가회의를 대전 모임공간 국보에서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이상해 교수, 이해준 교수, 한필원 교수, 박성진 사무국장, 조유진 위원과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관리단 사무국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각 전문가가 제안한 사항을 통합한 등재기준 매트릭스 설정을 논의하였다. 이에 매트릭스에 대한 기본 방향을 마련하였으며, 추후 진행될 등재신청서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사항을 보다 정밀하게 완성하기로 결론지었다.

### - 자문실사자 요청자료 제출

2016. 12. 08.  
자문실사자 요청자료 제출

현지 자문실사를 마치고 자문실사자 2인은 자문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하였다. 해당 자료는 대체로 신청유산에 대한 법적 요건에 대한 사항이 중심이었다. 이에 관리단에서는 요청 사항을 정리하여 12월 8일(목) 문화재청에 국문, 영문본을 제출하였다. 요청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보호법 내의 문화재위원회 운영
- 9개 서원 종합정비계획(보호관리계획) 수립연도
- 9개 서원 현상변경허용기준
- 9개 서원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범위 재설정
-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고시
- 각 서원 구역에 적용되는 관련법안 및 담당 부서
- 각 서원과 관련한 고지도(古地圖)
- 자문실사 자료집 디지털 파일

### - 자문실사 2차 실무자료 제출

2016. 12. 28.  
자문실사 2차 실무자료 제출

관리단에서는 현지 자문실사를 포함하여 등재신청서 진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2차 실무자료를 문화재청에 송부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코모스에 제출하였다. 2차 실무자료는 1차 실무자료에 비하여 현지 자문실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대체로 등재신청서 2장과 3장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출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유산명칭
-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등재기준 iii, 등재기준 iv)
-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증(매트릭스)
- 진정성 및 완전성
- 비교분석(한국 서원과의 비교, 향교와의 비교, 해외 유사유산과의 비교)

2017. 01. 09.  
이코모스 스카이프 2차 회의

- 일 시: 2017.01.09.(월) 18:00~20:00

- 참석자:

- 주요 논의사항:

- 4장. 세계유산목록 등재 재추진과 이코모스 자문실사 / 177



전체적인 논의는 현지 자문실사를 통해 해소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오고간 논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스카이프 2차 회의에서는 스카이프 1차 회의, 현지 자문실사, 당사국 제출 자료, 스카이프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종 보고서에 앞서서 이코모스에서는 현재까지 등재신청서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을 당사국에서 정리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코모스에서는 등재신청서 진행사항까지 반영된 최종 보고서를 3월 중순까지 문화재청으로 송부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종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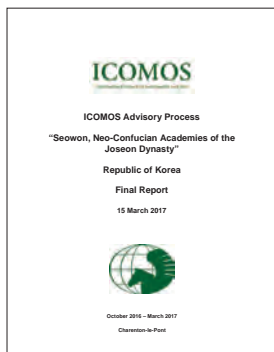
### - 자문실사 5차 전문가 회의

2017. 01. 20.  
자문실사 5차 전문가 회의

등재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이 잡혀가면서 5차 전문가회의를 1월 20일(금) 정동에 소재하는 달개비에서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이배용 이사장, 김덕현 교수, 이해은 교수, 이왕기 교수, 조재모 교수, 박성진 사무국장, 관리단 사무국 직원 등 8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현재까지 작성한 등재기준, 매트릭스, 속성에 대한 관리단 전문위원의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회의에서 전문위원들은 매트릭스의 방향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고, 이후 등재신청서에도 해당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3) 자문실사 권고사항과 이행

2017년 3월 15일(수) 예정대로 이코모스에서 최종보고서를 보내왔다. 이를 문화재청에서는 3월 16일(목) 관리단에 송부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결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코모스 자문실사 최종보고서

## 결론 및 권고사항

본 보고서는 자문 과정의 마지막 보고서이며, 이코모스와 한국 대표단이 주고받은 자료 및 과정 점검을 위한 다수의 스카이프 회의, 이코모스가 의뢰한 탁상 검토와 이코모스 자문실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코모스는 자문과정을 통해 이코모스와 한국 대표단(서원 관리단, 문화재청, 학계전문가들, 지방자치단체, 유관 정부 부처 포함)과의 대화와 참여의 폭을 성공적으로 확대했다고 생각한다. 자문실사와 한국 전문가들의 추후 작업들로 인해 세계문화유산 리스트에 한국 서원을 연속 등재해야 하는 근거를 재검토하는 것에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등재신청 수정을 위해 추가적인 비교분석과 근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할 것을 조언하였고, 특히 다음의 질문에 초점을 두었다.

- 성리학 교육기관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왜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있는 비슷한 형태의 유산 전체가 아닌 대한민국의 유산만이 등재되어야 하는가?
- 특정 서원은 어떤 근거에서 선택되었는가?

개별유산 선정에 관하여 연속 유산으로서의 근거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세계 학계, 아시아 권 학계와 한국의 서원간의 비교 연구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다.

연속 유산은 한국의 신 유교의 도입, 철학적 변용,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발전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등재신청된 9개의 서원 대부분이 주로 “철학적 변용 및 발전”단계는 보여주나 다른 발전 단계를 보여주진 못한다. 따라서 연속유산 등재신청의 주장 및 근거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협력적, 상호적 워크숍 과정을 통해, 선택된 개별유산이 지닌 특성과 OUV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여 개별유산의 연속 등재신청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초안이 마련되었다.

서원의 정통성과 완전성이 고려되었고, 남계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과 관련하여 특정 사안이 제기되었다.

선택된 개별유산의 적절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초안 원칙안이 제공되었다. 당사국이 해당 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한국의 서원을 위한 수정된 유산 등재신청으로 가는 길

자문실사의 지적사항과 자문과정에서 오고 간 의견을 바탕으로 이코모스는 다음의 결과에 따라 작업을 계속 진행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

1. 등재기준 : 수정된 등재 신청서는 등재기준 (iii) 그리고/또는 기준 (iv)에 따라 계속 개발되어야 한다.
2. OUV로 봐야 할 근거 : 한국의 성리학의 ‘도입’과 ‘쇠퇴’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선택된 예시가 (지금 단계에서는) 많이 없기 때문에 OUV로 봐야 할 근거 설명의 범위를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조정해야 할 것이다.
3. 프레임워크(등재기준표) : 당사국은 (서원관리단의 지원을 받아) 등재기준 (iii)과 (iv)를 위한 특성에 관한 프레임워크의 초안을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일단 해당 초안이 만들어지면, 각 서원의 관련 특징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특성과 각 기준에 맞게 완성되어야 한다.
4. 비교 분석 : 한국서원과 일본 시슈간의 비교, 이론적, 유형적, 운영적 측면을 벗어나 유적지 환경, 배치, 공간 구성, 건축, 조경 측면으로의 확대를 포함한 비교 분석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 향교와의 더욱 철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교육 시스템, 학자, 역사적 역할, 발전 과정, 관리 규칙, 위치, 제향의례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조사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서원 유산의 계속적 활용을 연구한다. 초기 서원 수와 오늘날 남아있는 서원 수 간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5. 개별유산 :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가를 바탕으로 유산등재신청에 포함될 서원 선택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통성과 완전성에 있어 논란이 있는 서원은 재고해야 한다.
6. 유산구역 : 연속 유산에서 개별유산구역을 정하는 것은 수정된 등재신청서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는 일련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개별유산구역은 제안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서원의 모든 요소만을 포함해야 한다.
7. 완충구역 : 연속 유산에서 개별유산의 완충구역을 정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하는 500 미터 반경이라는 보호구역을 보완하는 명확히 설명된 일련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8. 보호 : 수정된 등재신청안은 제안된 각 개별유산 구역과 관련하여 각 zone의 범위를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일련의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현상변경허용기준과 새로운 개발, 다른 보호 매커니즘에 대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보여주는 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수정된 등재신청서에는 또한 유산 소유권을 보여주는 추가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9. 관리 : 개별 서원에 대한 관리 계획은 개별구역 및 완충구역의 변경에 맞춰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코모스의 이전 평가(2016년 3월)와 예비 자문 보고서(2016년 10월)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 서원의 관리 및 위험 대비가 자연 경관도 포함할 수 있을 정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학계 보호인, 관리인과 문화적 전통이 유적지 해석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 해석 개념을 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 일부 외관을 해칠 수 있는 필수적인 인프라(소방 기구 등)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방문자 접근과 방문자 서비스를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0. 연구 : 고고학적, 철학적 연구를 포함해 서원의 유형 및 무형적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계속적인 연구가 장려되어야 한다. 특히 필암서원, 소수서원, 도동서원, 도남서원, 무성서원과 같은 개별유산요소들의 이동/이전이 이뤄진 경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적 연구방향이 연속유산 관리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1. 지역참여 : 등재신청 수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참여를 위한 기존 절차와 협약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유산구역, 완충구역 또는 법적 통제에 변경이 있을 경우 특히 중요하다.
12. 유산 이름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대한 근거사유가 되는 마지막 개별유산에 따라, 서원을 연속적인 살아있는 문화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조선시대'라는 문구는 이름에서 삭제되어도 될 것이다. 좀 더 간결한 이름이 적절할 것이다.

## 유산 별 권고사항

마지막으로 이코모스는 기존 연속유산 등재신청에 포함되었던 개별유산과 관련하여 당사국과 서원 관리단의 계속적인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산 별 지적 및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소수서원 : 동쪽 산등성이까지 유산구역을 확장할 것을 검토.
- 남계서원 : 새로운 주거지역이 서원의 완전성에 외관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경을 검열할 수 있는 관리 대책 실행 필요.
- 도산서원 : 남쪽 산등성이까지 완충구역을 확장할 것을 검토.
- 도동서원 : 최근 유적지로 매입된 서북쪽에 이르는 주차장 및 기타 서비스 구역은 유산구역에서 제외시킬 것을 검토(수정된 완충구역으로는 포함). 부적절한 규모의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쪽의 인접구역에 대한 제약 재검토 필요.
- 병산서원 : 시야에 보이는 저수지와 유산 소유권 모두를 포함하여 동남쪽 산등성이까지 유산구역을 확장할 것을 검토.



- 무성서원 : 정통성 및 완전성 문제와 함께 본 서원이 제안된 연속유산의 OUV에 명확히, 반드시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수정된 등재 신청에 본 서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것.
- 돈암서원 : 진정성 및 완전성 문제와 함께 본 서원이 제안된 연속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에 명확히, 반드시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수정된 등재 신청에 본 서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것. 만약 본 서원이 포함된다면, 김장생 묘를 포함 여부 관련 검토 필요. 북쪽 새로운 관련 교육 및 체험 시설 구역(서원이 소유하지 않은 구역)은 유산구역에서 제외시키되 수정된 완충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이코모스에서는 추가적으로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다음의 세계유산목록을 제시하며, 해당 등재신청서에 서술된 비교분석의 방식을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1. 덴마크 : 크리스티안스펠트, 모라비아 교회 정착촌  
(Christiansfeld, a Moravian Church Settlement)  
- 등재연도 : 2015  
- 등재기준 : (iii) (iv)
2. 미국 : 샌안토니오의 전교회(San Antonio Missions)  
- 등재연도 : 2015  
- 등재기준 : (ii)
3. 독일 : 카롤링거 시대의 베스트보르크와 코르바이 키비타스  
(Carolingian Westwork and Civitas Corvey)  
- 등재연도 : 2014  
- 등재기준 : (ii) (iii) (iv)
4.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랑고바르드(568~774년 권력의 장소)  
(Longobards in Italy. Places of the Power (568-774 A.D.))  
- 등재연도 : 2011  
- 등재기준 : (ii) (iii) (vi)

동아시아 건축 전문가로서 현지 실사자로 참여했던 리화동 교수 또한 중국 서원 중에서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다음의 서원들을 제시하며, 향후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중국의 서원 대상 선정에 도움을 주었다.

1. 광동성 진씨서원(广东省 广州陈氏书院)
2. 산둥성 니산서원(山东省 曲阜尼山书院)
3. 강서성 동림서원(江西省 东林书院)
4. 하남성 송양서원(河南省 嵩阳书院) \*세계유산목록 등재
5. 호남성 석고서원(湖南省 石鼓书院)
6. 호남성 업후서원(湖南省 邕侯书院)
7. 호남성 악록서원(湖南省 岳麓书院)
8. 호남성 녹강서원(湖南省 渌江书院)
9. 호남성 미천서원(湖南省 洙泉书院)
10. 강서성 첩산서원(江西省 叠山书院)
11. 강서성 백록동서원(江西省 白鹿洞书院) \*세계유산목록 등재
12. 강서성 백로주서원(江西省 白鹭洲书院)
13. 강서성 예장서원(江西省 豫章书院)

### - 이코모스 스카이프 3차 회의

2017. 03. 28.  
이코모스 스카이프  
3차 회의

이코모스와의 스카이프 3차 회의는 3월 28일(화) 관리단 사무국에서 진행되었다. 스카이프 3차 회의에서는 최종보고서를 수령한 후 이코모스와 대한민국 간의 최종 협의를 위해서 진행되었다. 본래 현장 자문실사를 마치고 12월 중순경에 스카이프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이코모스 측에서 자문실사 결과를 정리하고 이에 따라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회의 수정을 요구하여 해를 넘긴 2017년 1월 초순에 진행되었다. 참석자와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 시: 2017.03.28.(화) 15:00~18:00

- 장 소: 관리단 사무국

- 참석자:

- ICOMOS : ICOMOS 사무국 평가담당 과장 Gwaenelle Bourdin, 어드바이저 Kristal Buckley
- 대한민국 : 이상해 교수, 이해준 교수, 조재모 교수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사무관 김지홍 사무관, 학예연구사 임경희  
관리단 박성진 사무국장, 직원 김상규,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 주요 논의사항:

- 등재기준
- 유산속성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 비교분석

자문실사의 최종 결론 성격을 띠었던 3차 스카이프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사항과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사항 중 이해가 어려운 점을 협의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등재신청서 작성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신청서 착수에 돌입하게 되었다.

### - 등재 추진 관계자 연석회의

2017. 04. 14.  
등재 추진 관계자  
연석회의

이코모스 자문실사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후, 관리단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서원 운영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국립고궁박물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이코모스 자문실사에 대한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나누는 자리였다. 연석회의에는 자문실사 결과 및 향후 진행사항에 대한 발표 이후 관련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등재 추진 관계자 연석회의

시 간	소요(분)	순서	진행
10:00~10:05	5	개회사 / 이배용 이사장	
10:05~10:20	15	회의 안건 1 - 이코모스 자문미션 경과 및 최종결과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10:20~10:35	15	회의 안건 2 - 등재신청서 및 보존관리계획서 진행사항	관리단 사무국
10:35~11:00	25	회의 안건 3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안), 보존관리 조정사항	보존관리계획서 작성팀
11:00~12:00	60	자유토론	관리단 사무국
12:00~13:00	60	중식	

워크숍 이후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서원 운영자, 그리고 관리단은 이코모스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주요 권고사항의 이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권고 사항

구분	이행 사항
등재신청서 작성	<p>등재기준 : (ii)를 제외하고, (iii) (iv)로 유지  속성 및 등재기준 :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변경  비교분석  - 국내 서원과의 비교분석 (선정사유)  - 해외 유사 교육기관과의 비교분석 (중국, 일본 중심)</p>
유산 및 완충구역	<p>유산 및 완충구역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  개별 서원의 조치  - 소수서원 : 동쪽 산등성이까지 유산구역을 확장  - 병산서원 : 동남쪽 산등성이까지 유산구역을 확장  - 도동서원 : 최근 유적지로 매입된 서북쪽에 이르는 주차장 및 기타 서비스 구역은 유산구역에서 제외(수정된 완충구역으로는 포함)</p>
보존관리	<p>남계서원 : 새로운 주거지역에 조정 방식에 대한 고려  무성서원 : 홍살문 이전 (채용신 칠광십현도 근거)  돈암서원 : 외부 담장 철거 (진정성 측면)</p>





필암서원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 5

##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재작성과 제출

01. 등재신청서 재작성
02.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
03. 등재신청서 최종 검토 과정
04. 등재신청서 제출

# 5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재작성과 제출



## 01. 등재신청서 재작성

### 1) OUV 및 비교분석 작업

등재신청서의 재작성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가 수행하였다. 관리단은 이미 2012년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와 동일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자문실사를 통해 등재신청서 수정 방향에 대해서도 윤곽을 잡아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단기간에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등재신청서 재작성 작업에서 관리단은 연구용역팀을 이원화하여 등재기준, 비교분석을 서술하는 팀과 보존관리와 활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팀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이에 관리단에서도 이를 이원화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사무국을 운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상해 교수를 비롯한 기존 전문위원은 재신청서 작성과 정에서 작성된 등재신청서를 검토하는 자문단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등재신청서 집필진들은 문화재청, 관리단과 더불어 등재신청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

등재신청서 재작성을 위한 참여 연구원은 관리단에서 자문실사 이전에 섭외했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재작성 용역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자**

이수환 (영남대학교 교수)

### **연구원**

#### **등재기준 및 비교분석**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조재모 (경북대학교 교수)

#### **보존관리 및 유산활용**

한필원 (한남대학교 교수)

유동환 (건국대학교 교수)

### **자문위원**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혜은 (동국대학교 교수)

### **TF 위원**

#### **지방자치단체**

김희태 (전라남도 전문위원)

김제근 (달성군 학예연구사)

#### **서원운영자**

이동구 (도산서원 별유사)

류한욱 (병산서원 유사)

김선의 (돈암서원 장의)

## - OUV 도출을 위한 전문가 회의

자문실사를 통해 「한국의 서원」 등재를 위한 방향성이 설정된 후, 등재신청서 집필진은 등재기준의 설정과 비교분석에 집중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세계유산팀과 관리단 전문위원, 그리고 관리단 사무국은 등재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윤독과 윤문, 그리고 운영지침에 부합한 서술을 위해 자문과 지원을 지속하였다. 또한 등재신청서 TF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서원운영자들이 참여하여 유산에 직접적인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정기적인 신청서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 2017.03.21. OUV 도출 1차 회의

- 장 소 : 대전역 회의실
- 참석자
  - 집 필 자 : 이해준 교수, 이수환 교수, 조재모 교수, 한필원 교수
  - 문화재청 : 김지홍 사무관, 임경희 학예연구사
  - 관 리 단 : 박성진 사무국장, 이경동, 이승은

### 2017.03.24. OUV 도출 2차 회의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소회의실
- 참석자
  - 집 필 자 : 조재모 교수
  - 문화재청 : 김지홍 사무관, 임경희 학예연구사
  - 관 리 단 : 박성진 사무국장,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 2017.03.28. OUV 도출 3차 회의 (이코모스 스카이프 회의와 병행)

- 장 소 : 관리단 사무국
- 참석자
  - 집 필 자 : 이해준 교수, 조재모 교수
  - 자 문 : 이상해 교수
  - 문화재청 : 김지홍 사무관, 임경희 학예연구사
  - 관 리 단 : 박성진 사무국장, 김상규,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 2017.04.14. OUV 도출 4차 회의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소회의실
- 참석자
  - 집 필 자 : 이해준 교수, 이수환 교수, 한필원 교수, 유동환 교수, 조재모 교수
  - 문화재청 : 김지홍 사무관, 임경희 학예연구사
  - 관 리 단 : 이배용 이사장, 박성진 사무국장, 김상규,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 2017.05.02. OUV 도출 5차 회의

- 장 소 : 대전역 회의실
- 참석자
  - 집 필 자 : 이해준 교수, 이수환 교수, 한필원 교수, 조재모 교수
  - 문화재청 : 임경희 학예연구사
  - TF : 전라남도 김희태 전문위원, 달성군 김제근 학예연구사, 이동구 도산서원 별유사, 류한욱 병산서원 유사, 김선의 돈암서원 장의
  - 관 리 단 : 박성진 사무국장, 이경동, 박진재

#### 2017.05.12. OUV 도출 6차 회의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소회의실
- 참석자
  - 집 필 자 : 이해준 교수, 이수환 교수, 한필원 교수, 조재모 교수
  - 문화재청 : 김지홍 사무관, 임경희 학예연구사
  - TF : 전라남도 김희태 전문위원, 달성군 김제근 학예연구사, 이동구 도산서원 별유사, 김선의 돈암서원 장의
  - 관 리 단 : 박성진 사무국장, 김상규,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 2) 보존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

OUV 도출이 등재신청서 2, 3장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4장 이후에 해당하는 보존 관리 항목의 작성도 별도로 진행되었다. OUV 작성과 마찬가지로 보존관리 부분도 자문실사를 통해 「한국의 서원」 등재를 위한 방향성이 설정된 후, 등재신청서 집필진은 본격적인 신청서 작성을 수행하였다. 이는 정기적인 신청서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 **2016.12.21. 보존관리 1차 회의**

- 장 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소회의실
- 참석자
  - 집필자 : 한필원 교수 및 연구보조원
  - 관리단 : 박진재

### **2017.02.13. 보존관리 2차 회의**

- 장 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소회의실
- 참석자
  - 집필자 : 한필원 교수, 유동환 교수 및 연구보조원
  - 관리단 : 박진재

### **2017.03.05. 보존관리 3차 회의**

- 장 소 : 관리단 사무국
- 참석자
  - 집필자 : 한필원 교수 및 연구보조원
  - 관리단 : 박진재

### **2017.03.25. 보존관리 4차 회의**

- 장 소 : 관리단 사무국
- 참석자
  - 집필자 : 한필원 교수, 유동환 교수 및 연구보조원
  - 관리단 : 박진재

### **2017.04.12. 보존관리 5차 회의**

- 장 소 : 관리단 사무국
- 참석자
  - 집필자 : 한필원 교수, 유동환 교수 및 연구보조원
  - 관리단 : 박진재

### **2017.04.23. 보존관리 6차 회의**

- 장 소 : 대전역 인근 카페
- 참석자
  - 집필자 : 한필원 교수, 유동환 교수 및 연구보조원
  - 관리단 : 박진재

### 2017.05.10. 보존관리 7차 회의

- 장 소 : 관리단 사무국
- 참석자
  - 집필자 : 한필원 교수, 유동환 교수 및 연구보조원
  - 관리단 : 박성진 사무국장, 박진재

### 2017.05.22. 보존관리 8차 회의

- 장 소 :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 참석자
  - 집필자 : 한필원 교수 및 연구보조원
  - 관리단 : 박진재

## 3) 비교분석을 위한 해외 유사유산 답사

등재신청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함에 따라 연구진을 중심으로 국내 유산뿐 아니라 국외의 세계유산목록에 대한 비교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집필진은 해외 유사유산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등재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외유사유산 답사에는 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등재 대상 서원의 운영자들이 참석함으로써 비교분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재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관리단을 중심으로 해외 유사유산 답사지 후보를 검토하였고, 해외 유사유산 답사를 확정하였다. 답사지 후보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거나, 비교분석에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유학 교육유산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해 관리단은 총 2회에 걸쳐 국외 유사유산 답사를 진행하였다. 이코모스 자문의견을 수용하여 비교분석 대상은 동아시아로 한정하였고, 이 중에서도 사립 유학 교육기관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답사 일정 중에는 매번 참석한 인원들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된 일부 유산은 등재기준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제1차 유사유산 답사는 2017년 2월 1일(수) ~ 5일(일)까지 일본의 도쿄, 오카야마, 오사카, 시모노세키 지역을 답사하였다. 2013년도에 이미 비교분석을 위해 일

본을 답사하였기 때문에, 당시 후보군을 포함하여 한국의 서원과 동 시기에 사립학교의 기능을 하였던 시주쿠(私塾)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답사에는 등재신청서 작성 자문위원인 이상해 교수와 지방자치단체, 등재신청서 작성팀을 포함한 총 7명이 참여하였다.

제2차 유사유산 답사는 2017년 2월 20일(월) ~ 24일(금)까지 중국의 호남성·강서성·하남성에 소재한 서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은 서원의 기원이 되는 지역으로 비교분석에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상이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된 ‘백록동서원’과 ‘송양서원’을 답사하기로 하였다. 답사에는 등재신청서 작성 연구원인 이해준 교수와 지방자치단체, 등재대상 서원 유림, 등재신청서 작성팀을 포함한 총 13명이 참여하였다.

두 차례의 유사유산 답사는 등재신청서 집필진을 중심으로 등재기준과 비교분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철회 당시 이코모스에서는 비교분석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 - 2017년 국외유산 답사 (일본)

2017. 02. 01. ~ 05.  
국외유산 답사 (일본)

- 일 정 : 2017. 02. 01.(수) ~ 05.(일) (4박 5일)
- 주 최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후 원 : 문화재청,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논산시, 정읍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달성군, 장성군, 함양군

### 2017년 1차 국외유산 답사 참여자 명단

구분	이름	소속
추진단 전문위원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추진단 전문위원/집필진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집필진	한필원	한남대학교 교수
집필진	조재모	경북대학교 교수
안동시	손상락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관리단	김상규	총무관리 팀장
관리단	이승은	홍보문화 대리

### 2017년 1차 국외유산 답사 세부일정

일 자	도 시	세부 일정
2월 1일	인 천 오 사 카  다카시마	- 인천국제공항출국 - 간사이국제공항 도착 - 데키주쿠 기념센터/카이도쿠로(懷徳堂) 답사 - 다카시마 이동
2월 2일	다카시마 교 토  오카야마	- 토주서원(藤樹書院) 답사 - 교토 이동 - 고의당터 답사 - 오카야마 도착
2월 3일	오카야마 기타큐슈	- 시즈타니학교(特別史跡旧関谷學校) 답사 - 기타큐슈 이동 - 메이지 시기 일본 근대유산 답사
2월 4일	야마구치 우 키 하 오구니마치	- 쇼카손주쿠(松下村塾) 답사 - 우키하 이동 - 오구니마치 이동 - 칸키엔 답사
2월 5일	오구미마치 사 가 후쿠오카 인 천	- 사가 이동 - 도겐쇼우샤(東原厩舎) 답사 - 후쿠오카 국제공항 출발 - 인천국제공항 도착



데키주쿠



토주서원



시즈타니학교



쇼카손주쿠



칸키엔



도겐쇼우사



## - 2017년 국외유산 답사 (중국)

2017. 02. 20. ~ 24.  
국외유산 답사 (중국)

- 일 정 : 2017. 02. 20(월). ~ 24(금). (4박 5일)
- 주 최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후 원 : 문화재청,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논산시, 정읍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달성군, 장성군, 함양군

### 2017년 2차 국외유산 답사 참여자 명단

구 분	이 름	소 속
관리단 전문위원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신청서 집필팀	이수환	영남대학교 교수
신청서 집필팀	한필원	한남대학교 교수
신청서 집필팀	조재모	경북대학교 교수
안동시	권순덕	문화예술과 주무관
영주시	류지환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소수서원	류준희	도감
소수서원	신현직	도감
도산서원	이동구	별유사
병산서원	류한욱	유사
관리단	이경동	기획조정 간사
관리단	박진재	보존관리 팀장
관리단	이승은	홍보문화 대리

### 2017년 2월 국외유산 답사 세부일정

일 자	도 시	세 부 일 정
02. 20. (월)	인 천 무 한 구 강	- 인천국제공항 출발 - 무한국제공항도착 - 구강으로 이동 - 백록동서원 답사
	악 양	- 악양으로 이동
02. 21. (화)	형 양	- 형양으로 이동 - 석고서원 답사
	주 주	- 주주 이동
02. 22. (수)	주 주 장 사	- 녹강서원 답사 - 장사로 이동 - 악록서원 답사
02. 23. (목)	장 사 정 주 등 봉	- 장사 출발 - 정주 도착 - 등봉 이동 - 송양서원 답사
	정 주	- 정주 이동
02. 24. (금)	정 주 인 천	- 정주 국제공항 출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백록동서원



석고서원



녹강서원



악록서원



송양서원

## 4) 등재신청서 정리 작업

### - 최종 작성을 위한 합숙 회의

2017. 06. 16. ~ 17.  
등재신청서  
최종 작성을 위한  
합숙 회의

관리단에서는 등재신청서 집필진과 함께 등재신청서 국문 원고를 마무리하기 위해 1박 2일에 걸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콘도에서 합숙을 통해 완결된 국문본을 만들 고자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등재신청서 원고 중 유산구역 및 완충 구역, 등재기준, 매트릭스, 속성, 비교분석,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합숙회의 1



합숙회의 2

### - 원고 자문

합숙을 통해 정돈된 형태의 국문 등재신청서가 완성된 후, 관리단 사무국에서는 국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등재신청서의 완결성을 한층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에 많은 경험을 가진 관리단 전문위원 이상해 교수와 이해은 교수에게 신청서 검토 자문을 의뢰하였다. 두 전문가의 자문 의견은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되었다.

### - 지방자치단체 검토

관리단은 등재신청서 전문가 자문과 함께 해당 원고를 당해 14개 지방자치단체에 발송, 검토를 의뢰하였다. 검토기간은 2017년 7월 7일(금) ~ 7월 12일(수)까지로, 각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은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관리단에 송부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전문가만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무자들도 함께 원고를 검토함으로써 놓칠 수 있는 사실적 오류를 보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 유산 활용관련 자문회의

2017. 08. 25.  
유산 활용관련 자문회의

등재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신청서 집필진과 관리단 사무국은 등재신청서 수정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 중에서도 유산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대부분 학술연구자를 중심으로 신청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한국의 서원」 활용에 대한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관리단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섭외, 2017년 8월 25일(금) 관리단 사무국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 보존관리 작성 연구진 : 한필원(한남대학교 교수)
- 자문위원 : 이동범(컬처앤로드문화유산활용연구소장)  
김재홍(한국문화유산센터장)  
심준용(에이앤에이문화연구소장)

이를 통해 유산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접할 수 있었으며, 자문 이후에 서면으로 「한국의 서원」 활용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공해 주었다. 자문 결과는 등재신청서에 반영되면서 한층 더 완결성을 높일 수 있었다.

## - 영문번역

이제까지 등재신청서 작성은 세계유산 및 해당 유산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철회 이전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패턴은 해당 번역자가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유산에 대한 이해나 등재 과정, 그리고 등재신청서에 필요한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외부에서 번역을 진행하다보면 번역의 윤문에 있어 시간적 소모가 적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리단에서는 영문 작업에 필요한 직원을 2015년부터 채용하여 세계유산위원회, 등재신청서 작성을 비롯한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유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용어의 사용에서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이에 국문신청서의 초안이 완성되고 나서 0, 1, 2, 3장은 관리단 이승은이 담당하였고, 보존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문화재청 에디터 박정은이 담당하였다. 또한 교열은 이승은이 담당하고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집필진, 관리단 사무국이 교차 교정을 거쳐 등

재신청서 영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등재신청서 재작성 작업은 다음의 몇 가지 항목에서 기존의 등재신청서 작업과는 차이를 보였다.

첫째, 이코모스 자문실사를 통해 연속유산으로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선행 학습할 수 있었다. 연속유산 등재에 대해 경험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매트릭스의 기법이나 속성에 기반한 등재기준을 도출하는 작업에 대한 학습은 완성도 높은 등재기준을 작성하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었다.

둘째, 문화재청 세계유산팀과 관리단에서 연구팀과 등재신청서 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기존에는 등재신청서 작성팀에만 의존하던 등재신청서 작업에서 벗어나 관련 부처와 발주 기관인 관리단에서 등재신청서 작업의 초반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등재신청서가 공동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었다.

셋째, 등재신청서 작업에 집중하고 부록자료는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등재신청서 제출시 등재신청서와 보존관리계획서, 그리고 다수의 부속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재추진 당시 등재신청서 제작 방향은 등재신청서에만 집중하고 필요시 소규모의 부록자료를 첨부하기로 결론지었다. 이에 보존관리계획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영문번역하였고, 이외에 서류 심사자의 편의를 위해 각 서원을 이해하기 위한 도면을 부수적으로 첨부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집필진들이 등재신청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넷째, 등재신청서 작성과정에서 유산 관련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기존에 등재신청서 작성은 세계유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소규모로 진행된 특징이 있다. 이에 재추진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서원운영자들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해당 유산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의 등재신청서 참여가 가능하게 하였다.



## 02.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

### 1) 등재신청 후보 선정

#### - 등재 추진 경과 보고

2016. 9. 22.  
등재 추진 경과 보고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이 중대한 사유로 보류(Referral) 결정이 되거나 반려(Deferral) 결정이 되어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 잠정목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반려 결정으로 인해 철회한 「한국의 서원」의 경우 잠정목록으로 등록된 여타 유산과 동일한 세계유산목록 등재와 관련한 절차를 따라야 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를 통해 세계유산목록 우선등재 신청과 세계유산목록 등재 후보 신청을 모두 거쳐야 했다.

관리단은 2016년 9월 22일(목)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를 통해 잠정목록 제출 이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세계유산목록에 재도전하는 과정을 밟았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그에 대한 첫걸음에 해당하였다.

관리단에서는 2016년 11월 자문실사를 바탕으로 한층 더 완성도 높은 등재신청서를 제작, 향후에는 완벽한 상태로 세계유산목록 등재에 재도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 - 등재신청 후보 선정

2016. 12. 22.  
등재신청 후보 선정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세계유산 우선 등재목록 중 2개의 유산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말까지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하며, 등재신청연도 전년 7월말까지 2개 신청후보의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최종 등재신청 대상 1개를 선정한다. 관리단은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후보에 선정되기 위해 자문실사 현황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정리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다.

2018년도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후보 선정은 2016년 12월 22일(목)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회의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세

계유산분과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인 「한국의 서원」과 자연유산인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후보로 함께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2018년까지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후보는 국가별로 문화유산 1건, 자연유산 1건을 올릴 수 있어서 가능하였다. 2019년 이후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가리지 않고 국가별로 1건을 세계유산목록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12월 27일(화)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은 등재신청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을 공문을 통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단에 알려주었다. 이로써 「한국의 서원」은 내년도에 있을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까지 등재신청서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 2) 등재신청 대상 선정

### - 2018년도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대상 「한국의 서원」 선정

2017. 7. 24.  
2018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한국의 서원」 선정

2017년 7월 14일(금) 관리단은 2018년도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대상 심의를 위해 등재신청서 국문본 초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재신청서는 신청서 작성팀을 중심으로 문화재청,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서원, 그리고 관리단 사무국에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문화재청에 제출한 등재신청서 초안은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해당 심의는 7월 24일(월)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거쳐 「한국의 서원」을 2018년도 세계유산목록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등재신청서 초안에는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신청서의 완성도가 양호하다는 평가가 내려져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다만, 등재기준, 보존관리와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거쳐 자문을 받은 이후 최종적으로 등재신청 할 것을 권고하였다.

### 03. 등재신청서 최종 검토 과정

2017년 7월 24일(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이 2018년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유산으로 선정되는 조건으로, 등재신청서의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세계유산분과 위원회의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위원을 선정하고 3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등재신청서를 완결하기로 하였다. 소위원회 위원은 전봉희 세계유산분과위원장 과 강동진 세계유산분과위원, 박소현 사적분과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윤영지침에 의거하여 영문 등재신청서 초안도 9월에 제출하였다.

#### 1) 문화재위원 등재신청서 검토회의

##### 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7년 8월 31일(목)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소회의실
- 참석자
  - 문화재위원 : 전봉희 교수(소위원회 위원장), 강동진 교수, 박소현 교수
  - 서원집필자 : 한필원 교수, 조재모 교수
  - 문 화 재 청 : 세계유산팀 남상범 팀장, 임경희 학예연구사
  - 사 무 국 : 박성진 사무국장,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 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7년 9월 29일(금)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소회의실
- 참석자
  - 문화재위원 : 전봉희 교수(소위원회 위원장), 강동진 교수, 박소현 교수
  - 서원집필자 : 이해준 교수, 한필원 교수, 조재모 교수
  - 문 화 재 청 : 세계유산팀 김지홍 사무관, 임경희 학예연구사
  - 사 무 국 : 박성진 사무국장,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 3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7년 10월 31일(월)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소회의실
- 참석자
  - 문화재위원 : 전봉희 교수(소위원회 위원장), 강동진 교수, 박소현 교수
  - 서원집필자 : 조재모 교수
  - 문화재청 : 세계유산팀 김지홍 사무관, 임경희 학예연구사
  - 사무국 : 박성진 사무국장,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 2) 등재신청서 초고 제출과 회신

### - 등재신청서 초고 세계유산센터 제출

2017. 09. 25.  
등재신청서 초고  
세계유산센터 제출

관리단은 2017년 7월에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회의에서 「한국의 서원」이 2018년도 세계유산목록 최종등재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기 위한 등재신청서 초고 작성에 매진하였다. 이미 2014년도에도 한 차례 준비한 바 있기 때문에 관리단은 진행된 계획에 따라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번역과 수정을 반복하였다.

관리단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영문본 초안을 9월 25일(월)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추진단에서 제출한 등재신청서 영문본 초안을 검토하여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다.

### - 검토의견서 접수

2017. 11. 15.  
검토의견서 접수

2017년 9월에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등재신청서 초고에 대한 세계유산센터의 검토 의견서가 11월 15일(수) 문화재청에 접수되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관리단에 통보하였는데,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에 대한 분명한 지도와 좀 더 명확한 OUV를 구성하는 필수 항목의 제시, 완전성의 보완, 보호관리 법령에 대한 명확한 기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강해주면 좋겠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다.

### 3) 등재신청서 최종 교정 작업

#### - 등재신청서 최종 교정

등재신청서 집필진과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관리단은 등재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교정과 수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영문번역도 착수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국문과 영문 원고 사이의 대조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 작업은 2018년 1월 등재신청서 제출 전까지 지속되었다.

####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재신청서 검토

2017. 11. 10. ~ 17.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재신청서 검토

관리단은 등재신청서 전문가 자문과 함께 해당 원고를 당해 14개 지방자치단체에 발송, 검토를 의뢰하였다. 검토기간은 2017년 11월 10일(금) ~ 17일(금)까지로 주어졌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은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관리단에 송부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전문가만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무자들도 함께 원고를 검토함으로써 놓칠 수 있는 사실적 오류를 보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04. 등재신청서 제출

### 1)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제출

2018. 01. 25.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제출

2016년까지 등재신청서 원고 작성, 영문 번역, 각종 자문 의견의 수용과 재검토의 과정을 거쳐 2017년에는 등재신청서 최종 제작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등재신청서는 신청유산의 등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재신청을 준비하는 「한국의 서원」은 등재신청서 제작에 최선을 다하였다.

최종 작업을 위해 문화재청 세계유산팀과 신청서 집필팀, 그리고 관리단 사무국은 등재신청서 제작 업체로 선정된 예맥출판사에 상주하며 등재신청서 최종 정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1월 16일(화) ~ 20일(토)까지 진행된 등재신청서 최종 편집 작업에서는 영문원고 윤독 및 교정, 사진 및 도면 수정, 표지 디자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 확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 등재신청서 상의 정식 유산명칭은 문화재청과 집필진, 관리단과 협의하여, 「한국의 서원」과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로 확정하였다.

2018년 1월 22일(월), 등재신청서 최종본이 완성되었다. 운영지침에서 등재 신청 국가는 등재신청서를 매년 2월 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해야 함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은 2018년 1월 24일(수) 문화재청장 결재를 거쳐 1월 25일(목) 등재신청서 최종본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공식 제출하였다. 제출 자료는 등재신청서와 부록1 (문화재보호법), 부록2 (도면)으로 구성되었다.

#### - 등재신청서 기술검토 회신

2018. 03. 15.  
등재신청서 기술검토 회신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및 부속자료

등재신청서 제출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완전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당사국인 대한민국에 통보하였다. 검토결과 기술검토를 통과하였으며, 세계유산센터가 평가를 위해 ICOMOS 측으로 신청서를 회부하였음을 밝혔다.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여부는 2018년 세계유산 자문·심사 기구인 이코모스의 현지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2019년도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게 되었다.





도동서원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 6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심사

01. 국내·외 전문가 예비심사
02. 이코모스 현지심사
03. 이코모스 추가 요청자료

# 6 「한국의 서원」

## 세계유산목록 등재 심사



### 01. 국내·외 전문가 예비심사

2018년 1월 25일(목)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의 제출 이후,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이코모스의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과정을 거쳐야 했다. 관리단은 「한국의 서원」의 성공적인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목표로 2018년 9월에 있을 이코모스 현지실사를 대비하기 위해 본심사에 앞서 워크숍, 현장점검,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다.

#### 1) 워크숍 및 현장점검

##### - 현지실사 대비 워크숍

2018. 03. 20.  
현지실사 대비 워크숍

2018년 3월 20일(화)에는 서원 현지실사를 준비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문화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서원운영자, 관리단을 포함하여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등재신청서에 서술된 내용에 대한 집필진의 발표와 관리단 사무국에서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 향후 현지실사를 준비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별 현지실사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시나리오 및 실사 동선 등이 논의되었다.

### 현지실사 대비 워크숍

시 간	소요(분)	내 용	진 행
14:00~14:15	1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관리단 사무국 (박성진 국장)
14:15~14:20	5	세계유산목록 등재추진 경과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황권순 팀장)
14:20~14:25	5	등재신청서 제출 이후 향후계획	관리단 사무국 (박성진 국장)
14:25~14:40	15	신청서 내용보고 서원 OUV - 등재기준 및 9개 서원 선정논리 - 국내·외 유사유산과의 차별성	신청서 집필진 (조재모, 이해준 교수)
14:40~14:55	15	서원 보존관리 - 9개 서원 구역경계 및 설정논리 - 9개 서원 보존현황	신청서 집필진 (한필원 교수)
14:55~15:10	15	9개 서원 현지점검(모니터링) 결과보고	관리단 사무국 (박진재 팀장)
15:10~15:40	30	현지실사 준비와 방향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김지홍 사무관)
15:40~16:00	20	현지실사 준비에 관한 질의응답	관리단 사무국 (박성진 사무국장)
		폐회	



워크숍 1



워크숍 2



### - 9개 서원 현지점검

2018. 04. 02. ~ 06.  
9개 서원 현지점검 워크숍을 마치고 문화재청 세계유산팀과 관리단, 신청서 집필진 등은 현지실사가 실시되는 서원 현장을 방문하여 보완할 점을 점검하였다.

일자별 점검 서원은 다음과 같다.

- 2018.04.02.(월) : 논산 돈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 2018.04.03.(화) : 장성 필암서원, 함양 남계서원
- 2018.04.04.(수) : 달성 도동서원, 경주 옥산서원
- 2018.04.05.(목) : 안동 병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 2018.04.06.(금) : 영주 소수서원

현지 점검을 통해 경미한 수정사항은 즉시 바로잡았으며, 예산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시일이 요구되는 수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 관리단과 협의하여 현지실사 이전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 - 대비 시나리오 검토 회의

2018. 05. 04.  
시나리오 검토 회의 예비실사가 다가옴에 따라 등재신청서, 집필진,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관리단, 지방자치단체, 서원운영자들은 각 현장에서 진행할 시나리오 작업에 착수하였다. 실사동선을 포함하여 각 구간별로 설명과 예상되는 질의 사항들을 정리하여 2018년 5월 4일(금)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 모여 시나리오 검토 회의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작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정사항을 논의하고 현장 발표자들은 주의사항을 숙지하며 예비실사를 준비하였다.

## 2) 국외 전문가 예비실사

2018년 5월 26일(토) ~ 6월 1일(금)까지 국외 전문가 초청 예비실사가 진행되었다. 예비실사는 2018년 9월 현지실사를 대비하여, 해외전문가와 통역 등 현지실사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해당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미비점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였다. 예비실사에는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추천으로 유가 카리야(Yuga KARIYA, 荻谷 勇雅) 이코모스 일본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실사자로 참여하였다.

### - 해외 전문가 예비실사

2018. 05. 26. ~ 06. 01.  
해외 전문가 예비실사

예비실사는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남계서원, 필암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참석인원은 전문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서원, 관리단 사무국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예비실사를 마치고 나서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예비실사 총평을 통해 현 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었다.

해외 전문가 예비실사에서 유가 카리야 부위원장은 예비실사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지실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동선과 시나리오, 패널이 현지실사에 적합한지 또는 개선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 전문가 예비실사는 현재 상황에서 현지실사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예비실사자 이력



**성명:** 유가 카리야(Yuga Kariya, 荻谷 勇雅)

**국적:** 일본

**경력 사항:** 이코모스 일본위원회 부위원장

#### 학력 및 경력:

일본 교토대학 건축학부 박사

문화청 문화재부주임 문화조사관, 문화재감사관 역임

현) 오야마 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현) 일본 이코모스 부위원장

해외 전문가 예비실사 세부일정

\* 통역 : 이승은 대리

일 정	시 간	주요 내용	장 소
05. 26. (토)	19:00	김포 도착	김포 국제공항
	19:00~20:00	숙소 도착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휴식	
1일차 05. 27. (일)	09:00~12:00	이동	서울→영주
	12:00~13:00	중식	
	13:00~14:00	서원 개요 브리핑	소수박물관 별관 2층 (홍경루)
	14:00~14:30	이동	
	14:30~16:30	영주 소수서원 실사	
	16:30~17:30	이동	영주→안동
	17:30~18:30	석식	
	18:30~18:45	이동	
	18:45~	숙소	
2일차 05. 28. (월)	08:00~08:30	이동	숙소→도산서원
	08:30~10:30	안동 도산서원 실사	
	10:30~10:45	이동	
	10:45~11:45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방문	
	11:45~12:15	이동	
	12:15~12:45	안동 영상정보통합센터 방문	
	12:45~13:15	이동	
	13:15~14:15	중식	
	14:15~14:30	이동	
	14:30~16:30	안동 병산서원 실사	
	16:30~18:30	이동	안동→경주
	18:30~	석식	
		숙소	

일 정	시 간	주요 내용	장 소
3일차 05. 29. (화)	08:30~09:30	이동	숙소→옥산서원
	09:30~11:30	경주 옥산서원 실사	
	11:30~11:40	이동	
	11:40~12:40	중식	
	12:40~14:40	이동	경주→달성
	14:40~16:40	달성 도동서원 실사	
	16:40~18:00	이동(달성→산청)	달성→산청
	18:40~19:40	석식	
	19:40~	숙소	
4일차 05. 30. (수)	08:30~09:00	이동	산청→함양
	09:00~11:00	함양 남계서원 실사	
	11:00~13:00	이동	함양→장성
	13:00~14:00	중식	
	14:00~14:20	이동	
	14:20~16:20	장성 필암서원 실사	
	16:20~18:00	이동	장성→전주
	18:00~19:00	석식	
	19:00~19:10	이동	
	19:10~	숙소	
5일차 05. 31. (목)	08:00~09:00	이동	전주→정읍
	09:00~11:00	정읍 무성서원 실사	
	11:00~12:00	이동	정읍→논산
	12:00~13:00	중식	
	13:00~13:20	이동	
	13:20~15:20	논산 돈암서원 실사	
	15:20~18:20	이동	논산→서울
6일차 06. 01. (금)	10:30~11:00	이동	
	11:00~12:00	서원 총평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위원회 회의실)
	12:00~	중식 및 해산	
	12:00~13:00	출국	김포국제공항



### ① 서원 개요 브리핑

- 일 시 : 2018년 5월 27일(일)
- 장 소 : 영주시 소수박물관 별관 2층 흥경루
- 발표자
  - \* 한국의 문화재 관리 시스템 :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팀장 황권순
  - \* O U V : 경북대학교 교수 조재모
  - \* 보존관리 : 관리단 사무국 보존관리팀 팀장 박진재

### ② 영주 소수서원

- 일 시 : 2018년 5월 27일(일)
- 장 소 : 영주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 발표자
  - \* 개 요 : 소수서원 도감 류준희
  - \* 보존관리 : 영주시 문화예술과 팀장 금창헌

### ③ 안동 도산서원

- 일 시 : 2018년 5월 28일(월)
- 장 소 : 안동 도산서원, 한국국학진흥원, 안동 영상정보통합센터
- 발표자
  - \* 개 요 :  
도산서원 : 별유사 이동구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장판각 학예사 손성일,  
유교문화박물관 학예사 김유경
  - \* 보존관리 :  
도산서원 :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팀장 김준규  
안동 영상정보통합센터 : 담당 김희준

#### ④ 안동 병산서원

- 일 시 : 2018년 5월 28일(월)
- 장 소 : 안동 병산서원
- 발표자
  - \* 개 요 : 병산서원 유사 류한욱
  - \* 보존관리 : 안동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이희승

#### ⑤ 경주 옥산서원

- 일 시 : 2018년 5월 29일(화)
- 장 소 : 경주 옥산서원
- 발표자
  - \* 개 요 : 옥산서원 유사 서영조
  - \* 보존관리 : 경주시 문화재 과장 이채경

#### ⑥ 달성 도동서원

- 일 시 : 2018년 5월 29일(화)
- 장 소 : 달성 도동서원
- 발표자
  - \* 개 요 : 도동서원 유사 김수영
  - \* 보존관리 : 달성군 관광과 학예연구사 김제근

#### ⑦ 함양 남계서원

- 일 시 : 2018년 5월 30일(수)
- 장 소 : 함양 남계서원
- 발표자
  - \* 개 요 : 남계서원 이사 박해룡
  - \* 보존관리 : 함양군 문화관광과 계장 이재신

#### ⑧ 장성 필암서원

- 일 시 : 2018년 5월 30일(수)
- 장 소 : 장성 필암서원
- 발표자
  - \* 개 요 : 필암서원 유사 김인수
  - \* 보존관리 : 장성군 문화관광과 계장 고재인, 학예연구사 김형남

#### ⑨ 정읍 무성서원

- 일 시 : 2018년 5월 31일(목)
- 장 소 : 정읍 무성서원
- 발표자
  - \* 개 요 : 태산선비문화사료관 관장 안성렬
  - \* 보존관리 : 정읍시 문화예술과 계장 서인석

#### ⑩ 논산 돈암서원

- 일 시 : 2018년 5월 31일(목)
- 장 소 : 논산 돈암서원
- 발표자
  - \* 개 요 : 돈암서원 장의 김선의
  - \* 보존관리 : 논산시 문화예술과 팀장 남윤영

#### ⑪ 9개 서원 총평

- 일 시 : 2018년 6월 1일(금)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실사 발표자 및 실무자 전원
- 실사자 총평 주요 내용 (최종 결과보고서 내용 포함)

구분		내용
서원별	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수리보수 연혁에 대한 구체적 자료 확보 필요</li> <li>- 보수가 완료된 서까래 등은 외부에 전시하지 말고, 내부에 보존할 것을 권고</li> <li>- 일부 부재의 경우 현대식 화강암을 사용하고 있어 자연식 경관에 인공적인 느낌을 주고 있음</li> <li>- 주차장 인근에 식재를 적절하게 해 주기를 요청</li> </ul>
	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수리가 일부 불완전한 부분이 존재함. 향후에는 엄밀한 고증을 통해 수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향후 본조사 시에 실사자가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li> <li>- 활용시설이 유산과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유산의 진정성이 염려되는 사항임</li> <li>- 관광안내소와 관리사무소는 유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통방식을 따르기를 권고</li> </ul>
	옥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둑 울타리는 주변경관에 부합하여 색조 조성</li> <li>- 유물전시관이 서원과 매우 가까운 장소에 위치하고 있음(개선)</li> <li>- 향후 수리 보수시에는 기존 부재를 가급적 활용 요망</li> </ul>
	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광운영대를 비롯하여 시사단 조망 공간에 콘크리트 울타리는 적합하지 않음</li> </ul>
	필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 전면 경관 개선 사업시 원형 변형과 관련된 자료 확보</li> <li>- 집성관 및 유물전시관 규모 문제</li> <li>- 담장 주변 건물 신축에 따른 지속적인 점검 필요</li> <li>- 기와 보수시 가급적 기존 부재 활용 필요</li> </ul>
	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나무 콘크리트 받침대 통나무로 개선 권고</li> <li>- 안내판이 벽체보다 높은 경우 개선 권고</li> <li>- 건물 수리보수 연혁에 대한 자료 확보</li> </ul>
	병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과 서원간의 과도한 간격 개선 문제</li> <li>- 주차장과 서원 사이의 환경개선 필요</li> <li>- 경보장치 등은 미관상 작은 형태로 재제작 권고</li> </ul>
	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 인근 마을 건물의 개발, 신축, 증축과 관련한 법적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제공 필요</li> <li>- 건물 수리보수 연혁(예: 강수재)에 대한 자료 확보</li> </ul>
	돈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필요(이건과정, 건물 연혁 등)</li> <li>- 서원 전면 공장과 주택 경관에 대한 조치 필요</li> <li>- 보호구역 내에 대규모 활용시설인 예학관과 한옥마을 허용과 관련한 논리적 설명 필요</li> <li>- 담장철거, 홍살문 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고증 근거가 필요함</li> </ul>

구 분		내 용
완전성		- 돈암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유산이 완전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진정성		- 신청유산 대부분이 진정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보존관리		- 대체로 보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 지어진 활용, 교육, 관광안내 시설 일부는 유산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지진에 대한 예방조치가 현재의 단계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추가 제안사항		-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과 완충구역이 동일할 필요 있음 - 완충구역과 유산구역의 경계에 대한 명확하고 가시적인 장치 설치 필요 - 유산 인근에 교육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유산과 충분한 이격 필요 - 수리보수시 기존 부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권유. - 수리보수시 교체한 기존 부재는 보다 엄밀한 관리가 필요함
보존관리 우수성	서원	- 화재와 경보 시스템을 포함한 관리상태 우수 : 소수, 옥산, 도산 -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간(수장고+국학진흥원) 보유상태 우수 : 소수,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 우수 : 도산 - 관광안내소 및 정보센터의 바람직한 설치 사례 : 도동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우수 : 도산
	완전성	- 높은 수준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음(돈암서원 제외) - 신청유산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유산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음 - 신청유산의 가치를 입증하는 문화재들이 수장고 등에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음
	진정성	-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 - 거의 모든 건축물들이 전통기법에 따른 보수체계를 따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보존관리	-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에 해당됨 -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은 신청유산을 보다 다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임 - 모니터링 시스템, 보수관리 시스템은 우수한 편에 해당함





개요 브리핑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남계서원



필암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총평



총평 후 기념사진

### 3) 현지실사 준비

해외 전문가의 예비실사를 마치고 「한국의 서원」 현지실사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에 문화재청, 관리단, 지방자치단체, 서원 운영자, 전문가 등은 관계 기관 회의, 워크숍, 현지점검 등을 통해 현지실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였다. 주요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8.07.07. ~ 10. 경계구역 현장 확인

- 목 적 : 이코모스 현지실사 대비 경계구역 확인, 표식 제공
- 참석자 : 등재신청서 집필자(한필원 교수), 관리단(박진재)  
각 서원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 2018.07.20. 실무진 회의(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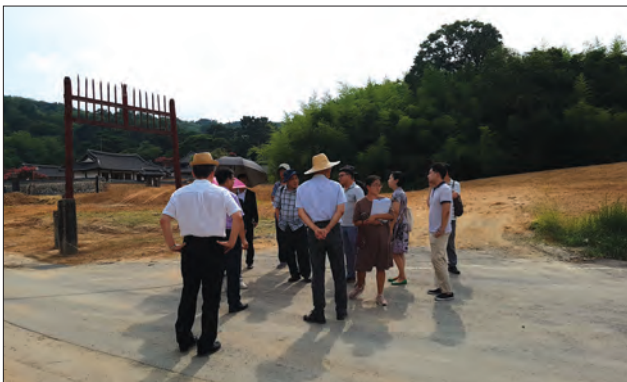
- 장 소 : 관리단 사무국
- 참석자 : 등재신청서 집필자(이해준 교수, 이수환 교수, 조재모 교수)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사무관 김지홍, 학예연구사 임경희, 박영록)  
관리단(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채우리)



함양 남계서원



함양 남계서원



논산 돈암서원



논산 돈암서원



### 2018.07.27. 실무진 회의(2차)

- 장 소 : 문화재청 소회의실
- 참석자 : 등재신청서 집필자(이해준 교수, 이수환 교수, 조재모 교수)  
문화재청 세계유산팀(팀장 황권순, 학예연구사 임경희, 박영록)  
관리단(사무국장 박성진, 박진재, 이승은, 채우리)

### 2018.08.01. ~ 02. 서원 현장점검 (1차)

- 대 상 :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병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영주 소수서원
- 참석자 : 문화재청 세계유산팀(팀장 황권순, 학예연구사 박영록)  
관리단(박진재)

### 2018.08.06. 서원 현장점검 (2차)

- 대 상 : 함양 남계서원, 논산 돈암서원
- 참석자 : 문화재청 세계유산팀(팀장 황권순, 학예연구사 박영록)  
전문가(이상해 교수, 이해준 교수, 조재모 교수)  
관리단(이배용 이사장, 박성진 사무국장, 직원 이경동)

## 4) 국내 전문가 예비실사

국내 전문가 예비실사는 현지실사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각 서원의 보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발표자들의 여행연습과 실사 때의 동선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획되었다.

### - 국내 전문가 예비실사

2018. 08. 21. ~ 23.  
국내 전문가 예비실사

2018년 8월 21일(화) ~ 23일(목)까지 국내 전문가 예비실사가 실시되었다. 예비실사는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와 서원 운영자가 참석하여 시나리오에 입각한 발표를 진행한 후 문제점 및 보완책을 수립하는 데 큰 목적이 있었다. 국내 전문가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위원인 이정수 충남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다. 예비실사의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다.

국내전문가 예비실사 세부일정

일 정	시 간	주요 일정	장 소
1일차 8. 21. (화)	10:30~11:00	영주 소수서원 - 개요브리핑	
	11:00~12:00	영주 소수서원 예비실사	
	12:00~12:30	이동	영주→안동
	12:30~13:30	중식	
	13:30~14:30	이동	
	14:30~15:30	안동 도산서원 예비실사	
	15:30~15:45	이동	
	15:45~16:45	한국국학진흥원(60분) 방문	
	16:45~17:30	이동	
	17:30~18:00	영상정보통합센터(30분) 방문	
	18:00~18:10	이동	
	18:10~19:10	석식	
	19:10~19:20	이동 및 숙소	
2일차 8. 22. (수)	08:30~09:30	이동	
	09:30~10:30	안동 병산서원 예비실사	
	10:30~12:30	이동	안동→경주
	12:30~13:30	중식	
	13:30~14:30	경주 옥산서원 예비실사	
	14:30~16:30	이동	경주→달성
	16:30~17:30	달성 도동서원 예비실사	
	17:30~19:00	이동 및 석식(숙소)	달성→산청
3일차 8. 23. (목)	08:30~09:00	이동	산청→함양
	09:00~10:00	함양 남계서원 예비실사	
	10:00~11:40	이동	
	11:40~12:40	중식	
	12:40~13:00	이동	함양→장성
	13:00~14:00	장성 필암서원 예비실사	
	14:00~15:00	이동	장성→정읍
	15:00~16:00	정읍 무성서원 예비실사	
	16:00~17:30	이동	정읍→논산
	17:30~18:30	논산 돈암서원 예비실사	





개요 브리핑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안동 영상정보통합센터



안동 병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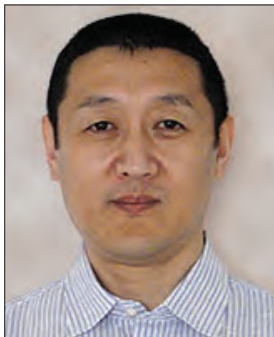


논산 돈암서원

## 02. 이코모스 현지실사

관리단은 2018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으로 신청한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이코모스의 현지실사를 9월 2일(일) ~ 8일(토)까지 6박 7일간 진행하였다. 현지실사의 목적은 유산의 진정성 및 완전성, 보존관리, 방문객 관리, 모니터링 상황 및 계획이라는 신청서 상의 다섯 가지 요소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코모스의 데스크 리뷰를 통한 서류 검토 및 평가와 함께, 세계유산목록 등재심사 단계의 필수 과정인 현지실사는 세계유산센터의 의뢰에 따라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에서 수행한다. 서원의 현지 실사는 중국 이코모스 사무국장인 쟁 쥘(Zheng Jun, 郑军)이 담당하였다. 현지실사는 심사단계이기 때문에 2015년도 현지실사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해당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보존관리 현황과 법적 관리체계를 조사내용으로 하였다.

### 현지실사자 이력



**성명:** 쟁 쥘(Zheng Jun, 郑军)

**국적:** 중국 (China)

**소속:** 중국 이코모스 사무국장

#### 학력:

중국 북경대 응용화학 학사 (1986)

영국 런던대 코톨드미술연구소 벽화보존 전문학위(준석사) (1964)

영국 런던대 코톨드미술연구소 벽화보존 박사 (1973)

#### 경력 사항:

문화재 보존분야 전문가 활동 (1986~)

## 1) 개요

2018. 09. 02. ~ 08.  
현지실사

내 용 : 「한국의 서원」 이코모스 현지실사

일 시 : 2018년 9월 2일(일) ~ 8일(토)

장 소 :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후보 9개 서원(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 2) 신청유산 개요 브리핑

내 용 : 현지실사자를 위한 개요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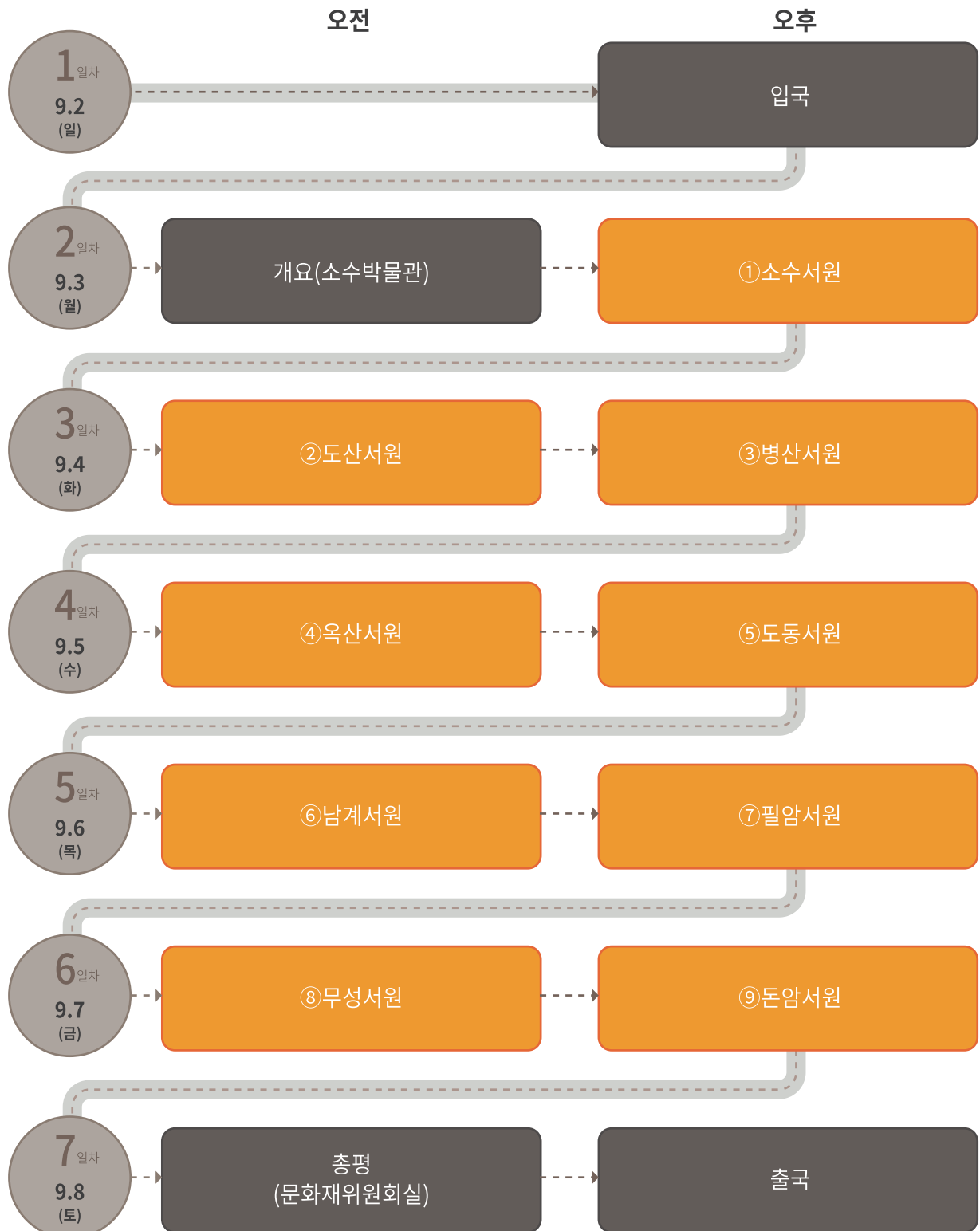
일 시 : 2018년 9월 3일(월) 13:00 ~ 14:30

장 소 : 영주시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홍경루)

### - 발표내용 및 발표자

	주요 내용	시 간	소요(분)	담 당
1	개회(참석자 소개 등)	13:00~13:05	5	김지홍(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사무관)
2	인사말	13:05~13:10	5	이배용(관리단 이사장)
3	홍보영상	13:10~13:20	10	영상(관리단 사무국)
4	서원 OUV	13:20~13:40	20	조재모(경북대학교 교수)
5	한국의 문화재 관리시스템	13:40~14:00	20	황권순(문화재청 세계유산팀장)
6	서원 보존관리	14:00~14:20	20	박진재(관리단 보존관리팀장)
7	질의응답	14:20~14:30	10	김지홍(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사무관)

## 현지실사 주요 일정





## - 참석자

### 문화재청 :

세계유산팀 팀장 황권순, 사무관 김지홍, 학예연구사 박영록

### 광역지방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주무관 방일섭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주무관 강석주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주무관 심수용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정경성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주무관 함미란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주무관 이종근

### 기초지방자치단체 :

논산시 문화예술과 팀장 남운영

정읍시 문화예술과 팀장 서인석

영주시 문화예술과 팀장 금창현 소수서원관리사무소 팀장 신종하

경주시 문화재 과장 이채경

안동시 문화예술과 팀장 이종운 소수서원 관리사무소 팀장 김준규

달성군 관광과 학예연구사 김제근

장성군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 김형남

함양군 문화관광과 팀장 김상희

### 서 원 :

소수서원 도감 류준희

남계서원 사무국장 여순상

옥산서원 유사 서영조

도산서원 별유사 이동구

필암서원 유사 김인수

도동서원 유사 김수영

병산서원 유사 류한욱

무성서원 원장 이치백

돈암서원 장의 김선의

전문가(전문위원 및 집필진) :

교수 이상해, 이해준, 이수환, 한필원, 조재모

관리단 :

이사장 이배용, 사무국장 박성진,

사무국 신시섭,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채우리

기 타 :

한국국학진흥원 학예사 손성일, 학예사 김유경

태산선비문화사료관 관장 안성렬

사진 오종은

#### 주요 결의사항

구분	내용
현상변경 허용기준	- 신청서에는 높이에 대한 규제만 나와있기 때문에 건축자재나 색상 등의 규정에 대한 보충자료 필요 →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 실사자에게 제공
소유권 현황	- 서원 운영에 있어 서원 소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아직도 서원 소유지는 서원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
관리 및 운영	- 관리인 상주 여부 → 서원 운영자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가 있는 경우 서원에 와서 일을 처리한다. - 입장료 수익과 수익의 사용처 - 단청 보존관리 → 퇴락할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책정하여 단청을 다시 한다. 문화재청 산하의 무형문화재/기능인이 단청 공사를 실시한다.



개요 브리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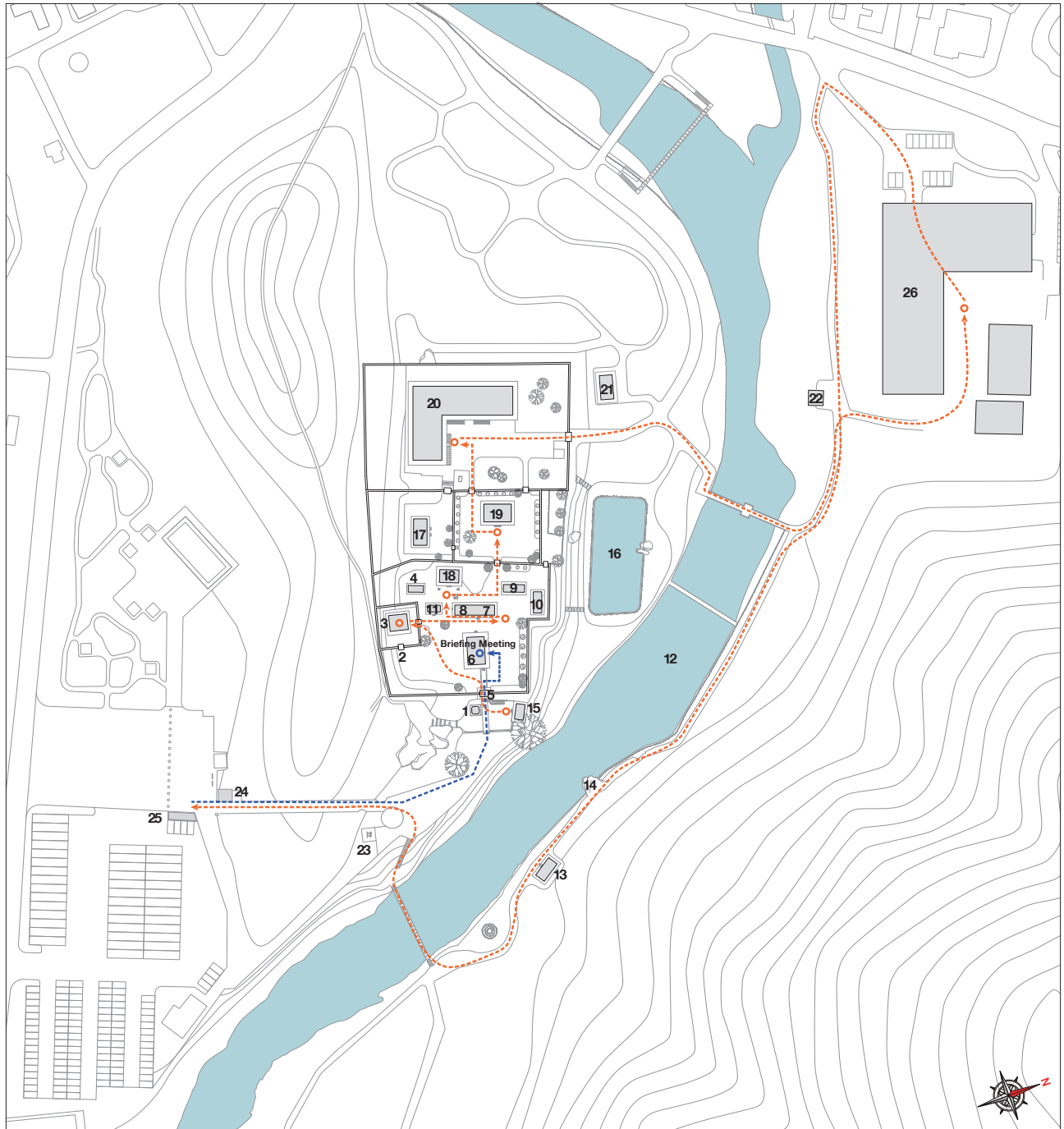
개요 브리핑2

### 3) 서원별 현지실사

#### ①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일 시 : 2018년 9월 3일(월) 14:40 ~ 1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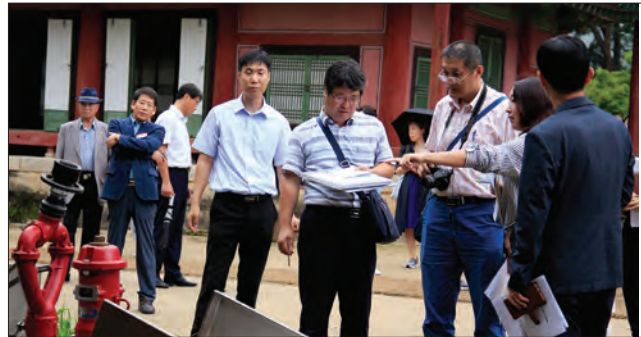
발표자 : 영주시 문화예술과 팀장 금창현, 소수서원 도감 류준희



소수서원 실사 동선도

### 주요 질의사항

구분		내용
건물별	문성공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동곡 전수 및 참여자 현황</li> <li>→ 서원의 별유사 20~30명 참여.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수한다.</li> <li>→ 운영위원회에서 1년에 10회 이상 모여 교육한다.</li> <li>- 제향 시 불을 피울 때 방식</li> <li>→ 소나무를 사용한다. 웅이가 타면서 불이 붙는다.</li> </ul>
	영정각	- 건축 시기 : 1971년
	탁청지	- 발굴조사 유무
	취한대	- 돌다리 축조 시기
	관광안내소	- 문화관광해설 소요 비용 : 무료로 제공
소수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유물들의 출토시기</li> <li>- 주요 문서들의 작성 시기와 목적</li> </ul>
관리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상변경 허용기준</li> <li>- CCTV 녹화물 소장 유무</li> <li>- 보존관리 관련 문서 보관처</li> <li>→ 영주시 문화예술과에서 보관</li> <li>- 관리사무소 운영 비용</li> <li>→ 영주시에서 지원함</li> </ul>
관리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훈련 시기</li> <li>- 물탱크 관리 방법</li> <li>- 강당을 포함한 서원 시설물의 전기 설치 유무</li> <li>→ 도감들이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재사 1동에 작은 전구가 설치되어 있다.</li> <li>- 관리인 상주 유무</li> <li>→ 총 5인이 교대하여 24시간 근무한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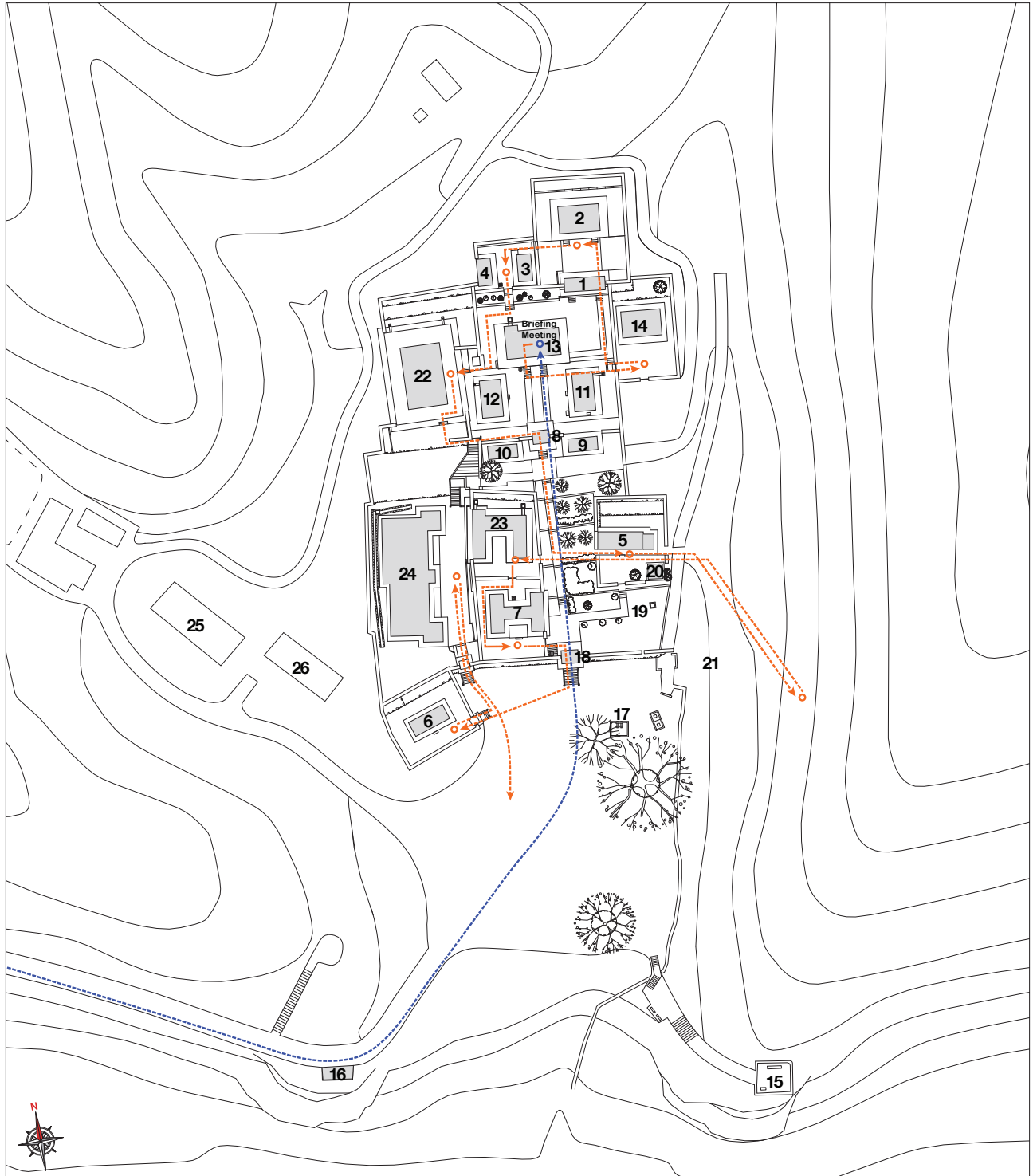
소수서원



## ②-1 도산서원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09:00 ~ 11:30

발표자 : 도산서원 관리사무소 팀장 김준규, 도산서원 별유사 이동구



도산서원 실사 동선도

## 주요 질의사항

구분		내용
건물별	진입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 입구 소나무 관리 및 현황</li> <li>- 시사단의 건립 시기와 건립 경위</li> <li>→ 도산별과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것인데, 안동댐 건설로 1971년 높게 다시 지어지게 되었다.</li> </ul>
	전교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교당 단청의 경위와 기법</li> <li>→ 1970년에 칠해졌으며, 원래의 단청이 남아있는 부분은 없다.</li> <li>→ 단청 현황은 파악되어 있으나, 고증을 거친 문양은 아니다. 또한 안료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지 않다.</li> <li>- 향사의 일반인 참여 유무</li> <li>→ 약 20여명의 일반인이 참여하고 많을 때에는 30~40명 정도 참여한다.</li> </ul>
	광명실 장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립 시기</li> <li>- 건립 이후 보수 이력 등</li> </ul>
	상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와공사로 인한 고증과 기법</li> </ul>
	전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조(酒造) 유무</li> </ul>
	하고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하고직사의 용도 및 생활 방식</li> </ul>
	농운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립 및 보수이력</li> </ul>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구역 경계가 시사단을 포함하는지 유무</li> <li>- 시사단 뒤편 산 능선까지 포함하도록 완충구역 확장 계획</li> <li>→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경계(500m) 내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충분하다고 생각 된다.</li> </ul>
관리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해설사 관련 사항(임금, 교육프로그램 등)</li> <li>- 보존관리계획/현황관련 아카이브 소장 유무</li> <li>- 서원관련 학술정보 수집 및 연구용역 발주 여부</li> <li>- 현장 관리사무소 직원 내 학예직 포함 유무</li> </ul>
관리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표소의 위치와 입장료</li> <li>- 서원 소유 토지 관리 방식</li> <li>→ 산의 숲을 보존하기 위해 일 년에 2회 정도 관목 등을 정비한다.</li> <li>→ 기타 전답 등의 소출 소득은 향사 및 서원 전반의 관리에 사용한다.</li> </ul>



도산서원

## ②-2 한국국학진흥원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12:30 ~ 13:30

발표자 : 한국국학진흥원 학예사 손성일, 김유경

### 주요 질의사항

구분	내용
목판수장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탁자료의 소장 기간 및 소유권 양도 유무</li> <li>- 목판 제작 방식</li> <li>※ 서원의 출판과 장서기능, 목판 기탁관리하는 서원의 현황 소개</li> </ul>
현판수장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판의 모사본 제작 방식</li> <li>→ 지역 문화재 명장이 실측하여 만든다.</li> <li>- 수장고 보관방식</li> <li>→ 지하의 훈증실에서 소독/청소를 거친다.</li> <li>→ 훈증실에서 연기로 소독하여 처리한다.</li> </ul>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 ②-3 영상정보통합센터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14:00 ~ 15:10

발표자 : 영상정보통합센터 주무관 김희준

### 주요 질의사항

구분	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제 문화재의 성격 → 국가지정 및 시지정 문화재이다.</li> <li>- 화재 시 신고 방식 → 현장관리자가 바로 신고하되, 관제 타워에서 추가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 상시 관리하고 있다.</li> <li>- 영상 보관기관 : 30일(개인정보보호법)</li> <li>- 안동시 문화예술과 CCTV와의 차이점 → 문화예술과는 비상 시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고, 여기는 실시간 모니터링의 성격을 갖는다.</li> </ul>



영상정보통합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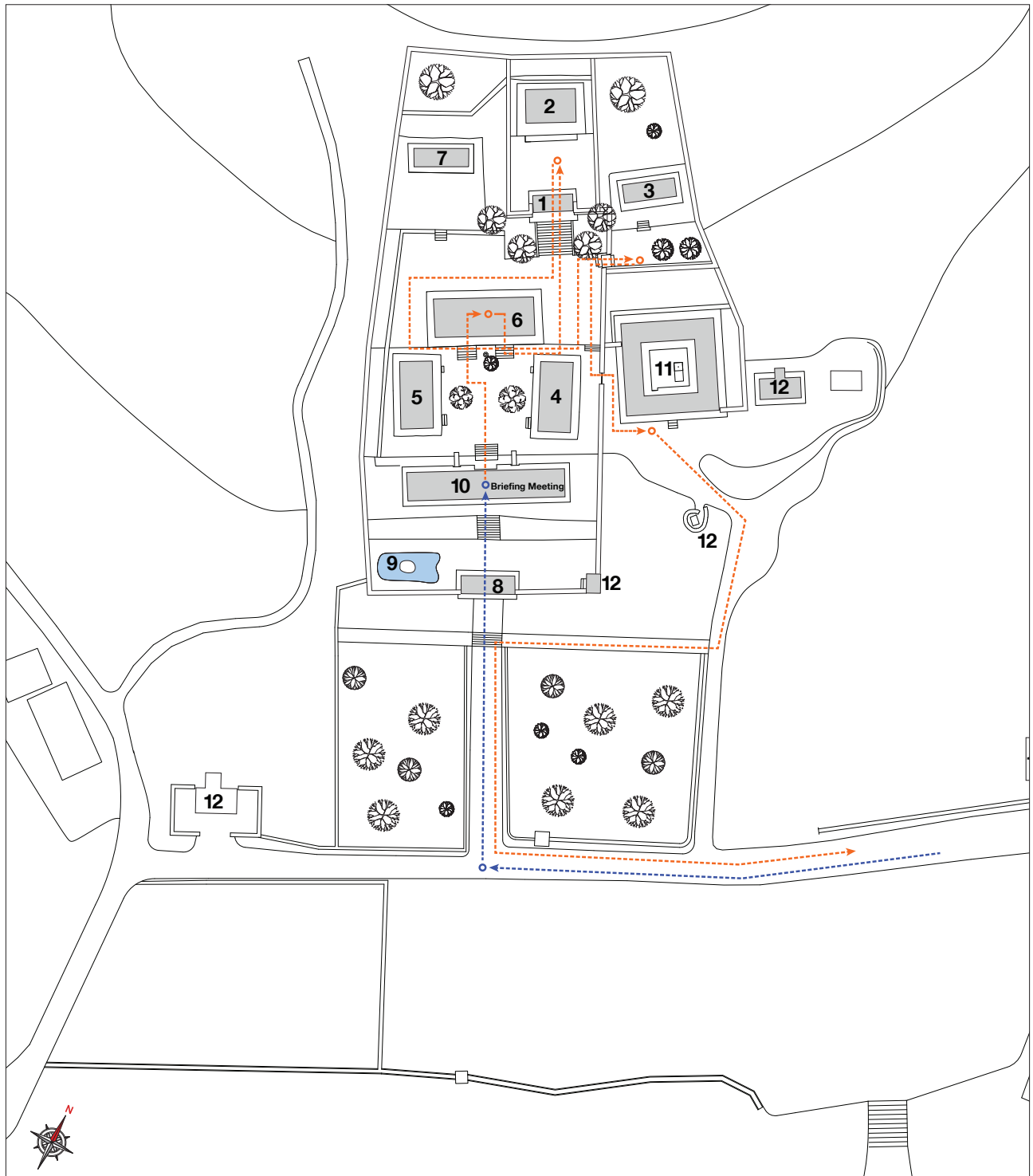
영상정보통합센터



### ③ 병산서원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15:30 ~ 18:00

발표자 : 안동시 문화예술과 팀장 이종윤, 병산서원 유사 류한욱



병산서원 실사 동선도

### 주요 질의사항

구 분		내 용
건물별	진입로	- 서원 입구 소나무 식재 시기 - 광명지 조성 시기
	입교당	- 축문의 작성 방식 - 축문의 처리 방식
	상덕사	- 단청 보수 시기 → 상덕사는 10년전, 내삼문은 40~50년전에 시행했다. 최대한 다시 칠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 담장 보수 내역
	재사	- 주요 건축 기법의 내역(고막이, 기단, 회다짐 등)
주차장		-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오가는 방문객의 교통편 -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오고갈 경우 소요 시간 등
서원알묘		- 해당 예법에 대한 기록 유무 - 향사 시기와 내역 - 알묘의 대상
관리전반		- 유산 및 완충구역도를 통한 현장 확인 - 현상변경 허용기준 - 완충구역 내에 서원 소유지 현황 → 사유지도 있고 서원 소유지도 있다. - 숙박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숙박 비용, 프로그램 내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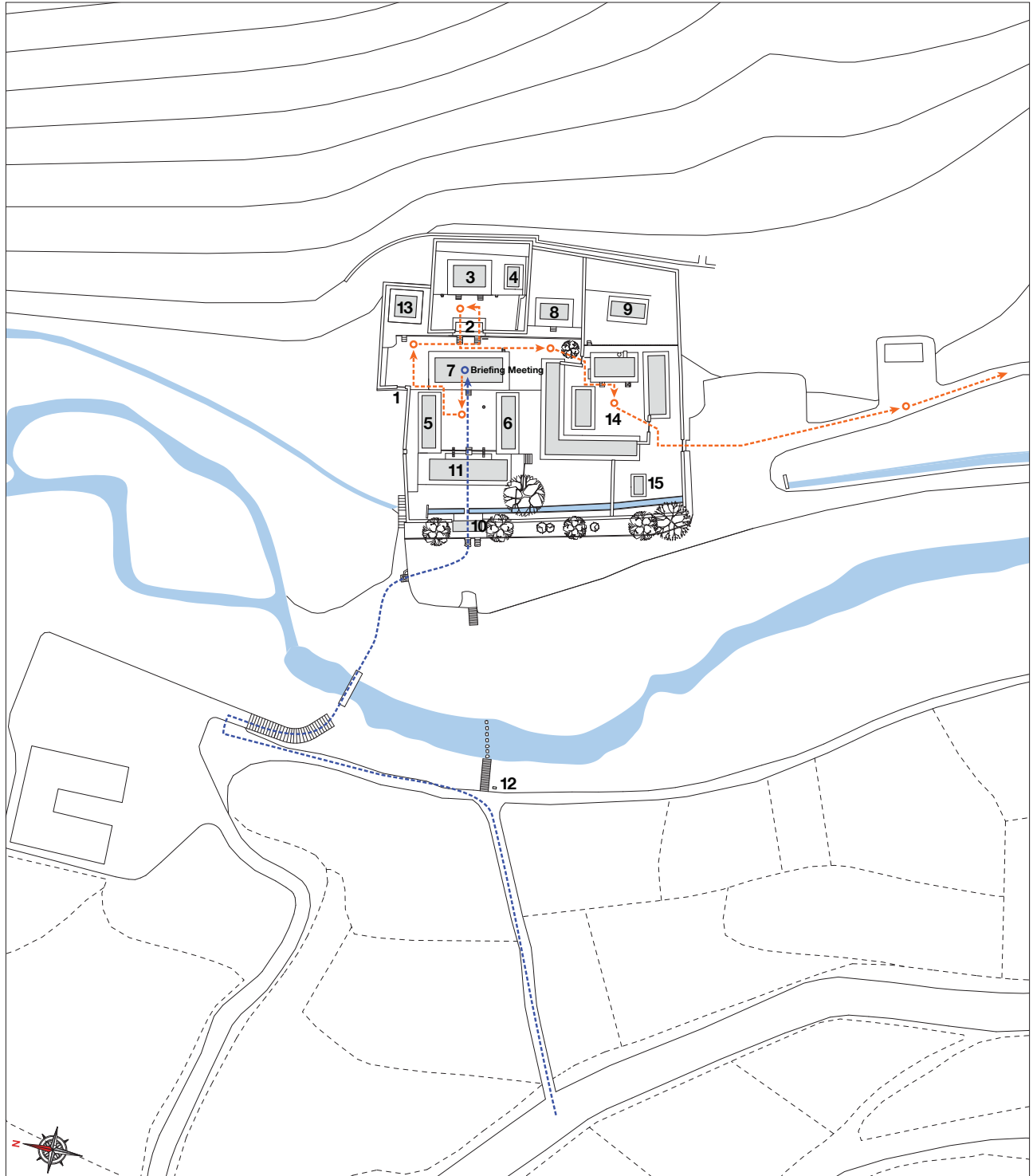


병산서원

#### ④ 옥산서원(유물전시관)

일 시 : 2018년 9월 5일(수) 9:00 ~ 11:30

발표자 : 경주시 문화재과 과장 이채경, 옥산서원 유사 서영조



옥산서원 실사 동선도

### 주요 질의사항

구분		내용
건물별	진입로	- 돌계단으로 이어지는 계단 진입로의 설치 시기
	구인당	- 구인당을 포함한 주요 건물들의 보수이력
	고직사	- 다른 서원과 다르게 고직사가 원 기능 그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예전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강독 관련		- 강독에 읽는 교재 - 강독의 목적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 가이트 투어 시간
수장고		- 수장고의 유산구역 포함 유무 - 수장고의 관할 - 수장고의 관리 방식
관리전반		- 방화선의 주요 기능 - 서원의 진입로 - 보수공사 시 수리기술자의 과거 수리보고서 열람 가능 여부 → 열람 신청시 모든 자료 접근 가능 - 수리기술자의 보수 자료의 보관 기관 → 문화재청 및 경주시청 - 수리 이행과정에 대한 아카이빙 여부 - 수리정비 보고서 등을 출판하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예산 편성 유무 → 주요 기관 및 관련 연구소, 국공립 도서관에 배포한다.



경주시청 문화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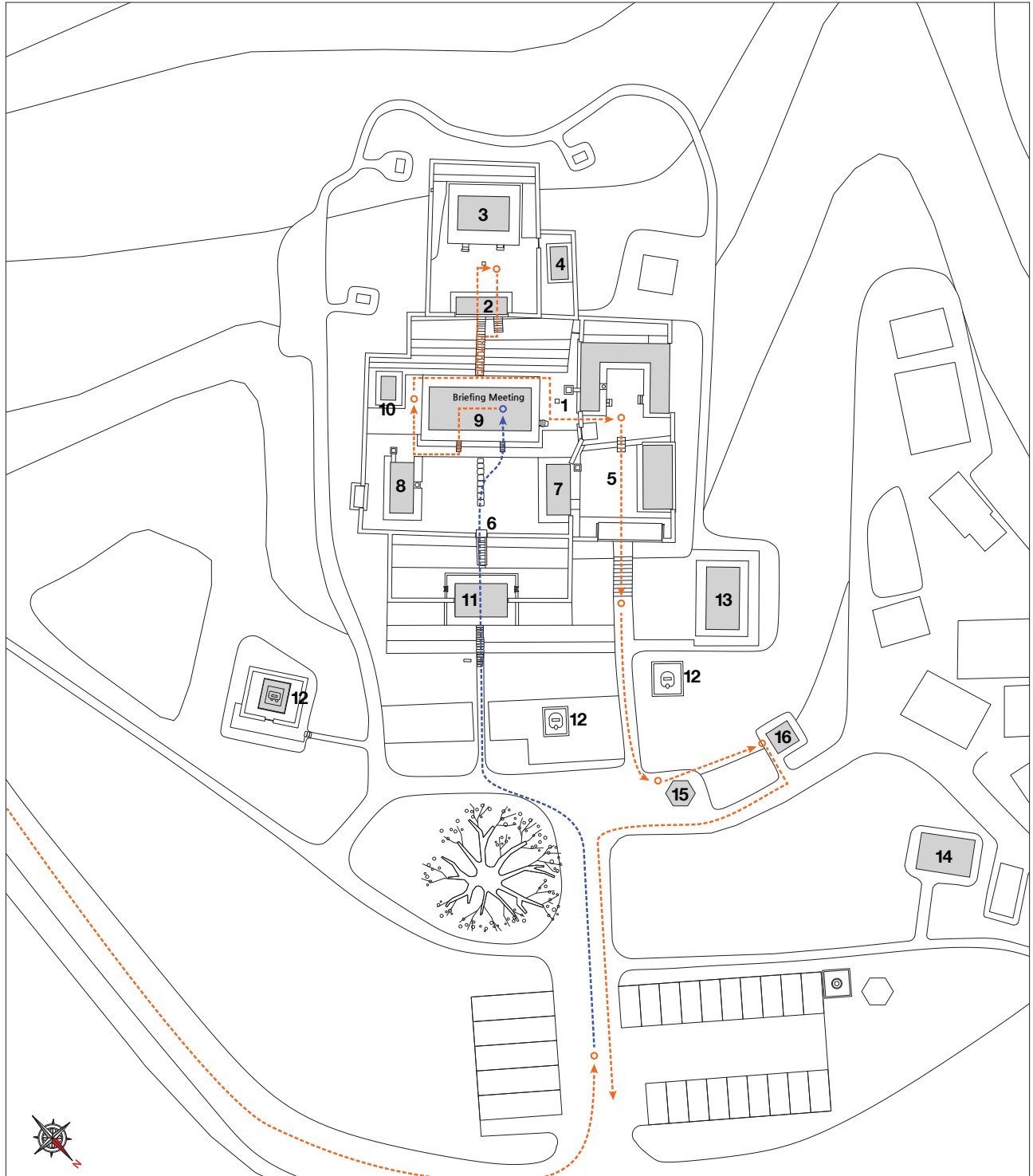
옥산서원



### ⑤ 도동서원

일 시 : 2018년 9월 5일(수) 14:30 ~ 17:00

발표자 : 달성군 관광과 학예연구사 김제근, 도동서원 유사 김수영



도동서원 실사 동선도

### 주요 질의사항

구분	내용
건물별	<p>다람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충구역 경계</li> <li>- 다람재 터널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겨울 통행차량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길이라서 터널을 만들기로 함. 기존안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이후 변경안을 함께 제시함</li> </ul> </li> <li>- 도동서원 옆 마을 관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모든 현상변경 시 개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자문실사 이후에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li> </ul> </li> </ul>
	<p>수월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소실 이전 자료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88년에 소실되었기 때문에 사진은 없고, 관련된 자료 및 중간일기는 남아있다.</li> </ul> </li> </ul>
	<p>중정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단이 독특하다. 이런 형태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서 밖에 보지 못했다.</li> </ul>
	<p>사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수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의 물을 서원으로부터 70m 거리에 있는 200톤 물탱크로 끌어올려서 사용한다. 수압이 약해서 화재진압이 어려울까봐 물탱크를 사용하는 것이다.</li> </ul> </li> <li>- 기계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성군에서 관리한다. 유산구역에 포함된다.</li> </ul> </li> </ul>
	<p>고직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직사의 역할</li> <li>- 비석들의 경위 및 작성 주체 등</li> </ul>
관리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관리상황 점검표 내용의 작성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화재 관리인은 문화재청에서 50%, 달성군에서 50%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다.</li> </ul> </li> <li>- 은행나무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과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나무 뿌리가 숨쉬게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았으며 수목 관련 전문가가 은행나무의 건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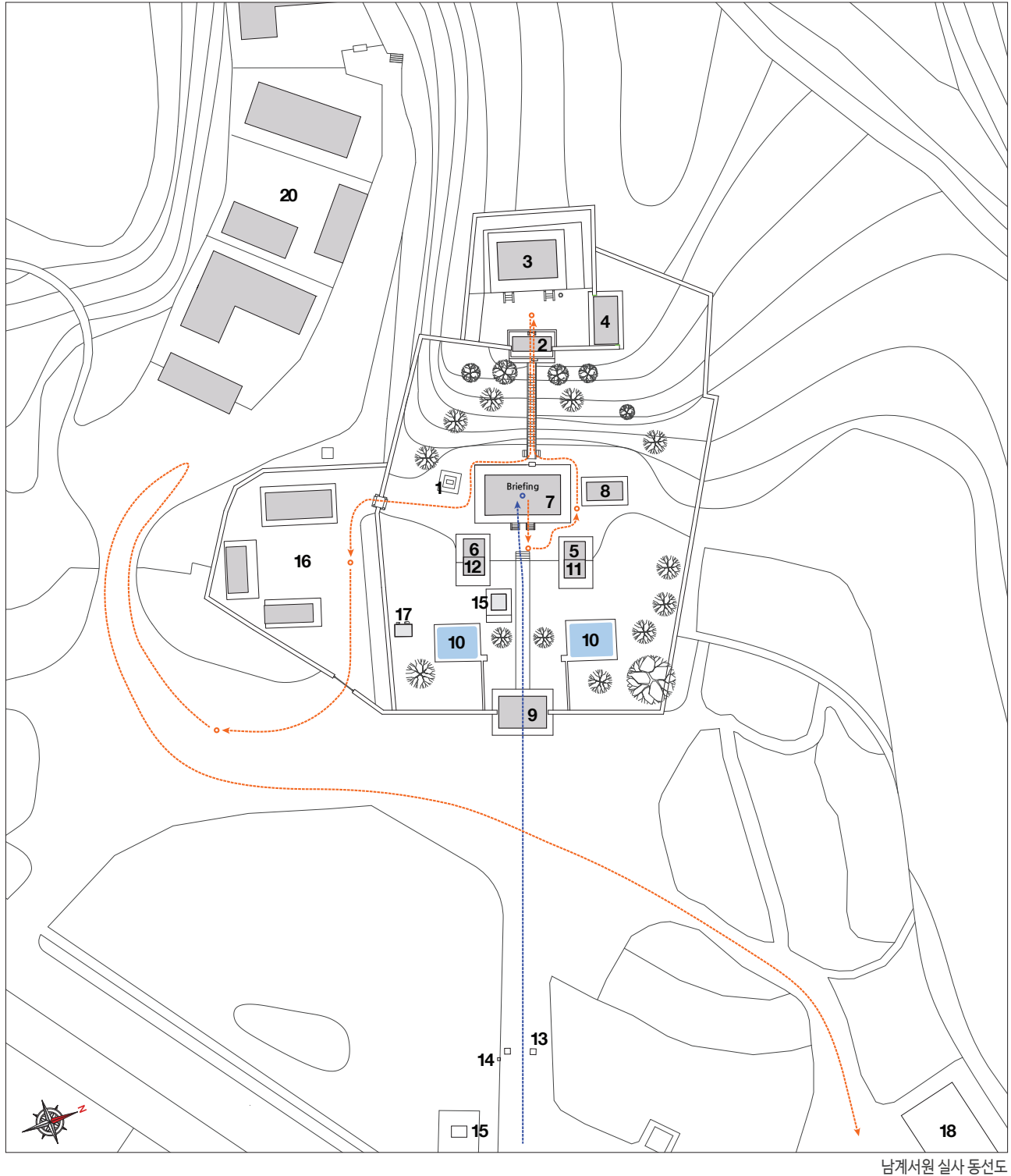


도동서원

## ⑥ 남계서원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 09:00 ~ 11:30

발표자 : 함양군 문화관광과 팀장 김상희, 남계서원 사무국장 여순상



### 주요 질의사항

구분		내용
건물별	비각	- 비각의 작성자 및 내용에 대한 정보
	재사	- 재사 명칭의 유래
	명성당	- 기단의 설치 시기 - 교체 부재를 단청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 → 나무가 완전히 건조된 후 칠해야 변형이 없다.
	사당	- 보수관련 정보
	고직사	- 연혁 및 신축에 대한 고증 여부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사적 고증을 하여 지었다. 1990년대까지 고직사가 사용되면서 점점 현대식 건물로 수리되었고, 최근에 고증을 통해 신축하였다. - 신축 고직사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서원과 어울리게 고증을 거쳐 지었기 때문에 서원의 가치보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관리사무소		- 건립 시기 - 관리사무소 인근 임야 소유자 현황 → 모두 국유지이다.
관리전반		- 활용시설 건립 시기 - 단청 관련 사항 - 이미 현재 단청의 상세한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이후에도 같은 앵글에서 사진을 찍어서 모니터링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 주변경관의 모니터링 관련 사항 - CCTV 모니터링 시설 → 함양군청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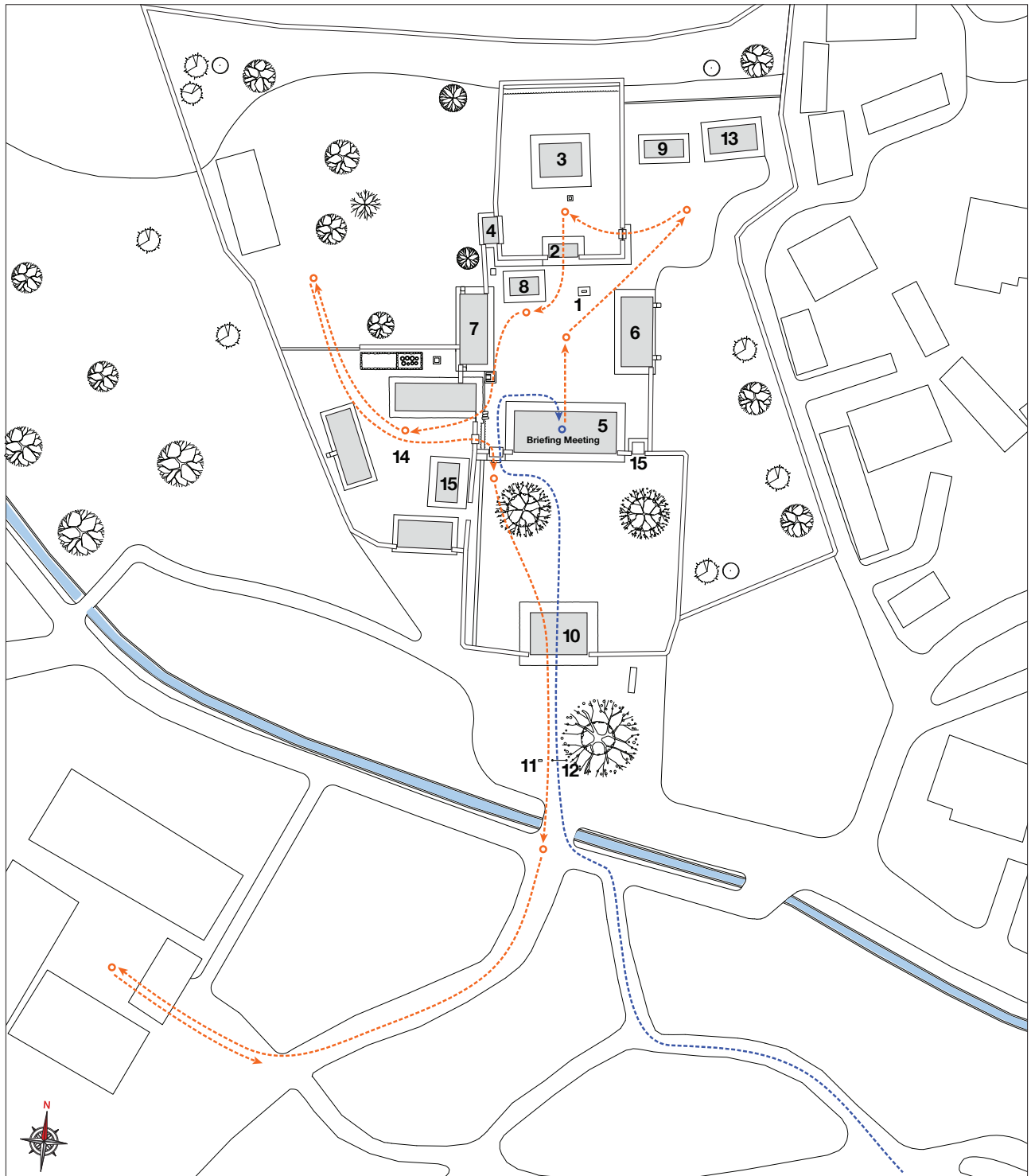
남계서원



## ⑦ 필암서원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 14:30 ~ 17:00

발표자 : 장성군 문화관광과 계장 고재인, 학예연구사 김형남,  
필암서원 유사 김인수



필암서원 실사 동선도

### 주요 질의사항

구분		내용
건물별	재사	- 동재 뒤쪽 민가 유산구역 포함유무: 완충구역
	장판각	- 목판 보관의 방식
	우동사	- 수리 보수 여부 - 전사청 위치
	경장각	- 흰개미 방제트랩 - 단청 보존 유무 → 최근에 문양모사를 통해 기록을 해 놓았고, 보존처리를 한 후에 어떤 식으로 덧칠을 할지 결정할 것이다. → 이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퇴색된 부분도 희미하게나마 본래의 문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관광해설사무소		- 해설내용의 검토 주체 - 서원관리단의 역할
수장고 및 유물전시관		- 서적의 출판 경위 - 소장 자료의 수득 경위
관리전반		- 서원 명칭의 유래 - 서원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 자원, 장학금 등 - 장학공간의 단청 차이 → 교육기능을 하는 건물 중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청절당만 집중적으로 단청을 한 것이다. 그리고 청절당은 가장 최근에 단청보수를 해서 더욱 화려하기도 하다. - 보수 자료들의 소장처 → 현대적 책들은 군에서 보관하고 고서들은 서원에서 보관한다. - 필암서원 동측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가? → 주변정비를 포함하여, 언덕과 산책로를 만들어 필암서원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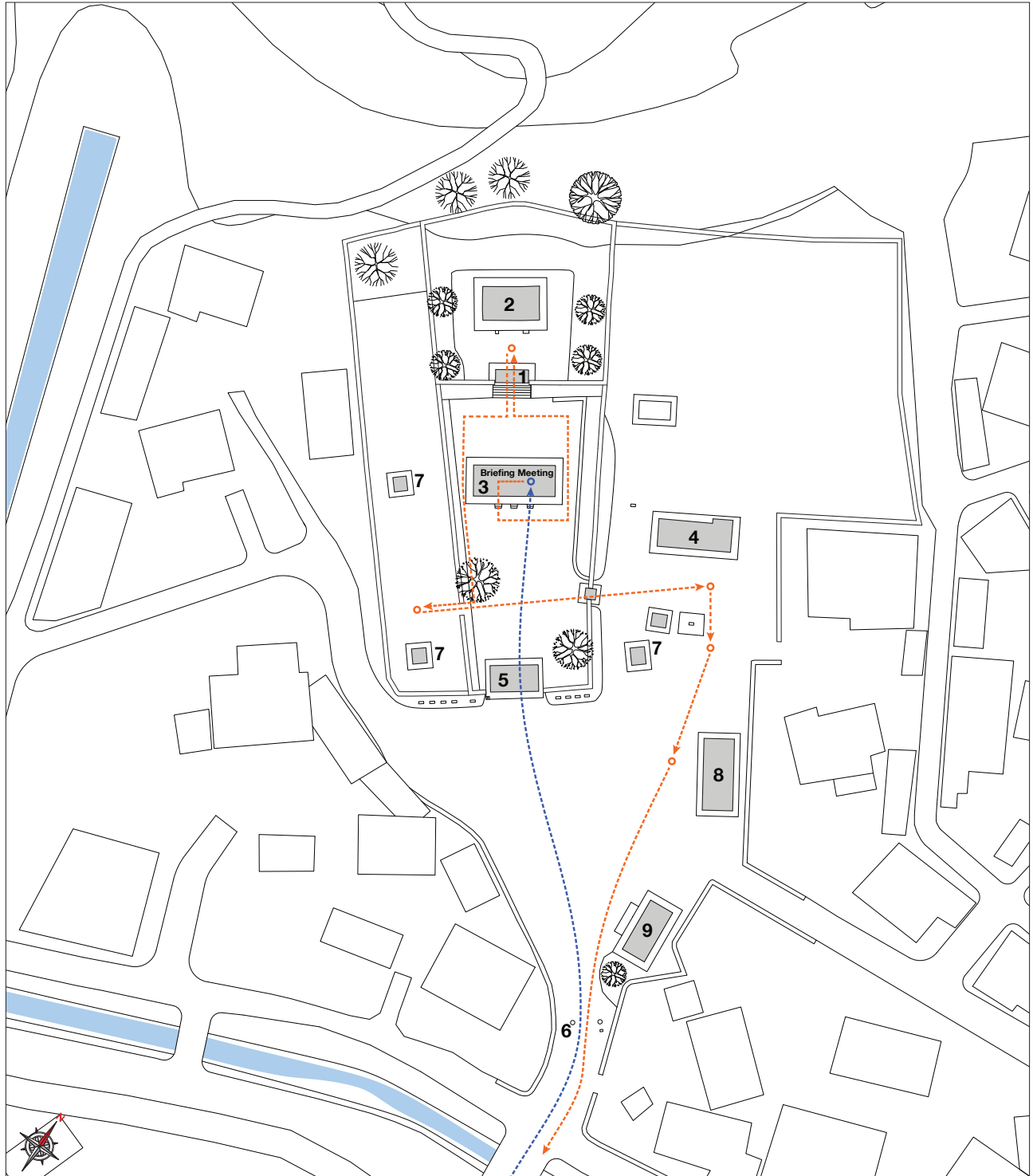


필암서원

## ⑧ 무성서원

일 시 : 2018년 9월 7일(금) 09:10 ~ 11:40

발표자 : 정읍시 문화예술과 계장 서인석, 태산선비문화사료관 관장 안성렬



무성서원 실사 동선도

### 주요 질의사항

구분		내용
건물별	명륜당	- 향약에 대한 보충설명 - 비석의 구체적 정보
	태산사	- 사당의 이건 경위
	강수재	- 강수재 건립 경위
관광안내소		- 제공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공하나 상주하지는 않고 요청에 따라 출장을 나와서 설명을 제공한다.
관리전반		- 소유권 현황 → 적극적인 매립 계획을 추진하여 소유주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2019년까지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한다. - 자문미션 리포트에 따르면 주변 마을의 개발 행위가 있을 경우 무성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안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 도시건축조례와 건축심의에 따라 개발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 서원 조망 주변경관 보존 방식 → 주변 민가의 지붕이 서원의 전통 건축과 잘 어울리도록 개조/수리하는 한식지붕 설치 프로젝트를 시에서 재정지원하고 있다. - 정비계획 방법 → 중·장기계획을 준비하여 지속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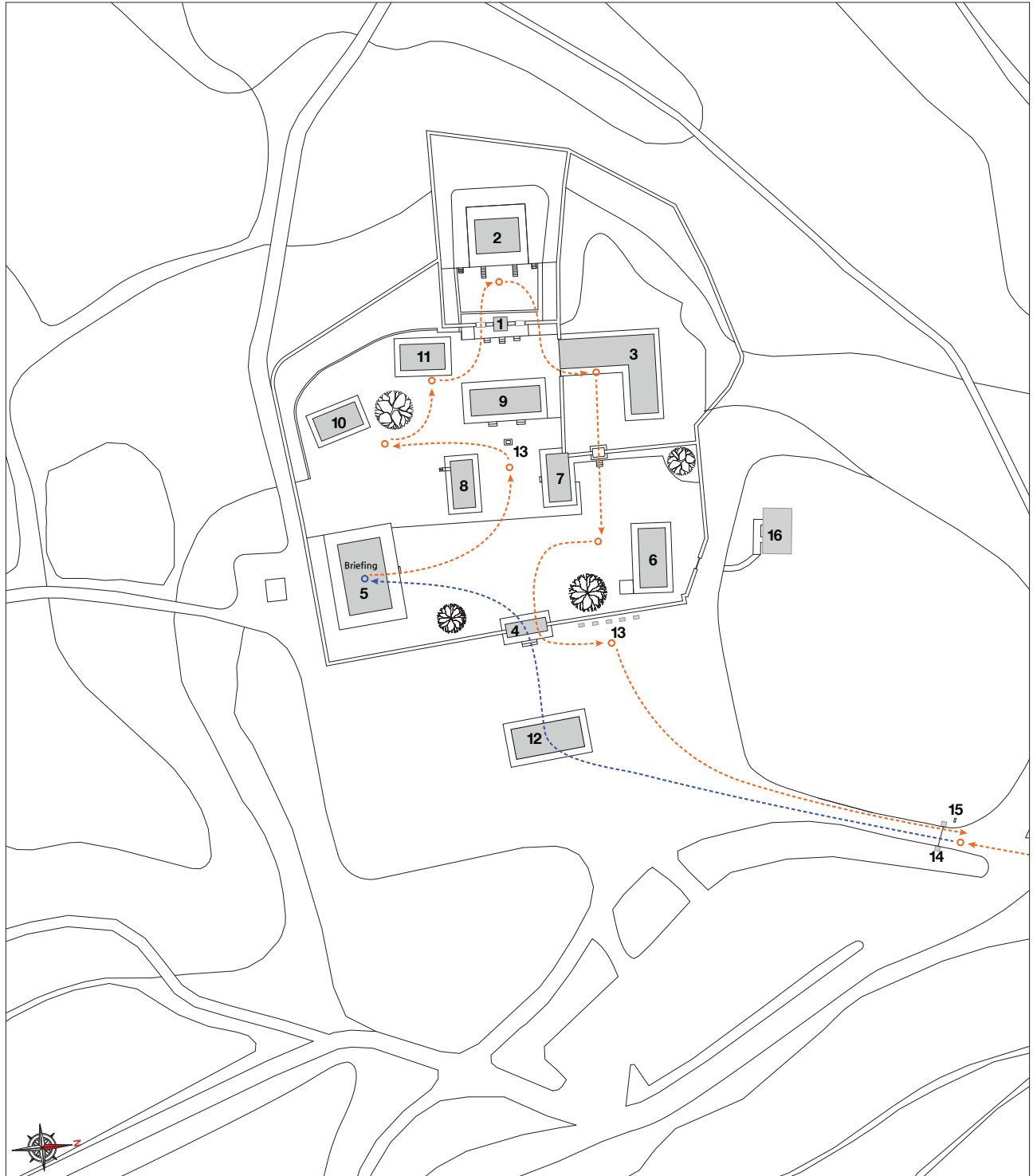


무성서원

### ⑨ 돈암서원

일 시 : 2018년 9월 7일(금) 14:20 ~ 16:50

발표자 : 논산시 문화예술과 팀장 남운영, 돈암서원 장의 김선의



돈암서원 실사 동선도



### 주요 질의사항

구분		내용
건물별	진입로	- 주변 마을의 위치 - 홍살문 이건 관련 정보 - 김장생 묘소 구역 포함 유무
	장판각	- 통풍 및 보존 방식
	정회당	- 건립 경위
	산양루	- 전기시설 사용 방식 → 지중화된 전선을 통해 사용한다.
문화관광해설사무소		- 입장료 및 문화관광해설 비용
예학관		- 돈암서원 일원 조경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관리전반		- 종합정비계획 관련 내용 - 서원 이건에 대한 정보 - 단기 정비계획 관련 정보 - 전신주 지중화 사업 → 한전과의 문제로 인해 지중화하지 않고 전신주를 완충구역 밖으로 이설하였다. - 소방 훈련 주기 - 유산구역에 대한 추가 정보 요청 ※ 추가: 김장생 묘소 방문



돈암서원

#### 4) 현지실사 총평

2018. 09. 08. 일 시 : 2018년 9월 8일(토) 10:30 ~ 12:00  
현지실사 총평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위원회 회의실

##### - 참석자

문화재청 : 세계유산팀 팀장 황권순, 사무관 김지홍, 학예연구사 박영록

광역지방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주무관 방일섭, 충청남도 주무관 강석주, 전라북도 주무관 심수용, 전라남도 주무관 정경성, 경상북도 주무관 함미란, 경상남도 주무관 이종근

기초지방자치단체 :

영주시 팀장 금창현, 팀장 신종하, 달성군 학예연구사 김제근, 정읍시 팀장 서인석, 장성군 계장 고재인, 학예연구사 김형남, 경주시 과장 이채경, 안동시 팀장 이종윤, 김준규, 함양군 팀장 김상희

서 원 :

소수서원 도감 류준희, 남계서원 사무국장 여순상, 옥산서원 유사 서영조, 도산서원 별유사 이동구, 필암서원 유사 김인수, 도동서원 유사 김수영, 병산서원 유사 류한욱, 무성서원 원장 이치백, 돈암서원 장의 김선의

전문가(전문위원 및 집필진) : 교수 이상해, 이해준, 이수환, 한필원, 조재모

관리단 : 이사장 이배용, 사무국장 박성진,  
사무국 신시섭,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채우리

기 타 : 사진 오종은



현지실사 총평

## 5) 현지실사 이후 요청자료

### 요청자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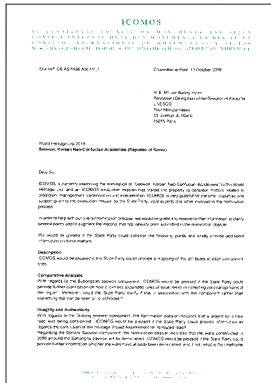
현지실사자는 실사 직후, 심사에 관한 추가 정보들을 관리단에 요청하였다. 실사자가 요청한 사항은 9개 서원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소유권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관리단 사무국은 요청 자료들을 수집 및 정리하여 10월 10일(수) 문화재청에 송부하였다.

## 03. 이코모스 추가 요청자료

### 1) 이코모스 1차 보완자료 작성

지난 9월의 현지실사 이후, 이코모스는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유산에 대한 추가정보를 문화재청으로 정식 요청하였다. 이코모스는 2018년 10월 10일(수)에 추가정보 요청 서한을 발송하였고,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당일 수신하였다. 서한에 따르면, 요청한 추가정보에 대한 보완자료를 전자문서 및 인쇄본 형태로 작성하여 2018년 11월 9일(금)까지 이코모스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해야 했다.

서한에 제시된 항목은 6개이며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서원 이코모스  
추가요청 서한

## 세계유산목록 2019 한국의 서원(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이코모스는 “한국의 서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유산의 보호, 관리, 보존 및 해설에 관한 측면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산을 방문하였습니다. 실사 동안 한국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외에 모든 참석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코모스의 전반적인 평가를 돕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명

각 유산의 특성을 매핑(mappig)한 자료를 제시해주시요.

### 비교연구

신청서에는 병산서원이 “사람의 공론장으로도 확대된 사람 활동 중심지로서의 서원의 기능을 입증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이 내용을 더 상세하게 기재해주시요. 또한 가시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보다는, 병산서원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서술해주시요.

### 완전성 및 진정성

신청서에는 도동서원 앞 도로 공사를 고려 중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이에 관한 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 for re-routed road)의 결과를 제공해주시요.

신청서에는 2006년 건립된 돈암서원의 산양루 담장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기술했습니다. 현재 철거가 완료되었는지, 아직 아니라면 얼마의 기간에 거쳐 이루어질 예정인지 설명해주시요. 또한 홍살문과 하마비의 이견 여부도 설명해주시요.

### 보존관리

신청서에는 서원관리단이 9개 서원의 선정과 통합 보존관리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 서원관리단이 자문기관인지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관인지 명확히 서술해주시요. 또한, 관리단의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요.



이코모스는 각 서원의 개별 관리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과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신청유산의 전반적인 통합보존관리가 계획되거나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다 더 고차적인 문서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이 문서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오.

소제목 5.d (유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현존계획) 부분이 신청서에서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 해당 내용을 제공해주십시오.

5.f.1의 재원 부분에서 몇 서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재원 지원이 보장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정부 지원이나 기존 재원의 일정량 확보 등).

각 서원에서 9개 신청유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나 해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보완 자료 준비 기간을 짧게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단계에서는 답변을 간단히 준비해도 괜찮으며, 당사국 회의에서 더욱 자세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보완 자료는 평가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늦더라도 2018년 11월 9일 금요일까지 해당 자료를 이코모스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총 2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주셔서 매우 감사 드립니다.

Gwenaëlle Bourdin  
Director  
ICOMOS 평가단

## - 보완자료 집필 1차 회의

2018. 10. 12.  
보완자료 집필 1차 회의

이코모스 추가정보 요청 서한을 수신한 직후 2018년 10월 12일(금)에 보완자료 집필을 위한 1차 회의가 관리단 사무국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는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김지홍 사무관, 박영록 학예연구사와 조재모 교수, 관리단 박성진 사무국장을 포함한 인원들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보완자료 작성에 대한 업무 배분이 이루어졌으며, 11월 9일(금)까지 최종 제출을 위한 세부 일정이 확정되었다. 국문 원고는 10월 23일(화)까지 완성하고, 10월 31일(수) 영문번역을 마치고 11월 5일(월)까지 인쇄를 마무리하여 이코모스로 발송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았다. 비교분석에서 병산서원의 공론장을 입증해달라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술적인 사항의 추가 정보 요청이었기 때문에 1차 보완자료는 문화재청 세계유산팀과 관리단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작성하였다.

## - 보완자료 집필 2차 회의

2018. 10. 19.  
보완자료 집필 2차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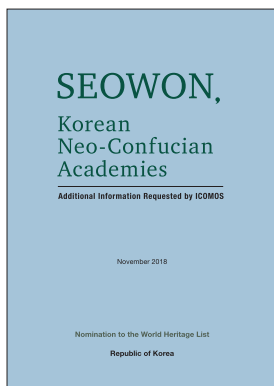
2차 회의는 2018년 10월 19일(금) 관리단 사무국에서 등재신청서 집필자 한필원 교수, 조재모 교수, 자문위원 이상해 교수, 관리단 사무국 박성진 사무국장,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원고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전략적인 수정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영문번역 이전에 문화재청 및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보완자료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 - 보완자료 집필 3차 회의

2018. 10. 23.  
보완자료 집필 3차 회의

3차 회의는 2018년 10월 23일(화) 문화재청 회의실에서 등재신청서 집필자 조재모 교수,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김지홍 사무관과 박영록 학예연구사, 관리단 사무국 박진재, 이승은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작성한 원고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으로 첫째, 매핑(mapping)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방법과 둘째, 비교분석에서 병산서원의 공론장의 성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방법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검토된 원고를 바탕으로 영문 번역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논의들은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이메일로 소통하고, 특별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선으로 확인하기로 하였다.

10월 31일(수)에는 최종 영문본 원고에 대한 초고가 완성되어 교정과 교열을 하여, 11월 5일(월) 총 59페이지의 보완자료를 완성하였다. 이후 문화재청의 검토를 거쳐 이코모스와 세계유산센터에 보완자료를 발송하였다.



1차 보완자료

## 2) 당사국 면담

이코모스에서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이코모스 위원회의 현지실사와 등재신청서의 서류 검토 후, 잠정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당사국과의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이코모스 당사국 인터뷰는 2018년 11월 23일(금) 프랑스 파리 이코모스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서원」의 패넌회의 위원장 Toshiyuki Kono, 패넌 의장 Nancy Pollock, 패넌 어드바이저 Marshall Duncan, 이코모스 사무국 평가담당과장 Gwaenelle Bourdin 및 패넌 위원 2명 등이 참석하여 「한국의 서원」에 대한 유산 평가 의견과 함께 패넌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였다.

당사국 면담에는 신청서 집필자 조재모 교수,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김지홍 사무관, 관리단 사무국 이승은 대리가 당사국 대표로 참석하여, 이코모스 패넌 위원들의 신청유산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 전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였다. 주요 질의 사항과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 - 이코모스 패넌 질의 및 요청사항

비교연구 : 중국 서원 비교대상 확장, 북한 서원 포함(개성역사유적지구 요소인 승양서원)

경관 : 완충구역 바깥 경관의 보호 방안, 멀리 있는 경관과 서원과의 관계 설명 보충

배향자 묘소 : 유산구역 내에 포함 여부

관리단 및 통합관리 : 관리단의 성격 및 역할을 더 잘 보여주는 자료 요망

### - 당사국 답변

비교연구 : 보완자료를 통해 중국 서원 비교대상을 강화하고 북한의 승양서원을 포함하겠음

경관 : 완충구역 바깥 경관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산림법과 하천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개발압력이 낮음. 멀리 있는 경관과 서원과의 관계 설명은 보완자료를 통해 제출하겠음

배향자 묘소 : 유산구역 내에 포함하기에는 묘제와 사당에서 진행되는 제향의 성격이 다름을 설명함

관리단 및 통합관리 계획 : 관리단에 관한 자료를 더 보완해서 제출하겠음

상호간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Gwaenelle Bourdin 이코모스 평가담당과장은 동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12월말 당사국에 송부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당사국의 추가정보 제출기한은 2019년 2월 28일(목)까지임을 알리며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 3) 이코모스 2차 보완자료 작성

#### - 이코모스 중간보고서 수신

이코모스 패널은 당사국과의 미팅 후 심사위원들 간의 토의를 거쳐 「한국의 서원」 신청서에 대한 잠정결론을 도출하고, 2018년 12월 21일(금) 「한국의 서원」에 대한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를 문화재청으로 보내왔다. 문화재청은 접수한 중간보고서를 관리단에 메일로 발송하였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이코모스에서는 등재기준 (iv)에 대한 보강, 경관에 대한 추가 설명, 통합관리, 그리고 유산 해설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또한 당사국에서는 추가 정보가 담긴 추가 보완자료를 작성하여 2019년 2월 28일(목) 전까지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중간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코모스 중간보고서

#### 서원 - 중간보고서 2018년 12월 21일

#### 등재기준 (iv)의 근거

신청서는 신청유산이 한국에서 성리학적 개념이 어떻게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성리학 교육기관 건조물군의 탁월한 예로 신청유산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코모스 패널은 한국의 서원이 다른 나라의 성리학 교육기관과 공간 배치 면에서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했으나, 해당 기준의 근거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다른 나라의 교육기관과 비교해 서원이 건물 건축의 측면에서 어떤 독특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패널은 특히 중국의 서원을 비롯해 여러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유산이 비교연구 부분에서 다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당사국이 훨씬 많은 수의 관련된 중국 서원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비교연구를 한층 더 끌어 올리고, 이에 등재기준 (iv)의 근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의 서원과 비교해 이들에 대한 보다 탄탄하고 자세한 분석 내용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관과 원거리 시야의 보호**

신청서는 성리학의 가르침과 관습의 일부로 서원의 주변경관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물과 가까운 경관적 요소와 함께, 산처럼 보다 먼 거리의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산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항상 포함되기보다 유산의 보다 넓은 주변환경에 포함되기는 하나, 완충구역 바깥을 기준으로 얼마나 먼 거리의 경관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이들이 서원과 갖는 관계를 고려할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이코모스 패널은 당사국이 원거리의 경관적 요소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공식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연결 부분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통합관리**

개별 유산요소마다 종합 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서원관리단이 9개 유산요소를 단일 유산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유산 전체를 아우르는 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국이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이를 준비할 것으로 압니다.

가능하다면 서원의 통합 관리계획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 **유산 전반에 대한 해석 강화**

현재 개별 유산요소마다 전체 신청유산에 대한 해석이 일정 부분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유산 해석을 강화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코모스 패널은 신청유산 전반에 대한 강화된 유산 해석의 성격과 범위,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2019년 2월 28일 마감



### - 문화재청 1차 회의 개최

2018. 12. 27.  
문화재청 1차 회의 개최

2018년 12월 27일(목) 중간보고서 보완자료 작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문화재청의 주재로 소집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의 김지홍 사무관, 박영록 학예연구사, 조재모 교수, 관리단 박성진 사무국장,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채우리가 참석하였다. 문화재청은 이 회의에서 중간보고서에 대한 답변서 즉, 요청한 추가정보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하였다. 중간보고서의 요청 사항은 당사국 회의에서도 거론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집필의 방향과 원칙이 정해졌다. 보완자료의 초고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 문화재청 2차 회의 개최

2019. 01. 08.  
문화재청 2차 회의 개최

2019년 1월 8일(화) 중간보고서 보완자료 작성을 위한 두 번째 회의가 문화재청의 주재로 소집되었다. 대전역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의 김지홍 사무관, 조재모 교수, 관리단 박성진 사무국장, 이경동, 박진재, 이승은, 채우리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작성된 원고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등재신청서의 내용과 중간보고서 답변서의 내용이 상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등재신청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중간보고서에는 등재기준 (iv)에 대한 보강과 비교분석에 대한 추가정보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를 가장 핵심적인 보완 사항으로 놓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자료를 작성하기를 제안하였다. 이 외에 경관이나 통합관리에 대한 사항은 관리단 사무국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완자료 작성 방향을 정하였다.

이후에도 문화재청, 관리단, 집필진들은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2차 보완자료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이상해 교수와 이해은 교수가 자문에 협조하여 보완자료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영문 번역에 착수한 이후에 이승은 대리가 작성한 번역본에 대한 지속적인 교정과 교열 작업을 통해 자료의 정확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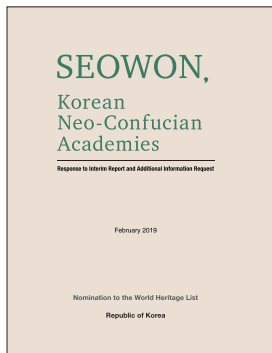
문화재청에서도 외부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이렇게 작성된 보완자료에 대한 수정사항을 조언하였다. 외부 자문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희권(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백소훈(명지대학교 교수)

이강민(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용준(문화재청 전문위원)



한국의 서원 2차 보완자료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거쳐 문화재청과 관리단은 중간보고서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보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기 위한 보완자료 작성을 마쳤으며, 2019년 2월 22일(금)에는 중간보고서 답변서의 최종 교정과 인쇄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서원」 이코모스 중간보고서 답변서는 문화재청과 외교부에 의해 2019년 2월 26일(화)에 세계유산센터로 제출되었다.





屏山書院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 7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01. 등재 권고
02. 등재 결정
03. 등재 언론 보도
04. 등재 기념식

# 7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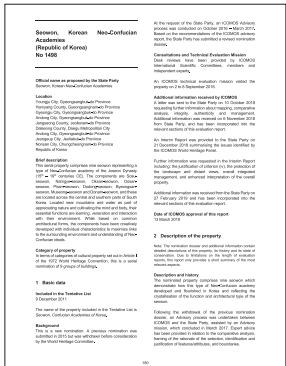
## 01. 등재 권고

### - 이코모스 평가결과 당사국 통지

관리단은 2018년 등재신청서 제출 이후 현지실사, 보완자료 및 중간보고서 답변서 작성 등의 과정을 통해 이코모스 심사를 받아왔다. 이코모스는 등재신청서의 검토와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의 서원」에 대한 최종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세계유산센터는 이 심사평가서를 2019년 5월 14일(화)에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로 통지하였다.

이코모스 평가결과는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 심사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코모스 평가서

## 6 결론 (Conclusion)

ICOMOS는 ‘서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에 대한 비교분석이 세계유산목록을 위한 해당 유산의 고려를 정당화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ICOMOS는 신청유산이 등재기준 (iii)은 충족하지만 기준 (iv)는 충족하지 않고, 완전성과 진정성의 요구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ICOMOS는 보호와 운영을 위한 요구조건은 전반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중요한 운영서류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로, 하나의 유산으로서의 9개 서원에 대한 통합관리계획이 더 발전되어야 한다.

설정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은 적절하며 서원과 원거리 경관요소 보호도 충분하다.

신청유산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모니터링 접근도 만족스럽다.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은 화재, 개발 압력, 해충 피해 등을 포함하지만 전체 요소들이 잘 이해되고 관리된다.

## 7 권고 (Recommendations)

### 등재 권고사항

ICOMOS는 한국의 서원이 등재기준 (iii)에 근거해 세계 유산목록에 등재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진술

### 간략 진술

한국의 서원은 15-19세기 조선의 성리학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유형으로서 9개의 서원을 포함하는 연속유산이다. 이는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우수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의 9개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중부와 남부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이 유산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한국의 다양한 측면에 근간이 되었던 성리학 교육을 촉진시킨 성리학 교육기관의 우수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서원의 향촌지식인들은 온전히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유형 건축물들을 만들어냈다. 강학, 제향, 교류는 서원의 근본적인 기능이며 이는 건축물의 배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서원은 사람과 향촌지식인 그룹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사람의 중심지로 발전되고 번창되어졌다.

서원의 위치에 있어 가장 주된 요인은 제향인물이다. 두 번째 요인은 경관으로, 자연에 대한 감상과 몸과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원은 산과 물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서원의 누각은 이러한 주변 경관과의 연결을 용이하게 했다.

학자들은 성리학과 문학작품을 공부하였으며 우주를 이해하고 이상적인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을 존경했으며 이들에 의해 진두지휘되는 강한 학문적 계보를 형성하였다. 또한, 향촌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정치적 활동을 통해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전파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등재기준 (iii)

서원은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 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다.

서원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성리학이 한국의 지역적인 조건에 맞춰 기능과 계획 그리고 건축 면에서 변형되고 지역화된 우수한 증거로서, 교육기관의 역사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 완전성

이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는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서원과 부속건물들, 홍살문, 하마비, 기념비 및 언덕, 계곡, 길, 수목과 시각적 경계를 포함하는 주변 환경으로 구성된 건물과 구조들이 있다. 이 유산의 속성은 전체적으로 뛰어난 상태다.

개발, 해충피해, 화재, 지진 및 방문객과 같은 유산에 대한 주요 압력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한다.

### 진정성

이 유산은 진정성의 요구조건을 충족한다.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 물질은 기본적으로 온전하다. 비록 교육적인 역할은 감소하였지만 서원의 이용과 기능, 그들의 전통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과거 2개 (확인 필요) 서원이 위치를 옮기긴 했지만 서원의 위치와 장소는 일반적으로 유지되어져 왔다. 서원의 무형유산, 그 정신, 그리고 감정은 일반적으로 유지되어지고 있다.

## 보호 및 관리 조건

이 유산에 대한 주요한 보호는 한국의 문화재청이 이행하는 다른 유산 보호법에 의해 제공되는 추가적인 보호와 더불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이 외에도 문화재 관련법, 무형문화재 보호진흥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은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보호·관리된다.

9개 서원은 모두 국가 지정 문화재(사적)이다.

이러한 법률적 조치들은 보수와 제향과 관련된 해당유산의 시스템 보존을 확실시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해당 지역에서도 문화재보호법을 바탕으로 한 문화유산 보호법령을 마련했다. 이러한 법령은 또한 이 유산의 통합 관리를 위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의 근간을 제공한다.

관리 시스템은 서원관리단과 서원운영위원회, 그리고 중앙·지방 정부를 포함한다. 문화재보호법은 해당 유산이 관련 지방정부와 서원 공동체에 의해 관리되어질 것을 요구한다. 서원관리단은 이 유산의 통합관리를 담당한다. 각각의 요소들은 운영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서원운영자와 함께 정부와 서원관계자에 의해 매일 관리되어진다.

중앙 정부인 문화재청이 예산지원과 관리를 제공한다. 지방정부 또한 서원관리단에 예산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문화재청과 관련 지방정부는 통합 보존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각 서원은 운영계획과 동등한 포괄적인 유지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핵심 보존운영 매뉴얼과 지침이 있다. 통합관리 서류는 준비중이다.

위험에 대한 준비가 존재하며 추가적인 계획과 시스템은 현재 개발중이다.

현재 방문자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속유산인 9개 서원의 더 나은 통합 준비가 필요하다.

## 추가적인 권고

ICOMOS는 당사국에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볼 것을 추가적으로 권고한다.

- 1) 서원 관리를 위한 주요 문서 작성을 완료할 것.
- 2) 연속유산으로서 9개의 서원에 대한 추가적인 통합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 02. 등재 결정

### 1)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2019. 06. 30. ~ 07. 10.  
제 43차 세계유산위원회  
바쿠, 아제르바이잔 개최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는 2019년 7월 6일(토) 결정되었다.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었다. 6월 30일(일)부터 7월 10일(수)까지 기존 세계유산목록의 보존관리, 신규 세계유산목록 등재 결정 등 세계유산목록에 대한 중요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졌다. 신규 등재 논의는 7월 5일부터 7월 7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 24건, 자연유산 4건, 복합유산 1건이 등재되었다.

관리단은 7월 3일 선발대의 출국을 시작으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참관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배용 이사장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의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한국의 서원」을 홍보하기 위해 가져온 사진집, 브로슈어, 엽서 등을 홍보 코너, 세션에 비치하고 여러 장소에서 각국의 세계유산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서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관리단 사무국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서원 운영자로 구성된 본대가 7월 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도착하였다. 특히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먼 아제르바이잔까지 온 서원 유림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한국의 서원」은 이미 이코모스 평가결과에서 등재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9개 서원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가 확실시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원」은 이미 1차례 반려 평가로 인해 등재신청서를 철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복합유산-자연유산 순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서원」은 19번째 순번이었다. 신규 등재 유산 심사는 7월 5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다. 관리단과 함께 이병현 주유네스코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외교부, 문화재청 대표단은 9개 서원이 모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지지교섭 활동을 이어감과 동시에 회의장에서 다른 유산들이 심사 받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날은 중국의 Bohai만 철새보호구역을 시작으로 세계유산목록 후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오전에 심사가 진행된 세계유산목록 등재 후보들은 모두 등재가 결정되었다. 등재불가 권고를 받았던 유산 또한 등재결정을 받아 금회 세계유산위원회의 신규 등재 심사는 순조로운 흐름으로 첫날을 마감하였다.

이날은 「한국의 서원」에 관련된 참석자가 모두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도착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 합류한 날이고, 「한국의 서원」의 심사 전날이기도 하였다. 관리단 이배용 이사장은 그동안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하여 일선에서 노력해온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서원 관계자, 전문위원 등을 초청하여 오찬을 주최하였다. 이배용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다음날 있을 「한국의 서원」 등재 심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원하였다.



회의장 전경



관리단 홍보 활동



관리단 홍보 활동



홍보자료



## 2) 세계유산목록 등재 결정

###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확정

2019. 07. 06.  
세계유산목록 등재 결정

드디어 결전의 날인 7월 6일이 되었다. 이날은 바레인의 「Dilmun Burial Mounds」가 등재 심사의 첫 순서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바레인,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미얀마에 이어 9번째 심사가 될 예정이었다. 앞 순서의 소요시간에 따라 「한국의 서원」은 오전 세션 마지막 혹은 오후 세션 첫 순서로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유산위원회 참가자 전원은 모두 아침 일찍부터 회의장에 나와 긴장 속에서 앞 순서의 심사 과정을 지켜보았다. 앞에서 대부분의 유산들이 모두 등재가 결정되었으므로 「한국의 서원」의 등재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서원」은 이미 몇 년 전에 이코모스로부터 반려(Deferral) 권고를 받은 바 있어, 불안한 마음 또한 지울 수 없었다. 오전에는 순서상 「한국의 서원」이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오후를 기다려야 했다. 오후에는 첫 번째로 미얀마의 「Bagen」이 심사 대상이 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오후 세션의 두 번째로 「한국의 서원」이 심사되었다. 심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의 신청유산에 대한 보고로 시작되었다. 이코모스는 보고서의 내용처럼 당사국에서 등재기준 (iii), (iv)를 신청하였으나, 이코모스 평가 과정에서 등재기준 (iii)에 의거하여 9개 서원의 등재를 권고하였다. 이코모스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합니다. 이코모스 평가는 43COM INF.8B.1 문서의 영문판(190page), 프랑스판(166page)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청서입니다. 이전의 신청서는 2015년 제출됐으나 세계유산위원회의 검토에 앞서 철회되었습니다.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 이코모스 자문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코모스 자문보고서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당사국은 개정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연속유산은 15~19세기 조선왕조의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들은 한국의 중부와 남부에 걸쳐 위치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감상과, 몸과 마음의 수양의 일환으로 산과 물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들의 본질적인 기능은 강학, 제향,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일반적인 건축 양식에 바탕을 두는 한편, 이 요소들은 성리학 이상의 이해와 주변 환경과의 연결을 최대화하기 위해 각각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교육 기관인 해당 신청유산은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 설립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제향, 강학, 교류 공간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학적 구조의 표준화를 통한 첫 번째 서원의 탄생과 건축학적 배치, 기술의 실험과 함께한 그들의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속유산은 서원의 시작과 발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코모스는 당사국이 추가로 제출한 신청유산의 비교 분석이 해당유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고려를 정당화한다고 봅니다.

해당유산은 문화유산 등재기준 (iii)과 (iv)에 근거하여 당사국에 의해 신청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코모스는 신청유산이 기준(iii)은 충족하지만 기준(iv)은 충족하지 않으며, 완전성과 진정성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등재기준 (iii)과 관련하여, 신청유산은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한국에서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우수한 증거라고 생각되며, 그 중 많은 부분이 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성리학 개념의 지역화에 대한 뛰어난 증거를 보여줍니다. 서원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 환경에 맞추어 변화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변화 및 지역화 과정의 탁월한 증거인 서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코모스는 신청유산이 등재기준 (iv)에 근거한 성리학 교육 양상들의 세계유산적 맥락에서 탁월한 사례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코모스는 중국의 영향과 변화 및 지역화 과정은 주목하지만, 이 기준이 요구하는 우수한 특성을 정당화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치, 지형, 축조된 요소들은 크게 신청유산의 전체 구성을 정의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서원을 위한 경사진 장소를 포함합니다. 건물의 치밀한 배치, 형태, 세부사항은 모두 중요한 속성이며 다른 건축요소로는 담장, 대문, 길, 계단, 기념비가 있습니다. 서원은 주변경관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누각에서 바라본 경관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나무와 다른 식물들이 있는 풍경 또한 하나의 속성입니다.

무형요소에는 강학, 제향, 교류 및 여타 활동이 포함됩니다. 성리학적 가치는 여전히 강학과 제향의식을 통해 전파됩니다.

제안된 유산경계와 완충지대가 적절하며, 완충지대를 넘어 서원과 원거리 조경 요소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계들의 보호 또한 적절합니다.

이코모스는 보호와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산에 대해 중요한 관리 문서를 작성하여 구성요소 수준에서 관리를 보완해야 합니다. 단일 유산으로서의 9개 요소를 통합한 소개가 더 잘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유산에 대한 소개는 개별 요소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유산은 좋은 보존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니터링 접근도 만족스럽습니다. 신청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재, 개발 압력이나 곤충피해 등의 주요 요인들은 잘 이해되고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코모스는 등재기준 (iii)을 근거하여 해당유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권고하는 바이며, 추가 권고안을 포함한 결정문 초안은 WHC/19/43.COM/8B. 문서(3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국(21개국)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은 다음의 2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튀니지, 탄자니아, 짐바브웨, 우간다, 쿠웨이트, 바레인,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중국,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헝가리, 노르웨이, 스페인, 쿠바, 브라질, 과테말라, 세인트키츠 네비스

## - 지지 발언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는 것을 지지한 위원국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쿠웨이트

우선, 이 뛰어난 유산의 신청서를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여 등재에 이르게 한 대한민국의 인내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적과 건물들을 보지만, 우리는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이 모든 기록들을 보관했는지, 사람들이 어디서 배움의 경험을 얻었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서원은 한반도 전역에 퍼진 학문적 그리고 과학적 문화의 원천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 ② 튀니지

우리가 해당유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준 이 신청서에 대해 이코모스에 감사를 표하며, 또한 이 신청서의 우수함에 대해서도 당사국에 축하를 전합니다.

한국의 서원은 우리에게 신념과 과학이 연결된 과정의 역사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단순히 문화적 관점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적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이 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③ 중국

중국어로는 “슈우위안(서원)” 이라 불리는 성리학 교육기관이 중국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한국의 서원 역시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의 보급과 현지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어 독자적인 건축설계를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에서 성리학적 이상이 꽃피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가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 국가들 간의 더 많은 문화교류를 위한 촉매제가 되어 세계유산목록상의 성리학 유산이 더 잘 대표되기를 기원합니다.

### ④ 인도네시아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중엽까지의 9개의 서원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서원은 교육적, 사회적 관습의 형태로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사국의 해당유산에 대한 보호와 보존의 필요와 그 지속을 확신합니다.

### ⑤ 스페인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전에 신청서를 철회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코모스와 함께 한 진행과정의 결과로서 한국의 서원이 아무 문제없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스페인은 해당유산의 완벽한 수준의 보존 상태에 정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 유산의 근간을 이루는 무형적인 측면에서도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학교는 보통 공무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이 경우에는 지식의 보호가 그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훌륭한 등재이며 한국에 축하를 전합니다.



## ⑥ 아제르바이잔

한국의 서원은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에 대한 훌륭한 증거입니다. 이는 또한 성리학과 그 발전의 각 단계들의 뛰어난 증거이자 건축학적 원형입니다.

우리는 이 유산에 대한 당사국의 신청과 이코모스와 협력하여 신청을 갱신하고 세계유산 목록에 성공적으로 포함시킨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이로써 9개 서원의 등재를 염원하면서 현지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던 서원, 관계 기관, 전문가, 관리단은 아제르바이잔과 대한민국 양쪽에서 모두 함께 환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는 2018년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에 이어 연속으로 얻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경사였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4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철회 이후 등재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기쁨은 한층 더 높았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해 노력해온 외교부, 문화재청, 9개 서원, 관리단을 대표하여 정재숙 문화재청장, 이병현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가 차례로 전 인류의 유산이 된 「한국의 서원」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감사의 인사말을 발표했다. 한국 참석단은 단체 사진을 찍고 서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기쁨의 순간을 기념하였다.



「한국의 서원」 등재이후 기념사진

이 자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각 서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림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유림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멀리 아제르바이잔까지 와서 등재의 기쁨을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포를 입고 다니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2의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서원」이 가진 한국적인 특성과 의미에 대해 성심을 다해 표현하였다.

심사가 끝난 후, 당일 저녁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 주최로 만찬이 열려 문화재청, 외교부, 지방자치단체, 서원 운영자, 관리단 이배용 이사장, 이상해 교수, 관련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한국의 서원」의 보존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문화재청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숙 문화재청장 주최 만찬

다음날인 7월 7일에는 관리단 이배용 이사장의 주최로 지방자치단체와 서원 운영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배용 이사장은 「한국의 서원」의 통합 보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리단 차원에서도 통합관리를 위한 행정적·실무적 단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이 가진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및 서원운영자들은 앞으로도 관리단을 중심으로 통합된 연속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배용 이사장 주최 만찬









등재 확정

장성군 ·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에 대한 환호는 아제르바이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등재 직후 방송, 신문에서는 등재 사실을 연이어 보도하였고, 국내외에서 등재 축하가 이어졌다. 이 중 하나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초청한 오찬이었다.

7월 30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이 자리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 이배용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신청서 집필에 공로가 있는 이해준 교수, 조재모 교수, 서원 관계자, 문화재청 담당자, 박성진 사무국장을 포함한 관리단 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축하하고,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현대 문명의 변화 속에서 서원의 내용과 문화적 자산, 기능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국무총리 오찬 1



국무총리 오찬 2

2019. 08.05~19(4일간)  
이배용이사장 현지답사  
및 유림관계자 간담회

## 「한국의 서원」 이배용 이사장 현지답사 및 유림 관계자 간담회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이후, 관리단에서는 각 서원을 방문하여 보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유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간담회는 이배용 이사장을 중심으로 관리단 전문위원, 사무국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배용 이사장은 서원을 순회하면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던 9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여러 서원 관계자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격려를 하고, 그러한 진정성이 결국 세계유산이라는 등재의 쾌거를 이루어 내게되었다 하면서 향후 서원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함께 더욱 적극 노력하자는 당부의 시간을 가졌다. 유림 관계자들도 등재 이후에도 관리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개별 유산이 아닌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향후 관리단에서는 유림 관계자를 중심으로 연속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서원에 대한 활용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의 서원」 현지답사 및 유림 관계자 간담회 일정

- 2019.08.05.(월) :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 2019.08.06.(화) : 남계서원, 도동서원
- 2019.08.12.(월) : 필암서원, 무성서원
- 2019.08.09.(월) : 돈암서원, 소수서원



도산서원



퇴계종택





병산서원



옥산서원



남계서원



도동서원



필암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소수서원

### 03. 등재 언론 보도

순번	게재일 (보도일자)	매체명	기사제목
1	2019.7.6.	서울신문	[속보] 도산서원 등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	2019.7.6.	YTN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14번째 세계유산
3	2019.7.6.	경북일보	조선 성리학 산실 「한국의 서원」 9곳 세계 문화유산 등재 확정
4	2019.7.6.	KBS	[자막뉴스]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14번째 성과
5	2019.7.6.	글로벌 이코노믹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네스코,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인정
6	2019.7.6.	대구신문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7	2019.7.6.	채널A	「한국의 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정
8	2019.7.6.	서울경제신문	성리학 거점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9	2019.7.6.	한겨레신문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올랐다
10	2019.7.6.	중앙일보	500년 문화유산에서 세계유산된 「한국의 서원」 9곳은
11	2019.7.6.	동아일보	[속보] 한국의 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2	2019.7.6.	연합뉴스	「한국의 서원」 앞에 놓인 과제는 보존과 적절한 활용
13	2019.7.6.	매일신문	[영상] 한국 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정된 역사적 순간
14	2019.7.7.	KBS	'성리학의 중심' 한국의 서원은 어떻게 세계유산이 되었나
15	2019.7.7.	경향신문	유네스코 "한국 서원,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 지속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인정"
16	2019.7.7.	전남매일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 보존관리 돼야
17	2019.7.7.	부산일보	한국 서원 9곳, 세계문화유산 등재됐다
18	2019.7.7.	한국일보	유네스코 세계유산 된 「한국의 서원」 9곳 ... "기능·건축양식 중국과 차이"
19	2019.7.7.	매일신문	한국의 서원 9곳, 세계유산 등재...조선 성리학의 산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인정
20	2019.7.7.	한국경제신문	조선 성리학 산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됐다
21	2019.7.7.	SBS	'성리학의 산실' 한국 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2	2019.7.7.	서울신문	「한국의 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3	2019.7.7.	대구일보	세계문화유산 등재, 한국의 서원은 어떤 곳

순번	게재일 (보도일자)	매체명	기사제목
24	2019.7.7.	국제신문	유교 발상지 중국보다 먼저...한국 서원, 세계유산 됐다
25	2019.7.7.	매일일보	한국 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26	2019.7.7.	경북신문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의의와 가치
27	2019.7.7.	어린이동아	[오늘의 뉴스] 「한국의 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8	2019.7.7.	시사저널e	「한국의 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9	2019.7.7.	대전일보	한국 9개 서원 동시 세계유산 등재 쾌거
30	2019.7.7.	유교신문	영주 소수서원 등 한국의 서원 9곳, 세계유산 등재
31	2019.7.7.	TV조선	성리학 산실 「한국의 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2	2019.7.7.	국민일보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33	2019.7.7.	SBS	'성리학의 산실' 한국 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4	2019.7.8.	중앙일보	“이런 공간은 한국뿐”...소수서원 등 9곳 세계유산 됐다
35	2019.7.8.	동아일보	조선 성리학 활짝 꽃피운 사학의 전당
36	2019.7.8.	매일경제	조선 성리학의 요람...세계 보편적 가치 인정받다
37	2019.7.8.	서울경제	'한국적 성리학 산실' 서원 세계유산 되다
38	2019.7.8.	한겨레신문	한국서원 9곳, 세계유산등재 성리학 꽃피운 역사가치 인정
39	2019.7.8.	문화일보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 사실 또 실감
40	2019.7.8.	디지털 조선 일보	'한국의 서원' 9곳 1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41	2019.7.8.	한국경제	조선시대 성리학 성지 「한국의 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42	2019.7.8.	조선일보	'조선의 사립학교' 한국 서원 9곳, 세계문화유산 등재
43	2019.7.10.	EBS	서원, 세계가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
44	2019.7.10.	농민신문	국내 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04. 등재 기념식

### 1) 등재 인증서 전달식

2019. 09. 05.  
등재 인증서 전달식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등재기념식을 9월 5일 한국의 집 취선관에서 개최하였다. 등재 기념식은 세계유산목록 「한국의 서원」 등재 추진 경과 보고, 등재 인증서 전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발표, 감사패 수여 등으로 진행되었다. 등재 기념식에는 이배용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9개 서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원 운영자, 관리단 사무국 등이 참석하였다.

등재인증서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9개 서원 운영자에게 각각 전달되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인증서를 직접 전달하고,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음을 공식 선언했다.

인증서 전달과 함께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2019~2024)이 함께 발표되었다. 문화재청에서는 예학의 공간, 세계유산 서원의 가치 제고를 비전으로 하여 첫째, 세계유산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증진 둘째, 서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감사패는 이배용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에게 수여되었다. 이배용 이사장은 2011년 국가브랜드위원장 시절부터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기념사진



이배용 이사장 감사패 수여

## 2) 등재 기념행사

2019. 09. 20.  
등재 기념행사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기념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등재기념식이 9월 20일(금) 소수서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경상북도, 영주시의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장옥현 영주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등 지방자치단체 대표, 최교일 국회의원,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배용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관리단 전문위원인 이상해 교수, 이해준 교수, 이해은 교수, 신청서 집필자로 참여했던 이수환 교수, 유동환 교수, 박소현 교수, 조재모 교수, 김병주 교수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과 기관의 내빈들이 참석하였다.

### 등재 기념행사

행사명	시간	행사 세부 내용
식전 공연	13:30~14:00	식전공연 (소수서원 제막식 병행)
등재선포식	14:00~14:05	내빈 소개 및 기념촬영
	14:05~14:07	국민의례
	14:07~14:15	등재추진 경과보고(영상, 관리단 제공)
	14:15~14:21	기념사 : 이배용(관리단 이사장) 환영사 : 장옥현(영주시장)
	14:21~14:39	축사(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4:39~15:10	등재사(9개 서원 대표자)
	15:10~15:15	등재 인증서 소개
	15:15~15:20	감사패 전달 기념패 전달
영주시 자체 행사	15:20~15:35	선비대상 시상식
소수서원 관람	15:35~17:00	소수박물관 개관식 및 관람
만찬	17:00~18:00	





식전행사



기념사 이배용 이사장



환영사 장옥현 영주시장



축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축사 권영세 안동시장



축사 유진섭 정읍시장





축사 김광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소수서원 등재사



등재인증서 소개



기념패 전달(서원운영위원회)



기념패 전달(관리단 전문위원)



소수박물관 개관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Convention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as inscribed*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scription on this List confirms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a cultural or  
natural property which requires protection for the  
benefit of all humanity*

DATE OF INSCRIPTION

*10 July 2019*

DIRECTOR-GENERAL  
OF UNESCO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인증서

### 3) 각 서원별 등재기념식과 표지석 제막식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 등재된 이후 각 서원에서는 등재기념식 및 고유제, 표지석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각 서원별 행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서원	등재기념식 및 고유제	표지석 제막식
소수서원	2019.09.20.	2019.09.20.
남계서원	2019.11.21.	2019.11.21.
옥산서원	2019.09.28(고유제)	2020.07 예정
도산서원	2019.11.12.	2019.11.12.
필암서원	2019.10.23. / 09.19	2019.10.23.
도동서원	2019.09.21. / 09.16.	2020.02.05.
병산서원	2019.10.06.	2019.10.06.
무성서원	2019.10.11.	2019.10.11.
돈암서원	2019.09.17(고유제)	2020년 예정

### 4) 등재 기념 고유문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기념하여 각 서원에서는 서원의 신위에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알리는 고유 행사를 가졌다.

합동선포식과 각 서원 고유 행사를 위해 쓰여진 고유문은 아래와 같다.

#### - 합동선포식 고유문

維歲次己亥八月己亥朔二十二  
日庚申 後學 榮州市長 張彧鉉  
敢昭告于

紹修書院文成公順興安先生  
瀋溪書院文獻公河東鄭先生  
玉山書院文元公驪州李先生  
陶山書院文純公眞寶李先生  
筆巖書院文正公蔚山金先生  
道東書院文敬公瑞興金先生  
屏山書院文忠公豐山柳先生  
武城書院文昌侯慶州崔先生  
遯巖書院文元公光山金先生

기해년 8월 22일 후학 영주시장  
장옥현은

소수서원문성공순흥안선생  
남계서원문헌공하동정선생  
옥산서원문원공려주이선생  
도산서원문순공진보이선생  
필암서원문정공울산김선생  
도동서원문경공서흥김선생  
병산서원문충공풍산류선생  
무성서원문창후경주최선생  
돈암서원문원공광산김선생께  
삼가아웁니다.



恭惟九賢  
大闡東國  
祖孔宗朱  
師宗斯學  
遺後大道  
享院主壁  
恩綸載降  
御筆賜額  
世界遺産  
九院登錄  
赫赫高風  
耀德復赫  
今據衆論  
大會慶北

공손히 생각건대 아홉 분 선생께서는  
우리나라를 크게 떨치셨으니  
孔子和 朱子를 宗主로 삼으시어  
우리 유학의 宗師가 되셨습니다  
후학들에게 큰 道를 남겨주시어  
서원에 주벽으로 제향되셨으니  
임금님 詔書가 이에 내려지고  
어필 편액이 하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아홉 서원이 등재되니  
고상한 기풍이 성대하고  
훌륭하신 덕이 다시 빛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유림대회를 경북 영주에서 개최하니

東邦儒秀  
雲集聖域  
濟濟衣冠  
九院巨擘  
肅肅周旋  
百鄉俊德  
滿場冠笠  
其麗不億  
巨事利成  
多用財力  
左補右佑  
財官道伯  
陰鷺秘助  
九賢遺澤  
從此院業

우리나라의 빼어난 선비들이  
구름처럼 이곳 順興에 모였습니다  
의관 갖춘 威儀 있는 자들은  
아홉 서원의 훌륭한 有司들이고  
엄숙하고 차분하게 일을 맡은 자들은  
여러 고을에서 온 훌륭한 선비들입니다  
갓 쓰고 유건 쓰고 행사장 가득 메웠으니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대한 행사를 잘 치르려 하니  
많은 재물과 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왼쪽에서 보태주고 오른쪽에서 도와주니  
재물은 경북도지사가 으뜸이었고  
음으로 도와주고 몰래 조력하였으니  
아홉 선생께서 남기신 혜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원이 해야 할 일은



人性教育	인성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며
書院之本	서원이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은
儒風振作	유풍을 진작시키는 일이기에
名實相符	이름과 실재가 서로 부합되도록
互相協翼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도와
神理允愜	생각과 條理가 흡족하여
百世無極	백세토록 끝이 없을 것입니다
爰卜吉日	이에 좋은 날을 가려서
陳設床卓	祭羞와 향불을 祭床과 香卓에 진설하여
多士齊踰	많은 선비들이 威儀 있게 행공하옵기에
敢告厥歷	삼가 그 내력을 아뢰오니
伏惟在天	삼가 생각건대 하늘에 계신 영령께옵서는
降鑑昭格	굽어 살피시어 밝게 왕림하옵소서

## - 개별 서원 고유문

### ① 소수서원 (2019. 09. 20.)

기해년 6월 18일 소수서원 원장 후학 순흥 안천학은 삼가  
 문성공 순흥 안선생  
 문정공 순흥 안선생  
 문경공 순흥 안선생  
 문민공 상주 주선생께 고하나이다.  
 삼가 써 엮드려 생각하옵건대  
 선생의 넉넉하신 공적은  
 지나간 고려에서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香燈 밝히는 것은  
 다 부처의 상탁에 기도하는 것이고  
 집집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모두 신의 장막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몇 칸의 공자를 모신 사당에는  
 오직 公만 홀로 지키고 있으며  
 봄풀만 뜰에 가득한데  
 사람들 발자취는 없었습니다  
 儒道가 잘못됨을 상심하셔서  
 그리하여 太學을 세웠으며

노비와 논과 밭을  
 남들보다 앞장서서 바쳐서 귀속시켰으며  
 우리 유학을 떨쳐 일으키기 위하여  
 몸을 일으키고 힘을 다하여서  
 지방관에서도 권하고 장려하여  
 성인의 학문을 교도하였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져서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  
 풍기군수로 주신재가 부임하여  
 사당을 세우고 학문을 강독했는데  
 퇴계선생이 군수로 부임하여  
 관찰사를 거쳐 사액을 청원하여서  
 온 나라의 서원 중에도  
 효시라는 명성이 독특했으며  
 유학에 정통한 선비가 배출되기를  
 앞사람의 뒤를 따라 이어졌으며  
 선비의 고장 영주가  
 유교의 성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장차 세계적인  
 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본 서원으로는 사사롭게 다행이지만  
 나라를 빛내는 은덕입니다  
 좌우에서 보조하고 도와주신 것은  
 시장과 도지사였고  
 음으로 도와주고 몰래 도운은  
 네 분 선생께서 끼치신 은덕입니다  
 이에 좋은 일진을 기려서  
 감히 그 내력을 고하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하늘에 계시는 혼령은  
 밝게 보살피고 감응하여 흠향하시옵소서<sup>1)</sup>

1) 維歲次己亥六月辛丑朔十八日戊午 紹修書院院長 後學 順興安千學 敢昭告于 文成公順興安先生 文貞公順興安先生 文敬公順興安先生 文敏公尙州周先生 謹以伏惟 先生豐功 往在勝國 處處香燈 皆祈佛卓 家家簫管 盡事神慕 數間聖廟 惟公守獨 滿庭春草 人無足跡 傷心斯道 仍建太學 奴婢田畝 率先納屬 斯道振興 挺身盡力 勸獎州郡 教導聖籍 世變時異 朝鮮中曆 周候守豐 建祠講讀 退陶莅郡 講轉賜額 學國書院 嚆矢名特 輩出儒賢 蹤先後續 儒鄉榮州 儒教聖域 今將世界 文化登錄 本院私幸 光國之澤 左補右佑 市長道伯 陰佑秘助 四賢遺德 爰卜吉日 敢告厥歷 伏惟在天 用鑑昭格.

## ② 남계서원 (2019. 11. 21.)

단기 4352년 己亥 10월 25일 함양군수 李春洙는 삼가 文獻公 一蠹 鄭  
선생께 고하나이다  
생각하옵건대 선생께서는  
학문은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시고  
덕행은 효도와 절의에 우뚝하시옵니다  
훌륭하게 선각자가 되시어  
선비들이 스승으로 공경하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예에 마땅하니  
나라의 명령이 넉넉하고 특별하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흠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서원을 세우고 공경히 섬겼습니다  
높은 창산 앞에 푸른 남계 흐르고 있으니  
문물은 예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전세계 인류를 위한 유적으로서  
아홉 개의 한국의 서원을  
같은 시기에 등재하였습니다  
아아 참으로 성대한 일이지  
온 나라가 축하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찬란히 빛나게 하니  
해와 달처럼 우리러봅니다  
세상은 간혹 일정함이 없지만  
이치는 어찌 늦음이 없겠습니까?  
도학의 계통과 공부하신 과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잃지 않겠습니다  
영령께서 아래위로 오르내리시기에  
재계해 깨끗이 하고 옷을 성대히 입고  
이에 좋은 날 좋은 때를 가려서  
변과 두를 가지런히 늘어놓았습니다  
삼가 상서로운 사유를 고하오니  
신령께서 감응하시기를 바라오며  
개암 강선생과 문간공 동계 정선생을 배식하오니 흠향하시옵소서.<sup>2)</sup>

2) 檀紀四千三百五十二年己亥十月戊戌朔二十五日壬戌.咸陽郡守徐春洙.敢昭告于文獻公一蠹鄭先生  
伏以先生 學究性理 行隆孝義 蔚爲先覺 師式士類 禮宜稱祀 朝命優異 鄉邦興慕 建院祇事 蒼山濫溪 依  
然文物 聯教組織 人類遺蹟 九個之院 同時記述 於戲盛哉 慶于邦國 光耀四海 瞻若日月 世或無常 理豈  
不莫 道脈工程 服膺不失 陟降英靈 齊明盛服 茲涓吉辰 簞豆秩秩 敢告瑞由 庶幾歆格 以介庵姜先生.文  
簡公桐溪鄭先生.配.尙饗

### ③ 옥산서원 (2019. 09. 28.)

기해년 8월 30일 후학 전시장 이원식은 선사 문원공 회재선생께 삼가  
아뢰옵니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삼가우리 회재선생  
탄생품부 뛰어나사  
스승교훈 받지않고  
사학분발 하셨도다.  
거룩하신 선비로서  
세임금을 도우시고  
홍간무함 칠년적소  
독실하게 정진했네.  
공맹학을 바로올라  
성리학에 부합하고  
도체본원 밝히시고  
이단사설 물리쳤네.  
계왕개래 위대업적  
동방에서 뛰어나고  
주자다시 태어나도  
질정할수 없으리라.  
적소에서 돌아가신  
사백육십 육년동안  
종묘문묘 가묘제향  
끊임없이 이어지고  
창산고택 옥산서원  
옛날같이 변함없어  
세계인류 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했네.  
아홉서원 하나같이  
동시등재 하였으니  
아거룩한 일로다  
이나라의 경사로다.  
온세상에 알려저서  
일월같이 찬망하고  
세상혹여 변하여도  
진리어찌 민멸되랴.



선생도학 후세전수  
 아니하지 못할지니  
 선생훈령 보시는 듯  
 재계하고 제복입고  
 깨끗한날 택하여서  
 여러제수 차려놓고  
 경건하게 아뢰오니  
 부디흠향 하옵소서.<sup>3)</sup>

〈撰·譯 李泳煥(玉山書院 有司)〉

#### ④ 도산서원 (2019. 11. 12.)

維歲次 己亥年十月戊戌朔十六日癸丑 후학 안동시장 권영세는  
 선사 퇴도이선생께 삼가 아뢰나이다.  
 선생께서  
 성리학을 현실의 삶에 뿌리를 내려  
 미래를 밝히도록 발전시키셨고,  
 이를 실천하는 도장으로 서원을 권장하여  
 정착토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서원 가운데  
 금년 6월 초4일(양 7.6.)에  
 도산서원을 포함한 아홉 곳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성리학 이상실현의 증거이자 전파에 이바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여  
 ‘세계의 유산’으로 등재를 宣言하였습니다.  
 선생께서 염원하셨던  
 인간다운 삶의 실천도장인  
 한국의 서원이  
 세계의 서원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생의 학문은  
 세계인류의 행복을 밝히는 등불이며,

3) 維歲次 己亥八月己亥朔三十日戊辰 後學 前市長 李源植 敢昭告于 先師文元公晦齋先生 伏以恭惟先生 生有異質 不由承師 自奮斯學 弘毅之士 三朝輔德 處困七載 造詣彌篤 直泝洙泗 補經閩洛 道體本闡 異端說闢 繼開偉業 東方惟卓 晦庵復起 無以爲易 七甲四旬 六輪忌日 三廟陞廡 千秋血食 蒼山玉山 依然文物 聯教組織 人類遺蹟 九個之院 同時記述 於戲盛哉 慶于邦國 光耀四海 瞻若日月 世或無常 理豈不莫 道脈工程 服膺不失 陟降英靈 齊明盛服 茲涓吉辰 籩豆秩秩 敢告端由 庶幾歆格

한국의 서원은  
세계인이 인간다운 삶을 실천하는  
도장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같은 달 28일(양 7.30.)  
안동시가 지원하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도산과 병산 양 서원의  
유물전시회를 개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가  
서원에 도착되었음과  
아울러 인증서를 부착한 표지석을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 설치하였습니다.  
월천조공께 함께 아뢰옵니다.

#### ⑤ 필암서원 (2019. 09. 19.)

기해년 7월19일 후학 원장 박병호는

문정공 하서 김선생께 삼가 아뢰옵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  
빼어나게 선생이 태어나시니  
해와 달이 어둠을 면하게 되고  
우리의 도가 다시 밝아졌도다  
절의는 위대하셨고  
도덕은 탁절하셨도다.  
백세의 스승이시며  
후학의 모범이 되셨도다.  
륜강을 부식하시어  
해와 별처럼 빛나셨고  
천도를 먼저 깨달아  
진실로 집대성하셨도다.  
문도들이 정성을 바쳐  
필암서원을 창설하여  
후진을 배양하며  
춘추로 석전을 올렸도다  
문묘에 종사하고자

거국적으로 소청하니  
 정조임금 윤허하여  
 성무에 배식하였도다  
 경건히 조두 올리며  
 지금까지 반천년이 되었으니  
 산처럼 우리르며  
 대대로 이어져 왔도다  
 본원이 문화유산으로  
 천거함을 입으니  
 국제기구에서  
 등재하라는 揀擇을 입었도다  
 증서를 수령하여  
 영전에 바치게 되니  
 경향각지의 장보들이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도다  
 탄신일을 날을 받아  
 삼가 비박을 갖추어서  
 삼가 그 사유를 아뢰오며  
 경건히 잔을 올립니다.  
 흠향하소서<sup>4)</sup>

#### ⑥ 도동서원 (2019. 09. 16.)

기해년 8월 18일 후학 달성군수 김문환은

증우의정 문경공 한훤당 김선생  
 증영의정 문목공 한강 정선생께 삼가 아뢰나이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선생께서는,  
 오현 중에서 으뜸이시옵니다  
 도덕이 있는 분께 나아가 배우시어  
 점필재 옹을 스승으로 섬기셨으니  
 소학을 경건하게 받아

---

4) 維歲次己亥七月朔十九日戊子 後學 院長 朴秉濠 敢昭告于 文正公河西金先生 伏以 天眷我東 挺出先生 日月晦明 吾道復明 偉哉節義 卓乎道德 百世可師 後學攸式 倫綱扶植 炳如日星 天道先覺 允矣集成 門徒獻誠 創設筆院 後進培養 春秋釋奠 從祀文廟 疏請學國 健隆允許 聖廡配食 敬虔俎豆 迄今半千 如山仰止 世世連綿 本院蒙薦 文化遺產 國際機構 登載被揀 證書受領 靈前奉獻 京鄉章甫 成就所願 涓吉誕辰 謹具菲薄 虔告厥由 敬薦洞酌 尚饗

부지런히 힘써 드러내어 밝히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앞장서 인도하시고  
 경(敬)과 의(義)를 진수로 전해 받으셨으니  
 지키고 단속함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깊이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셨습니다.  
 훌륭한 분들 다 돌아가시고 갈 길은 멀기만 하며  
 가르치는 데에 방법이 없었는데  
 몸소 행하시고 실제로 실천하셨으니  
 후학들이 잇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선포되니  
 온 나라가 기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우리 서원도 더욱 산뜻해졌으며  
 이산은 빼어나게 아름답고  
 낙동강은 넘실넘실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날을 이에 가려  
 후학들이 구름처럼 모였으니  
 집사를 뽑아 임무를 맡기니  
 경건하게 차례대로 섰습니다  
 감히 그 사유를 고하오며  
 향을 사르고 술잔을 바치오니  
 삼가 생각건대 존령께옵서는  
 흠향하시기를 바라나이다<sup>5)</sup>

## ⑦ 병산서원 (2019. 10. 06.)

기해년 9월 8일 후학 안동시장 권영세는

선사 영의정 문충공 서애류선생께 삼가 아뢰옵니다.  
 엽드려 생각하오니

---

5) 維歲次己亥八月己亥朔十八日丙辰 後學 達城郡守 金文渙 敢昭告于 贈右議政文敬公寒暄堂金先生  
 贈領議政文穆公寒岡鄭先生 恭惟先生 首於五賢 就正有道 師事佔翁 敬受小學 孜孜發明 唱導東國 敬義  
 真傳 守約不煩 精思力踐 人亡道遠 教之無方 躬行實踐 後學難忘 今以世界 文化遺產 登載宣布 舉國歡  
 聲 觀客成市 本院益鮮 尼山秀麗 洛水沄沄 良辰茲擇 後學集雲 選任執事 序立敬虔 敢告厥由 焚香酌獻  
 伏惟尊靈 庶幾歆饗



하늘이 내리신 선생께서는  
 학문은 태산북두를 이루셨습니다.  
 업을 넓히고 덕을 높였습니다.  
 명성이 세상에 떨쳤습니다.  
 사십여 년 간 조정에 계시면서  
 임금 도와 치적 올리게 부지런히 힘 쓰셨습니다.  
 왜적이 침입하여  
 칠 년 전쟁 때  
 힘 다해 국가위난 평정하시어  
 구국안민 하셨습니다.  
 나라를 다시 일으켰으니  
 공적이 찬란하게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선생께서 나라일 걱정하시어  
 선비 양성하시던 이곳 서원이  
 제 사십삼 차  
 유적협의회에서  
 병산서원 등  
 아홉 개 서원이  
 세계 유산으로  
 결정 등재되었습니다.  
 국내외의 귀빈이  
 방문하여 찬사하옵니다.  
 백의민족의 경사이옵니다.  
 세계의 제전으로  
 이 좋은 날 받아서  
 그 사유를 삼가 고하옵니다.  
 많은 선비 추창하옵고  
 제례는 참으로 질서 정연합니다  
 삼가 진설하여 밝게 올리오니  
 정결한 제물과 향기로운 술 아래  
 엎드려 바라옵건대  
 혼령께서는 훨훨 오르시고 내리옵소서.<sup>6)</sup>

6) 維歲次己亥九月甲戌朔初八日丙子(2019.10.6.)後學 安東市長 權寧世 敢昭告于 先師領議政文忠公  
 西厓柳先生 伏以 天降先生 學成泰斗 廣業崇德 名振寰海 卅年帷幄 克勵贊襄 倭敵侵入 七年風塵 盡力  
 靖難 救國安民 再造山河 功輝竹帛 先生憂國 養士此處 第四三次 遺蹟協會 屏山書院 等九個所 世界遺  
 產 決定登載 內外貴賓 訪問讚辭 白衣民慶 世界祭典 茲涓吉辰 謹告厥由 多士趨踰 秩秩籩豆 式陳明薦  
 牲潔醴香 伏惟尊靈 洋洋陟降

## ⑧ 무성서원 (2019. 10. 11.)

단군기원 4252년 9월 13일 무성서원장 이치백은  
문창후 경주 최선생께 감히 고하나이다.

본 무성서원이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소수서원 문성공 순흥 안선생

남계서원 문헌공 하동 정선생

옥산서원 문원공 여주 이선생

도산서원 문순공 진보 이선생

필암서원 문정공 울산 김선생

도동서원 문경공 서흥 김선생

병산서원 문충공 풍산 류선생

돈암서원 문원공 광산 김선생

이렇게 여덟 분을 모신 서원을

동시에 등록함에

이배용 박사가

자연인으로서

소통하고 화합하여

평소의 생각으로

아홉 서원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공손하게 생각하옵건대 아홉 선생께옵서는

우리 유학을 진작시키시고

인성을 교화시키셨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보존하여

만년토록 무궁하게

전승하고 계승할 것입니다

공손하게 추모의 마음을 펴오며

삼가 술과 과일을

올리고 경건하게 고하오며

삼가 고하나이다”

---

7) 維檀君紀元四千二百五十二年歲次己亥九月己巳朔十三日辛巳 武城書院長李治白 敢昭告于 文昌候  
慶州崔先生 吉月今辰 本武城院 世界文化 遺産登載 紹修書院文成公順興安先生 濫溪書院文獻公河東鄭  
先生 玉山書院文元公驪州李先生 陶山書院文純公眞寶李先生 筆巖書院文正公蔚山金先生 道東書院文  
敬公瑞興金先生 屏山書院文忠公豐山柳先生 遜巖書院文元公光山金先生 八賢妥靈 同時登錄 李培鎔博  
士 自然人間 疏通和合 平素思想 九院選定 積極推進 恭惟九賢 振作儒道 教化人性 世界人類 共有保存  
萬年無窮 傳承繼承 恭伸追慕 謹以酒果 用伸虔告 謹告

### ⑨ 돈암서원 (2019. 09. 17.)

공기 2570년 기해 8월 19일 돈암서원 원장 김건중은 삼가  
문원공 사계 김선생께 고하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몸소 행하심이 순수하고 정숙하여

성대하게 덕행을 이루셨으며

전현(前賢)을 이으시고

후학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에 좋은 날을 맞아

돈암서원이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기념 고유를 봉행함에

향 사르고 엎으려 절하옵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여

도의를 밝게 드러내고

서로 화합하며 상생하겠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저희들의 정성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남모르는 도움을 은혜롭게 베푸시옵소서

이에 감히 경건하게 고하오며

삼가 고하나이다<sup>8)</sup>

---

8) 維 孔紀二千五百七十年歲次己亥八月己亥朔十九日丁巳 遼巖書院 院長 金建中 敢昭告于 文元公 沙溪金先生 伏以 躬行純淑 蔚然成德 紹述前脩 啓迪來學 茲值良辰 遼巖書院 世界文化 遺産登載 記念告由 焚香跪拜 傳統文化 保存繼承 道義闡明 協和相生 伏惟尊靈 嘉納其誠 惠施蔭助 茲敢虔告 謹告



등재기념 합동 고유



소수서원 등재기념행사(제막식)



병산서원 등재기념행사(고유)



필암서원 등재기념행사(제막식)



도산서원 등재기념행사(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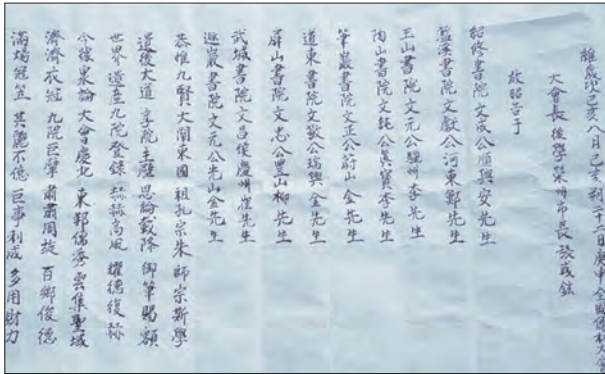




남계서원 등재기념행사(교유)



도동서원 등재기념행사(제막식)



소수서원 교유문



도산서원 등재기념행사(교유)



필암서원 등재기념행사(교유)



병산서원 등재기념행사(교유)



무성서원 등재기념행사(제막식)



무성서원 등재기념행사(교유)





무성서원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 8

---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가치

01. 개요

02. 탁월한 보편적 가치

# 8 「한국의 서원」

## 세계유산 가치



### 01. 개요

#### 1) 일반 정보

한국의 서원(書院)은 조선(1392~1910) 시대에 성리학의 이념에 바탕을 둔 사림(士林) 세력이 중심이 되어 건립된 사립 고등교육의 중추적인 기능을 한 교육유산이다. 조선 왕조는 불교 국가인 고려(918~1392)와 달리 성리학에 근거한 문치주의 국가였다.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림들에 의해 설립된 서원은 조선시대의 사림문화가 일구어낸 꽃이다. 서원에는 동아시아 유교 문화의 핵심과 조선 사림 문화의 정수가 담겨 있다.

서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경상도 순흥에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효시로 삼는다. 백운동서원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노력으로 1550년(명종 5) 조정(朝廷)으로부터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사액을 받음으로서, 한국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후 서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건립되어 조선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 신청을 하는 서원들은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이다.

이 서원들은 서원 건립 운동의 초창기에 해당되는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간 건립되었다. 이 서원들의 건립 시기는 조선 중기에 해당하며, 퇴계 이황을 포함하여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기여한 학자들이 성장하고 배출되던 시기였다. 또한 흥선대원군이 1871년 전국의 서원과 사우 중에서 47개소(서원 27, 사우 20)만 남기고 훼철할 때 훼철되지 않은 서원들일 뿐 아니라, 한국 서원의 기능과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유산적 가치가 뛰어나며, 지금도 잘 보호·관리되고 있다.

서원은 강학을 통해 후학을 양성하고, 제향을 통해 지역의 선현을 배향하였으며, 사림의 정치·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 이들은 건축적으로 배치와 정형에서 구현됨으로써 서원의 기능과 건축 유형이 연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서원은 성리학 교육기관으로서 적합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교육기관으로서 사람들이 해석한 건축 요소들이 서원을 통해 구현되었다. 서원을 구성하는 주요 전각인 사우, 강당, 재사, 누각 등은 한국의 사람들이 성리학적 관념을 건축적으로 해석하여 완성한 결과물이다. 서원은 크게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의 공간으로 구분되며, 해당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각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 2) 개별 서원 설명

### (1) 소수서원



백운동서원도 (간송미술관 소장)

건립연도 : 1543년(중종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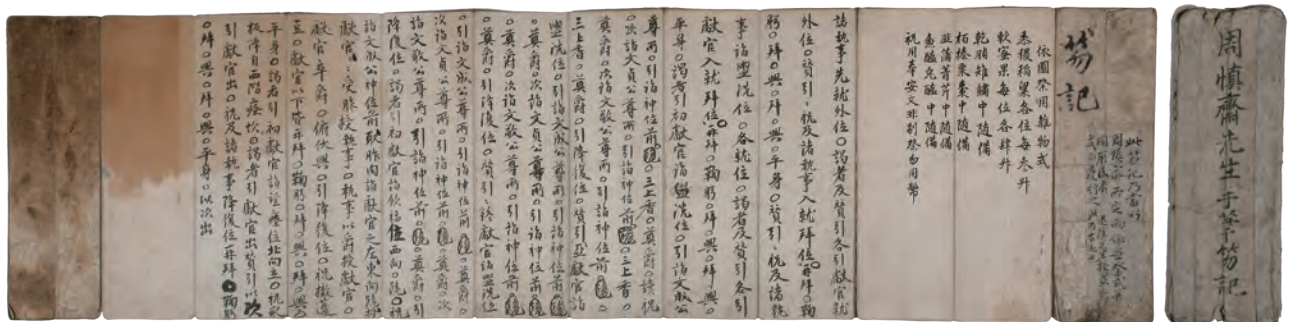
주향인물 :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

지정번호 : 사적 제55호(1963.01.21.)

소수서원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에 위치하며,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1543년(중종 38)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을 제향하는 사우(祠宇)와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설립한 데서 비롯되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노력으로 조정(朝廷)으로부터 1550년(명종 5) '소수(紹修)'라는 한국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주변 산수 경관의 수려함으로 한국 서원 입지의 전형을 보여준다.



소수서원 도동곡



소수서원 제향하기





소수서원 전경



소수서원 경림정



## (2) 남계서원

건립연도 : 1552년(명종 7)

주향인물 :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지정번호 : 사적 제499호(2009.05.26.)

남계서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에 위치하며,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1552년(명종 7)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창건되었다. 1566년(명종 21)에 '남계'로 사액되었으며, 임진왜란으로 전소된 후 현재의 자리에 중건되었다. '남계'는 서원 앞으로 흐르는 시내를 이르는 말이다. 남계서원은 위계적으로 건축물들이 배치하는 서원의 정형을 제시하여 한국 서원의 독창적 건축 배치 형식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남계서원 전경





남계서원 명성당



남계서원 원회

### (3) 옥산서원

건립연도 : 1572년(선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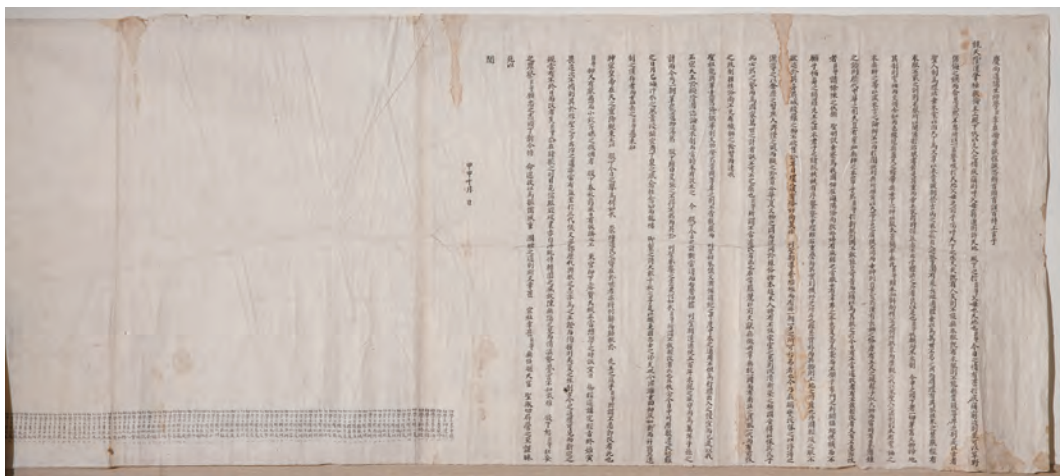
주향인물 :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지정번호 : 사적 제154호(1967.03.08.)

옥산서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에 위치하며,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도학자인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을 기리기 위해 1572년(선조 5)에 창건되었다. 1574년(선조 7)에 ‘옥산’이라는 사액을 받아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언적이 만년에 관직을 그만두고 거주한 서재(書齋)이자 별업(別業)이었던 독락당(獨樂堂) 인근에 있다. 이언적이 생전에 은거(隱居)한 곳에서 가깝게 위치하였기 때문에 부근에 문중마을이 형성되었다. 옥산서원은 기하학적인 구성을 하면서도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배치를 하고 있다.



옥산서원 강지



옥산서원 만인소





옥산서원 전경



옥산서원 체인묘



옥산서원 무변루



#### (4) 도산서원

건립연도 : 1574년(선조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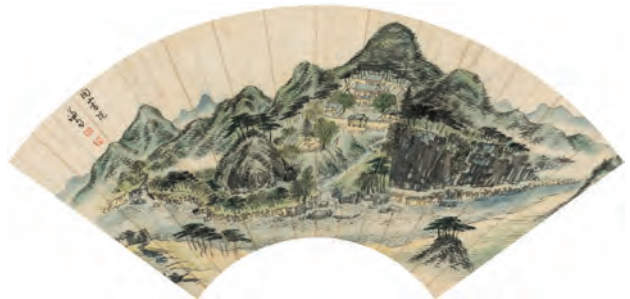
주향인물 :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지정번호 : 사적 제170호(1969.0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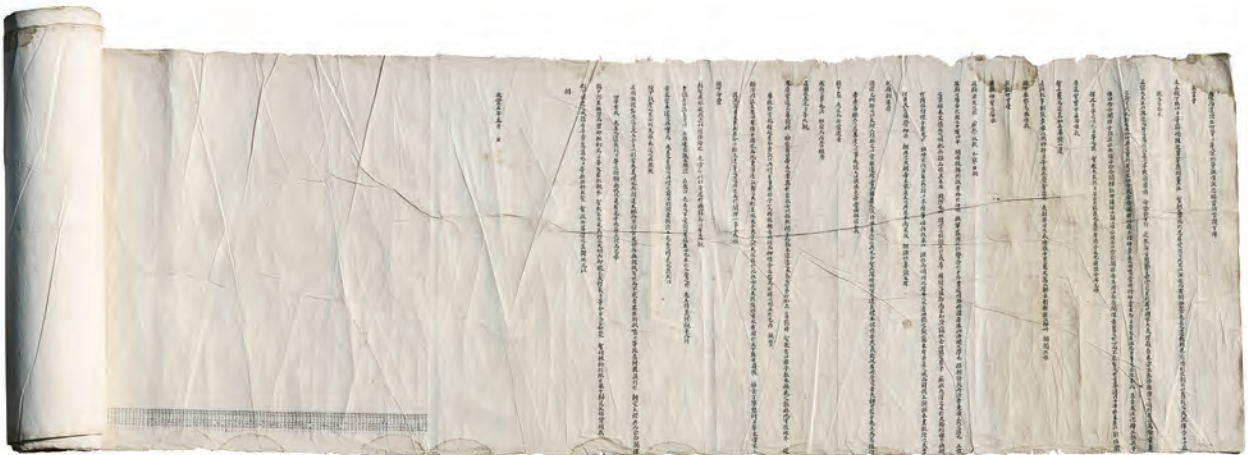
도산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에 위치하며,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대유학자이자 선비의 전형인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퇴계가 1561년 지은 도산서당의 뒤쪽에 1574년(선조 7) 창건되어 이듬해인 1575년 ‘도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성리학 강학의 전통과 퇴계학파의 형성, 서원 의례, 서원 주변의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 배치와 공간의 특성은 한국 서원을 대표한다.



퇴계선생문집



도산서원도(정선 그림, 간송미술관 소장)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





도산서원 전경



도산서원 상읍례



도산서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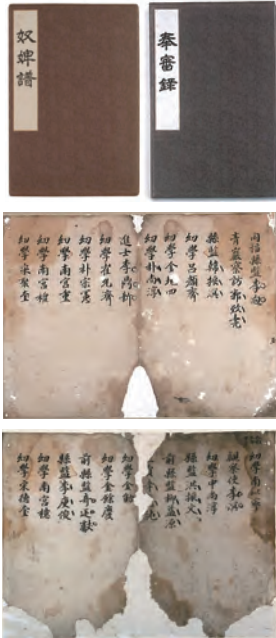


## (5) 필암서원

건립연도 : 1590년(선조 23)

주향인물 :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지정번호 : 사적 제242호(1975.04.23.)



필암서원 고문서 일괄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숭앙(崇仰)하기 위해 1590년(선조 23)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기산리에 창건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어 1624년에 복원되었으며, 1662년(현종 3) ‘필암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1672년에 현재의 위치인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장성군 필암서원으로 184로 이견되었으며,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호남 학맥의 본산으로서 으뜸가는 서원이며, 호남 사림 여론 형성의 진원지로서 큰 비중을 가진 서원이다. 강당이 강학공간의 앞에 위치하여 제향공간을 바라보는 배치를 하였다. 일반적인 서원 입지와 달리 평지에 위치한 서원 건축의 배치 형태를 보여준다.



필암서원 전경





사우 뒤편에서 바라본 필암서원 전경



필암서원 확연루



청절당에서 바라본 필암서원 내부



## (6) 도동서원

건립연도 : 1605년(선조 38)

주향인물 :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지정번호 : 사적 제488호(2007.10.10.)

도동서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에 위치하며,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도학과 덕행을 숭양하기 위해 쌍계서원으로 건립되었다. 1605년(선조 38) 지금 자리에 보로동서원(甫勞洞書院)으로 중건되었으며, 1607년에 ‘도동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도동(道東)’이란 ‘공자의 도(道)가 동쪽으로 왔다’는 의미를 갖는다. 서원의 전체적인 건축 구성과 배치형식은 규범적이고 전형적이며, 공간구성도 우수하다. 서원 앞으로 펼쳐진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룬 서원의 입지와 배치에서 한국 서원 공간 구성의 특징을 대표한다.



도동서원 전경





도동서원 묘제



도동서원 강학공간



도동서원 중정당 기단 및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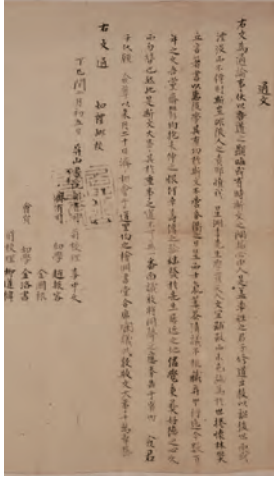


## (7) 병산서원

건립연도 : 1613년(광해군 5)

주향인물 :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지정번호 : 사적 제260호(1978.03.31.)



병산서원 통문

병산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에 위치하며,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병산서원의 모체는 풍산읍에 있던 풍악서당(豐岳書堂)이다. 1572년(선조 5)에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에 의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1614년(광해군 6) 존덕사(尊德祠)를 건립하여 서애의 위패를 모시면서 서원으로 바뀌었다. 서원은 1863년(철종 14)에 조정으로부터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만대루의 누마루는 자연과 건축이 하나가 되는 성리학적 자연관을 읽게 해주는 건축공간을 엮어낸다. 이곳에 올라서면 천인합일을 추구하는 한국 서원 건축 공간의 백미를 감득할 수 있다.



병산서원 만대루





병산서원 전경



## (8) 무성서원



칠광십현도 내 무성서원

건립연도 : 1615년(광해군 7)

주향인물 :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년~?)

지정번호 : 사적 제166호(1968.12.19.)

무성서원은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에 위치하며,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이곳에서 현령을 지낸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년~?)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고려시대에 창건한 태산사(泰山祠)에 기원을 두고 있다. 1615년(광해군 7) 사묘인 태산사와 정극인(丁克仁, 1401~1481)의 가숙(家塾)인 향학당(鄉學堂)을 결합하여 태산서원으로 창건되었으며, 1696년(숙종 22)에 ‘무성(武城)’으로 사액을 받았다. 마을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에 의해 흥학(興學)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었다.



무성서원 전경





무성서원 제향의례 (황토의식)



무성서원 명륜당



### (9) 돈암서원

건립연도 : 1634년(인조 12)

주향인물 :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지정번호 : 사적 제383호(1993.10.18.)

돈암서원은 충청남도 연산면 임3길 26-14에 위치하며,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1634년(인조 12)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을 기리기 위해 창건되었으며, 1660년(현종 1)에 사액을 받았다. 연산면 하임리 숲말에 창건되었다가, 1881년 현재의 위치로 이관하였다. 조선시대 예학(禮學) 논의의 산실이었으며, 소장하는 문집과 예서(禮書) 책판(冊板)의 간행을 통해 호서지역 사람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원이 지방문화센터 역할을 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서원의 응도당은 김장생의 예학에 근거하여 지은 건물로 그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되었다.



가례집람의 하옥전도



돈암서원 응도당





돈암서원 전경



돈암서원 장판각



### 3) 비교분석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유사 교육 기관과 차별되는 속성을 띠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유학 교육시설의 보편성 속에서 조선이라는 특정 문화의 증거가 된다.

- 유교문화권 국가들은 모두 유학교육의 전통과 관련된 유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한국(서원), 중국(서원), 일본(사숙)에 존재하였다.
- 사립학교들의 교육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중국은 관료시험 등과 같은 정부 교육 정책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교과목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화되었다. 한국은 지방의 사림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성리학을 학습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커리큘럼 등도 개별 학교마다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며 기술학, 의학, 난학(蘭學) 등 유학 이외의 학문들도 학습하였다.
- 학교의 제향 전통은 제향인물의 삶과 철학을 제향 참여자들이 실천하기 위한 의례 행위이다. 교육기관에서 강학과 결합된 제향 전통은 중국과 한국에서 나타난다. 중국에는 공자 등 다수의 인물을 제향하였다. 반면 한국에는 지역과 연계된 선현을 제향하면서 한국적 제향 전통을 구축하였다.
- 사립학교들은 학문이라는 토대를 통해 학문집단이 형성되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다. 집단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사립학교가 집단적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던 반면 한국은 서원이 유소(儒疏), 만인소(萬人疏) 등 사림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 중국과 일본은 운영기간, 사회적 특징, 주변 환경, 건립 배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학의 배치나 건축물의 정형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서원은 사립학교 중에서도 정형화된 건축 요소와 배치 형식이 존재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는 한국의 서원이 사림이라는 집단 지성 모색의 결과로서 구현된 건축물이기 때문이었다.

## 02. 탁월한 보편적 가치

### 1) 등재 기준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을 할 때는 「한국의 서원」이 등재기준 (iii), (iv)를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이코모스의 건의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기준 (iii)을 충족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한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등재기준 (iii)의 내용은 이 등재기념 백서의 335쪽에 있다. 등재신청서에 기재된 등재기준 (iii), (iv)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등재기준 (iii)

살아있거나 또는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 혹은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 정착에서 교육과 사회적 활동의 탁월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었으며,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독특한 역사 전통과 성리학의 가치를 나타낸다.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통해 성리학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건축물을 창조하였으며, 전국에 걸쳐 성리학이 전파되는데 기여하였다.

#### - 등재기준 (iv)

인류 역사의 주요 단계(들)를 보여주는 유형의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의 뛰어난 사례이어야 한다.

「한국의 서원」은 한국 서원 건축 유형의 탁월한 사례를 보여준다. 서원 설립 운동의 초기단계에서 건축 유형을 정형화하는 노력들은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이후 건립되는 서원에 영향을 끼쳤다. 이 유산은 강학, 제향, 교류를 수행하기 위한 강당, 사우, 누각 등의 건축물들을 적절하게 구성하였다. 건축 배치는 지형, 경관, 기단, 담장과 문을 통해 구현하였다.

## - 설명

「한국의 서원」은 향촌 지식인들에 의해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었다. 이 유산은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의 9개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이 유산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에 기초가 되었던 성리학 교육을 증진한 교육기관의 탁월한 증거이다. 서원에서 향촌 지식인들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유형적 구조물들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성리학 경전과 연구를 수행하였고, 우주에 대해 이해하고 이상적 인간형인 ‘군자(君子)’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향촌사회의 선현들을 제향하였고, 제향인물을 통해 강한 학문적 계보를 형성하였다. 또한,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기초로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활동들을 통해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전파되는 데 기여하였다.

신청유산은 성리학 교육기관 중 지역화를 달성한 하나의 뛰어난 사례이다. 서원은 건립 당시 입지 선택에 있어서 이상적 성리학자들을 배출하기 위하여 제향인물과 주변 환경을 밀접하게 연관시켰다. 제향, 강학, 교류의 각 영역들은 서원 건축 유형을 창조하였으며, 자연 지형과 경관을 활용하여 배치되었다. 서원 설립 운동의 초기단계인 1세기 간 완성된 정형화는 이후 서원들의 전형이 되었으며 이는 건축 배치를 통해 구현되었다. 이 유산은 강당, 사우, 누마루 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강학, 제향, 그리고 교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되었다. 각 건축물의 위계는 지형, 경관, 기단, 담장, 문 등의 사용을 통해 구현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던 성리학이 한국에 정착된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 「한국의 서원」은 한국에서 서원 건축의 정형화에 의해 완성된 독특한 문화전통을 나타낸다.
- 「한국의 서원」은 한국 서원의 특성을 발전시켰으며, 서원이 건축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전하였는지 각각의 과정을 통해 보여준다.

## 2) 완전성 및 진정성

### - 완전성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 모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며, 개별적으로 그 자체로 완전성을 충족한다.

이 유산은 조선시대 서원의 필수 공간 요소인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을 구성하는 각 건축물뿐만 아니라 원래의 지형, 주변환경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제향공간을 구성하는 사우와 사우 내부의 위패, 전사청 등이 온전하게 존재하며, 강학공간을 구성하는 강당과 재사, 도서관, 각 건물의 편액 등이 온전하다. 누각 등 회합 및 유식공간의 구성요소 역시 온전하며, 주변의 경관, 지형 등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서원 주변의 경관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할 중요한 부분은 모두 유산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서원」은 도시화, 현대화된 지역과 떨어진 곳에 입지하였고, 입지와 소유관계, 법적보호체계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위해가 거의 없다. 다양한 법적 보호체계는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손상으로부터 이 유산을 보호한다. 게다가, 일상 모니터링이 현장 근무자에 의해 시행되며, 3년마다 정기 모니터링이 수행 중에 있다.

### - 진정성

신청유산은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물질, 전통적 기법과 관리체계, 입지와 주변환경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유산은 입지와 주변 경관을 원래의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 유산은 경관을 포함하는 당시의 입지 환경,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의 건축 배치 등을 원래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역 장인들은 전통적인 기법으로 영건하였던 원형을 따라, 20세기 중반이래로 공인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보수를 진행해왔다.

형태와 디자인 측면에서 「한국의 서원」은 서원 역사의 건축적 구현을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은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의 유기적 결합을 하나의 전형적인 형태로 완성하였고, 이를 지금까지 변형 없이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목조 건축기법과 좌식형 생활 관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건축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9개의 요소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은 국가 혹은 민간의 관리를 받고 있다. 문화재



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보호체계 뿐만 아니라, 각 서원에 있는 위원회에서는 서원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기록유산, 무형유산에 속하는 것들로 잘 보존·전승하고 있으며 이는 유산의 진정성에 기여한다.

### 3) 관리와 보호요건

「한국의 서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반은 문화재보호법이다. 국가 사적으로서 이 유산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한국의 서원」의 경계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포함한 법적 조치들을 포함한다.

「한국의 서원」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추가적으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신청유산을 위협하는 개발 및 환경압력 등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요인은 경미하다.

「한국의 서원」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해당 서원별로 유산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하였다. 문화재청은 자연재해, 화재,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와 교육, 그리고 모니터링을 수행 중에 있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는 「한국의 서원」의 보존상태의 정기 지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조치들을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수행중에 있다. 비록 현재 관광압력은 높지 않더라도, 관련 종사자들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제기될 부정적인 관광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凝道堂

往古來今孰無此心

參為三才曰惟心爾

是身之微太倉梁米

心為形體  
獸乃禽



# 9

## 「한국의 서원」 현재와 미래

01. 등재 결정문
02.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03.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기능과 역할

# 9 「한국의 서원」 현재와 미래



## 01. 등재 결정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한국의 서원」 등재 결정문에는 한국 서원이 가진 가치와 세계유산목록 등재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등재결정문 : 43 COM 8B.21

서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 (대한민국)

세계유산위원회는,

1. 문서 WHC/19/43.COM/8B 와 WHC/19/43.COM/INF.8B1 를 검토하여,
2. 대한민국의 서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을 등재기준(iii)에 근거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한다.
3. 다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술문을 채택한다.

### 종합요약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16세기 중반 ~ 17세기 중반)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는 한국의 성리학과 연관된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본 유산은 한국의 중부와 남부 여러 지역에 걸쳐 위치한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의 9개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유산은 중국에서 전래되어 한국의 모든 측면에 근간을 이룬 성리학을 널리 보급한 성리학 교육기관의 번영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서원의 향촌 지식인들은 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체계와 유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서원의 핵심기능인 강학과 제향, 교류는 서원의 배치에도 잘 드러난다. 지역의 향촌 지식인 계층과 사람들이 이끈 서원은, 사람의 중심지로서 발전되고 부흥했다.

서원의 위치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현과의 연관성이다. 두 번째 요소는 경관으로, 서원은 자연에 대한 감상과 심신수양의 일환으로 산과 물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서원 내의 누각은 이러한 주변 경관과의 연결을 용이하게 했다.

학자들은 성리학 고전과 문학작품을 연구했으며, 우주를 이해하고 이상적인 인간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고인이 된 동시대 성리학자들을 숭배하며 그들이 개척한 강력한 학문적 계보를 형성했다. 나아가 지역 향촌 지식인들은 서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정치적 활동을 통해 성리학 원칙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기준 (iii) : 한국의 서원은 교육기관으로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며,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형태로 그 중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원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 환경에 맞춰 변화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그 기능과 배치, 건축학적 측면에서의 변혁 및 지역화 과정의 탁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 완전성

한국의 서원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모든 속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도로, 수목과 시야 내 경관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를 의미한다. 해당 유산의 이들 속성은 전반적으로 그 상태가 우수하다.

개발, 총해, 화재, 지진 및 방문객 등 본 유산에 대한 주요 압력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진정성

한국의 서원은 진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온전하다. 그 활용과 기능, 전통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크게 축소된 면이 있다. 비록 두 곳의 서원이 최초의 위치에서 옮겨진 바 있지만 서원의 위치와 주변 환경은 전반적으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무형유산과 서원의 정신적 측면 또한 전반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 보호관리 요건

유산의 보호는 1차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며, 그 밖에 문화재청이 마련한 여타 유산 관련법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령과 장관령도 이를 뒷받침한다.

9개 서원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이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문화재 수리의 시행과 제향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유산의 체계적 보존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산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들 조례 또한 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한 단체의 설립과 운영의 기초를 제공한다.

서원관리단과 서원운영위원회, 중앙 및 각 단위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서원이 해당 유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서원관리단은 유산의 통합관리를 책임진다. 정부와 개별 서원이 각 서원의 상시 관리를 담당하며 서원운영위원회가 그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문화재청은 각종 지원을 담당하고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서원관리단을 지원한다. 보존과 관련된 전문지식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제공한다.

개별 서원에는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종합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핵심보존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라인도 존재한다. 통합관리계획은 현재 마련 중이다.

위험대비 대책 또한 일정 부분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과 시스템 또한 개발 중이다. 방문객 관리 또한 만족스러운 상태이나 9개 서원을 단일 유산으로 보다 잘 통합해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당사국이 다음 사항에 대해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 a) 서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계획 작성을 완료할 것
- b) 9개 서원을 단일유산으로 통합하기 위한 해설을 개발할 것

Decision : 43 COM 8B.21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Republic of Korea)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1. Having examined Documents WHC/19/43.COM/8B and WHC/19/43.COM/INF.8B1,
2. Inscribes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Republic of Korea, on the World Heritage List on the basis of criterion (iii);
3. Adopts the following 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Brief synthesis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s a serial property which comprises nine seowon representing a type of Neo-Confucian academy of the Joseon Dynasty (from the mid-16th to mid-17th centuries CE). It is an exceptional testimony to cultural traditions associated with Neo-Confucianism in Korea.

The components are Sosu-seowon, Namgye-seowon, Oksan-seowon, Dosan-seowon, Piram-seowon, Dodong-seowon, Byeongsan-seowon, Museong-seowon and Donam-seowon, and these are located across the central and southern p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perty exhibits an outstanding testimony to thriving Neo-Confucian academies that promoted learning of Neo-Confucianism, which was introduced from China and became fundamental to every aspect of Korea.

The local literati at seowon created educational system and tangible structures conducive to fully commit themselves to learning. Learning, veneration and interaction were the essential functions of the seowon which are closely reflected in their design. The seowon were led by sarim or the class of local intellectuals. The seowon developed and flourished as centres for the interests of the sarim.

The primary factor in siting the seowon was the association with venerated scholars. The second factor was the landscape, and seowon are located near mountains and water as part of appreciating nature and cultivating the mind and body. Pavilion style buildings in the seowon facilitated connections to the landscape.

The scholars studied Neo-Confucian classics and literary works and endeavoured in understanding the universe and becoming ideal person. They venerated late contemporary Neo-Confucian figures, and formed strong academic lineage spearheaded by venerated scholars. Furthermore, local literati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disseminating principles of Neo-Confucianism through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based on the property.

Criterion (iii):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re exceptional testimony to cultural traditions associated with Neo-Confucianism in Korea, in the form of educational and social practices, many of which continue. The seowon illustrate an historical process in which Neo-Confucianism from China was tailored to Korean local conditions resulting in academies which are exceptional testimony of this transformative and localising process in terms of function, planning and architecture.

#### Integrity

The property retains all attributes that reflect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property. These are the buildings and constructions constituting the seowon, ancillary buildings, entrance gate, dismounting stele, commemorative stele, immediate environments including hills, streams, roads, plantings and visual catchments. The attributes of the property are generally in excellent condition.

The major pressures on the property, development, insect damage, fire, earthquakes and visitors, are being adequately managed. However, they should continue to be monitored.

#### Authenticity

The property meets the requirements of authenticity. The form and design, and materials and substance are basically intact. The use and function of the seowon, and their traditions, are largely as they were through history, although noting that the educational role has been largely diminished. The location and setting of the seowon have been generally retained, although it is noted that two components have been relocated in the historical past. The intangible heritage, and the spirit and feeling of the seowon have been generally retained.

#### Management and protection requirements

The primary protection of the property is provided by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ith additional protection offered by other heritage laws enac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These other laws are the Act on Cultural Heritage Maintenance, Etc. and the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laws are supported by Presidential decrees and ministerial orders.

The nine components are all state-designated heritage.

These legal instruments play a major role in ensuring the systematic conservation of the property in terms of carrying out repairs and safeguarding venerations.



The relevant provinces have also prepared heritage protection ordinances based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se ordinances also offer a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organisatio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property.

The management system comprises the Seowon Foundation, seowon steering committees, and central and local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requires the property to be managed b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r seowon community. The Seowon Foundation is in charge of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property. The components are managed on a daily basis by government and seowon personnel, with the seowon steering committee responsible for operations and management.

The central governmen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provides support and supervision. Local governments also provide support to the Foundation. Conservation expertise is available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Each seowon has a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which is equivalent to a management plan. In addition, there are a range of ke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anuals and guidelines. An integrated management document is being developed.

Some risk preparedness exists, and additional planning and systems are being developed.

Current visitor management arrangements are satisfactory although a better integrated presentation of the nine components as a single property is needed.

4.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ive consideration to the following:

- a) Completing the development of an overarching management document for the seowon Academies,
- b) Further developing an integrated presentation of the nine components as a single property.

## 02.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 1) 법률에 의한 보존관리 현황

연속유산(9개 서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문화재보호법(1962)’이 모법이다. 이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04)’, 서원이 속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호조례’, ‘산림보호법(200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5)’, 문화재청이 수립한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법률들에 의거 개발압력에 대처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문화재구역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특히 문화재구역 내에서의 어떠한 현상변경 행위도 계획단계부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 시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서원의 중심영역은 문화재구역(유산구역)과 보호구역(완충구역)으로 설정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재구역 외곽에서 반경 500m에 이르는 영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근거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서 건축 및 개발 행위에 기준을 마련하여 서원의 역사적 경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 2) 문화재 종합정비 계획 수립

「한국의 서원」은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개별 종합정비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있다. 개별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주체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해당 문화재의 관리단체가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된 사적에 대해서는 세계유산 정기보고 주기에 맞추어 6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9개 서원은 현재 서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문화재 전문가들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문화재청 담당 부서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보고서(종합정비계획)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서원들은 이미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단계별 보수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재청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 9개 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현황

영주 소수서원(2014), 함양 남계서원(2015), 경주 옥산서원(2014), 안동 도산서원(2013), 장성 필암서원(2015), 달성 도동서원(2013년), 안동 병산서원(2013), 정읍 무성서원(2015), 논산 돈암서원(2017)

현재 9개 서원 모두가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은 재수립 시기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새롭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서원관리단에서는 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과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 3) 문화재 보존관리 계획 수립

「한국의 서원」은 각 서원별 보존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각 서원별 보수정비, 서원의 경관관리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2011)’과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2012)’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은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서원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령, 보존·정비 절차, 서원의 건축물 관리, 활용 원칙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은 9개 서원에 대한 문화재의 품격을 향상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서원의 품격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 지침’을 제정(2018.3.15. 훈령 제452호)하였고, 이에 따라 서원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더욱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4) 관리 주체와 역할

「한국의 서원」에 대한 관리체계는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서원 조직,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서원의 관리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 ① 정부기관(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의 서원」은 현재 6개 광역자치단체와 8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이에 따라 연속유산(9개 서원)의 보존·관리는 중앙정부(문화재청)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행정 관리 주체가 된다. 문화재청은 국가 차원의 관리 주체로서 서원을 구성하는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지닌다. 또한, 국가 차원의 문화재 정책 및 관리의 주체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며,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보존·관리 기구를 감독하는 등의 지원 및 감독의 관계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지방자치단체는 6개(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 관리,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그리고 지역 안전 및 소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광역자치단체는 광역 단위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의 주체로서, 보조금의 지원 주체이며 통합기구의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감사하는 등의 지원 및 감독의 관계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지방자치단체는 8개(논산시, 정읍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달성군, 장성군, 함양군)가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원을 구성하는 개별 서원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직접적인 주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한국의 서원」 통합 관리기구인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과 직·간접적인 지원(예산 등) 및 감독기관으로서의 관계를 가진다.

### ② 각 서원의 운영조직

서원 운영위원회는 각 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림들로 조직된 단체이다. 각 서원의 운영위원회는 주로 전반적인 서원의 운영과 일상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원에 상주하지는 않고 필요시 서원을 오가며 서원을 관리하고 있다. 각 서원의 운영위원회는 주로 봄·가을 지내는 제향, 예결산, 임원선임,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

서원의 일상관리는 크게 정부에 의한 관리와 민간에 의한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서

원의 관리는 일과시간과 상주 및 상시로 구분된다. 일과시간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주로 서원이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거나 일부 고용된 사람들로 출·퇴근을 한다. 그리고 서원 고직사에 상주하는 사람은 일상생활과 서원관리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주로 서원에서 고용된 사람들이다. 또한 각 서원의 운영위원회는 서원을 상시로 오가며 서원을 관리하고 있다.

### ③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목록 등재추진을 위해 문화재청과 서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협력을 위한 단체 간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9개 서원의 통합관리와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준비 등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실무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을 설립하여, 연속유산으로의 보존·관리(기관 간 협력 및 조정, 조사 및 연구, 학술지원, 홍보, 모니터링 활동 등)를 해나가고 있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와 9개 서원 운영위원회가 함께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다. 필요한 재정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서원운영 주체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전문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서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03.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기능과 역할

#### 1) 연속유산 보존관리의 기본 방향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s)’를 수립하여 연속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 전략 목표는 주제가 모두 C로 시작하기 때문에 “5Cs”라고 부른다.

- 세계유산 목록에 대한 신뢰(Credibility) 강화

- ： 행정과 주민, 행정과 서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유산의 보존관리에 참여 유도

-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Conservation) 보장

- ： 합리적인 시스템(법, 제도)을 통한 보존여건 보장

- 당사국의 효과적인 역량구축(Capacity-building) 촉진

- ： 관계자들의 보존관리 역량 강화

- 소통(Communication) 강화

- ：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제고, 참여와 지지 향상

-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있어 공동체(Community)의 역할 증대

- ：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 증진을 통한 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환경 조성

### ※ 세계유산목록 등재추진 시 유산 관리기구에 관한 내용(요약)

①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2018.01.)

: 등재 이후 서원관리단 업무 범위 확대(통합관리 및 홍보) 제시

② 현지실사(2018.09.)

: 서원통합관리단 역할 및 기능 강화

③ 1차 ICOMOS 질의에 대한 답변(2018.11.)

: 서원관리단은 9개 서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실행기구로서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서원운영자, 전문가와 협업하여 유기적으로 운영. 문화재청은 서원 통합관리기구 설치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조금 지원 예정

④ 2차 ICOMOS 질의에 대한 답변(2019.01.)

: 등재 이후 단계별 통합관리계획 이행

- 1단계 : 통합관리 기능 확대를 위한 사전준비
- 2단계 : 제도(조례), 예산 및 통합관리 계획 마련
- 3단계 : 통합관리 시행

⑤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권고(2019.07.06.)

: 연속유산(9개 서원)을 아우르는 통합관리계획 및 통합해설 마련할 것을 권고

## 2)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조직 구성

### (1) 세계유산목록 등재추진을 위한 기구 변천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연속유산의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구 개편과 예산지원에 따른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2019년 12월 19일(목)에 개최된 제5회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기구 개편을 위해 재단 정관, 관련 규정 및 세계유산 관리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도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재단 정관 개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 관리기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에 관한 지원조례 개정 및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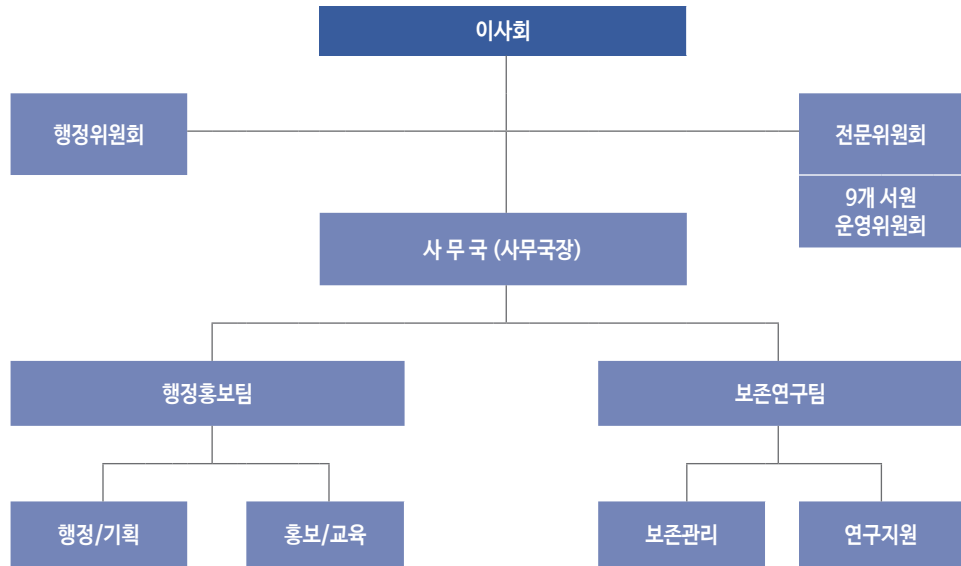


2020. 06. ~ (예정) :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출범

## (2) 조직

9장. 「한국의 서원」 현재와 미래 / 351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조직도(안)



팀별 주요업무(안)

팀	직	업무 분장 내용
사무국장		- 센터 업무 총괄
행정 홍보팀	행 정 (기획)	- 기획 및 행정지원 업무 총괄 - 재단 정관 및 규정·규칙 정비 - 이사회, 분과위원회 등 관리 - 시·군 실무협의회 및 행정업무 협의 주관 - 사무국 문서 및 비품 관리 - 지자체 협조업무 지원 - 센터 예산·회계 업무 처리 등
	홍 보 (교육)	- 국내·외 통합관리 및 통합 활용 -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 - 홍보사업 및 디지털아카이빙 업무 추진 - 홈페이지 관리 및 기타 연구회의 업무지원 - 국제학술행사 및 국제회의의 업무 지원 - 전문가회의 및 집필진 워크숍 업무 지원 및 관리
보 존 연구팀	보 존 (관리)	- 세계유산 정기보고 자료 데이터 구축 등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통합모니터링 실시(분기별) 및 요원관리(서원관리자) - 9개 서원 관리(보수)이력 통합관리(DB) - 통합 종합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등
	연 구 (개발)	- 유산 보호 총괄 - 참여기관 발전계획 통합 관리 및 조정 - 보호 및 관리계획 수립 지원 - OUV 심화연구, 서원 학술조사 및 연구 등 - 9개 서원 아카이브 구축 등

### 3)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역할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한국의 서원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 권고 1 : 연속유산(9개 서원) 통합관리계획 수립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9개 서원에 대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현재 서원별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세계유산(연속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 원칙의 적용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향후 서원의 물리적 관광압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광압력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각 서원에서 적용 가능한 관광관리계획이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에 의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권고 2 : 연속유산(9개 서원) 통합홍보방안 마련

9개 서원에 대한 통합홍보는 세계유산목록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서원에 대한 개별 혹은 통합홍보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여 개선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연구소, 전시 및 박물관 등과 상호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별로 강점이 있는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더불어 기 등재된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와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 사업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 ②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서 준비

세계유산 정기보고 제도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상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 체약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하여 세계유산 협약 제29조에 따라 체약국에 부여된 의무사항이며, 매 6년을 주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를 거쳐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있다. 세계유산 정기보고를 위해서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를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에서 보관되도록 하며, 모니터링 성과는 매년 보고서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유산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될 사항은 통합보존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에서는 그간의 모니터링 자료 및 결과를 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정기보고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통합 모니터링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대비 안전점검(화재, 풍수해, 재난 예방) 활동과 문화재관리원을 배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보다 강화된 형태로 서원 내 전체 건축물과 시설물,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상시 및 정기 모니터링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에서는 각 서원의 특성에 부합되는 상시 및 정기 모니터링 지표개발, 모니터링 요원의 교육과 운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 ③ 「한국의 서원」 국내·외 통합관리 및 통합활용에 관한 사항

9개 서원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과 연속유산에 대한 국내·외 학술연구, 통합보존관리에 관한 우수사례 연구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유산목록으로서의 유산 소개, 통합해설을 위한 교육 실시, 서원 간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연속유산에 부합하는 해설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통합관리 및 통합해설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④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한국의 서원」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심화 연구와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학술논문 공모’와 ‘학술총서 발간’ 등의 연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세계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및 기관·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계층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넘어 외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⑤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서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해 서원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나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들의 역할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⑥ 세계유산 관련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는 「한국의 서원」에 대한 국내·외 교류협력, 학술활동, 홍보활동 등 국제기구 및 기관, 국외 전문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담당하는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재원은 중앙정부인 문화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보조금에 의한 조달이 필요하다.

#### ⑦ 그 밖에 문화재청장, 관할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는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개편한 기구이다. 센터는 9개 서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홍보·활용·교육연구 및 세계유산 가치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한 기능 등을 강화시켰다.



# 부록

---

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추진 주요 내용
2.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 이배용 이사장
3.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의 문화유산 가치 / 이상해 교수
4. 「한국의 서원」,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 / 이해준 교수

## 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추진 주요 내용

년 도	제 목	주요 내용
2010.10.	세계유산 등재추진 간담회(1차)	- 세계유산 등재 로드맵 및 사업계획 관련 워크숍
2010.11.	세계유산 등재추진 간담회(2차)	- 로드맵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관련 논의
2011.01.	세계유산 등재추진 간담회(3차)	- 문화재청장,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재관련 조언 및 지원
2011.02.	세계유산 등재추진 간담회(4차)	- 추진 로드맵과 주요사업 계획 협의
	서원 대표자 심포지엄 개최	- ‘서원가치 재발견을 위한’ 서원의 보존과 활용방안
2011.03.	세계유산 등재추진 간담회(5차)	-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협의
2011.04.	대통령 보고 (2011.04.08.)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
	주비위원회 발족식 (2011.04.14.)	- 한국의서원세계유산주비위원회 발족
2011.09.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 국가브랜드위원회 → 문화재청
2011.10.	서원 국제 학술회의 개최	- ‘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12.	제1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 ‘한국의 서원문화재 보존관리 현황과 미래’
2012.01.	잠정목록 등재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확정
2012.04.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재청, 14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발족	- 발족식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2012.05.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2.06.	제3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서원의 교육(강학)과 제향의례
2012.08.	등재신청서 및 보존관리계획서 작성	- 등재 신청서 국문/영문 보고서 작성
2012.11.	제4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서원 현판자료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3.02.	해외 유사유산 답사: 일본, 중국	- 한국의 서원과의 차별성 검토: 유교 문화권
2013.03.	제5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세계유산 등재대상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3.04.	제1차 국내(전국) 학술대회	- 한국 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2013.05.	제2차 국제 학술대회	- 전통사회 교육시설의 세계유산적 가치
2013.06.	해외 유사유산 답사: 모로코, 터키	- 한국의 서원과의 차별성 검토: 이슬람 문화권
2013.08.	한국의 서원 도면 제작	-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에 부합하는 도면 제작
2013.09.	한국의 서원 사진 제작	- 세계유산목록 등재와 관련한 대상 서원의 사진 제작
2013.10.	도동서원 학술대회	- 도동서원의 재조명 (주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2013.10.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협의회의 워크숍	- 등재신청 후 각 서원의 역할



년 도	제 목	주요 내용
2013.11.	서원 도록 3종 제작	- 현판 기문 / 고서 책판 / 제향의례 도록 제작
2014.0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협의회 워크숍	
2014.04.	서원총서 발간(2권)	
	제2차 국내학술대회	- 서원문화의 계승 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
2015.01.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및 부속자료 제출	
2015.08.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설립(8.5)	- 주무관청: 문화재청
	홈페이지 개설(국문/영문)	- <a href="http://www.seowonheritage.org">http://www.seowonheritage.org</a>
2015.09.	이코모스 현지실사	
2015.1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협의회 워크숍	
2016.01.	대상 서원 문화재 보호구역 수정	- 필수 구성 요소 및 주변 경관 포함
2016.04.	등재신청서 철회	
2016.08.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재추진 의결	- 재단 이사회
2016.10.	한국의 서원 문화재청 우선등재추진대상 선정	-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2016.11.	이코모스 자문실사 수행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협의회 워크숍	
2017.02.	해외 유사유산 답사: 중국, 일본	
2017.07	2018년도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 대상선정	-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2018.01.	등재신청서 제출	
2018.09.	이코모스 현지실사	
2018.10.	1차 보완자료 제출	파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2018.11.	이코모스 당사국 면담	파리 이코모스 본부
2018.12.	중간보고서 수령	
2019.02.	2차 보완자료 제출	
2019.05.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권고	
2019.07.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아제르바이잔, 바쿠)
2019.09.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인증서 전달식	한국의 집
2019.09.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 기념행사	영주 소수서원

## 2.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이배용<sup>9)</sup>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총회에서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유산 중 세계유산 14건, 인류무형문화유산 20건, 세계기록유산 16건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이번에 14번째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모두 9곳의 연속유산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대구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이다. 「한국의 서원」세계유산 등재추진은 필자가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마치고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가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구상하고 추진하여 9년 만에 관계자 모든 분들과 함께 이루어낸 참으로 감개무량한 역사적 쾌거였다.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된 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 2019. 7. 6.)

9) (현)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전) 이화여자대학교 13대 총장, 국가브랜드위원회 2대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16대 원장,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장 역임.

## -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현황

### ① 유형유산

세계유산목록 (등재년도)			
1	해인사 장경판전 (1995)	8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
2	종묘 (1995)	9	조선왕릉 (2009)
3	석굴암, 불국사 (1995)	10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마을 (2010)
4	창덕궁 (1997)	11	남한산성 (2014)
5	수원 화성 (1997)	12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
6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유적 (2000)	13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2018)
7	경주역사지구 (2000)	14	한국의 서원 (2019)

### ② 무형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1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1)	11	가곡 (2010)
2	판소리 (2003)	12	줄타기 (2011)
3	강릉단오제 (2005)	13	택견 (2011)
4	처용무 (2009)	14	한산모시짜기 (2011)
5	강강술래 (2009)	15	아리랑 (2012)
6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2009)	16	김장문화 (2013)
7	남사당놀이 (2009)	17	농악 (2014)
8	영산재 (2009)	18	줄다리기 (2015)
9	대목장 (2010)	19	제주해녀 (2016)
10	매사냥 (2010)	20	씨름 (2018.11월/남북공동)

### ③ 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			
1	훈민정음 (1997)	9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2011)
2	조선왕조실록 (1997)	10	난중일기 (2013)
3	불조각지심체요절하권 (2001)	11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3)
4	승정원일기 (2001)	12	한국의 유교책판 (2015)
5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	13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
6	조선왕조 의궤 (2007)	14	조선왕조 어보, 어책 (2017)
7	동의보감 (2009)	15	국채보상운동 (2017)
8	일성록 (2011)	16	조선통신사 (2017 한일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ESCO)는 유엔 산하기구로 교육, 과학, 문화 등의 지적활동분야에서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전문기구이다.

세계유산 제도가 시행된 배경은 무엇보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오랜 역사를 통해 창조되어 온 유산들이 훼손되거나 경시되어가는 것에 대한 보존,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욱이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으로 인해 유산이 파괴되거나 크게 훼손되면서 유산의 보호와 보존은 인류가 공통으로 논의하며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유산 제도가 실시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집트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수재를 막기 위해 아스완 하이 댐(Aswan High Dam) 건설을 계획하면서였다. 즉 1959년 이집트 정부는 나일강 나세르 호수에 아스완 하이 댐을 건설해서 고질적인 강의 범람을 막고 부족한 에너지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댐을 건설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댐이 완성되면 누비아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유적지 아부심벨 신전이 수몰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유네스코는 아부심벨 신전을 수몰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세계적인 유적 구제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 결과, 1964년부터 1972년까지 8년 동안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3,6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자금이 원조형태로 모금되었다. 이렇게 모아진 자금은 신전을 원래 위치보다 약 70m 높은 곳으로 이전하는데 사용되었다.

유네스코 헌장에 보면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마음속이다”, 바로 마음이 만들어내고 창조한 것이 문화이고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것이 전통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로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에도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하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유산이 오랜 시간의 흐름과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 등으로 훼손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인류의 문화 및 자연 유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OUV)’가 있는 유산에 대해 세계가 공동으로 함께 평가하고 확인하여 이를 함께 보호하고자 “세계유산협약”을 1972년에 채택하였으며 협약의 이행을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 OUV :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



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 가치를 의미한다.”(운영지침 제49조)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OUV를 지닌 유산으로서 그 특성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 및 자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다.

세계유산의 OUV 기준(Criteria)은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해야 함
- (ii) 오랜 시간 동안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함
- (iii)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 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함
- (iv) 인류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탁월한 사례이어야 함
- (v) 문화 또는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충격을 받아 취약하게 되었을 때의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정주지, 토지 또는 해양 이용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함
-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문학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함
- (viii) 생명의 기록, 지형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어야 함
- (ix)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집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어야 함
- (x) 과학이나 보존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위협받고 있는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지역 서식지를 포괄해야 함

10개 항목 중 (i)~(vi)까지는 문화유산, (vii)~(x)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 시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유산은 “진정성” 및 “완전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진정성(Authenticity)은 본래 또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지니게 되는 가치에 대한 진실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즉 해당 유산의 유형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유산의 속성이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 학술적 차원에서 본래부터 또는 역사의 과정에서 지니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완전성(Integrity)은 유산이 지닌 OUV를 표현하는 특성에 대해 전체와 본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유산의 보전과 관계된다. 이러한 완전성은 유산의 복원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세계유산의 OUV와 등재 당시의 진정성 및 완전성에 대한 보호와 관리(Protection and management)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의 OUV 입증을 위해 등재기준 (iii)을 인정받았다. 기준 (iii)은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로써 조선시대 교육적, 사회적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교육체제와 건축물을 창조하였던 탁월성을 입증하였다.

193개 세계유산협약 가입 국가 중,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이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여러 위원국들이 등재에 대한 지지와 축하를 보냈다.

첫 번째로 발언한 쿠웨이트(Kuwait) 대표는

“저는 이 훌륭한 보고서에 대해 이코모스의 자문기관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학문과 과학을 다루는 몇 안 되는 보고서들 중 하나라고 확신하기에 이를 개정하는 것이 더욱 더 긍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또는 저는 이 뛰어난 유산의 신청서를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여 등재에 이른 당사국의 인내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신청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은 학문적 그리고 과학적 장소에서 시작되어 한반도 전역에 퍼진 문화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문화 유적지와 문화 건물들을 보지만, 우리는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이 모든 기록들을 보관했는지, 사람들이 어디서 배움의 경험을 얻었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계유산센터에 신뢰할 수 있는 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튀니지(Tunisia) 대표는

“튀니지는 우선 우리가 해당유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준 이 신청서에 대해 이코모스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신청서의 우수함에 대해 당사국에 축하를 전합니다. 저희 역시 이 유산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신념과 과학이 연결된 과정의 역사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단순히 문화적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대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우리

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존의 관점에서 자문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사국에 감사를 전합니다.”

세 번째, 중국(China) 대표는

“중국은 이코모스 권고와 ‘서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의 세계유산 등재 및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문 초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세계유산목록에 새로운 유산을 등재시킨 한국 대표단에 축하를 보냅니다. 중국어로는 “슈우위안(서원)”이라 불리는 성리학 교육기관이 중국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한국의 서원 역시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의 보급과 현지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어 독자적인 건축설계를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에서 성리학적 이상이 꽃피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가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 국가들 간의 더 많은 문화교류를 위한 촉매제가 되어 세계유산목록상의 대표적인 성리학 유산이 더 잘 대표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 인도네시아(Indonesia)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먼저 ‘서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에 대한 훌륭한 보고서에 대해 자문기구에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당사국에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중엽까지의 9개의 서원으로 이루어진 해당 유산은 교육적, 사회적 관습의 형태로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사국의 해당유산에 대한 보호와 보존의 필요와 그 지속을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스페인(Spain) 대표는

“해당 유산의 완벽한 수준의 보존 상태에 정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 유산의 근간을 이루는 무형적인 측면에서도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학교는 보통 예비관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이 경우에는 지식의 보호가 그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훌륭한 등재이며 한국에 축하를 전합니다.”

여섯 번째,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대표는

“이 유산은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에 대한 훌륭한 증거입니다. 이는 또한 성리학과 그 발전의 각 단계들의 뛰어난 증거이자 건축학적 원형입니다. 우리는 이 유산에 대한 당사국의 신청과 이코모스와 협력하여 신청을 갱신하고 세계유산목록에 성공적으로 포함시킨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6개 국가 대표의 지지발언이 이어지자 의장이 또 다른 의견과 제안이 있는지를 각 위원국에 문의하여 모두 이의 없이 지지의사를 확인하자 최종 승인의 의사봉을 두드렸다.

“감사합니다. 등재 결정문을 최종 승인합니다.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선언합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가 확정되던 2019년 7월 6일 현지시간 오후 3시 40분(한국시간 오후 8시 40분)은 잊을 수 없는 한국인으로서는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는 가슴 벅찬 날이었다. 우선 세계인들의 호기심을 끌었던 것은 서원 대표들이 쓴 것이었다. 흰 도포에 검정 갓을 본 외국인들이 친근하게 다가와 모자가 너무 멋있다고 함께 사진 찍어 달라는 부탁과 한번 써보고 싶다는 호기심들로 대한민국이 주목받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여기에서 등재 선포 직후 동방예의지국답게 감사의 표시로 유교 의례의 절차대로 공수, 음례, 평신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정중하게 절을 하자 장내는 환호성의 도가니였다. 회의장에 있던 수많은 관계자들과 관중들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박수갈채와 함성이 터져 나오며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정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실감이 마음속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9년 동안 책임을 맡아왔기 때문에 꼭 되어야지 하는데 하는 노심초사 애타는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감격의 눈물이 앞을 가렸다. 모두가 합심하여 한결같이 문화로 한국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자는 열정으로 이루어낸 애국심의 귀결이었다. 그 날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날이었다. 올림픽에 금메달이 있다면 문화의 금메달을 딴 것이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 통합행사(2019. 09. 20)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들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한국에 현존하는 600여개의 서원들 중 19세기 후반 흥선 대원군 때 훼손되지 않고, 20세기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며 성리학 교육기관의 전형을 띄고 있다. 한 지역의 단일유산이라면 비교적 등재 추진 작업이 수월하였을 터인데 5개 도와 9개 시·군에 걸쳐있는 연속유산이라 논리개발과 거리상도 동·서남으로 떨어져 있어 상호 연관성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래도 필자가 9년 동안 이사장으로 총괄하고 있는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과 9개 서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그리고 전문가 학자들의 긴밀한 협력 아래 착실히 진행되어 세계유산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러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우선 그 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자긍심이 올라간다. 또한 재난을 당해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구를 통해 복구 작업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광자원이 확대되어 방문객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여러 인프라가 구축되어 경제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보존에 대한 인식이 철저히 입력되어 미래를 향한 유산보존에 안정적인 장치와 제도가 마련된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 인류가 공유하는 세계유산이 됨으로써 이제 한국을 넘어 인류 문명사에 편입됨으로써 역사 대대로 문화교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소수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 표지석 (앞면)



소수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 표지석 (뒷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룬 원동력에는 교육의 열정이 중심에 있었다. 특히 전통교육에는 지식의 차원뿐 아니라 입신출세 보다는 바른 심성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인격 도야에 큰 비중을 두었던 인성교육이 중심이었다. 특히 자발적으로 향촌 지식인들에 의해 조선시대 16세기부터 건립된 사립학교의 효시인 서원교육에는 인류의 미래지향적인 가치인 소통, 화합, 나눔, 배려, 자연, 생명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융합적인 조화의 기능이 있다. 서원에 들어서면 수려한 자연 경관이 눈에 들어온다. 수백 년을 역사의 증인으로 지켜온 나무들이 울창하고 맑은 계곡이 흐르고 주변 산세와 어울리는 목조건축의 아름다운 조화는 백마디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배움과 깨달음의 시작이다. 자연의 순리, 인간다움의 도덕적 가치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실천하는 자세가 바로 인성교육의 표본인 것이다.

「한국의 서원」은 사립 명문고등학교로서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과 도덕, 정신을 보여주며 지역문화의 역사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나아가 서원에는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역사, 교육, 제향, 의례, 건축, 기록, 경관, 인물 등)들이 존재하며 도서, 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이루어졌던 거점이었으며, 지성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의 서원은 선현을 배향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향공간, 유생들의 장수(藏修)를 위한 강학공간, 유식(遊息)을

위한 누문공간, 제향과 강학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원공간 그리고 서원의 주변공간으로 구분된다.

서원에서 선비들이 닦고자 했던 것은 호연지기의 자연의 법칙이었고 또한 존경하는 선현이었다. 조선의 선비는 스승의 가르침과 서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스스로 사색하면서 상생의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서원마다 공부할 때 현판 하나하나에 새겨진 문구가 예사롭지 않다. 문을 드나들 때나 누정에서 시회를 열고 강학당에서 공부할 때, 사당에서 제례할 때마다 유교가 주는 인간이 깨우쳐야 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각 지역의 서원끼리도 끊임 없이 소통하였다. 서원을 찾은 손님의 명단인 심원록(尋院錄)을 보면 유명 유학자들의 이름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기숙생활을 하면서 상부상조하는 협력체계를 갖추게 하고 바로 오늘날 중요하게 여기는 팀워크가 이루어졌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는 지혜는 앞으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이어받아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은 위에서 말한 한국서원의 기능과 특징들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서원이 동일하지는 않다. 어떤 서원은 초창기 서원의 제향의식을 그대로 온존시켜 왔고 다른 서원은 강학과 장수의 기풍을 사회인 연수를 통해 재현하기도 하며 서원건축의 우수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도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으로서 한국서원의 진면목과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원의 보편적 성격을 같이 지니면서도 한국서원의 특징적인 면을 각기 대표하는 9개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의미를 알아야 한다.

## ① 소수서원

소수서원은 1543년 한국 최초로 건립된 서원이다. 소수서원은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죽계천을 둘러싼 경관이 수려한 장소에 입지하고 있다. 소수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1495~1554)의 주도하에, 1543년 지역사림과 함께 건립하였다. 소수서원은 서원 교육 및 제향과 관련된 운영규정을 최초로 세웠다. 주 제향인물은 안향(1243~1306)이다. 안향은 13세기말 한국 사회에 최초로 성리학을 원나라에서 도입한 인물로서 한국 성리학의 기원이 되는 인물이다. 안향은 이 지역 출신으로 현재의 소수서원의 입지는 안향이 생전에 공부했던 장소였다.

소수서원의 제향의례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일반적인 제향절차에 더하여 제향에 도동곡(道東曲)이라는 가사를 부르는 것이다. 이는 제향인물인 주세붕이 소수서원 창건당시에 지은 노래로써 성리학을 최초로 한국에 도입한 안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작곡되었다. 노래의 형식은 경기체가이며, 제향의례에 제향인물과 연관된 가사가 포함된 것은 한국에서도 유일한 사례이다.

소수서원은 다른 서원들과는 달리 서쪽에 문성공묘(文成公廟)라는 사당이 있고 동쪽에 강학을 여는 강당인 명륜당이 있는데 1550년 명종 임금이 직접 써서 내린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국가로부터 사립 학교로 공인받으면서 노비와 전답을 지원받은 것이다. 하학상달(下學上達)의 개념으로 지락재, 학구재, 직방재, 일신재가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고 죽개천 건너편에 취한대가 서있다.





소수서원 현판(명종 어필)



소수서원 명륜당



## ② 남계서원

남계서원은 경상남도 함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1552년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이다. 일두 정여창(1450~1504)을 제향 하는 서원으로 출발했으며 소재지 일대의 향촌민에 대한 교화를 담당하고,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와 흩어진 민심수습을 유교윤리의 보급에 주력해 서원의 교화적 특징을 대표하였다. 지역 사람들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사례이며 건축적으로는 한국 서원의 정형적인 전학후묘의 배치방식이 도입된 사례이다.

일두 정여창은 정필재, 김종직이 함양군수로 있을 때 문하생이 되었고 1498년 조의제문 사초사건으로 무오사화가 일어나 김종직이 이미 사망했는데도 부관참시의 화를 당하자 그도 이에 연루되어 함경도 종성으로 귀양 가게 되었다. 1504년 봄에 유배지에서 병으로 사망했는데 그해 가을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부관참시 당하였다.

서원의 누각으로 풍영루가 서있고 마당으로 들어서면 동재인 양성재, 서재인 보인재가 마주보고 서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연못이 나란히 조성되어 있고, 누마루의 현판인 애련헌과 영매헌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동쪽에는 연꽃 피는 연못이고 서쪽에는 매화나무가 비치는 연못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선비다운 아름답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남계서원

### ③ 옥산서원

옥산서원은 1572년에 건립된 서원이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제향인물은 회재 이언적(1491~1553)이다. 자계천이 휘돌아가는 경사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앞뒤로 자옥산과 화개산이 둘러싸여 있다. 옥산서원은 경주지역 사림의 주도로 건립된 서원으로 경상북도 동부지역 사림의 근거지였다. 누마루 건축물을 처음으로 서원 건축에 도입한 사례이다.

옥산서원은 출판 및 장서의 중심기구로서의 서원 기능을 대표하고 있다. 옥산서원에는 제향자의 문집, 성리학 서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관된 다양한 서적들이 출판, 소장되어 있다. 특히 국보 「삼국사기」 완질본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영남 유림 사회 내에서 옥산서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심원록(尋院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100여책의 심원록은 어느 서원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분량이다. 심원록을 통해서 보면 옥산서원은 도산서원과 함께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서원답게 경향간에 남인계 인사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제향인물인 이언적은 한국 성리학 발전 단계에서 존재론·우주론 등의 성리학 이론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주도하였던 인물이다. 또한 16세기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성리학에 기반을 둔 정치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그가 중종 임금에게 진언한 일강십목소의 내용은 지금도 리더십의 지침에 많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언적은 관료·학자로서 활동했던 퇴계 이황, 일두 정여창, 한훤당 김굉필, 정암 조광조와 함께 동방오현 중 한분이다.



옥산서원



#### ④ 도산서원

도산서원은 1574년에 건립되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에 낙동강이 흐르는 경사지에 입지하고 있다. 주 제향인물인 이황(1501~1570)의 강학처였던 도산서당을 모태로 이황 사후 제자들에 의해 서원으로 건립되었으며 현재에도 강학공간 전면에 도산서당이 자리 잡고 있다. 도산서원은 자연친화적 경관입지를 활용하여 전학후묘의 건축 배치를 구현한 한국 서원의 전형을 보여준다.

도산서원은 한국 서원 중에서 학문 및 학파의 전형을 이룬 대표적 서원으로 한국 서원의 역사에서 학술·정치·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상징적인 서원이다. 성리학과 관련된 고서, 목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강회록 등 교육과 관련된 기록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도산서원의 목판들은 ‘유교책판’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도산서원은 토론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형태의 강학 활동이 존재하였으며, 소장 자료를 통해 서원의 교육 방식을 입증한다. 도산서원은 건립 이후 이황의 문인 및 제자들의 학술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성리학과 관련된 다양한 철학적 논쟁들을 거쳤고, 이를 기반으로 학파의 통일된 의견을 종합하였다.



도산서원



## ⑤ 필암서원

필암서원은 1590년에 건립되었다. 주 제향인물은 하서 김인후(1510~1560)이며 호남학맥의 본산으로서 으뜸가는 서원이다. 그런 만큼 호남사림 여론형성의 진원지로서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라남도 장성에 자리한 필암서원은 한국의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원 운동이 서남부 지역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입증하고 있다. 이전의 서원들이 주로 경사지형을 이용하던 것과는 달리 평탄한 지형에 적합한 건축물 배치방식을 적용하였다.

하서 김인후는 조선왕조 제12대 임금 인종의 세자시절 사부로서 임금이 되자 함께 어진 정치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지치주의를 떨치려 했는데 인종이 8개월 밖에 못 하고 세상을 떠나자 통곡하면서 죽을 때까지 관직에 나가지 않고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하였다.

필암서원의 누각은 확연루라 하는데 송시열의 글씨이고 가슴이 맑고 깨끗하여 확연히 크게 공정하다는 뜻이다. 강당인 청절당이 있고 동재는 진덕재, 서재는 송의재라 하였는데 모두 송준길의 글씨이다. 특히 청절당과 마주보고 서있는 건물이 경장각이다. 정조의 어필로 조상의 유물을 공정하여 소장하라는 뜻이다. 이곳은 인종이 김인후에게 그려준 묵죽도가 보관되어 있다. 뒤편에 사당인 우동사(祐東祠)가 강당과 같은 평지면에 있다. 우동이라는 뜻은 하늘의 도움으로 동방에 태어난 인물이라는 뜻이다. 하서 김인후는 1796년 정조 때 성균관에 문묘 배향되었으며 호남의 선비로는 유일하다.



필암서원

## ⑥ 도동서원

도동서원은 1605년 건립되었으며 주 제향인물은 한훤당 김굉필(1454~1504)이다. 도동서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니산 기슭에서 북향하여 전면의 낙동강을 바라보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도동서원은 위치와 경관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한국 서원의 특징을 대표하며 경사지의 지형 조건을 최대한 살린 서원 건축 배치의 탁월성을 보여준다. 강당 기단부의 예술적 구현, 최소 규모의 계획, 흙담장 등 경관과 성리학 건축미학의 완성을 이루었다.

한국서원의 교육 및 일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도동서원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도동서원의 원규는 교육 방식, 재정 운영, 제향 횟수 및 절차, 원장 등 서원 구성원의 역학 및 임기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도동서원의 원규를 통해 소수서원에서부터 제정된 서원 규정들이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김굉필은 소학운동을 펼쳐 성리학과 관련된 이론 중에서 실천윤리를 강조했는데, 이는 도동서원이 실천윤리에 집중하는 학풍으로 정착, 발전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김종직의 문하생으로 1498년 무오사화 때 희천으로 귀양갔다가 1504년 갑자사화 때 희생되었다.



도동서원



## ⑦ 병산서원

병산서원은 1613년에 건립되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지를 기반으로 맞은편 병산과 낙동강을 바라보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병산서원은 만대루를 통해 한국 서원 누마루 건축의 탁월성을 보여준다.

병산서원은 류성룡의 제자, 후손, 그리고 안동 지역 사림에 의해 건립되었다. 서원은 교육기관에서 출발했지만,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점차 사림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병산서원은 만인소를 조선시대에 최초로 작성하는 등 공론장으로서 서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곳이다.

병산서원의 주 제향인물은 류성룡(1542~1607)이다. 류성룡은 16세기 후반 영의정·도체찰사로 임진왜란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류성룡은 임진왜란 과정에서 뼈아픈 경험을 훗날에 경계하기 위해 쓴 『징비록』 등 여러 저술들을 남겼는데, 병산서원에서는 이를 출판 간행하였다. 병산서원의 목판들은 ‘유교책판’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병산서원의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장식을 배제하고 있지만, 만대루를 비롯한 건축물들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인위적인 장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원 건축의 단조로움과 자연친화적인 서원 입지와 경관 구성, 자연경관이 건축물과 조화롭게 배치된 탁월한 사례에 속한다.



병산서원

## ⑧ 무성서원

무성서원은 1615년에 건립되었고 신라 말의 고운 최치원(857~)이 주 제향인물이다.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하고 있다. 최치원은 12살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합격하고 관직까지 지내면서 필명을 날렸는데 17년 만에 귀국하자 골품제의 폐쇄성에 한계를 느끼고 문란한 국정을 통탄하고 외직을 자청하여 부임한 곳이 태산군 바로 지금의 정읍시 태인면 일대이다. 선정을 베풀고 마을에 흥학운동을 일으킨 치적을 기려 최치원을 기리는 생사당(生祠堂)을 세웠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정국인이 마련한 ‘향학당(鄉學堂)’과 합쳐져 태산사라 이름하였다. 다시 태산사와 생사당을 합사하여 1615년 서원을 세웠고 1696년 무성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무성은 신라시대 태인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공자의 제자 자유(子遊)가 다스리던 지역 이름이기도 하다. 이는 「논어」의 「양화(陽貨)」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자께서 무성에 가서 음악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구절에서 취한 것이라 한다. 문루의 명칭도 현가지성의 고사를 참조하여 현가루(絃歌樓)라 한 것은 공자의 교화사상을 나타낸다.

한국서원의 발전 과정에서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구축하고 흥학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마을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한말의 의병 창궐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1906년 최익현(1833~1906)을 필두로 한 병오창의가 일어난 곳이다.



무성서원



## ⑨ 돈암서원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한 돈암서원은 1634년 건립되었고 주 제향인물은 사계 김장생(1548~1631)이다. 성리학의 실천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서원으로 소장하는 문집과 예서 책판의 간행을 통해 호서 지역 사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장생 선생의 예학 관련 저술인 『상례비요』, 『가례집람』, 『의례문해속』 등의 서적은 현재 목판본과 함께 돈암서원 장판각에 소장되어 있다.

돈암이라는 서원의 명칭은 서원이 위치한 숲 앞에 “돈암(돼지바위)”이라 부르는 큰 바위가 있어 부르게 된 것이라 한다. 역사뿐만 아니라 돈암서원은 매우 훌륭한 건축물들을 보존하고 있다. 이 중에서 도가 머무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응도당(凝道堂)은 돈암서원 건물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건물이자 다른 서원 건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규모뿐만 아니라 응도당 내부의 공포와 화반, 대공 등의 조각은 매우 화려하고 예술적으로 아름다워 하나하나가 품격 있는 전통 서원건축의 백미이다.



돈암서원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인성의 중시, 선현에 대한 존중, 그리고 탁월한 목조 건축미와 수려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 상호간의 소통을 기초로 한 전통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미래의 정신적 원동력을 자연의 순리와 인성교육을 중요시한 유학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서원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모두가 물질적 성공에 치중할 때, 공허해질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잡아주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서원은 지나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힘이 될 것이며, 한국의 문화유산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영감을 주는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상해 교수<sup>10)</sup>

‘한국의 서원’은 카스피해 서쪽에 접한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2019년 7월 개최된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한국의 서원’은 어느 한 장소에 소재하는 단일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것이 아니라, ‘9개 서원’을 묶어 ‘하나의 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장소에 소재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 있는 유산을 하나의 유산으로 간주하여 등재한 세계유산을 ‘연속유산(serial property)’이라고 유네스코는 규정한다. 유네스코는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지만 성격이 유사한 여러 유산들을 ‘하나의 유산’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설명함으로써, 그 유산의 원래 가치가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더 잘 부각될 수 있으면 ‘연속유산’으로 규정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한국의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는 9개 서원을 묶으면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속성이 온전하게 더 잘 설명되는 유산이라고 등재신청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연속유산은 단일 국가에만 소재하는 여러 유산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소재한 유산들로 구성될 수도 있다. 전자에 속하는 유산은 ‘국가 연속유산(serial national property)’, 후자에 속하는 유산은 ‘국가간 연속유산(serial transnational property)’이라고 부른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9개 서원은 국가 연속유산에 속하는데,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대구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으로 구성되었다.

### 1. 연속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구비 요건

주지하듯이,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무엇보다도 등재 신청을 한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였다고 세계유산위원회가 평가하도록 기술해

10) (현)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세계유산분과 위원장 겸임)(15-17),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07-11), (사)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02-04) 역임.

야 한다. 특히, 연속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유산의 구성요소가 신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하고, 신청한 유산과 유사한 국내·외 유산과 비교분석하여, 신청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음이 명쾌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세계유산목록 등재 심의의 기준과 원칙은 1972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부름)에 명시되어 있는데, 연속유산에 대한 정의와 규정은 운영지침 제137항, 제138항, 제139항에 기술되어 있다.

운영지침 제137항은 “연속유산은 명확하게 정의된 연결고리를 갖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구성요소들(component parts)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하면서, 이 구성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a) 구성요소는 경관, 생태, 진화 또는 서식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연결성을 제공하는 문화적, 사회적 또는 기능적 연결고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b) 각 구성요소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이며 명확히 정의되고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해야 하며, 또한 무형적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쉽게 이해되고 소통이 되어야 한다.
- c) 신청유산이 일관되고, 그리고 구성요소들이 과도하게 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구성요소의 선정을 포함하여, 유산의 신청 과정에서 유산 관리의 전반적인 용이성과 일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운영지침 제114항에는 “연속유산의 경우 개별 구성요소들의 통합 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나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청서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단, 해당 유산은 전체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 개별 요소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 - 연속된 유산이다.

운영지침 제138항은 연속유산이 소재할 수 있는 장소, 즉 a) 단일 당사국의 영토(국가 연속유산), 또는 b) 여러 당사국의 영토(국가간 연속유산)에 소재하는 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운영지침 제138항은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을 한 유산이 연속유산일 경우 그 유산은 단일 국가에 소재하는 유산들일 수도 있고, 여러 국가 간에 소재한 유산들일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운영지침 제139항은 “연속유산 신청서는 단일 당사국이든, 또는 여러 당사국이든 상관없이 여러 신청주기에 걸쳐 제출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단 맨 처음 신청한 유산 자체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여러 주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국들은 보다 나은 계획 수립을 위해 위원회에 해당 당사국들의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운영지침에 명시된 연속유산의 기준과 원칙은 세계유산 목록 중에서 문화유산에 속하는 ‘한국의 서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연결고리가 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연속유산에 포함된 모든 유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연결성을 제공하는 문화적, 사회적 또는 기능적 연결고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연속유산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는 명확히 정의되고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해야 한다.
- 연속유산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무형적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 신청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쉽게 이해되고 소통 되어야 한다.
- 연속유산을 구성하는 유산을 선정할 때는 유산 관리의 전반적인 용이성과 일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연속유산으로 신청한 유산 각각이 개별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였음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연속유산을 구성하는 유산 전체가 하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음을 등재신청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 국내·외 유사 유산과 비교분석하여 신청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졌음을 기술하여 입증해야 한다.

지금부터 운영지침의 연속유산 관련 지침 등에 근거하여, 세계유산목록 등재 요건인 신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의 문화유산 가치”를 사항별로 기술하고자 한다.

## 2.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려면 운영지침 제77항에 제시된 등재기준 (i)에서 (vi)까지의 여섯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항목에 속하여야 한다. ‘한국의 서원’은 2018년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면서 등재기준 (iii)과 (iv)를 구비하였기 때문에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였음이 입증된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운영지침 제77항의 등재기준 (iii)은 “살아있거나 또는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 혹은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에는 “신청유산은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었으며,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독특한 역사 전통과 성리학의 가치를 나타낸다.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통해 성리학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건축물을 창조하였으며, 전국에 걸쳐 성리학이 전파되는데 기여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인류 역사의 주요 단계(들)를 보여주는 유형의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의 뛰어난 사례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등재기준 (iv)에 대해서는, “신청유산은 한국 서원 건축 유형의 탁월한 사례를 보여준다. 서원 설립의 초기단계에서 건축 유형을 정형화하는 노력들은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이후 건립되는 서원에 영향을 끼쳤다. 이 유산은 강학, 제향, 교류를 수행하기 위한 강당, 사우, 누각 등의 건축물들을 적절하게 구성하였다. 건축 배치는 지형, 경관, 기단, 담장과 문을 통해 구현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된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 유산의 등재 여부를 세계유산위원회에 건의하는 전문 기구인 이코모스의 2019년 보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의에서는 한국의 서원은 등재기준 (iii)은 구비하였지만, (iv)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다. ‘한국의 서원’이 구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등재기준 (iii)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인 서원은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한국에서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 전통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되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계승되고 있다. 서원은 중국의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 조건에 맞도록 조정된 역사적 과정을 잘 보여주며, 이는 서원이 기능, 계획 및 건축 측면에서 변형되고 지역화 된 과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가 된다.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re exceptional testimony to cultural traditions associated with Neo-Confucianism in Korea, in the form of educational and social practices, many of which continue. The seowon illustrate an historical process in which Neo-Confucianism from China was tailored to Korean local conditions resulting in academies which are exceptional testimony of this transformative and localising process in terms of function, planning and architecture.

세계유산위원회가 등재기준 (iii)을 적용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의결한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주제별로 정리될 수 있다.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 전통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된다.
-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인 서원으로서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를 잘 보여준다.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이 지닌 속성의 많은 부분이 잘 지속되고 있다.
- ‘한국의 서원’은 중국의 성리학이 한국의 지역성에 맞도록 조정되어 한국화 된 역사적 과정을 잘 보여 준다.
- ‘한국의 서원’은 중국의 서원과 차별되는 서원의 기능, 서원이 들어설 터 잡기, 건물 배치와 관련되는 계획, 건물 설계에서 변형되고 지역화 된 과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가 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서원’은 한국에 정착된 성리학 교육기관인 서원의 속성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9개의 서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한국 사회에 정착한 성리학의 발전 과정, 그리고 이를 추동했던 서원의 정착과 관련된 특성의 기반이 되는 속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건립되어 한국 서원 배치의 전형을 처음 제시한 남계서원, 교육 내용과 장서 관리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옥산서원은 각각 교육기관으로서 한국 서원의 시작, 제도의 도입 과정, 건물 배치 형식의 제시, 교과 내용 등의 측면에서 ‘한국의 서원’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그 후 건립되는 도산서원은 성리학이 조선사회에서 분화하는 학파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음을, 필암서원은 서원 경제 기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도동서원은 서원 원규를 만들어 서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체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서원임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병산서원은 사람의 공론을 위한 장소로 기능하였음을, 무성서원은 서원이 사람들의 향촌 교화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음을, 돈암서원은 성리학에서 중시되는 예학을 집대성하여 사람들의 정치, 사회, 성리학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증명한다. 이와 같이 9개 서원이 각각 지닌 속성을 묶어 총체적으로 파악하면 ‘한국의 서원’이 ‘하나의 문화유산’이 되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지녔음을 입증할 수 있다.

### 3. 국외 유사유산과 비교분석한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등재기준 (iii)을 구비한 유산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서원은 중국에서 발원한 성리학 교육기구가 한국

의 지역성에 맞도록 조정된 결과물임을 드러내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한 유산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인간 본성의 함양과 도덕적 실천을 위한 교육기구로 설립한 서원을 중심으로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조선 사회에 정착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과 그 속에서 뚜렷한 건물 배치 개념과 건축미학을 가진 한국 서원의 건축적 전형을 형성하였다는 점을 한국의 서원이 보여주는 뛰어난 유산 가치로 들었다.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 운영지침 부록5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유사유산과 비교 분석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서원과 비교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외 유사유산과 비교분석한 한국의 서원이 갖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우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공자와 그 제자들에 의해 정립된 유학,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교육시설은 중국을 포함하여 한국, 일본, 베트남 등에 현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일부는 복합유산이나 연속유산의 한 요소로 세계유산목록에 이미 등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중국 강서성의 백록동서원은 1996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여산국립공원(Lushan National Park)에 포함되어있고, 하남성 숭산에 소재하는 숭양서원은 등봉역사기념물(Historic Monuments of Dengfeng in “The Centre of Heaven and Earth”)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있다. 복건성 무이산시에 위치하는 교육시설들은 1999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무이산(Mount Wuyi)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데, 무이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속하는 등재기준들을 함께 구비하고 있는 복합유산이다. 안휘성 이현에 소재하는 남호서원은 2000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안휘성 남부 역사마을(Ancient Villages in Southern Anhui – Xidi and Hongcun)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데, 핑촌(Hongcun)에 있는 교육기관이다.

일본 야마구치현 하기시에 소재하는 쇼카손주쿠(松下村塾)는 규모가 작은 교육시설(쇼카손주쿠는 유학 교육에서 출발하여 점차 서구로부터 유입된 근대 학문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시설이 되었으며, 이 곳 출신 중에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에 기여한 자들도 있음.)인데, 2015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이 세계유산목록은 일본 제국주의 이론의 산실로 여겨지기 때문에 등재 때부터 논란을 빚은 유산임.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 초대 조선총독인 데라우치 마사다케 등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음) 북한 개성의 숭양서원은 2013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개성역사유적지구(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유학과 관련된 중국이나 일본, 북한의 교육시설 중 세계유산목



록에 등재된 문화유산은 연속유산 속에 포함된 하나의 요소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서원이 등재되기 전까지, 유학 교육기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독자적으로 평가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국외 사례는 없다.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유학 교육시설은 중앙 정부의 주도로 건립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정부에서는 주로 수도에 최고 수준의 교육기구를 설립하였고, 지방에는 이보다 낮은 단계의 학교를 설치하여, 관료를 양성하는 기구로 운영하였다. 유학 문화권에서 정부가 아닌 민간에 의해 학교가 건립된 경우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사립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국립, 공립 교육기관에 비해 건축배치나 운영이 국가별, 지역별로 자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산의 명칭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나 교육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백록동서원



백록동서원

중국에서 유학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은 송대(宋代, 960~1279)를 거치면서 발전, 흥성하였다. 특히 남송대에 관학의 쇠퇴와 과거제도의 부패 등에 반발하며 설립된 서원은 사립학교로서의 독자성을 형성하였다. 이 중에서 백록동서원은 이 시기의 대표적 서원으로 중국 서원제도의 실질적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여타 서원들도 각각의 학규 등 여러 제도를 제정하여 중국 서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서원은 원대(元代, 1271~1368)에 이르러 관학의 성격이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명대(明代, 1368~1644) 초기에 이르면 중국의 서원은 조정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 못하여 쇠락하였다가 15세기 중반부터 점차 번영하기 시작하였다. 청대(清代, 1616~1912)에는 대다수의 서원이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기구로 전환하였다. 많은 서원들에 존재하는 과거 합격자에 대한 비석군(碑石群)과 과거 장소인 고봉(考棚) 시설 등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긴 역사 속에서 서원의 중요한 기능은 강학, 제향, 그리고 장서로 압축된다. 중국 서원의 제향 대상은 공자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표적 유학자, 지역사회의 공헌자, 그리고 지역의 토속신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제향의례가 거의 단절되었다. 장서는 황제가 하사한 서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서 공간은 주로 서원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

일본의 유학 교육시설은 에도시대(1603~1867)에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관립으로는 각 번(한, 藩)의 번교(한코, 藩校)가, 사립으로는 개인에 의한 사숙(시주쿠, 私塾)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은 번의 무사그룹과 가신의 자제들을 교육하기 목적으로 유학, 정치, 외교 관련 서적을 가르치거나, 서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 교양과 직업 교육의 형태로 가르쳤다. 번교와 사숙으로 불린 일본의 교육기관은, ‘서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주서원(藤樹書院)이 사례가 된다. 일본은 일찍이 중국과 한국을 통해 유학을 받아들였지만 중국과 한국에서 유학이 정치 이념이나 학술, 국가 제도나 사회 습속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 비해, 일본의 유학은 각종 제도나 교육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무사가 사회의 지배 계층이었던 일본에는 중국·한국·베트남에서와 같은 과거 제도가 없었는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일본의 전통 교육 기관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다른 형태의 발전 양상을 이루어 갔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교육 기관은 설립 주체와 교육 내용, 건립 장소나 건축 공간의 구성, 제향의 대상과 시행 여부 등의 측면에서 한국의 서원과 비교할 때 차이점이 있다.

에도시대에 건립된 일본의 교육시설은 설립 주체 및 설립 목적에 따라 관립 교육 시설과 사립 교육시설로 구분된다. 관립 교육시설은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인 막부(바쿠후, 幕府)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1690년 수도 도쿄에 세워진 유시마세이도(湯島聖堂)가 있다. 유시마세이도는 공자묘(대성전)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사학(私學) 성격의 하야시케카주쿠(家塾)를 흡수하여 막부 직할 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인 번에서 세운 교육기관인 번교의 입학자는 무사계급의 자제로 무사의 교양 수준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향학(고가쿠, 郷學)은 향촌에 설립된 교육시설로 준공립학교에 해당한다. 설립 주체는 번주나 영주, 무사 귀족 계층, 지역 유지나 상인 계층 등의 민간인으로 나뉘며, 민간인이 설립 주체가 된 경우에도 번(藩)으로부터 공인이나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입학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향학은 무사의 자제를 대상으로 한 것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뉜다. 향학에서는 국학(고쿠가쿠, 國學)이나 의학(醫學), 산학(算學) 등의 실용적인 성격을 가진 학문 교육도 이루어졌다. 순수하게 사학(私學) 성격을 갖는 교육 기관으로는 사숙이 있다. 사숙은 유학자나 저명인사가 세운 사설 교육 기관이며 17~19세기에 걸쳐 유학에 기반을 둔 고등 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자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이 함께 교육되었다. 사숙은 개인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교육 체계 측면에서 일정한 원칙이 드러나지 않는다.

요약하면,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던 시기에 지역 사람이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건립하였고, 이에 따라 서원에서는 제향, 교육, 공론 형성, 지적 교류 등 사람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즉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은 자발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중국, 일본의 교육기관과 크게 차별성을 보인다.

지금부터 중국과 일본의 교육기관에 보이는 제향인물과 제향의례, 건축물 배치형식, 주변경관과 형성되는 상호 관계, 전각의 건축형식 등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한국의 서원’과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 1) 제향인물과 제향의례의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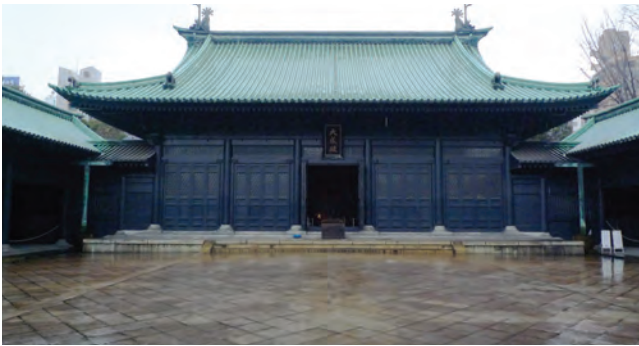
유학 교육시설에서 제향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국의 교육시설에 속한 제향시설, 일본의 유시마세이도, 고도칸(弘道館), 아시카가학교(足利學校), 시즈타니학교(関谷學校) 등 각 번교의 제향시설, 그리고 베트남의 유학 최고학부였던 반미에우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중국의 서원은 기본적으로 공자를 포함하여 유학과 관련된 인물을 제향하며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지역의 토속신이나 지역과 관련된 인물들을 추가로 배향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백록동서원은 공자의 신위를 모신 사우와 더불어 주희와 후대의 여러 인물들의 신위를 모신 사우를 각각 가지고 있다. 석고서원에는 공자의 신위를 모신 사우와 더불어 지역의 대표적 인물들의 신위를 모시고 기리기 위한 두 동의 사우가 별도로 조성되어 있다. 악록서원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모시는 문묘를 서원내 별도의 영역에 조성하였고, 유학의 발전 과정에서 기여한 대표적인 여섯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는 여섯 동의 사우를 설립하였다. 송양서원에도 공자를 제향하는 사우와 더불어 중국 고대의 성인 세 분을 제향하는 한 동의 사우를 함께 설치하였다.

일본의 사숙은 교양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유학과 관련된 지식을 광범위하게 전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숙에서 제향은 크게 중시되지 않았다. 다만 막부의 최고 학교기구인 유시마세이도와 각 번의 번학이나 지방 교육시설에는 공자를 모시는 성묘(聖廟)가 조성되어 있다. 공자 이외의 인물들을 모시는 경우에는 사숙 인근에 위치한 신사(神社)를 활용하고 있다.



유시마세이도 대성전



유시마세이도 신실



유시마세이도 성당공간



한국의 서원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신위를 사우에 모시고 제향하지 않는다. 서원의 제향 대상은 제향자의 돌아가신 스승이거나 학통의 연원에 속한 인물이다. 제향 인물의 제한을 통해 한국의 서원은 지역성과 학파의 속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특히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신청한 9개 서원의 제향 인물들은 한국의 성리학 전통이 확립되어가는 단계에서 크게 기여를 하였던 인물들이다.

요약하면,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에서 제향의 특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유산적 가치를 갖는다. 첫째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제향 대상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실천적 지식인의 모델이 되는 선현의 신위를 사우에 모셔 한국 서원의 지역성을 보이는 성리학 학통을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각 서원마다 독자적인 제향의례를 행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이 단순히 성리학을 전파하기 위해 조선 사회에 수용된 자원을 넘어, 자생적으로 정착되었음을 보이는 특별한 증거가 된다.

## 2) 건축물 배치형식의 비교분석

한국의 서원은 창설 단계부터 민간 주도로 운영된 교육기관이다. 관립 교육기관에 비해 개별성이 강한 사립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원은 공유하는 서원 건축의 정형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는 한국 서원의 설립 주체인 사림들이 추구한 목표와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의 서원은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을 서원 영역을 관통하는 하나의 축 선상에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배설함으로써 유기적인 공간을 형성하였다. 제향 공간은 신격화된 선현과 계승자의 대면을, 강학공간은 살아있는 인간 사이의 대면을 위한 공간이라는 서로 차별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의례의 형식도 다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서원은 제향과 강학 공간을 사우와 강당, 그리고 그 사이의 신문(神門)과 담으로 각 영역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공간을 조성하였다. 제향, 강학 공간과 더불어, 교류와 유식을 위한 공간을 서원 영역의 앞부분에 조성하여 외부 환경, 특히 자연을 건축의 한 요소로 끌어들이 인적 교류 및 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사림 활동을 할 수 있는 누각 형식의 건축물을 조영하였던 것이다.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으로 분별되는 각 영역의 결합은 자연과 지형을 활용한 독특한 한국 서원의 터 잡기와 건축 배치기법의 특별한 속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각 영역은 시각, 동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지면 높이의 조정을 위해 단을 조성함으로써 각 영역이 독립적인 성격을 갖도록 하였다. 이렇게 지형을 단으로 조정된 것은 서원을 구성하는 건축군 사이에 위계가 있게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서로 조화되도록 하는 뛰어난 기법에 속한다.

중국의 서원은 10세기 이상 지속되었고,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배치의 정형을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서원은 강학공간, 제향공간, 장서공간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었다. 한국의 서원과 비교할 때, 중국의 서원은 장서공간이 크게 발달한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그 위치도 서원의 중심축 선상에서 서원 영역의 뒷부분을 차지하게 하여 위계를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 자체로 독립적이다. 일부 서원은 공자와 그 제자들의 신위를 모시고 제향하는 문묘영역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많은 서원은 진입부에 반수(泮水)를 조성하여 외부와 경계를 이루도록 하여 자연 경관이 아닌, 인공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백록동서원은 물길을 따라 여러 개의 원(院)이 서로 이웃이 되도록 병렬로 배치되어 있다. 반수를 지나 중심이 되는 축에 장서루와 강당을 일렬로 배치하였고, 그 뒤 언덕 아래 구조물에 조각상 백록을 두었으며, 중심축 좌우의 옆에는 여러 동의 사우와 강학공간을 두었다. 송양서원은 전체적으로 직선의 축을 따라 전각을 배치하였으며 진입부에는 규모가 큰 연지가 조성되었다. 산지에 있지만 평탄한 지형을 이룬 곳에 서원 터를 잡아 건물들을 배치하였다. 하지만, 송양서원은 제향영역과 강학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강당을 중심에 두고 제향을 위한 두 개의 사우가 앞뒤로 배치되었으며, 가장 뒤쪽에는 장서각을 두었다. 규모가 큰 악록서원은 가장 안쪽에 어서루를 두고, 유학의 발달에 기여한 인물들을 제향하는 사우들을 어서루 서쪽에 배치하



악록서원

였다. 어서루 앞쪽에는 강당이 있고 그 앞으로 대규모의 재사가 강당 앞의 마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악록서원의 문묘영역은 강학영역 서쪽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다. 석고서원은 강을 향해 돌출한 경사진 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앞쪽에 공자 및 지역의 선현을 제향하는 두 동의 사우가 좌우로 병렬하여 배치되어 있고 강당과 장서각이 결합된 별도의 전각이 그 뒤쪽에 배치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서원은 제향, 강학과 더불어 장서를 중요한 기능으로 설정하고 서원 경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장서각을 배치하였다. 여러 동의 사우가 있다는 점, 사우의 숫자와 위치가 서원마다 서로 상이하다는 점, 일부 서원의 경우 공자 및 그의 제자를 제향하는 문묘영역을 서원내 별도의 위치에 조성한 점 등이 중국 서원이 유형유산적 측면에서 한국의 서원과 갖는 차별점이다.

일본의 유학 교육시설은 애초에 사찰, 신사 등과 교육시설이 합쳐져 조성되었기 때문에 독립된 건축 형식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비교적 규모가 크고 제향과 강학기능을 함께 갖춘 유시마세이도 및 번교 등의 공립학교들은 때로는 신사의 형식을, 때로는 사찰의 형식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정형화된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의 관계를 형성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사숙의 경우에는 강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건축 형식을 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터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서원은 사우에 배향되는 인물과 연고가 있는 지역이면서 자연 환경이 수려한 곳에 건립된 점에 비해, 일본의 교육시설은 학생들의 모집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립되었다. 건축물의 배치 측면에서도 일본의 교육시설은 한국의 서원과 같이 전형이 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 건물들을 배치한 속성을 보인다. 유시마세이도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배치를 취하고 있고, 대성전 앞의 중정 좌우에 동무·서무가 행랑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한국의 서원과 같이 동재·서재는 갖추고 있지 않다. 유시마세이도는 또한 지형지세와는 무관하게 남향을 하고 있어서 한국의 서원이 지세에 따라 자유롭게 좌향을 취하고 있는 점과 차이를 보인다. 번교인 시즈타니학교는 자



시즈타니학교 전경



연 경관이 뛰어난 교외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서원이 들어서는 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건축물들은 일본 불교건축이나 신사 양식이 혼합되어 있어 한국의 서원과 같은 유학 건축의 독자적인 양식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일본의 교육시설들은 제향이나 강당의 개별적 기능이 중시되어 건축물의 내부공간이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향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우 외에 일본식 신사를 조영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전통 교육기관들 가운데 설립 당시의 모습을 현재까지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대성전이 있는 유시마세이도는 수차례의 화재와 지진 등으로 소실되어 현재의 건물은 관동대지진 이후 콘크리트 구조로 재건한 것이다.

변교도 이와 유사하다. 다만, 시즈타니학교는 원형이 잘 남아있으며, 현재에도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립 유학 교육기관인 사숙 또한 온전하게 유지된 것은 많지 않다. 도쿄, 교토,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 사숙들이 일부 현존하고 있지만, 많은 사숙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과 일본의 사립 유학 교육시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서원이 갖는 가장 특별한 건축 속성은 여러 서원들이 공유하는 건축 유형이 정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이들 기능이 서로 별개인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지 않고 모두가 전체 시설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도록 외부의 경관을 적극적으로 건축공간과 결합시켜 자연과 건축이 하나가 되는 건축형식을 만들어내었다. 사우에 모신 선현으로부터 계승된 학통을 중시한 한국의 서원이 제향 공간을 서원의 가장 위계가 높은 곳 배치한 점도 동아시아의 여러 유학 교육시설들과 차별성을 보이는 한국의 서원의 속성을 보여준다.

### 3) 주변 경관과 형성되는 상호 관계의 비교분석

한국의 서원은 건축배치 형식과 더불어 주변 경관과의 관계 형성에서도 뚜렷하게 특별한 독창성을 보인다. 누각, 누마루 등으로 불리는 한국 서원 일곽의 전면부에 위치한 건물은 한국 서원의 탁월함을 입증하는 독특한 형식의 전각이다. 중국, 일본의 유사 시설에는 이러한 형식의 전각이 보이지 않는다. 누각은 좌식 생활을 하는 한국인들이 조영한 건축의 전통이 한국 서원의 독특한 기능 중 하나인 회합과 유식을 위한 공간인 누각과 결합된 특별한 건축형식이다. 누각은 서원의 강당 대청과 중앙 마당의 공간이 서원 외부의 경관으로 이어지도록 연출하는 하나의 건축 장치가 되며, 기능적으로는 지역 사람들의 회합, 유생들의 유식, 여타 사회적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중국의 서원은 자연경관을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한 공간을 가진 건축 형식을 찾기 어렵고, 그와 달리 반수(泮水)나 연지, 그리고 서원 내부에 조성한 원림이 유식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서원에 형성된 공간 자체를 외부에 대해 폐쇄적이게 조성하여 서원 내부에서 외부의 자연 경관을 조망하도록 고려한 건축 장치는 찾기 어렵다. 백록동서원이나 석고서원과 같이 자연경관을 서원공간과 연계시킨 사례도 있지만, 한국의 서원에서 연출되는 서원의 내·외부 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관입 하도록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악록서원이나 송양서원 등과 같이 외부가 차단된 건축 배치와 공간구성을 취하도록 하여, 서원 내부 영역의 어느 한 곳에 원림을 조성하여 그곳을 조망하거나 그곳에서 산보하며 유식을 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사숙은 유생들이 용이하게 도회에서 접근하도록 터를 선정하여 건립되었기 때문에 교육시설인 사숙이 주변 자연경관과 상관관계를 이루게 한 건축공간 구성이 발전하지 못하였다. 일본의 사숙은 또한 사숙으로서 독립된 건축물을 조영한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사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 필요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방식은 주변 자연이나 경관과 교감하는 외부공간 구성과는 거리가 있다.

#### 4) 전각 건축형식의 비교분석

한국의 서원은 건축배치 형식과 더불어 전각 건축의 형식에서 뚜렷한 특징을 드러낸다. 서원을 구성하는 주요 전각인 사우, 강당, 동·서재, 누각 등은 조선시대 한국의 사림들이 성리학 관념을 건축적으로 해석하여 정립한 독자적인 결과물이다. 이러한 특징은 전각의 평면 형식, 건축물의 세부 등에서 잘 드러난다.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사우는 주로 정면 3칸의 규모가 작은 건물이지만, 제향을 통



악록서원 강당 내부



악록서원 강당 내부

한 존현이라는 상징성과 제향공간의 위계를 높이기 위해 서원 영역의 가장 안쪽에 조성된 시설이다. 사우는 주변을 담으로 둘러싼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역의 경계부에는 사우를 출입하기 위한 신문(神門)을 설치하였다. 신문과 사우의 출입 방식은 예법에서 요구하는 동선이 해결되도록 하였다. 이와 달리, 중국 악록서원이 나 송양서원 등의 제향시설은 화려한 장식이 있으면서 규모는 비교적 크다. 일본의 사숙에는 별도의 제향시설이 없으나, 관학인 번교에는 다쿠세이묘(多久聖廟)처럼 화려한 중층 전각도 있다. 그런데, 시즈타니학교의 공자묘는 이와 달리 예외적으로 소규모의 전각으로 조성되었다.

한국 서원의 강당은 일반적으로 정면 5칸의 중앙부 3칸에 대청마루를 설치하고 그 좌우에 독립된 온돌방을 각각 1칸씩 설치하는 형식으로 되었다. 강당 대청 양단에 맞추어 계단 2벌을 기단 전면의 동·서쪽에 설치하여 건물을 오르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행례를 한국적으로 해석하여 만들어낸 독자적인 건축형식에 속한다. 한편, 한국의 전통건축에서 정침은 제사를 지내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등의 의식이 행해지는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사람들은 예법에 규정된 정침을 서원에 맞도록 한국적으로 해석하여 실제로 조영하고자 하였는데, 돈암서원의 응도당은 정침 건물을 예법에 맞추어 계획한 사례로서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다.



시즈타니학교



시즈타니학교 강당 내부



시즈타니학교 강당 내부

중국 서원의 강당은 중국인들의 의자식 생활 습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강의를 위해 중앙에 교사가 위치하는 장소를 구성하였고, 그 아래에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체로 강당 내부의 공간은 넓고 천장은 높게 처리되어 있으며, 강당 벽면에는 유학과 관련된 경서의 문구와 서원의 학규 등이 석각되어 걸려있다. 서원들의 내부 가장 안쪽의 벽 상부에는 현판이 주로 걸려있는데 어필인 경우가 많다. 일부 서원에는 장서나 교사의 수업 준비를 위해 강당 동서쪽에 조성된 별도의 방이 있다. 중국 서원의 건축물에는 한국 서원의 온돌과 같은 난방 시설이 없다.

일본의 사숙은 사숙으로서 독립된 건축물을 조영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는 건물을 사숙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건축 기법상 사숙만이 가지는 특별한 독창성은 약하다. 사숙에만 존재하는 장식 보다는 해당 시기에 보편적으로 행한 건축 장식들을 사숙 건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사숙의 강학공간은 특정한 형식이 발견되지 않는다. 관학 중에는 시즈타니학교의 강당이 대표적인데, 전체가 마루로 구성된 단일 전각으로 규모가 크며, 일본의 전통 건축기법을 따르고 있다.

한국 서원에서 각 전각의 건축형식은 평면과 지붕구성 등에서 성리학의 예법에 적합하도록 처리되어 있으면서도 온돌, 마루 등이 조합되어 좌식 생활을 하는 한국 건축의 지역적인 특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강당과 누각 등에서 보이는 주변 경관은 건물 실내 바닥에 앉았을 때의 눈높이에 맞도록 치밀하게 조정되어 있다. 좌식공간은 전각에 드나들 때 신발을 벗고 신는 문제로 인해 건물의 정면과 후면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강당의 후면이 판벽으로 시공된 점, 사우의 위치를 강당의 바로 뒤가 아니라 약간이라도 축을 달리하거나 서로 거리를 둔 점 등은 이러한 한국인의 생활 관습에 기인한다. 또한 한국의 서원을 구성하는 각 전각은 화려한 장식을 가급적 배제하면서 최소한의 건축 부재로 공간을 구성한 특징이 있다. 공포, 초각 등 건물에 사용된 부재에는 장식이 거의 없고, 재사와 강당은 가장 단조로운 건축 구법으로 조영된 경우가 많다. 이는 물질 가치보다 정신 가치를 중히 여긴 성리학의 이상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4. 국내 유사유산과 비교분석한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성리학을 치국 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은 관립인 성균관과 향교, 사립인 서원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들을 설립 주체, 교육 목적, 제향 대상, 터 잡기와 건축 유형 등의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서로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 1) 성균관, 향교와의 비교

성균관과 향교는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관립 교육기관이다. 각 교육기관에는 공통적으로 공자묘를 건립하여 성리학 교육과 더불어 공자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제향을 행하였다. 강당과 공자묘인 대성전을 기본으로 구성된 이러한 형식은 중국의 유학 교육기관과 유사하다. 반면에, 한국의 서원은 민간이 주축이 되어 설립하였다. 서원은 향교와 달리, 성리학 소양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향촌에 설립되었으며, 선현을 제향하였기 때문에 제향 대상 및 제향 의례가 지역 사회와 더 많이 관련된 점이 공자를 제향의 주 대상으로 하는 관립 교육기관과 차별된다.

성균관은 오늘날의 대학 수준의 교육을 하는 교육기구로서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묘인 대성전 등이 있는 제향공간, 강당인 명륜당, 학생들의 기숙사인 재사가 있는 강학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교는 조선시대의 각 읍치에 건립된 교육기구로서 구성 요소 및 건물 배치는 성균관과 비슷하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다. 건물 배치와 공간구성에서 성균관과 향교는 문묘가 있는 제향영역과 강당과 재사가 있는 강학영역으로 구분된다. 성균관과 일부 향교는 문묘가 앞에 배치되고, 그 뒤에 강당과 재사가 구성되어 있으나, 지방의 많은 향교는 앞이 강학공간, 뒤가 제향공간이 되도록 배치되었다. 관학은 또한 거의 대부분이 읍치에 소재하기 때문에 경관과 향교와의 상관관계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반면, 서원의 건축배치는 제향-강학-교류와 유식공간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서원 공간에 위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제향공간이 서원 영역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그 앞에 강학공간이 위치하며, 그리고 교류와 유식공간이 서원의 가장 전면부에 구성되어 있다. 제향과 강학공간은 성균관, 향교와 유사하지만, 지형과 축선 등을 활용하여 제향공간을 가장 신성하게 설정한 점은 서원이 관립 교육기관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류와 유식의 기능이 서원 공간 구성에서 극대화된 것은 관립 교육기관에서는 잘 보이지 않은 배치형식이다.

## 2) 여타 국내 서원과의 비교

조선시대에는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을 한 9개 서원 이외에도 많은 서원들이 건립되었다. 한국에 소재한 서원중에서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을 한 9개 서원은 조선시대의 서원이 교육기관으로 정착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서원이 보유한 속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완전성과 진정성의 측면에서도 ‘한국의 서원’은 한국에 현존하는 여타 서원보다 탁월함을 보여준다. 이것이 단



일 유산이 아닌 9개 서원을 연속유산으로 묶어 ‘하나의 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한 이유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한국적으로 재해석되고 사회 전반에서 성리학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건립되었다. 이 시기 성리학 정착을 주도한 주체들은 지방사회의 지식인들인 사림 세력이다. 사림들은 성리학 교재들을 학습하며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려는 운동을 하였다.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제도와 건축 유형은 초창기인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에 걸쳐 정립되었다. 제향과 강학, 그리고 교류와 유식이라는 기능을 접목한 개별 시설들의 구현, 서원 터 잡기와 배치 형식의 정형화, 건축 구성물의 창의적 기법 등은 이 시기에 기획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서원들이 건립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서원의 건축 유형은 동아시아 유학문화권의 사립 교육 기관 중에서도 독특하면서 차별적이다. 이러한 특성이 한국 서원의 초창기에 정립되었다는 사실은 건축 유형으로서 서원을 이해하는 시기적 지표가 된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면서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건립되어 19세기 말까지 존속한 조선시대의 서원은 모두 16개이며, 그 중에서 2개의 서원은 북한에 소재한다. 현재 접근 가능한 14개 서원을 구성 요소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발전 과정을 입증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소수서원은 교육과 제향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남계서원은 사림에 의한 자발적 기구로서 서원이 운영되기 시작한 기점을 제공하였으며, 옥산서원은 성리학 교육에 관한 자료를, 필암서원은 재정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도동서원은 서원의 구체적 운영규정에 대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사림은 지역사회에 근거한 학맥을 형성하였고, 학맥은 서원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도산서원, 돈암서원이 이러한 사실을 대표적으로 입증한다. 이외에도, 무성서원은 성리학이 서원에서 활동했던 사림들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된 과정을, 병산서원은 서원이 성리학 교육을 넘어, 공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 사실을 입증한다. 이와 같이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의 특성, 성리학 확산에의 기여, 그리고 사림의 사회적 공론 형성과 같은 기반의 제공 등은 ‘한국의 서원’이 여타 서원과 차별성이 큼을 보여준다.

둘째, 서원의 제향 기능은 조선시대 뿐 아니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전통 중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서원에서 제향되는 인물들은 한국 성리학 발전에 기여도가 높다. 특히, ‘한국의 서원’은 서원에 제향된 인물들을 통해 한국 성리학의 전체적 흐름

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성리학의 정착 과정에 기여한 한국의 서원은 또한 조선시대 성리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더하여, 한국의 서원에 제향된 인물들은 한국 성리학의 역사와 사림 활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제향 인물 뿐 아니라 제향의 지속은 조선시대의 서원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다. 14개의 서원들 중에서도, 제향인물과 제향방식에서 9개 서원은 각각 고유한 속성을 잘 보유하고 있다.

셋째, 조선시대의 서원은 교육 기능에서 사회문화적 기능으로 확장되어 지역사회 공론장과 문화센터의 기능을 하였다. 서원의 사회적 기능 중에서 공론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기능한 사실은 만인소·통문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원이 수행한 문화적 기능은 각 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현판, 기문, 고문서, 목판과 같은 유산과 서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남긴 각종 시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서원’에는 여타 서원들보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여타 서원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보존되어 있다. 조선시대 서원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관련하여, 14개의 서원은 지역 사림 활동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9개 서원은 여타 서원보다 사림들의 공론에 기반한 정치적 의사 표현, 지역 공동체의 교화 활동 등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의 정형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입증하며, 이를 증명할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 서원의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서원별로 존재하는 개별 요소들이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원의 터 잡기, 건축물의 배치, 건축 요소들, 그리고 특화된 부분들이 그 대상이 된다.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건축물 배치형식, 전각 건축형식의 비교분석 등에서 설명하였다.

이상 비교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의 서원’은 문화유산이면서 연속유산으로서 조선시대 서원의 속성을 잘 충족시키는 반면, 여타 서원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9개 서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에 이르는 한국 서원의 초기 정착과정 중에 건립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현재 까지도 유형유산으로서 진정성과 완전성을 구비하고 있고, 조선시대 서원의 속성을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을 구비하고 있다.

## 참고문헌

문화재청,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목록 등재신청서), 2018.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 2019. 12.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문화』, 문사철, 2014.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유산 1』, 문사철, 2014.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 2018. 12.

UNESCO/ICCROM/ICOMOS/IUCN,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second edition, 10 March 2011.

UNESCO,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C. 10 July 2019.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 회의 및 세계유산등재 신청서 준비 자료들

## 4. 한국의 서원,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

이해준<sup>11)</sup>

조선시대의 서원은 강학과 학문연구, 선현제향의 기능을 지니면서,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교육, 문화, 지성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지성과 인문학의 전당이었다. 이러한 한국 서원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에 「한국의 서원」 9개소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한국 최초의 서원인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紹修書院, 1543년 건립)과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濫溪書院, 1552년 건립),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 1572년 건립),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陶山書院, 1574년 건립),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 1590년 건립),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道東書院, 1605년 건립),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屏山書院, 1613년 건립),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武城書院, 1615년 건립),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遯巖書院, 1634년 건립)이 그것이다.

이들 한국의 9개 서원은 연속 유산으로서, 16세기 중반 서원 제도의 도입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사회에 서원이 정착하고 발전하는 과정의 역사와 건축적 특징을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증명하는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한국의 9개 서원은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과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서원 특성을 잘 보존·정립한 사례이며, 성리학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어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며 꽃피운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9개 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의 역사와 교육 전통, 제향,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을 통해 유교, 선비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원문화의 전통과 가치, 한국의 서원에 깃들어 있는 교육과 정신, 문화적 전통은 한국의 문화브랜드로서 세계에 그 가치를 새롭게 알리고, 향후 계승과 보존, 활용의 노력들을 함께 해야 할 과제들을 부여받게 되었다.

11) (현)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역사민속학회(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역사문화학회(08-10),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장(11-13), 한국서원학회(11-14),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13-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05-15), 공주대 사학과 교수(94-19) 역임.



## 1. ‘한국의 서원문화’ - 지성과 인문학의 전당 ‘서원’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지성문화의 요람이자 주요 활동장소였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4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고, 강학과 학문연구(藏修), 선현제향의 기능을 지니면서,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교육, 문화, 그리고 지성 활동의 중심점이었고, 한국 정신문화의 저변을 형성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지성과 인문학’의 전당이였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멘토로 삼는 스승의 연고지에 후학과 문인들이 건립하고, 제향과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갔다. 조선의 서원은 제향인물과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별, 학맥별 독특한 사상, 교육 방식, 운영 모습을 지닌다. 서원은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공간이자 상징적 기구로, 일방적인 교육과 지식 전수가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여론과 공론의 결집처로서 지역 지성사의 거점으로 문화적·사회적 활동은 물론 정치적 활동까지 전개하였다.

그런가하면 조선시대의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자료관, 박물관’으로 일컬어질 만큼 다양하고 특징적인 유·무형의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다. 역사와 교육 전통, 제향,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은 바로 이러한 유교, 선비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원은 자연과 학연별로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지역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자, 자료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조선시대 서원은 저명한 성리학자를 추송하는 단순한 제향공간이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즉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과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었고, 나아가 서원에는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역사, 교육, 제향의례, 건축, 기록, 경관, 인물 등)들이 존재하며, 도서 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이루어졌던 거점이었던 것이다. 지성문화의 요람으로 서원에 전해지는 이러한 역사, 교육, 제향, 그리고 인문 지성적 전통 가치는 현대 사회에도 계승, 활용해야 할 의의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 조선 선비문화의 요람, ‘서원’

조선시대 서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이 순흥에 세운 백운동서원을 효시로 이후 400여 년을 존속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자, 지성인들의 집합처로 지역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공간이자 상징적 기구였다.

또 한국의 서원은 지역, 학맥별로 독특한 서원문화를 가지고 있다. 한국서원들은 소수서원이 처음 건립된 이래 그들 세력의 재생산을 위한 학교이며 향촌이나 중앙에서의 사회·정치활동 근거지라는 기능을 가졌다. 서원은 지역별로 많은 사람을 양성하여 정계에 공급하였고, 16세기 후반 마침내 집권을 실현한 이후 18세기 초까지 ‘사람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었다. 서원은 그런 점에서 ‘사람의 시대’를 있게 한 모태였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핵심기구의 하나였다.

즉 서원은 향촌사회의 문화거점이자 지성사적 활동 공간으로, 여론과 공론의 [결집], [소통], [대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이점은 중국·일본의 서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다. 특히 통문, 상소 자료의 시대적 성격과 변천, 그 사회사적 의미는 그런 점에서 중요하며, 정치 및 학술 논쟁과 서원의 기능도 한국 서원의 부각되는 성격인 것이다. 한편 심원록, 고왕록, 부의록 등을 통한 지역 간, 학맥(당론) 간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강학(회), 소회, 창의 등을 통한 서원활동은 매우 중요한 모습의 하나인 것이다.

한편 서원은 사회교육의 장소로 조선시대의 유교문화가 확산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원은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된 곳이다. 인물 ‘제향’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특성이 있는데, 서원은 이들 의례를 통하여 선현의 학덕과 행의를 추앙하고, 예를 중요시 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 처였음을 보여준다.

### 건립의 유서와 제향인물

서원에 제향된 인물의 성격은 서원의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 제향인물의 학문이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이를 선양, 추앙하는 세력이 있었을 때 서원은 건립된다. 특히 각 서원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멘토로 삼는 스승의 연고지에 후학과 문인들이 건립하고, 제향과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갔다. 서원은 제향과 강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조선시대의 관학인 향교와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제향의 중심 대상이 공자와 그의 제자가 아닌 해당 지역과 연고가 있는 선현(先賢)이라는 점, 설립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람이라는 점, 설립의 동기와 배경이 과거 준비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학문하고 수양하는 곳이라는 점, 그리고 설립된 장소가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받는 군현의 소재지나 그 주변이 아니고, 경관이 빼어난 곳이라는 점에서 관학과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서원 건립이 왜 그 시기에, 그곳에, 그리고 어떤 주체세력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서원건립의 유서와 기반은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후학의 양성이나 학행으로 모범을 보였던 유서가 있어 후대에 이를 토대로 서원을 건립하였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의 경우 조선 성리학 발전을 주도하고 대표하는 인물들을 제향 하는 곳이면서 그들의 학맥이 전승, 활성화된 공간이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소수서원(1543) : 성리학 수입한 안향 사당을 백운동에 건립하면서  
유서마련

남계서원(1552) : 정여창의 출생지에 강학공간 마련

옥산서원(1572) : 이언적이 낙향하여 머문 독락당의 유서

도산서원(1574) : 이황이 낙향하여 후학을 양성한 계상·도산서당에서 시작

필암서원(1590) : 김인후의 낙향과 백화정 건립이 유서

도동서원(1605) : 김굉필의 낙향과 쌍계서원 건립이 유서가 됨

병산서원(1613) : 고려 말 풍산유씨의 교육처 풍악서당이 유서가 됨

무성서원(1615) : 최치원의 생사당과 흥학당의 유서

돈암서원(1634) : 김계휘의 정회당과 김장생의 양성당이 강학유서가 됨

등으로 각기 그러한 건립의 배경들을 지니고 있다.

17세기에 이르면 각 지역별로 서원들이 경쟁적으로 건립되어 발전하였고, 학맥과 학파가 형성되면서 향촌사회에서 정치·사회적 활동을 벌이는 세력거점이 되어 갔다.

### 지연과 학연이 맺어준 교류의 장

한국의 서원은 지역별로 지성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이었다. 지역 혹은 학파 단위 영역에서 ‘수원(首院)’으로 일컬어지며 사회적 활동과 공론·여론을 결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특히 9개 서원은 창건 정착기인 16-17세기에 신창유산은 조선 성리학의 학파 형성과 이기론, 예론, 경세론 등에서 다양한 논리들을 마련하였고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였다.

한국 서원이 지닌 가장 특별한 성격으로 지목되는 것은 서원이 사림의 공론을 형성하고, 사족들의 연명상소를 발의하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취회소(聚會所)로서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즉 향촌사족 간 결속의 매개체로 지연과 학맥, 때로는 정파의 연대와 교류의 거점이었다. 서원은 지역별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학술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 혹은 향촌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문이라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통해 향촌유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여론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공론의 형성과 사회사적 역할이

바로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한국 서원의 특성이기도 하였다.

서원은 바로 이러한 공론 형성과 수렴에 있어 그 수합처이자 형성의 주체로서 커다란 기능을 했다. 사림의 집단 활동은 서원의 네트워크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통문이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개였다. 또 통문을 통해 수렴, 형성된 공론을 국가와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서원의 기능 중 하나였다. 연명상소로, 때로는 격렬한 학문토론으로, 혹은 의병의 격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서원은 지방의 사론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7세기 후반 이후 서원이 교육 공간으로의 성격보다 학맥의 구심점이자 공론의 주도처가 되면서, 사림이 회합하고 교류하는 장소로 더 주목되기 시작한다. 교류와 회합의 장소로 특별한 역할을 하였던 공간으로 병산서원 만대루, 남계서원의 풍영루, 필암서원의 확연루, 옥산서원의 무변루 등의 문루는 그 대표적인 건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교류의 모습은 서원에 게판 되어 있는 시문과 차운시, 그리고 백일장은 물론이고, 저명인물들이 남겨둔 시문과 문장들이 전해진다. 이를 통하여 해당 서원이 지닌 문화사적 위상과 지위를 엿볼 수가 있다.

### 유교문화의 자료관, 박물관

그런가하면 한국의 서원은 “유교문화의 자료관, 박물관’으로 일컬어질 만큼 다양하고 특징적인 유형, 무형의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다.

조선시대 서원은 저명한 성리학자를 추송하는 단순한 제향 공간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즉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과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었고, 나아가 서원에는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함께 도서 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이루어졌던 거점이기도 하였다.

서원에는 서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강학 규약, 강학 내용, 평가, 그리고 강학 의례와 관련된 자료, 당시의 학적부라든가, 학칙, 재정, 인적구조, 교육과정, 도서 등등의 전반적인 자료들이 자료로 남겨져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과거 서원에서 어떠한 교육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적 기능 못지않게 많은 고서와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지식의 보물창고였다. 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와 책판은 당시의 서원 관리와 지



적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으로 책의 보급과 열람이 어려웠던 시대에 지식 확산과 문화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청유산에 소장된 많은 고서, 고문서, 그리고 목판들은 신청유산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장서와 함께 서원에서는 출판 기능도 수행하였다. 출판의 내용은 주로 제향인물의 문집, 저작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출판을 위한 목판도 소장하고 있다. 도서관리와 관련해서는 장서목록과 관리대장으로 구분된다. 장서 목록은 서원에 소장된 도서와 관련된 사항이다. 구입, 기증 등과 같은 입수 경로와 장서의 권수 등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관리대장은 정기적으로 포쇄하는 등의 작업 내용을 기록하였다. 포쇄의 횟수, 장서의 보존관리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장서의 양이 많은 소수, 옥산, 도산, 병산서원에는 장서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록한 기록물들도 상당수 보존되어 있다.

## 2. 서원문화의 현대적 계승 가치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조선시대 서원 문화는 학문과 학자를 대우하며, 자기 수양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했던 조선 선비들의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을 상징한다. 그런가하면 한국의 서원은 자연과 학연이 맺어준 교육과 지성의 장이었다. 서원은 지역별로 많은 사람을 양성하여 정계에 공급했고, 문화거점이자 지성사적 활동 공간으로, 여론과 공론의 ‘결집’, ‘소통’, ‘대변’의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정치 및 학술 논쟁과 지역 간, 학맥(당론)간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강학, 강회, 소회, 창 의 등을 통한 활동 등은 조선의 서원만이 지닌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인정받았다.

서원문화에서 보여진 지성들의 개성과 자존심의 삶은 현대지성들이 귀감을 삼고 더욱 부러워해야 할 모범이라 할 만하다. 지성인의 핵심 덕목이라 할 지성사와 도덕적 실천, 어른스러움의 대명사였던 조선의 선비문화가 자랑스럽게,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정신사의 고급브랜드로, 미래 경쟁력으로 되살려졌으면 싶다.

### - 한국 서원문화의 특성과 계승가치

조선시대 서원은 400여 년을 존속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이다. 서원은 성현들을 제향 하는 사우의 역할과 더불어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교육, 문화, 지성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유교문화는 인물과 사상, 철학과 정신, 학문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따라서 한국서원의 가치도 유형의 건축물과 함께 주변 경관, 그 곳에서 생활하며 향유했던 사람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시

시스템이 전승되는 곳이다. 이 같은 서원의 전통적 가치는 현대사회에도 계승, 활용해야 할 가치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 한국의 문화브랜드 : 서원은 한국지성문화의 요람으로 400여 년을 지속 해 온 전통문화유산이다. 서원에 전해지는 역사, 교육, 제향,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은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서원별 독특한 강학, 의례, 도서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 문화 요소까지 포괄하고 있다. 서원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같은 문화전통과 교육기능을 되살리고, 성리학의 상징경관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현대적 교육공간으로 거듭난다면 한국의 ‘문화브랜드’로 그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는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 지성사의 거점 : 서원은 인물과 학맥, 그리고 지성문화를 대표하는 유교문화 유산이다. 서원은 저명 성리학자를 제향 하는 곳으로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거점공간이자 상징적 기구였다. 서원 내에서 젊은 인재들과 그들의 선배들은 일방적 지식의 전수교육이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여론과 공론을 결집하는 집회소로서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다. 또 제향 인물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역사, 철학, 문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교육과 학문의 전당으로서 서원은 한국지성사의 모든 모습을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전통 교육공간 : 서원 본연의 교육적인 기능면에서 보면, 각 서원마다 독특한 교육 방식과 운영의 모습들이 존재했던 개성적 공간이었다. 지역별 학맥, 사상, 교육방식 등은 각 서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원은 이러한 교육사상과 철학을 토대로 한 적절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전통교육(강학)문화의 체험공간으로 활용가능성 또한 높다.
- 상징적 제향의례 : 서원은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 화 된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서원은 진정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인물 ‘제향’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 서원은 이들 의례를 통하여 선현의 학덕과 행의를 추앙하고, 예를 중요시 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 처였음을 보여준다.
- 도서관과 출판기능 : 서원에는 원생들의 교육을 위해 경서(經書)를 비롯하여 역

사서, 그리고 서원의 제향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류 등의 자료들이 보존되었다. 한편 여러 서원에서는 경쟁적으로 서적을 출판하기도 하였는데, 서원이 서적의 출판과 배포라는 기능도 겸하였다. 또한 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고문서 자료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는 자료의 보고였다.

### - 계승, 활용되어야 할 서원문화와 정신

현대사회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共生)’의 공동체의식이 점차 사라져가고, 정신보다는 물질이, 또 오로지 남을 딛고 올라서는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상쟁(相爭)’의 문화가 우리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의 타락과 참된 지성인의 부재가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며, 우리의 현재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미래를 예시할만한 “어른”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들이다.

조선시대는 ‘지성과 도덕’이 존중된 사회였다. 그리고 <양반=선비>의 문화 수준, 지성적 수준은 현대 인문학의 수준보다 훨씬 높았다. 우선 방대한 문집의 량, 관심의 폭(문학, 철학, 역사, 경제학, 기타 종합과학), 학문 이외의 현실적 관심과 대응력, 그런가하면 도덕성과 실천력에 있어서도 현대 지식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명실상부한 실력 집단이었다.

그래서 현대에 정말 더 필요한 것이 선비문화가 아닌가 생각해 보곤 한다. 경쟁, 경제 중심 가치관은 인간성 상실과 가치관의 혼요로 귀결되었고,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과거 선비의 종합적 삶의 가치와 방식이 상정되는 것이다. 그들은 경제가로서의 경쟁력도 있었고, 문화주도 층이자 창조자였으며 양심과 도덕적 실천가였다. 과거사회를 이끌어 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 선비들의 경험 철학 속에는 도덕성, 변화에 대한 비판과 대응력, 진취적 참여와 실천력이 담겨져 있다. 양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제대로 된 선비가 없어서 나라가 망했던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학문과 학자를 대우하며, 자기 수양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 개성과 자존심의 삶은 오히려 현대지성들이 귀감을 삼고 더욱 부러워해야 할 모범이라 할 만하다. 지성인의 핵심 덕목이라 할 지성사와 도덕적 실천, 어른스러움의 대명사였던 조선의 선비문화가 자랑스럽게,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정신사의 고급 브랜드로, 미래 경쟁력으로 되살려졌으면 싶다. 서원은 바로 그러한 인문과 지성문화의 전당이자, 실현 장소이었다. 서원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활용의 필요성, 기대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3. 계승과 활용의 방향

그런데 이상에서 제시한 각 서원별 문화의 계승, 활용과 아울러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의 연계 활용방안도 구상이 필요하다. 「한국의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세계유산협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인류가 함께 보호 관리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다. 「한국의 서원」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교육 시설과 공유하는 점이 많지만, 성리학이 지향하는 사상이 서원에 반영된 건물 배치, 공간 구성, 경관 조성 등을 통해 한국화 된 서원 건축의 속성을 형성한 증거로 평가 받았다. 「한국의 서원」에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문헌들이 소장되어 있고 제례를 비롯한 무형유산들이 전승되고 있다.

이코모스와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등재와 함께 권고사항으로 보호 관리의 측면에서 두 가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하나는 「한국의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한국의 서원」을 관리할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9개의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관리할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유산의 정체성을 회복, 유지하여 다음 세대에게 유산의 속성을 온전하게 물려주자는 데 있다. 이코모스와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두 가지 사항은 9개 「한국의 서원」이 향후 지속가능한 세계유산이 되는데 매우 긴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조직과 종합정비 관리계획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중에 계승, 활용의 부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 서원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다. 특히 이중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은 저명 성리학자를 추승, 제향 하는 공간이자 지역 교육, 의례의 거점 공간으로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다. 서원은 유·무형의 역사, 교육, 제향(의례), 건축, 경관, 문학, 인물 등 다양한 문화유산 종합 보존처로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 도덕적 실천성을 보여주며, 철학적 사색과 문학적 창의성을 도야할 우수한 경관 자원까지 갖추고 있다.



[참조] 서원별 특화 프로그램 연계

서원	서원별 특화 프로그램(예)
소수서원	제향의례문화 체험, 거재유생 강학 체험, 답사기행
남계서원	서원 정신과 문화유산, 일두 정여창의 자취, 서원 유생의 하루
옥산서원	서원유생의 생활문화, 서원문화 경험하기, 문화보존회
도산서원	퇴계학 지성캠프, 서원생 체험, 예던길 유적답사
필암서원	하서의 생애와 학문, 필암서원 바로알기, 하서의 교육방법
도동서원	서원 제대로 답사하기, 사액봉행제, 소학이 주는 메시지
병산서원	류성룡 리더십, 병산서원을 거닐다, 상소 소통의 한마당
무성서원	교화와 흥학의 터전, 서원 관련 유적 답사, 강학과 병오창의
돈암서원	인물 예학 실천의 돈암, 강학, 교육 체험, 서원 유적답사

서원은 한국 전통의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종합문화유산인 동시에 ‘문화와 지성의 세기’에 필적하는 현대적 활용 대상이며, 특히 9개 서원이 지니는 제향인물과 정신사, 유·무형의 서원별 특징과 문화콘텐츠, 문화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한다. 또한 수요층도 연령, 성별, 성격(유림, 철학모임, 문학회, 역사기행동아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원별 차별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학술·교육·체험 프로그램(문학·사상·역사 특강, 이벤트)도 개발하여 현대 인문 지성들의 집회소, 사회교육의 장소,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 문화 재생 활용 공간으로 재 탄생시켰으면 한다.

서원 본연의 교육적인 기능면에서 보면, 각 서원마다 독특한 교육 방식과 운영의 모습들이 존재했던 개성적 공간이었다. 지역별 학맥, 사상, 교육방식 등은 각 서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원은 이러한 교육사상과 철학을 토대로 한 적절한 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전통교육(강학)문화의 체험공간으로 활용가능성 또한 높다.

이를 토대로 특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소재를 예로 들면

- 교육, 유교의례의 문화 체험 : 돈암서원, 도산서원, 무성서원, 소수서원
- 경관, 건축 배치 : 소수서원, 병산서원, 도동서원
- 인물 사상과 학문, 정신사 : 9개 서원
- 제향과 의례 전통 : 소수서원, 옥산서원, 필암서원
- 서원문화 유적답사, 유물(기록) : 9개 서원(도산, 옥산, 필암서원)

등이 우선 지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경관과 기능, 제향 인물의 학문, 사상, 정치적 업적, 여론 및 공론의 결집처로서 서원이 지니는 사회사적 의미, 전통

의례 이외에 각종 사회교육적 측면의 기록들, 다양한 유적과 기록 자료의 보존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 활용을 차별성 있게 만들었으면 한다. 그런가하면 서원의 기능, 특성을 나누어

- 인물 중심의 서원 : 제향 인물과 관련
- 강학 중심의 서원 : 교육 및 학문 활동
- 의례 중심의 서원 : 제향 등 의례와 의식의 이벤트화
- 유물 및 역사자료 중심의 서원 : 전시, 체험, 기행, 답사 등 학습장

등으로 특화하여 개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 - 9개 서원의 연계 활용 구상(안)

이상에서 각 서원별 특화와 활용을 전제로 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면 이제는 9개 서원을 연계하는 활용 구상을 3가지 정도 제안, 상정하여 보고자 한다. 그 제1안으로는 한국의 9개 서원 연계 투어, 제2안으로는 테마별 서원 연계 프로그램, 제3안으로는 서원유림 교류회 등 예안을 제시하여 본다.

- 1안 「한국의 서원문화 투어」 : 이 기획은 영남, 호남, 호서 등 지역 대표 서원을 탐방하여 한국의 대표적 서원이 보여주는 독자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답사 프로그램이다. 9개 서원으로 지역성을 상징하며 그 서원이 지니는 전통, 제향, 조직, 활동 등 각각 독특한 서원문화를 함께 살피고 비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 층은 30명 내외로 9개 서원 유림, 전통문화 관련 대학생 및 대학원생, 문화유산해설사, 문화재 관리자 등 문화유산 관련 인력 등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일정은 1박 2일로 3개 서원을 묶어 월 1회 3개월 연속 운영(코스별 운영, 토요일~일요일)하며, 총 12회로 4개 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면 좋을 듯하다. 운영은 서원전문가(서원관리단, 전문위원)의 인솔, 특강으로 진행하고, 해당 서원들은 안내해설(전문가, 서원장의)과 안내자료 준비하고, 참가자들은 소감 및 답사 기행문을 제출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예상 프로그램과 일정(안)은

- 제1코스 :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 제2코스 : 경주 옥산서원, 대구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 제3코스 :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

으로 하고, 세부 일정은 기획 조정하되 대체로 서원 소개[안내], 건물, 경관, 건축 특

성, 제향, 자료 문서 등[탐방 체험], 제향인물 및 다양한 역사, 활동 설명[특강, 토론], 사색 체험 등등으로 구성하여 각 서원의 특화점이 강조되면서 한국 서원의 공통적 성격이 이해되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 2안 「테마별 서원 연계 프로그램」 : 이 기획안은 한국의 서원 특성을 테마로 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지닌 특징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공감하며 이와 관련된 강의와 심화, 토론을 진행하는 귀중한 활용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의 특별한 성격과 가치를 연계된 서원을 탐방하면서 연속 체험하고, 서원별 비교 체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대체로 테마는 교육 강학, 경관(구곡) 문학, 건축 당호, 제향 의례, 인물사상과 학맥, 도서출판 기능 등으로 세분할 수 있을 듯하다.

대상 층은 30명 내외로 서원 관련 유림이나 제향인물의 후손, 서원관련 연구자, 전통문화 관련 동아리, 서원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등으로 구성한다. 연중 6개 테마로 전·후반기 2회씩 12회를 운영하며, 매월 1회 6개 주제 연속으로 1박 2일(대상 서원은 동선과 주제에 따라 재 선택)한다. 테마별로 특별 강사 및 인솔자를 정하고, 관련 자료집 제작 배포 및 테마별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프로그램 일정계획은 상세하게 다시 구성하여야 할 것이지만 기획과 구상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테마를 학맥, 건축과 경관, 전통 강학과 교육, 제향과 의례, 장서·책판과 고문서로 정한다면 매월 주제와 해당 서원을

- 1월, 7월 : 교육 강학 : 도산, 소수, 옥산, 도동, 무성서원 등 연계
- 2월, 8월 : 경관(구곡) 문학 : 소수, 도산, 도동, 옥산, 병산서원 등 연계
- 3월, 9월 : 건축 당호 : 옥산, 도동, 필암, 남계, 병산서원 등 연계
- 4월, 10월 : 제향 의례 : 소수, 도동, 병산, 돈암, 무성서원 등 연계
- 5월, 11월 : 인물사상 학맥 : 도산, 옥산, 필암, 도동, 돈암서원 등 연계
- 6월, 12월 : 도서·출판 : 소수, 옥산, 도산, 필암서원 등 연계

등으로 선정하여 일정과 동선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예시하여 본다면 ‘서원(書院)의 산수(山水)와 강회(講會) 및 산수실경(山水實景)’ 체험으로 테마를 잡았을 경우 대상 서원을 도산서원[천광운영(天光雲影)], 옥산서원[풍월무변(風月無邊)], 필암서원[확연대공(廓然大公)], 도동서원[추월한수(秋月寒水)], 남계서원[음풍연귀(吟諷詠歸)], 병산서원[취병만대(翠屏晚

처] 등으로 하여 특화된 서원 주변의 경관과 서원의 강회, 시회를 함께 열어 그 성격을 이해하고, 서원 경관과 역사 인물을 노래한 시문을 정리,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창작 발표를 겸하는 방안 등도 좋을 듯하다.

- 3안 「한국 서원유림 교류회」 : 이 기획은 9개 서원의 원임과 유림들의 교류, 연계 프로그램(9개 서원협의회 주관)으로 계승, 활용의 성과와 과제, 방향의 점검 등과 서원별 역사문화 특성과 보존 관리, 계승, 활용의 방향을 협의하고 교류하는 모임이면 좋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세계유산 지정과 함께 권유 받은 한국의 서원문화 발전, 계승을 위한 사후 관리와 운영에 따른 제 문제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듯하다.

대상과 주 참여자는 9개 서원별 5-6명으로 30-40명 내외로 하고 관련 서원 전문가와 서원관리단,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이 함께하면 좋을 듯하다.

1박 2일의 연수와 답사로 지역 간 교류라는 관점을 겸하여 영남권과 호서·호남권으로 나누어 연 2회, 통합 교류 2회로 9개 서원이 분담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듯하다. 개최하는 서원에서는 해당 서원의 제향과 의례, 연혁과 건물 안내해설(전문가, 서원 유사) 자료를 준비하고, 공통의 연수 주제와 초청특강, 발표자, 토론회 준비를 하고, 현대적 의미 계승에 대한 분임토론을 하면 좋을 듯하다.

## - 참고논저

- 이해준, 2009, 「유교문화 자원화를 위한 연구방법론」,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9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도산서원, 2009, 『선비문화체험 수련, 도산서원』, 문화체육관광부
- 이해준, 2011, 「한국 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브랜드위원회
- 이해준 외, 2014,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문사철(공저 책임)
- 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15, 『한국의 서원(9개 서원별) 특화프로그램 계획』
- 이해준 외, 2018, 『한국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공저 책임)
- 이상해,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한국서원학보』 제9호 한국서원학회 2019





## 발행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 사 장 이배용

## 진행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사 무 국 장 박성진  
총무관리팀장 신시섭  
보존관리팀장 박진재  
홍보문화대리 박선영  
보존관리대리 박새은  
축전 팀 주임 김종석  
축전 팀 주임 이예린

## 원고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이배용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상해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이해준

## 집필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前 기획조정팀장 이경동

## 내용자문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상해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이해준  
경북대학교 교수 조재모

## 편집 손웅비

디자인/인쇄 모모새 대표 권대익  
감수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이동구

## 일러두기

1. 이 책은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기획부터 등재까지 모든 과정과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2. 이 책은 등재 추진 일정을 시기순으로 정리하였다.
3. 이 책의 모든 저작권과 사용권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가지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사전허락 없이 본 내용 및 이미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
4. 이 책에 관하여 문의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02-3673-5441~3)